

月刊 建築士 1993년 10월호
총권 294호 (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 12월 31일 제2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October 1993



칼럼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② / 박서홍

회원작품
KBS속초방송국 / 정덕훈
이화여대 행정관 / (주)정림건축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 손명문
EXPO 테크노피아관 / 조재원
EXPO 선정창의관 / 유원재
사당동 쌍림빌딩 / 윤태웅
역삼동 명우빌딩 / 김정식

기고
목동아파트 설계 회고 / 하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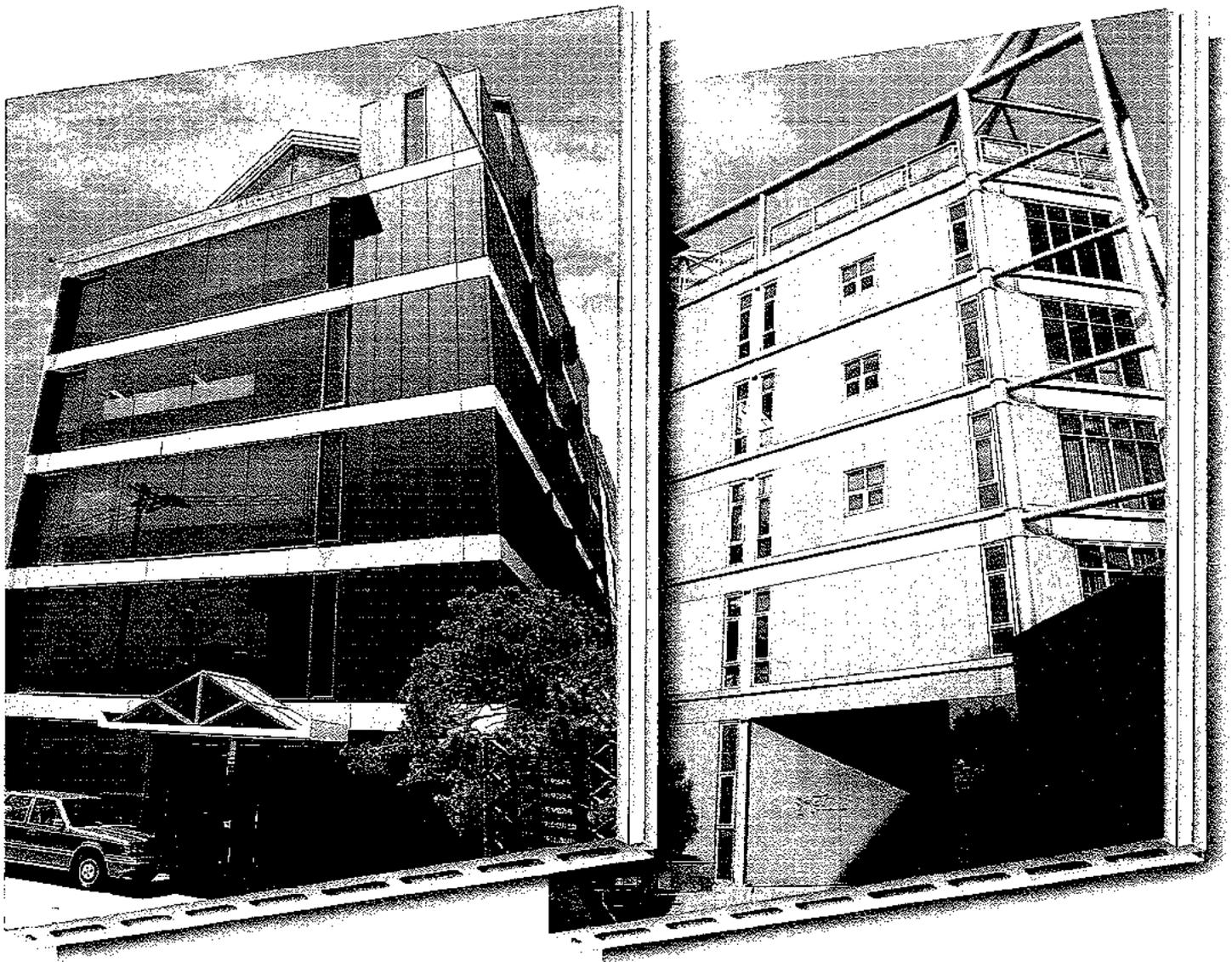
기획연재
한국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③ / 김진애
도심계개발 사업의 지역선정과 구역지정 / 최찬환

건축기행
세계는 넓고 볼 곳은 많다 / 박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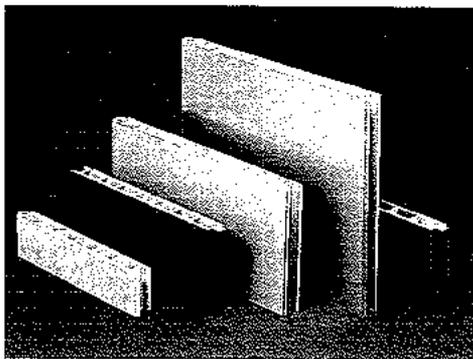
연구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 / 한동수

10
OCTOBER

아름다운 공간에는 어디에나 벽산이 있습니다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지체입니다.

- 경량성 M²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외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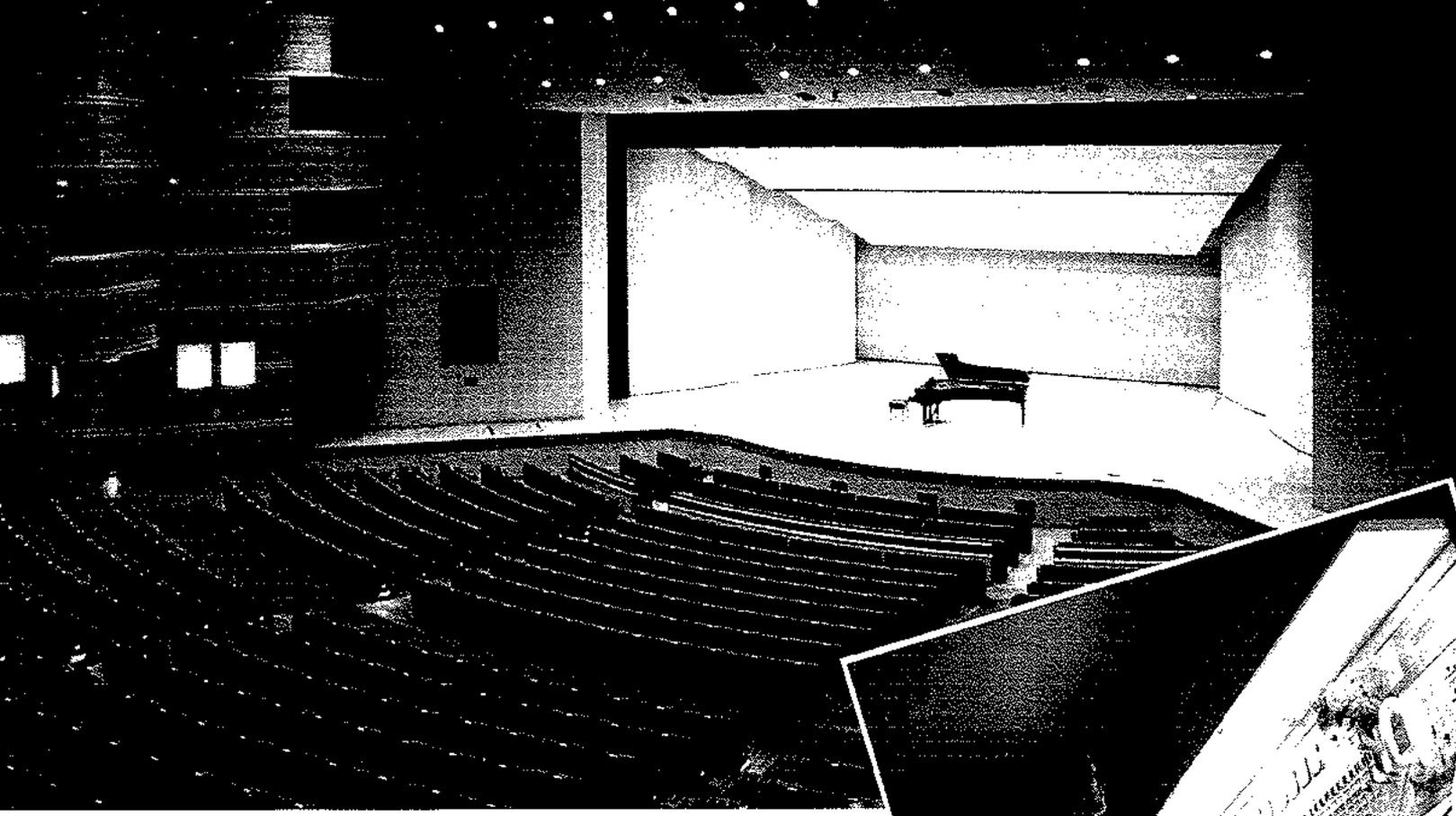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벽산

대표전화 : (02)260-6114
FAX : (02)275-0050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유관순기념관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국립극장
- Ⓞ 충현교회 본당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웨리튼워커히일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계몽센터 예술극장
- Ⓞ 롯데호텔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육군박물관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대전시민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 루복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CONFERENCE ROOM
- BASIC EQUIPMENT SYSTEMS
- SCHOOL STAGE
- THEATRE STAGE
- DESIGN & ENGINEERING
- TELEVISION STUDIO
- MANUFACTURE
- OPERA HOUS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 1997-4184, (02) 632-0216

입고는 즉시 출고는 40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고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고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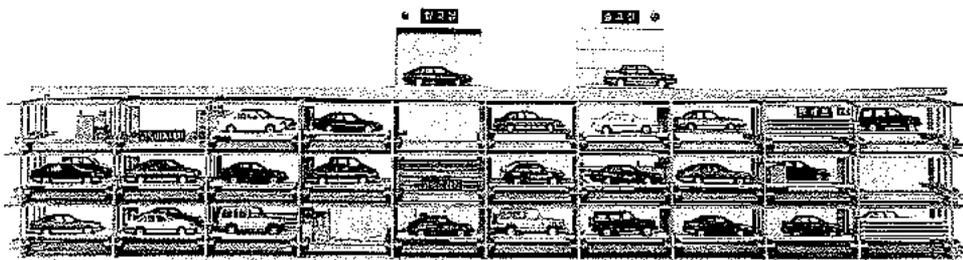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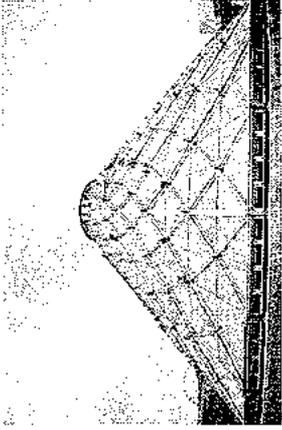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깰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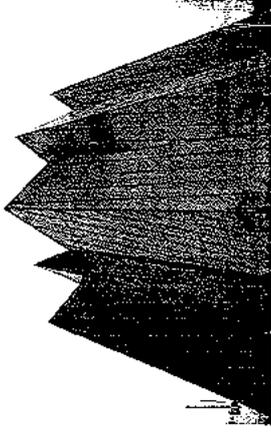


'89 대진엑스포 재벌조형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김성*
외산건축건설 / 이건 FACADE SK60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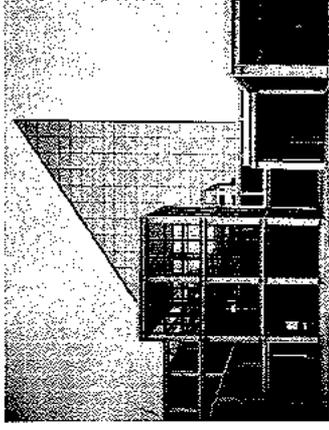
공간문화를 이끌어가는 건축!
건축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창호의 역할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창호가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공인미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하는 데는 창호와 도진의 노력이 컸습니다.
선구자들의 노력은 상상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

이건창호는 이들이 설계하는 내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창호의 새로운 기능성에 도전해 왔습니다.

'미래의 도진'을 주제로 열리는 '93 대진엑스포-이건창호의 새로운 도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 활용을 주제로 선보이는 '재생조형관'



'93 대진엑스포 지구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
(주)쌍용건설 / 이건 FACADE SK60 2-Side SG 사용



'93 대진엑스포 인간과 과학관 / 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대우 / 이건 FACADE SG60 사용

하늬뿐인 지구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구관'
과학과 인간의 끝없는 도진을 보여주는 '인간과 과학관'
이건창호는 설립 이래 계속해온 R & D 노력과 우수한 제품,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이건 FACADE 시스템을 성공하여

미래의 건축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엑스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독일식 창문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며 창호문화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이건창호-내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건창호가 되도록 높은 품질과 기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이건창호시스템

- 본사영업부 · 상설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 563-2071 팩스 563-5528
- 논현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산빌딩 3층 전화 540-2071 팩스 540-2080
- 부산전시장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434-10 서동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팩스 051-557-2077
- 대구전시장 대구시 달서구 김삼동 61-2 전화 053-553-0916 팩스 053-553-0917
- 창원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8-2 영남건축자재판매점내 전화 0551-88-1197 팩스 0551-88-1192
- 제주전시장 제주시 노형동 928-8 골드건축자재판매점 지하 1층 전화 064-41-4301 팩스 064-42-3486



- 건축물부분 K, S, U, L 마크 획득업체/창호건설업면허, 철물건설면허 보유
- 국내 최대규모의 고온 소성용 세라믹 판넬 전문생산 시설 완비(전장140m, 전자동, 원적외선로), 월생산능력 11,000m²
- 전자동 CNC절단, 절곡 밴딩, 수직형(선진국형) 도장방식채택등 완벽한 생산시설로 최고급 품질제품생산

건축 외장재의 미래 - 삼화의 기술로 앞당깁니다.

환상의 최첨단 신소재

세라믹 외장판넬

건자재생산 4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KING!

자본규모 70억(자산규모 200억)의 삼화정밀이 차세대의 신소재인 바인더 타입의

화인세라믹(일명 하이세라믹)을 소재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구비하고, 제2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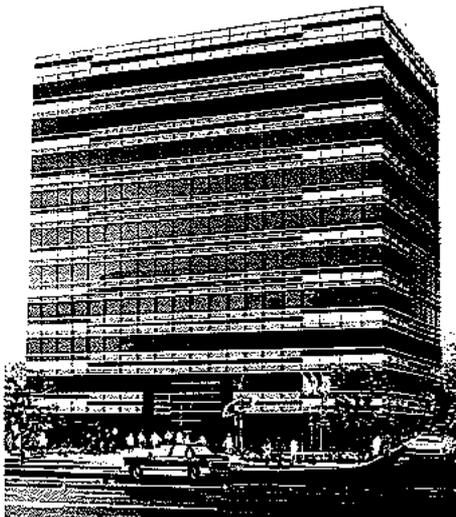
저희 삼화는

대형건축용 세라믹 외장재의 개발과 제공을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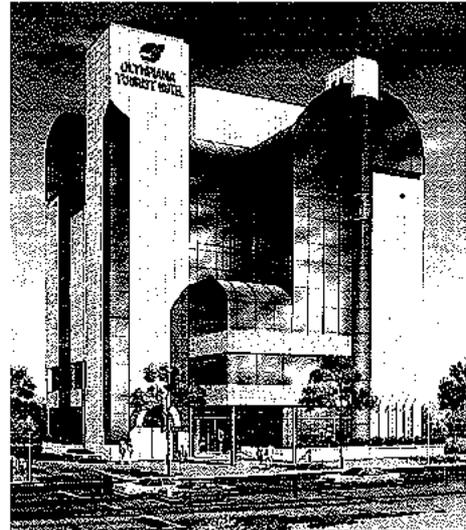
각 기업의 호감도나 이미지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꾀업함과 동시에

기업 매력만들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king[®] CERACO-PANEL-



서초빌딩 (4, 100m²)/한 건축/일신진흥건설



울림피어나 관광호텔 (2, 100m²)/삼정건축/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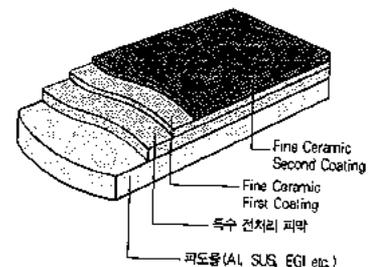
KING CERACO-PANEL이란?

고도로 정제된 순수 무기질인 바인더 타입의 FINE CERAMIC을 알루미늄, 철, 스텐레스 등 광범위한 피도물에 전자동절단, 절곡, 수직형 도장방식을 갖춘 완전자동설비에 의한 최첨단 코팅방법으로 제조된 순수무기질인 화인세라믹(일명 하이세라믹) 제품으로써 철판범광과 불소코팅복합판넬의 단점을 보완시킨 제품입니다.

킹 세라코판넬의 특성

- 초불연성, 초무연성, 초내후성
- 메인テナンス프리의 실현
- 뛰어난 평활도, 폭넓은 외장성
- 경제적 시공성, 뛰어난 가공성
- 원적외선 방사성, 내방진성, 전파방지성
- 외벽 개보수시 호환성, 우수한 단열성
- 청소복원력 우수, 내산, 내염수, 내알칼리성

KING CERACO-PANEL 구성도



제2099호
제5609호



55H5



5615C
5615C



ANSI, A
1級品生産

마크획득업체

정밀 세라믹 코팅

king[®] 三華精密株式会社 SAM HWA PRECISION CO., LTD.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9-9(한국관광사회관 2층)
전화(02)516-2700, 515-7383~5 FAX(02)517-8709
공장/경기도 미금시 평내동 41-1
전화(0346)592-2103

■ 생산품목

세라믹 외장판넬, 세라믹 내장판넬, 후론트
AL창호 및 커튼월, 스텐레스 도어 및 후레임, 자동셔터,
전동셔터, 도어클로저, 후로어 한지, 자동문, 회전문,
배연창 개폐기, 오토한지



인슈그린하우스
INSU GREE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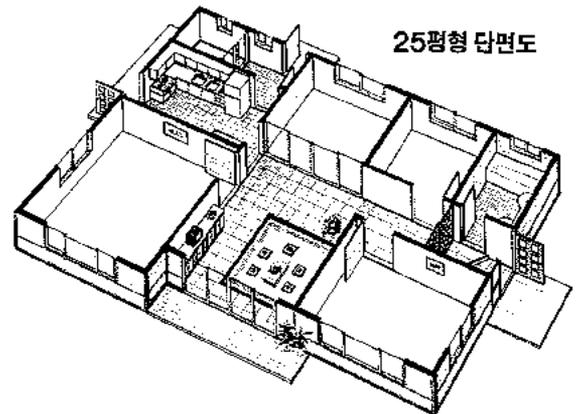
어머니,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농촌의 주거공간 - 인슈 그린하우스가 바뀌드립니다.

힘든 눈·발일 끝내시면
높은 부엌 문지방 오르내리시면서 허리 한 번
펴보시지 못하고 나이드신 고향의 어머니!

'내사, 고향이 좋다' 시는 어머니는 편리한 도시생활도
싫다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나요...
이제 그 푸르른 고향, 좋은 터전 위에 전원주택
인슈그린 하우스가 생깁니다.
어머니 편히 지내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의 편리하고 행복한 집 -
인슈그린 하우스!



25평형 단면도



"노부모님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고, 생활도 편해지니
퇴직후에 저도 여기서 살고 싶군요!"



"영농생활은 물론이고
집안일 하시기도 편하시겠어요!"



"화장실이 깨끗한 욕실과 함께 있어
이제 우리집처럼 편해요!"

첨단 신 건축자재로 시공되는 인슈 그린하우스의 특징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인슈패널 시스템과
다년간 축적된 연합인슈의 노하우로 실현되는 전원주택-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 고급화, 시공 단순화 등으로
기존 주택의 건축공법에 비해 25~30% 저렴하게
시공됩니다.

탁월한 주거기능이 있습니다.

최고의 단열소재 폴리우레탄 폼(PIR)과 1급
불연재 그라스울을 사용하는 전원주택-
구조성과 내구성은 물론이고, 방음, 방수, 방진 기능으로
부터 냉·난방비의 절감효과에 이르기까지 기존 주택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능으로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로부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치밀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연합인슈,
대명건설-
애프터 서비스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주택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평형 전용면적 : 65.6㎡ (19.88평)

23평형 전용면적 : 76.2㎡ (23.1평)

25^A평형 전용면적 : 84.24㎡ (25.53평)

25^B평형 전용면적 : 81.69㎡ (24.76평)

한국의 전통양식을 기초로하여
영농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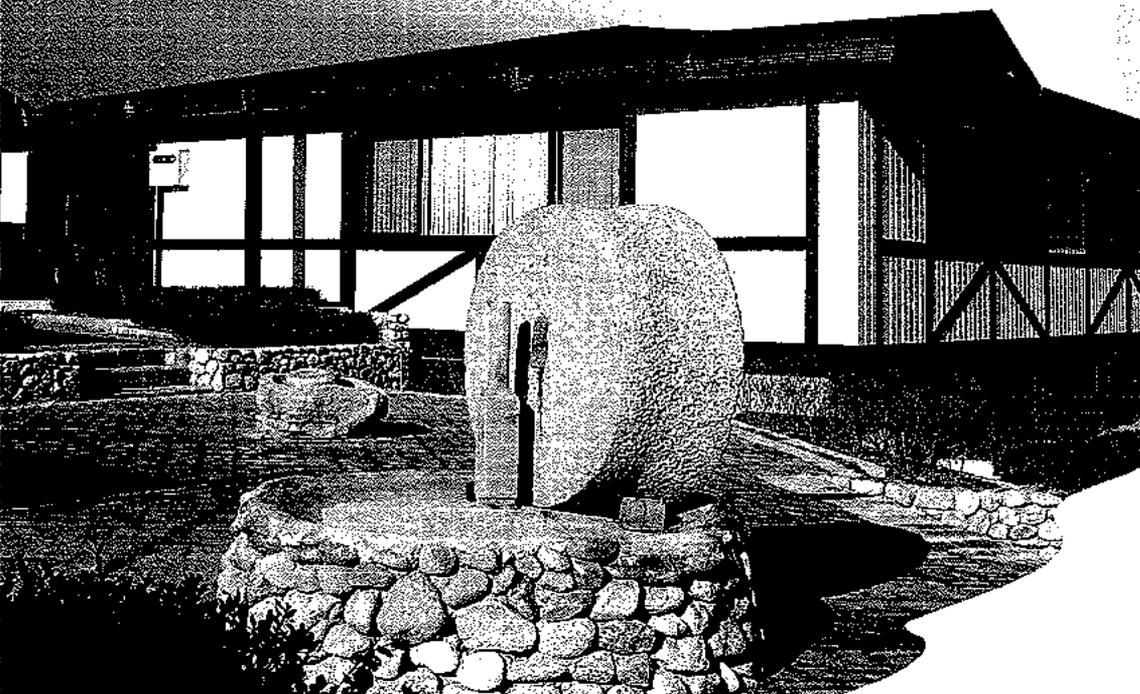
욕실과 세면 시설이 주택 입구에 설치
되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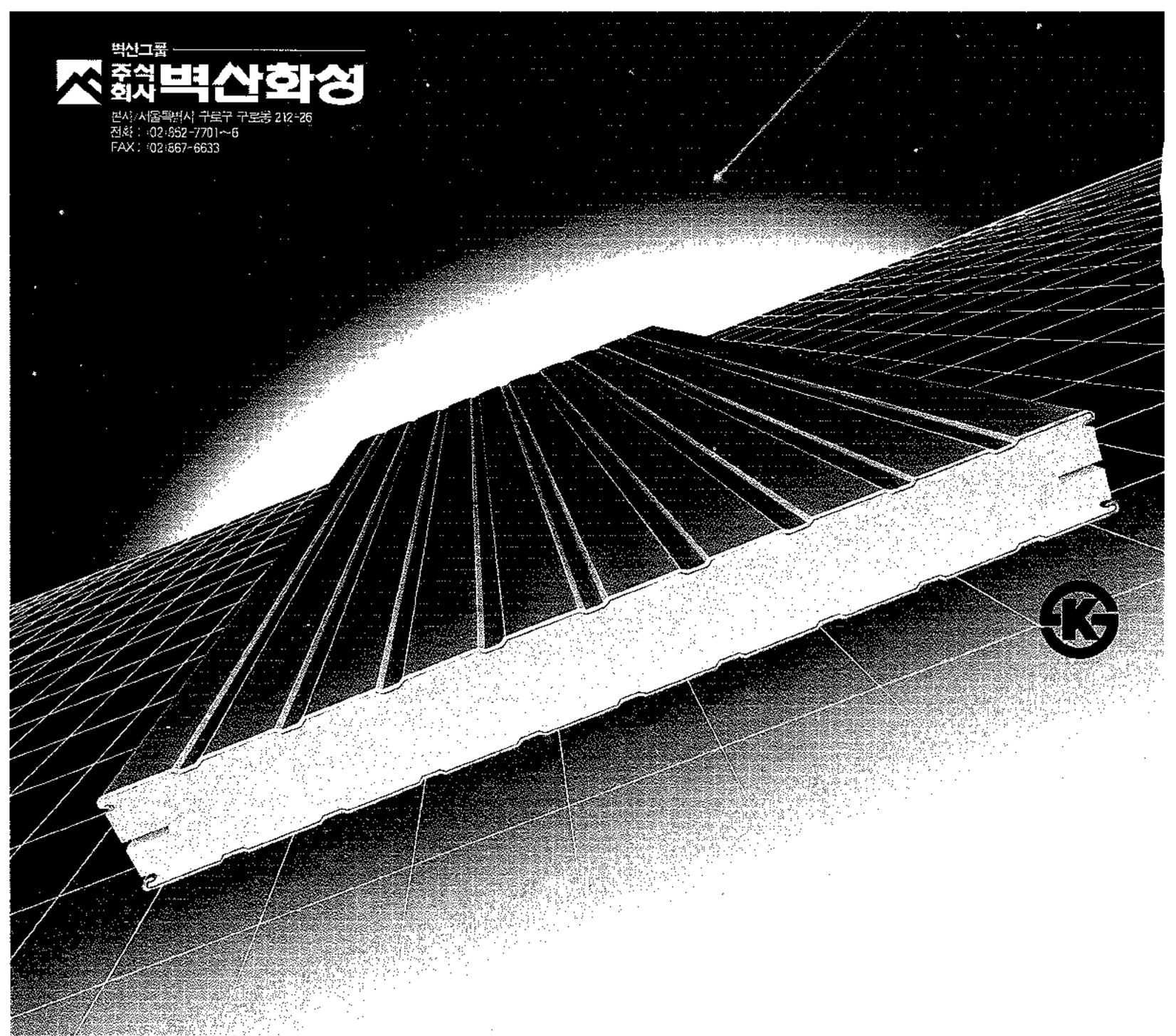
노부모님들을 위한 방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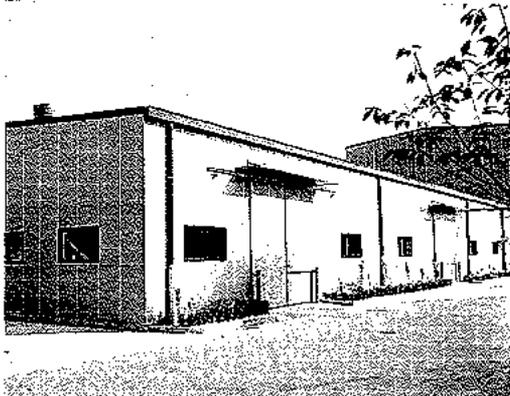
부 설 기 술 연 구 소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전화 : (대) (02) 555-6801, FAX : 553-1851
중앙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전화 : (02) 745-0887, (0338) 34-8880, FAX : (0338) 32-4243
부산사무소 : (051) 616-7701
광주사무소 : (062) 527-7144 대구사무소 : (053) 66-2202





조립식패널의 품질은 중간단열재가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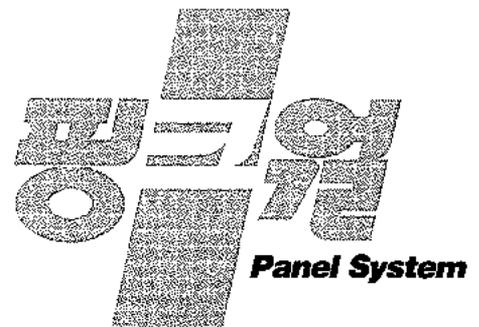


최고급 난연·방수단열재 아이소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그 명성에 걸맞는 품질로 조립식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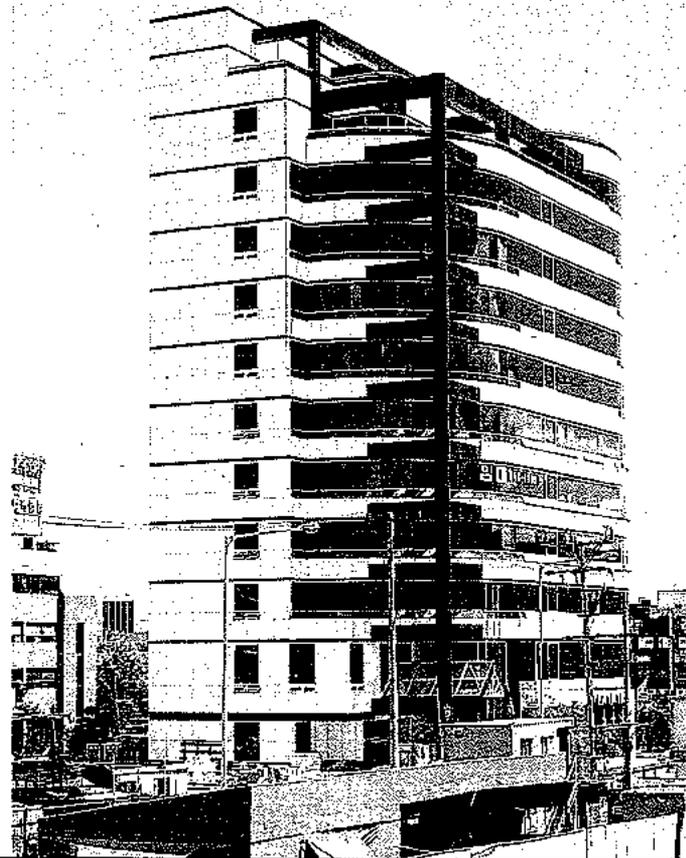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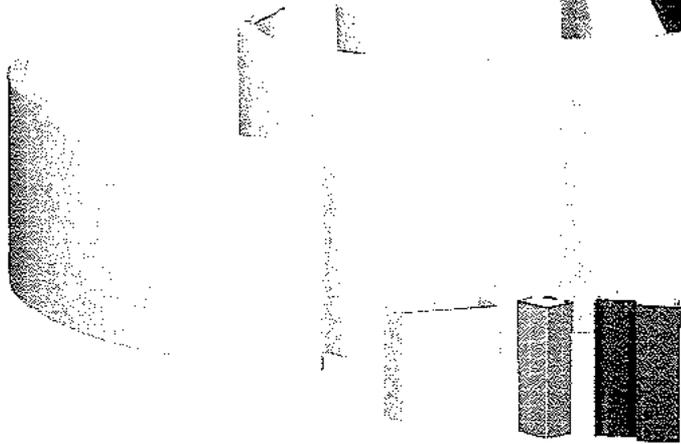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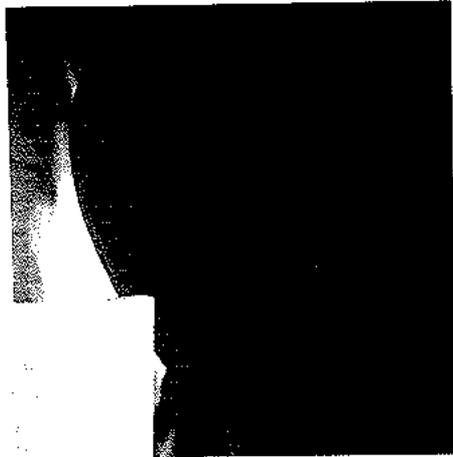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제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더스트리(UCI)사의 진공 압출발포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제인 아이소핑크를 중간 단열재로 사용하여 세계적 명성의 조립식패널 메이커인 네델란드 아이소월 인터내셔널 (ISOWALL INTERNATIONAL B.V.)사의 샌드위치 라미네이트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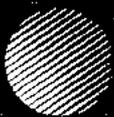
- 핑크월은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핑크월은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핑크월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핑크월은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핑크월은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CERAMETAL®



■ 석촌오래스 BLDG
(@강구 석촌동)
● 임면적 : 3,600㎡
● 시 공 : 박신건물
● 상 계 : 태림건축



(주)금인세라믹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75-14/한일빌딩 11층

대표전화 : 515-8008 FAX : 514-8722

본사·공장 : 충북 증평군 삼척면 송강리 132-1 전화 : (0441)42-7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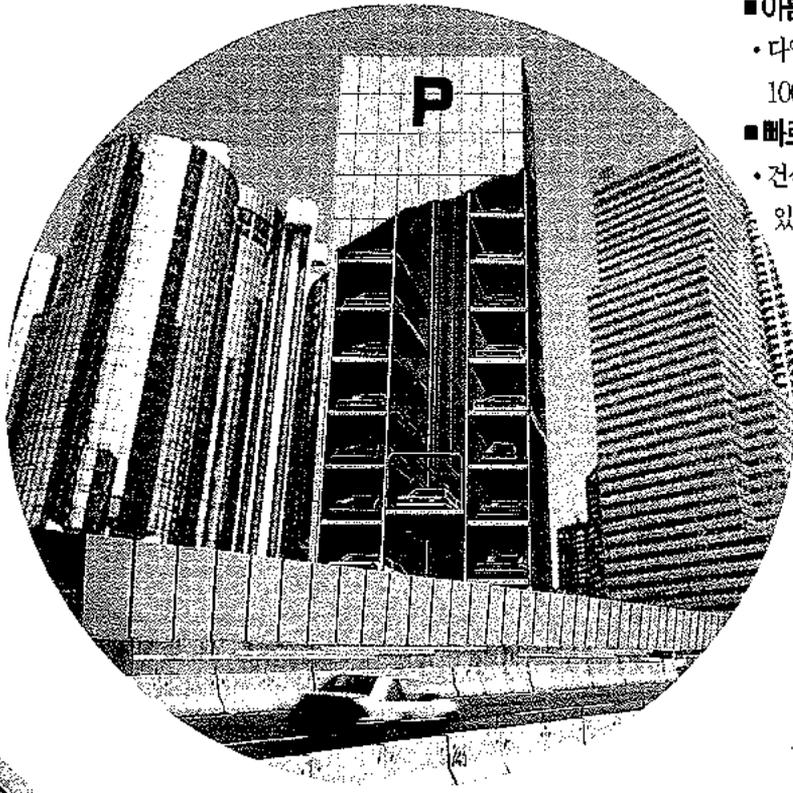
콘크리트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 판넬

신소재의 탁월한 특성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에이스판넬 -
(주)서일건영이 에이스 판넬의 국내생산으로 건축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납품, 시공 실적으로 그 장점이 입증된 서일에이스 판넬 -
이제 판넬재라면 서일 에이스판넬을 주목해 주십시오.

서일에이스판넬

서일 에이스판넬의 특징점

- **얇고 단단하다.**
 - 中空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 건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일 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 타워의 외벽재
- 지하 이중벽

■ ACE란?

(Autoclaved Cement Extrusion)
시멘트 복합소재를 진공압출 한 후, 고온고압의 증기 양생에 의해 완성하는 건축자재 제조분야의 新기술을 뜻합니다.

ACE 공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판넬은 내·외벽재로 적합한 고강도의 전혀 새로운 물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리점 상담문의:

02) 552-0945/ 영업부



주식회사 서일건영

본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8 선릉B/D (代)552-0945
공장: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252-3 (0446)877-2916

협회상징마크 현상공모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발전하는 협회와 건축사의 품위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고자 좀 더 참신하고 특성이 있는 상징마크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제1차 공모

- 1.도안 : 건축조형예술을 상징하며 품위와 멋을 나타낼 것
- 2.크기 : 8절지 켄트지에 15cm×15cm크기로 그릴 것
- 3.색도 : 3도이내
- 4.기타 : 제도법을 명기할 것(200자 이내의 설명문을 첨부할 것)

제2차 공모

- 1.응모 마감 : 1993년 10월 31일
- 2.당선작 발표 : 1993년 11월 10일
- 3.상 금 : 최우수작 1명 / 100만원
가 작 2명 / 50만원
- 4.보 낼 곳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5.기 타

- 1) 당선작품의 사용권은 본협회에 귀속함
- 2)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치 않음
- 3) 우편에 의한 응모는 봉투에 「현상응모작품」을 명기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협회 홍보부로 문의 바람

(TEL : 581-5711~4, 587-8504)



*참고 : 현재 사용중인 마크

대한건축사협회

차례/1993년 10월호 통권 제294호

칼럼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2)/朴舒弘	16
회원작품	KBS 속초 방송국/鄭德薰	18
	이화여대 행정관/(주)정림건축	24
	근화여자 중·고등학교/孫明文	30
	EXPO 테크노피아관/趙載元	36
	EXPO 선경창의관/兪元在	42
	사당동 쌍림빌딩/尹泰雄	48
	역삼동 명우빌딩/金正植	54
계혁작품	안양평촌지구 지하주차장/李世權+朴雲天	60
스케치	담양 죽세공예 진흥단지 계획(안)/南相金	62
기초	목동 아파트 설계 회고/河在鴈	64
	미국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해설/張林鍾+朴舒弘	67
포럼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포럼(IFYA) 참가기/金寬錫	72
건축기행	세계는 넓고 볼 곳은 많다/朴在煥	74
기획연재	한국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3)/金鎮愛	84
	도심재개발 사업의 지역선정과 구역지정/崔燦煥	91
연구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韓東洙	96
특재	1993년 8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04
알려소식		106

發行人: 吳雄錫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鍾寬

委員: 金文圭, 金仁喆, 吳元根,
金相景, 金涼孜, 姜健熙

編輯·取材: 弘報部/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ong-Kwan

Member : Kim, Moon-Kyu | Kim, In-Cheol

Oh, Won-Keun | Kim, Sang-Kyeong

Kim, Kyeong-Jai |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사진: 이화여대 행정관
(설계/(주)정림건축)

CONTENTS VOL. 294. OCTOBER 1993

COLUMN	<i>What is Made us a Criminal? / Park, Seo-Hong</i>	16
WORKS	<i>KBS Sokcho Broadcasting Station / Jeong, Duk-Hoon</i>	18
	<i>Administrative Building, Ehwa Womans University / Junglim Architecture & Engineers</i>	24
	<i>Kim-hwa Girls' Middle & High School / Son, Myung-Moon</i>	30
	<i>EXPO Technopia Hall / Cho, Jae-Won</i>	36
	<i>EXPO Sunkyung Imagination Hall / Yoo, Won-Jae</i>	42
	<i>Ssang Lip Building / Yoon, Tae-Woong</i>	48
	<i>Myungwoo Building / Kim, Jung-Shik</i>	54
PROCESS WORKS	<i>Anyang Pyeongchon Area Underground Paking Space / Lee, Se-Kweon & Park, Wun-Cheon</i>	60
SKETCH	<i>The Bamboo Industrial Art Promotion Center Project / Nam, Sang-Geum</i>	62
FEATURE	<i>Retrospect on the Mokdong Apartment Design / Ha, Jae-An</i>	64
	<i>Explanation on the American Registered Architect Examination / Jang, Lim-Jong & Park, Seo-Hong</i>	67
FORUM	<i>Report on the International Forum of Young Architects / Kim, Kwan-Suk</i>	72
ARCHITECTURE		
TRAVEL	<i>World is wide, and It's a lot of Sights to See / Park, Jae-Hwan</i>	74
REPORT	<i>Innovating Korea Housing Culture, for what and How?(3) / Kim, Jin-Ai</i>	84
	<i>Choiced District and Designation Area of Downtown Redevelopment / Choi, Chan-Hwan</i>	91
	<i>The Ancient Architect of Chinese / Han, Dong-Soo</i>	96
STATISTICS		104
KIFA NEWS		106



전국사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서울특별시건축사협회 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원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1,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원동101-7, 923-6313 · 종로분회/종로구수성동46-18,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성안동275-1, 336-5057 ·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중부교2가14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인원로171129-22, 712-564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회/중랑구연희동166-46, 923-6123 · 성북분회/성북구암전5가110, 923-4401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8-4, 853-4048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 진구 범천동947-18, 28(06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8, (053)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 (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8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6-936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1664-1554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의정부시외곡동182, (0351)876-0458 · 송탄분회/송탄시서경동343-22, (0333)606-6153 · 고양분회/고양구원당읍주교38블럭16롯데, (034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이천군이천읍송리192-1, (0336)635-0545 ·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220-2, (02)684-584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육천동39-5, (035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 (0391)2-2262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2)43-2636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제천시외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상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하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17 · 대천분회/대전시대천동197-10, (043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노송동635-5(대곡빌딩 508), (066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동동1가77-22, (0653)52-3304 · 군산분회/군산시선양동35-4, (0654)445-4060 · 남원분회/남원시하장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83-23(추신회관)(062)364-76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 순천분회/순천시광천동51-11(0661)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중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801-4, (0561)3-4710 ·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 ~8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영주분회/영주시하방3동341-12, (0572)34-5560 · 점촌분회/점촌시중앙동280-3, (0581)53-6677 ·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7, (0582)32-5868 · 경산분회/경산시송남동 859-5, (053)812-6721 · 달성분회/달성군화원읍천내리113-3, (053)1634-6336 · 영천분회/영천시항구동26-10, (0563)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47, (05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진주시성성동7-20, (0591)41-6403 · 충무분회/충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 · 간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43-6090 · 양산분회/양산시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거제군신원읍고현리138-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구동91-6, (0599)1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2)

What is made us a Criminal ?

朴舒弘/단·회산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by Park, Seo-Hong

요즘 이견희 신드롬(Syndrome)이 경·재계를 강타하고 있다. 아니 경제와 재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까지 폭넓게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하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그룹회사의 총수라는 위상을 뛰어넘은 그의 행보는 못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런지도 모른다.

후쿠다 보고서(삼성그룹의 일본인 디자인 고문)로 시작된 그의 대장정은 변화를 외치면서 질(質) 경영의 대안제시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중 귀를 솔깃하게 하는 「건물의 복합화」라는 그의 생각은 단순히 시간적이고 장소적 성격의 통합을 의미한 것이긴 해도 건축에서부터 도시에까지 이르는 폭 넓은 그의 시각은 우리 모두에게 진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사실 건축에서의 복합이라는 단어는 언뜻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의 복합을 떠올리기 쉬우나 그의 사고가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예술과 사회학의 패러다임을 채택 하였음을 상기 한다면 건축으로 정리된 벤츄리의 개념은 영원한 전체(Perceptual Whole)를 구성하는 개별 환경간의 관계로서 파악되어야만 하고 전술한 질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져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양성이라는 인식의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

평소 무심히 지나치는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질이라는 문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설계의 수준에서나 감리의 기준이거나 또는 학교의 설계 과정에서나 혹은 건축사 면허 시험의 기준이거나 간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의식은 최소한의 질에 대한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변화라는 것도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 반드시 문화적 행위를 동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문화적 행위의 결과로서 제공되는 새로운 종류의 발전은 거의 필연적 결과로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성과 역동성이 문화의 본질이고, 새로운 종류의 발전이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접근방법, 혹은 새로운 관행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변화 만능주의가 물고을 파행성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변화를 토대로한 문화가 제공하는 발전은 매우 창의적이고 잠재력을 포함하는 발전이어야 하며 그 문화 또한 인간의 행위와 형태 양식을 형성하는 결정적 인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연초부터 비롯된 제도와 법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쉽게 채유되기 힘든 몸살을 앓고 있다.

거의 한달여의 간격으로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이 이런 모양으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뇌사 상태의 중증으로 격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우려와 함께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가만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의견상으로는 각각 틀린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관통하는 주된 흐름에 있어선 거의 동일한 맥락을 갖는 인식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기성의 사고와 관행은 모두 잘못 되었으니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제도와 법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개혁지상주의적 논리와 비록 변화되어지고 개선하여야 할 개선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너무나 과격하고 급속한 개혁은 곤란하다는 주장의 충돌에서 오는 내부의 소모적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전자나 후자 어느 쪽이든 그 내적 본질에 있어 확실적인 사고거나, 마치 선과 악의 판별같은 2분법적 적용이 사유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라면 그 어느 쪽의 발상이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익히 아는 바와같이 법(法)의 본질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태를 규율하는 통념적 원리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에는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의 그물하에서 인간의 행태가 규범 지어지므로 법이나 법률이 항상 확실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의 추상적 본질에 내재 하여야만 하는 이와같은 불의를(인간사회의 특수한 정황)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자의 입장에서 보편적 명제에 명시할 수는 없으나 법의 적용에 반드시 고려 되어야만 하는 입법의 정신, 다시말해 법적 정의 속에 있는 불의를 고치고, 바로 세우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형평(Epieikes)이라고 정의 했다.

지난 세월 우리는 확실적 사고의 관행이 우리 모두의 삶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만 보아 왔다. 오늘에

“

옳고 그름을 가리되 정당한 수단과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시비를 가리되 중요한 것은 건축인들이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건축계의 응집력이 발휘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명제는 우리들 장래의 영원한 앤티테제 일런지 모르겠다. 혼란한 상황이 정돈되길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이 교환 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제공된다면 건축계의 토론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걸로 기억 될 수 있으리라.

”

이르러서 우리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혁파하지는 사정이 건축계에 바람으로 몰려 오면서 형평에 어긋난 확실성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인권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매스컴을 장식했던 300여명에 이르는 강리 위법(!) 건축사들의 프라이버시를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들 중 확실적 사고의 관행이 빛은 억울한 경우는 진정코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에 가해진 인권유린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중세라고 지칭하는 기간을 우리는 암흑시기로 이해하고 있다. 이론이 결핍된 시기라하여 이름지어진 그 시기의 성격에 관해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이라고 할 때 과연 중세에는 논리가 없었던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후일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정리된 기독교 정신만이 유일무이하면서 강력한 초법적 이론으로서 모든 것의 중심에 위치하였음을 상기한다면 다녀 재판같은 야만적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논리가 있었음이 하등 이상할게 없다. 당시의 논리의 중심에 위치하였던 교리가 이름하여 혐의의 원칙(Principle of Suspicion)이다.

증거재판주의라는 용어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이단이라는 혐의만으로 사람의 생과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오늘날 서양고전건축의 대표적 모습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는 중세 고딕 건축이 당시는 물론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저질 건축이라고 평가 절하 될때의 기준 역시 이분법적인 절대적 시각이었다.

고딕 건축은 감성이나 감정에 의해 설계된 것이고 이성에 의한 요소가 배척 되었으므로 훌륭한 건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의 시각이 오늘의 우리 한국 건축계의 진보적 휴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혐의의 원칙과 또한 동질성의 일치를 보이는 것, 이것 역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대가 인정하여야만 할 사실이다. 반면 나이 많음과 경험 많음의 의미를 철저히 무시해 버리는 신세대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월은 시간이 약이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자신들만의 믿음에

뉘여서 도덕적 우월감에 스스로 빠져 있는 보수적 휴머니스트들의 이분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절묘하기까지한 균형감각, 이것 역시 내일을 준비하여야 하는 우리들 세대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일런지도 모른다. 어차피 수습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의 모습이 우리의 실체라면, 그 실체의 밑바닥 경계까지 파고 들어가 「우리를 억압 하고 있는 체제」의 모순을 한번 밝혀 봄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현대 문명의 위기가 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데 있다는 문명비평가들의 논술을 한번쯤 긍정해 본다면 그들이 해결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의 확장〉이라는 방법론 역시 좋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

지극히 비능률적인 요소를 갖고 있긴 해도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누구나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이란 다수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함도 사실이다. 설령 그 소수의 견해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라 해도 그의 기본권이 유린 당해서는 더욱 안된다. 민주주의는 수단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이 선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역사란 선과 악의 투쟁의 공간이었고, 선은 기필코 악을 이긴다는, 따라서 악에 대한 선의 승리만이 가장 정의롭다는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 건축계의 중심권에 많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며, 타자의 언술에 좌우되는 우리의 미래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옳고 그름을 가리되 정당한 수단과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시비를 가리되 중요한 것은 건축인들이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건축계의 응집력이 발휘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명제는 우리들 장래의 영원한 앤티테제 일런지 모르겠다. 혼란한 상황이 정돈되길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이 교환 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제공된다면 건축계의 토론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걸로 기억 될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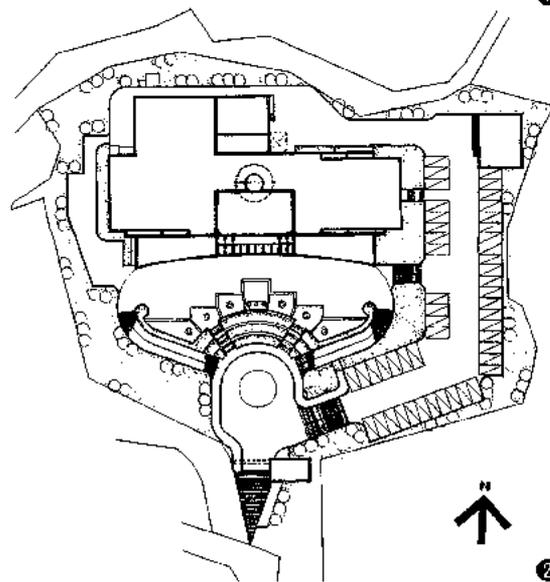
KBS속초방송국

KBS Sokcho Broadcasting Station

鄭德薰/종합건축사 사무소 청전건축
Designed by Jeong, Duk-Hoon



위치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2
 대지면적 / 7,147m²
 건축면적 / 1,696.7m²
 연면적 / 4,351.4m²
 건폐율 / 23.7%
 용적률 / 48.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외장용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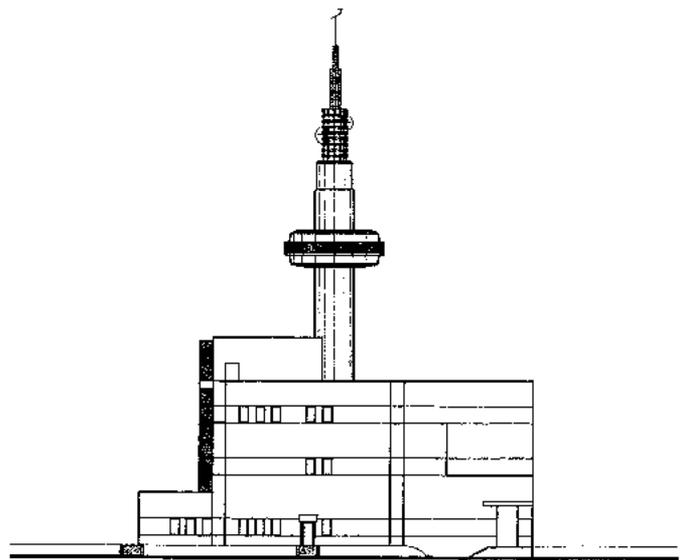
- ① 남측전경
- ② 배치도
- ③ 남서측 전경
- ④ 1층 피로티 상세
- ⑤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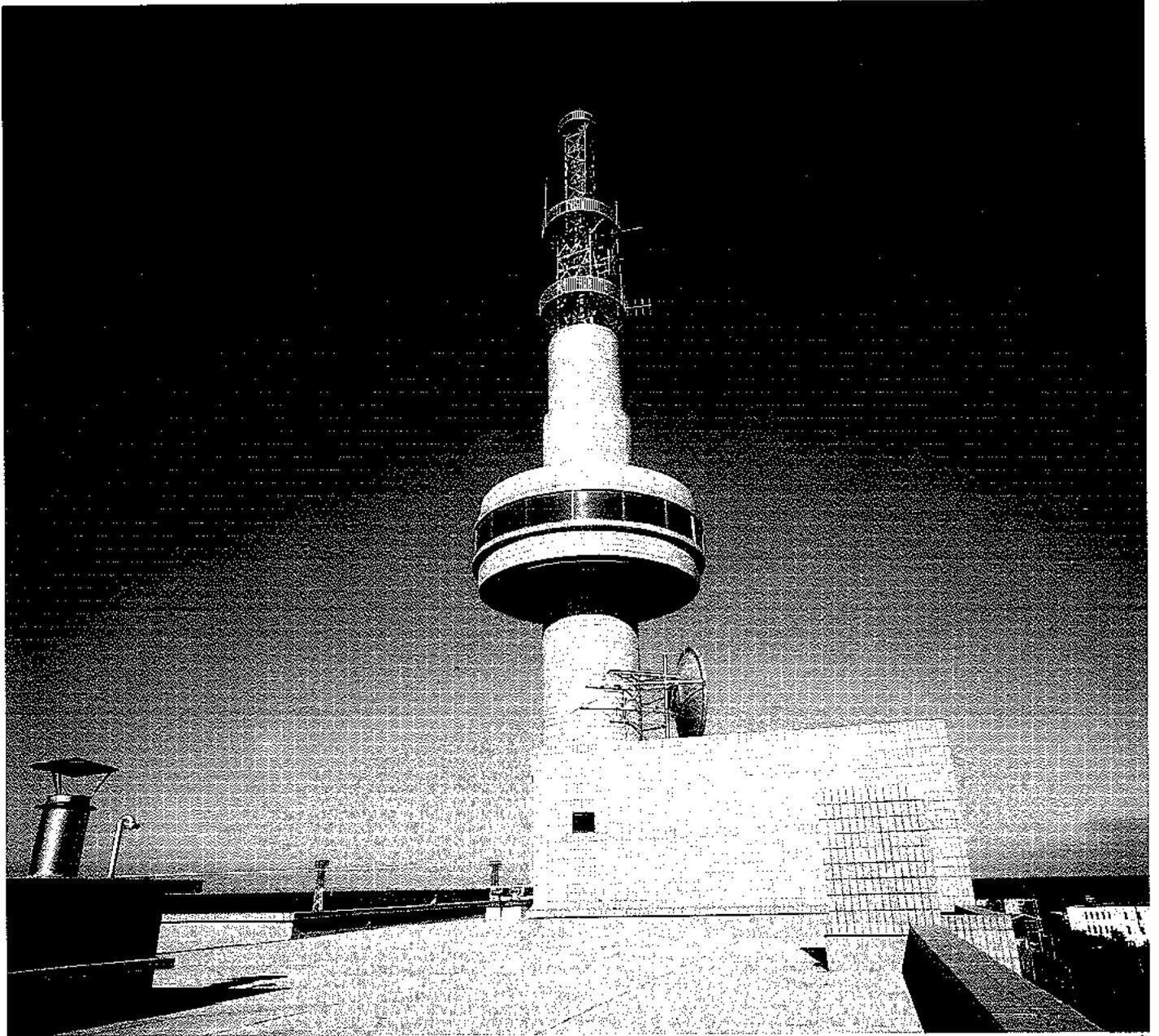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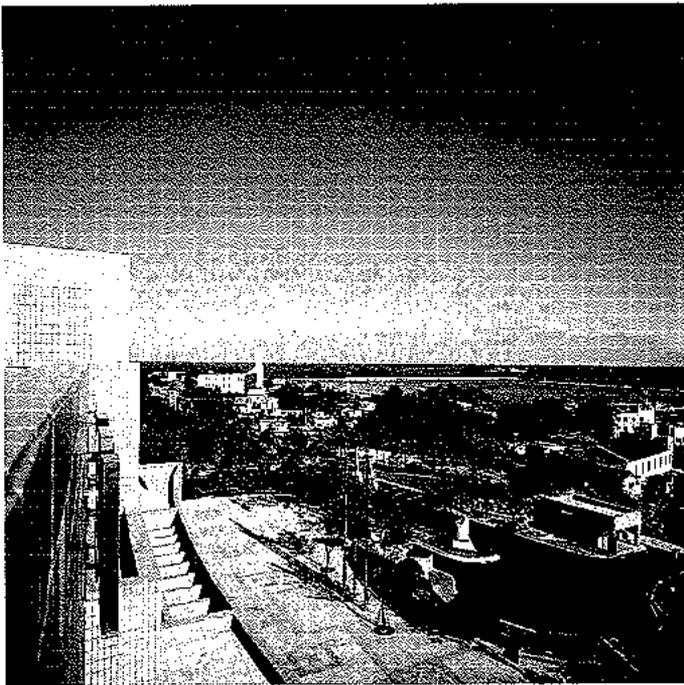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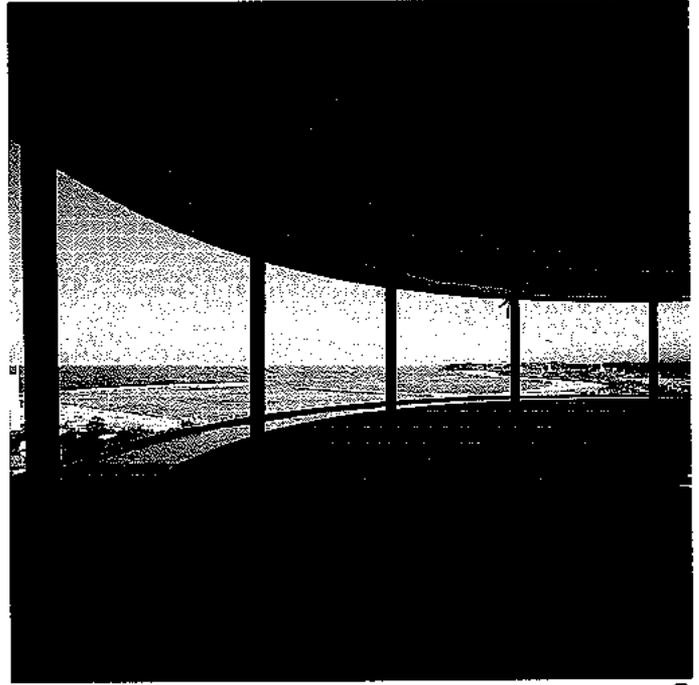
⑤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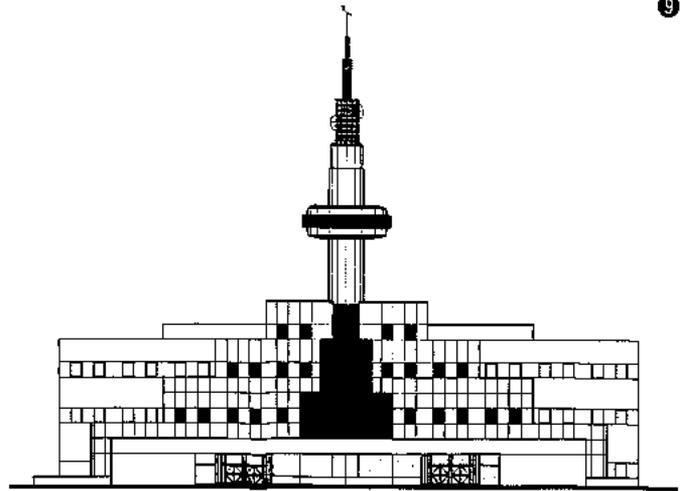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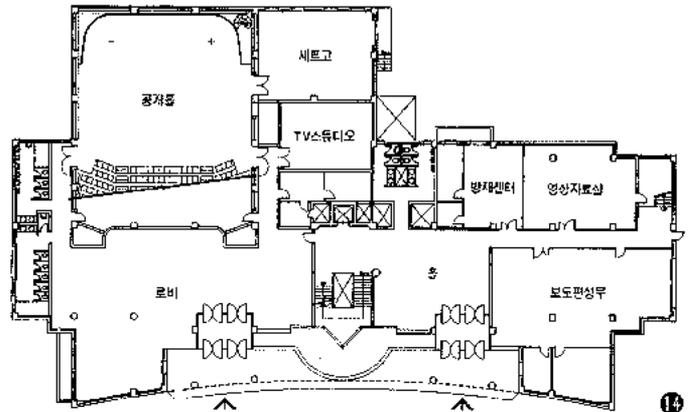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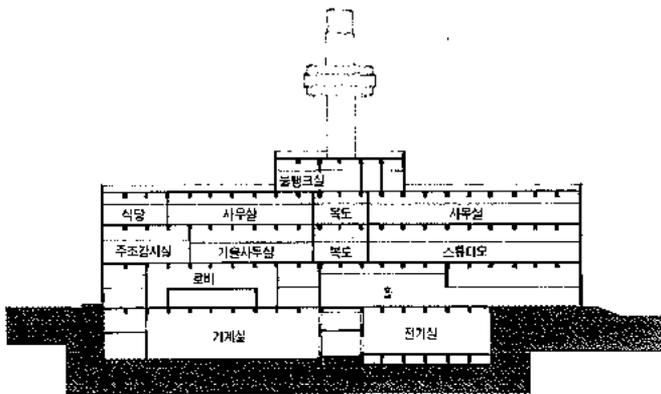


11

- ⑥ 전망대 상세
- ⑦ 2층에서 본 전면 광장
- ⑧ 전망대에서 본 외부
- ⑨ 1층 로비
- ⑩ 계단실 내부
- ⑪ 절면도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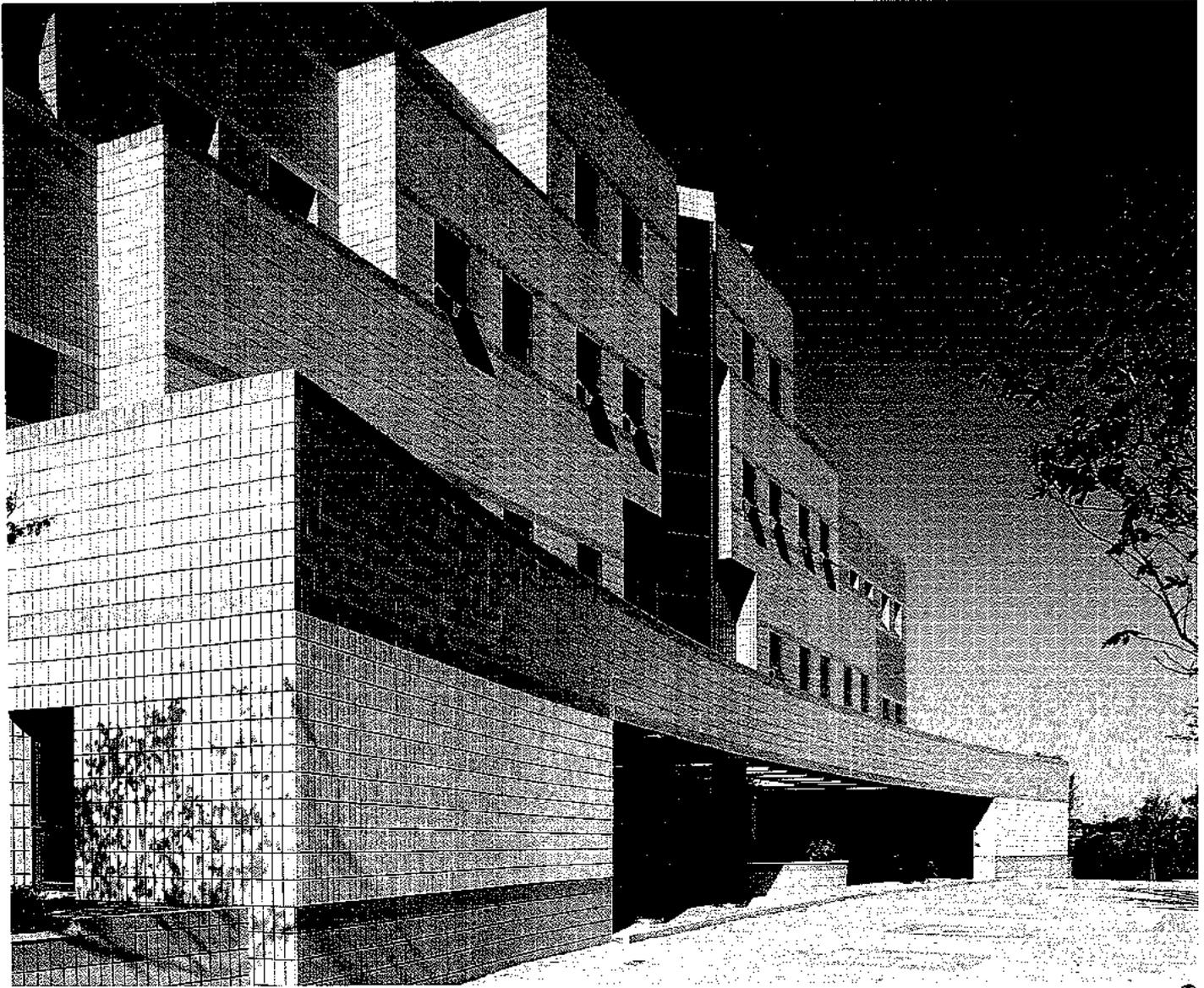
본 프로젝트의 부지는 주변의 낮은 대지들로 둘러싸여 점층적으로 봉우리를 형성하며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관형태 역시 굴절형식과 대칭성을 강조, 점층적 파사드를 구성하며 중량감을 낮추었고 동시에 힘과 상승감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또한 수평면과 대지전체를 포용하는 듯한 완만한 곡선형 지층부로 하여금 대지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부지의 여건이 부지의 북으로는 영랑호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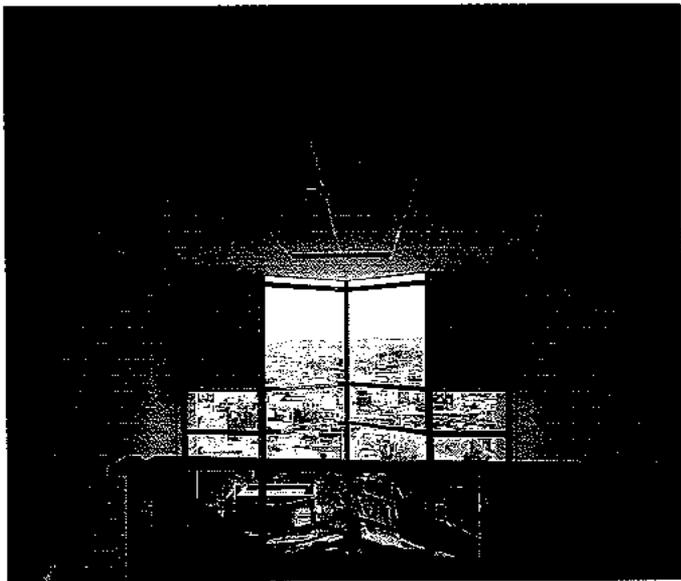
으로는 청초호 그리고 동해와 설악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장소성을 갖는 건물이기에 자연스럽게 Gazebo의 설치를 유도하였으며 전망대에서의 적극적인 조망과 더불어 각실에서의 Punched window를 통해서는 언뜻언뜻 보이는 수려한 외관이 잠재의식 속에 호기심으로 작용, 차별한 분위기를 유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건축물 대부분이 그러하듯 갖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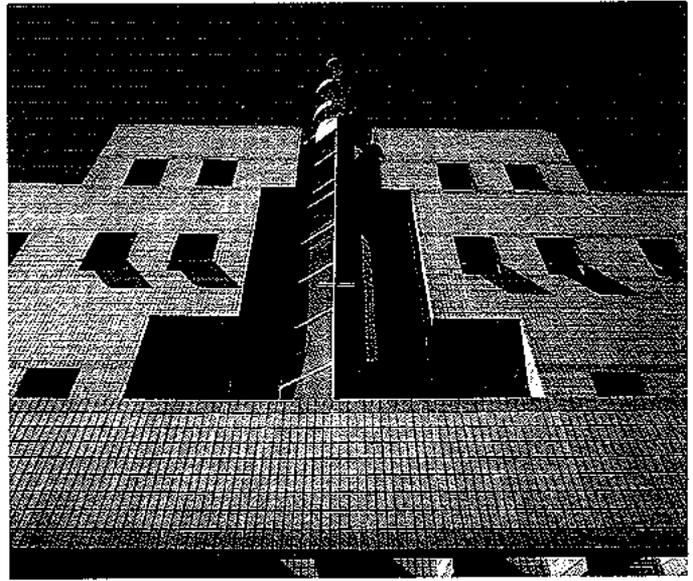
요구되는 동선처리등, 건축주의 계획지침의 일관성 결여는 결국 이번 프로젝트 역시 설계자의 손끝을 떠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건물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동해안 시대의 북방교역에 대비하고 지자체 실사때문 지방화 시대에 요구하는 정보화 시대의 방송기능을 충족시키며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과 속초시의 랜드마크·속초항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15



16



17

- 12 남동측 전경
- 13 단면도
- 14 1층 평면도
- 15 남서측에서 본 외부상세
- 16 계단실에서 본 외부
- 17 올라다 본 전면외벽과 전망탑

이화여대 행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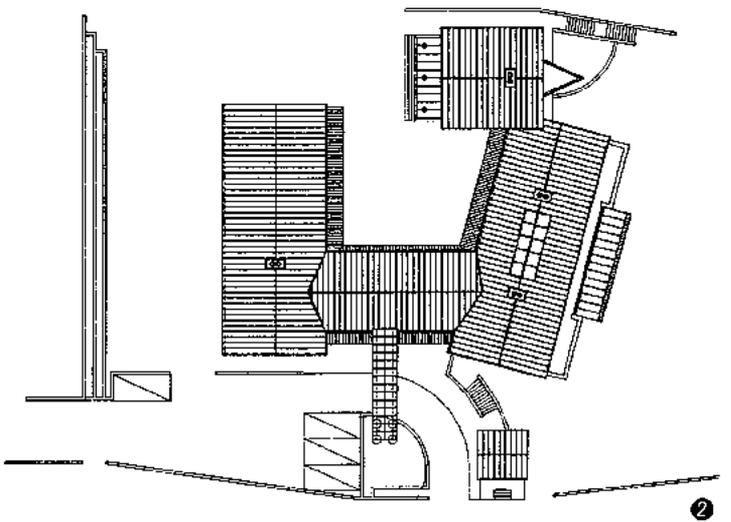
Administrative Building, Ehwa Womans University

(주)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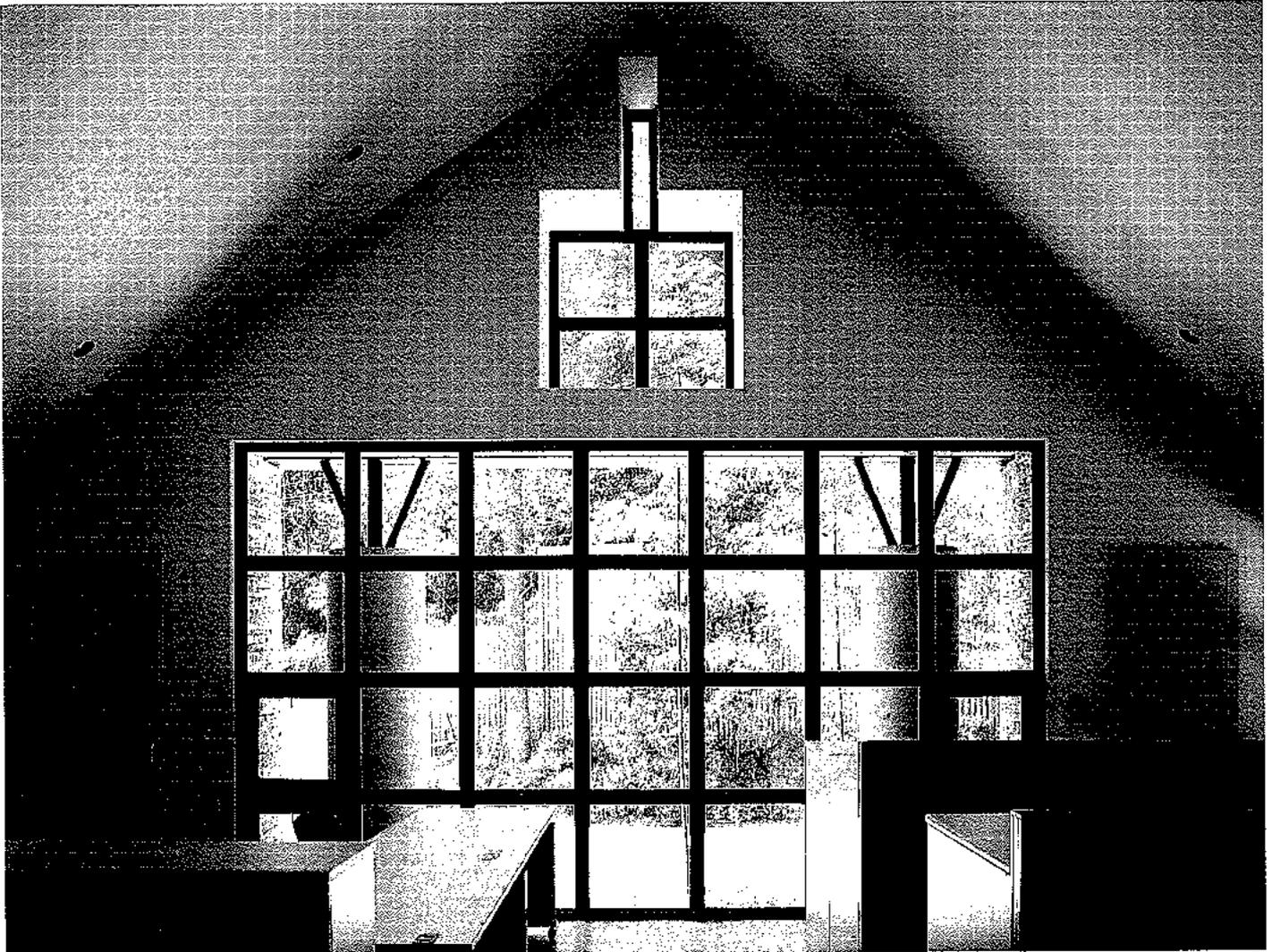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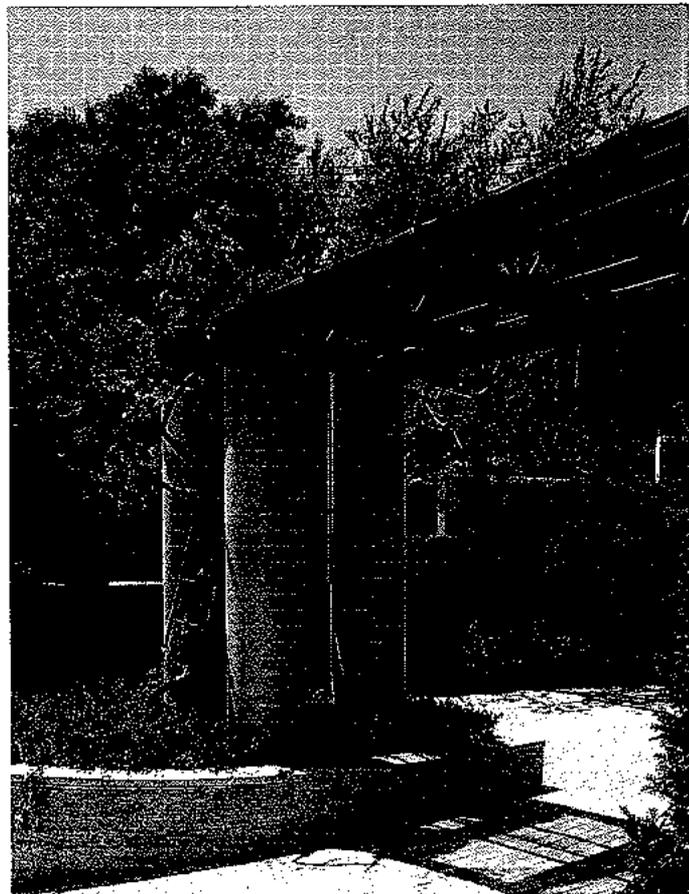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6일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풍지지구
 대지면적 / 5,701㎡
 건축면적 / 567.59㎡
 연면적 / 799.11㎡
 건폐율 / 9.16%
 용적률 / 12.62%
 규모 / 지하 2층,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화강석 판석 쌓기
 지붕-동판잇기
 주차대수 / 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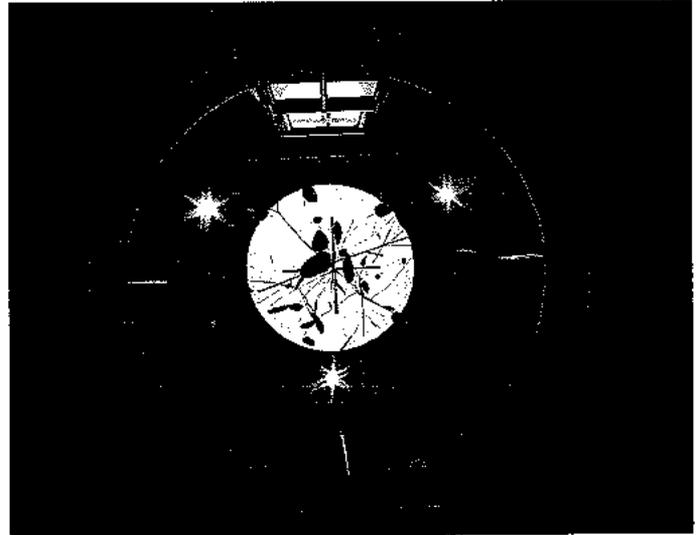
- ① 서측입면
- ② 배치도
- ③ 사무동 내부
- ④ 전면통로 기동상세
- ⑤ 대연회장 상부의 광전
- ⑥ 황단면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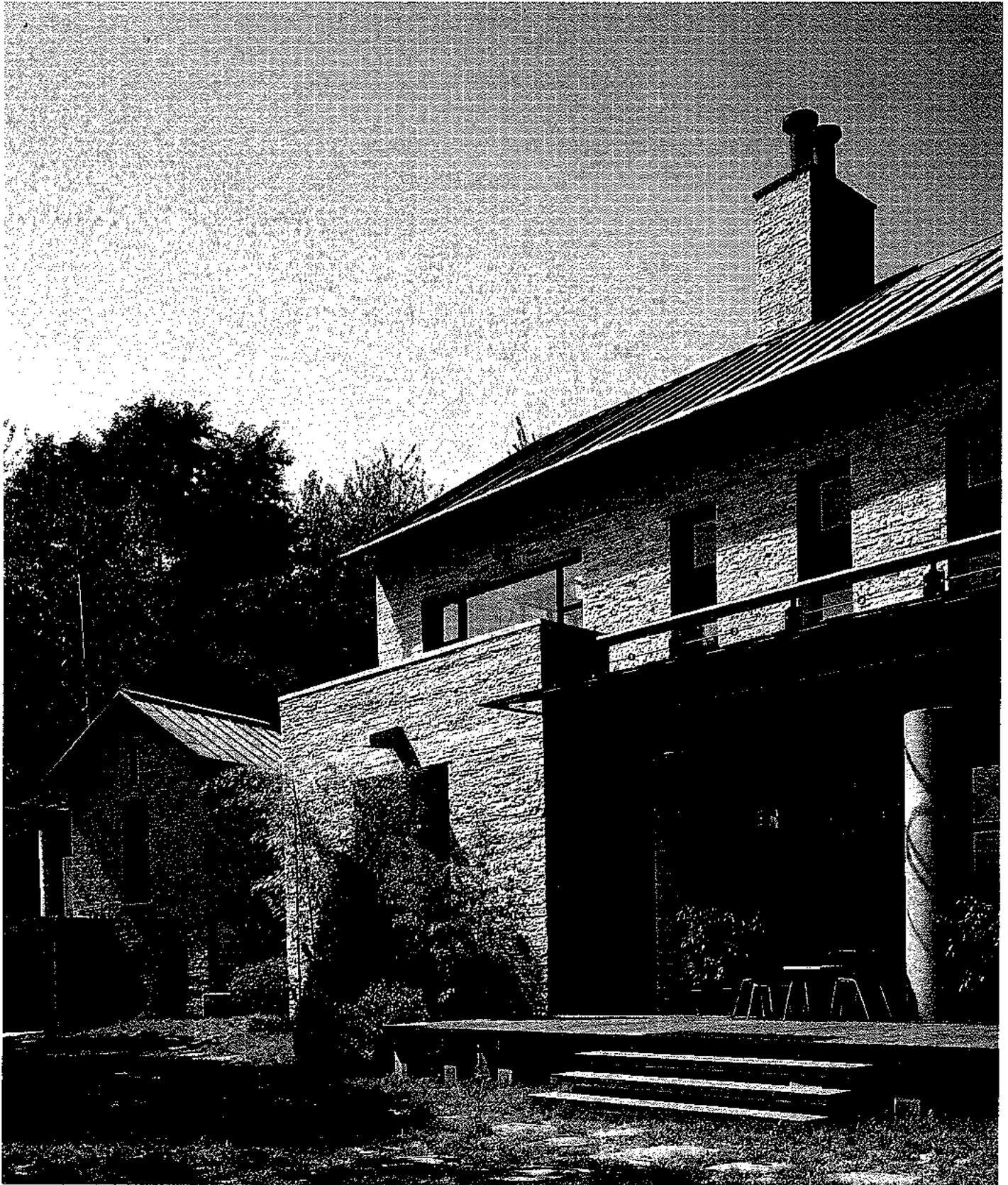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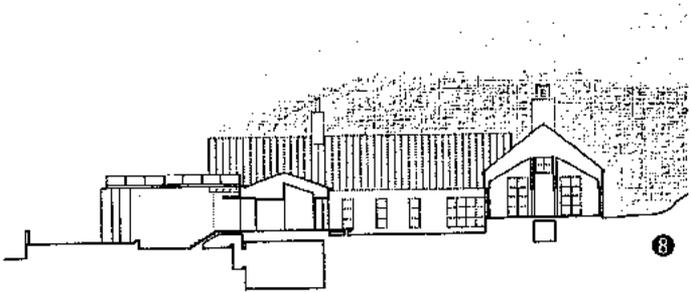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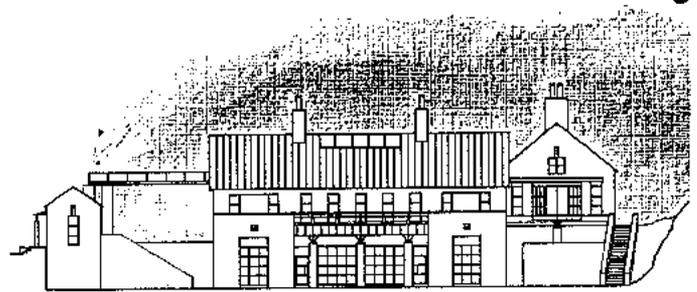
6



7



8



9



10



11



12



13

- ⑦ 수위실과 남측전경
- ⑧ 종단면도
- ⑨ 남측입면도
- ⑩ 주출입구에서 본 서측 정면
- ⑪ 수위실과 주출입구
- ⑫ 진입 경사로부터 본 서측 입면
- ⑬ 회랑에서 바라본 사무동

건물을 대지에 앉히는 배치계획을 하면서 대지의 연건과, 특징, 프로그램의 다양함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정면에 대해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서울의 반이 내려다 보이는 듯한 탁트인 남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삼면이 수려한 산림에 묻혀있는 자연적인 조건 또한 잘 활용해야 한다. 건물을 안마당을 중심으로 'C'자형으로 분산 배치하고, 건물 내부에서의 전망, 기존 구조물, 지형 등에 따라 편안한 곳에 건물을 앉힌 결과 90°체계의 공간에서 미묘한 각도로 기울어진 배치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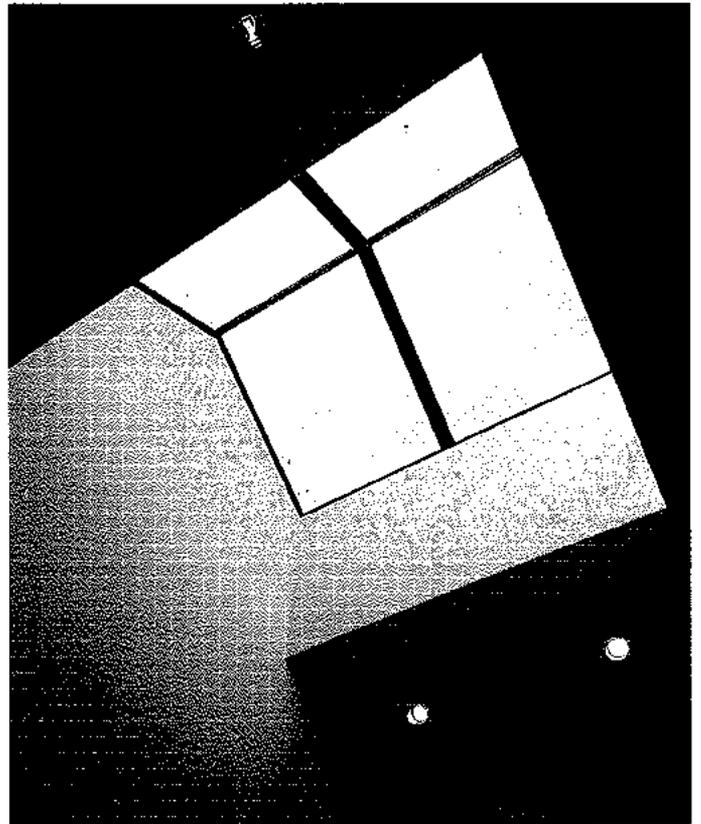
행정동임과 동시에 재단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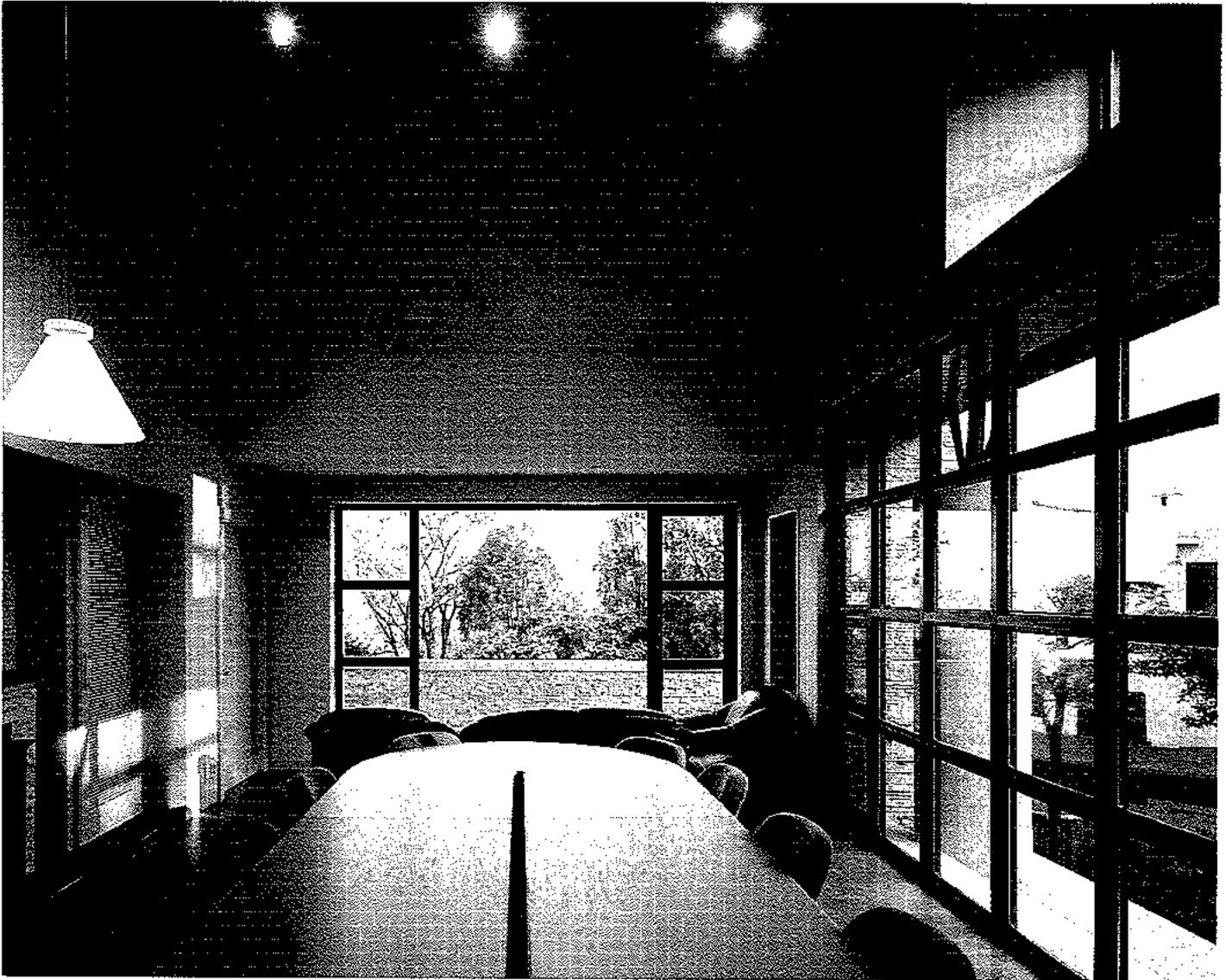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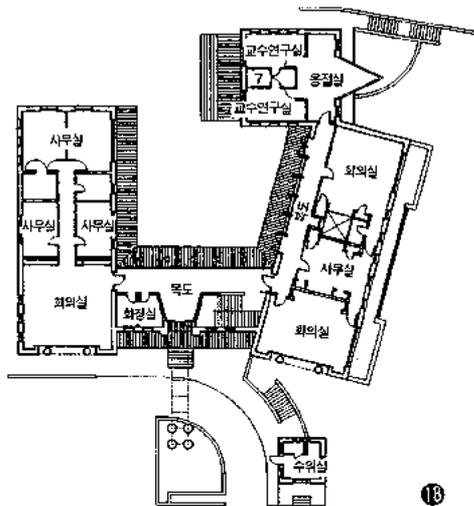
16



17

건물의 위상 또한 이번 설계이미지 구성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화여자대학 건물이 갖는 고유한 건축적 문맥을 유지하며 여학교로서의 부드러움과 재단사무실로서의 위계표현이 요청된다. 아카데미 고딕양식으로 대변되는 기존건물의 이미지와 동관 지붕에 화강석 외장이 풍기는 고전적인 양식과 20세기 사회 발전의 분산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동시에 전달해야만 한다. 또한 상이한 기능이 혼재된 프로그램을 평면상으로 구분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사장과 재단이사가 사용하게되는 사적공간과 재단의 사무실이 있는 공적인 영역 그리고 대회의실과 같은 집회의 공간 및 교수 연구실 및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기능 등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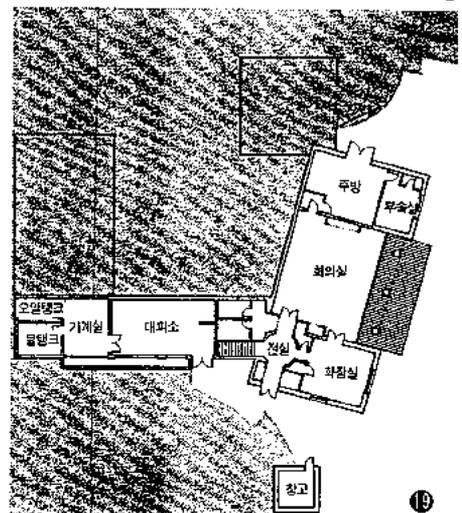
기능들간의 중요도나 외부 자연조건들을 고려하여 각각 같은 기능 유사한 기능을 한데 묶어 별개의 동으로 형성하여 각각의 동을 안마당, 바깥마당을 좌우로 하며 변형된 중정형상을 취하는 방식을 택한다. 상부층은 사적이고 정적이며 여성적인 안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동, 집부동, 객실동이 펼쳐지며 아래층은 공적이고 동적이며 또한 다소 남성적인 바깥마당을 확보한 대소 회



18

의실이 있다.

행정동 입구에서 전개되는 서측입면도 정면으로서의 기능을 해야하고 대회의실 마당에서 보이는 남측의 입면도 정면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서측의 얼굴로는 이대 본관 외관을 변형하는 방식을 택해서 건물좌우에 큰 박공이 표현되고 입구 부분에는 삼각 모양을 갖도록 했으며, 큰마당에서 올려다 보는 남쪽전경은 마치 종가집의 위엄을 갖도록 구성했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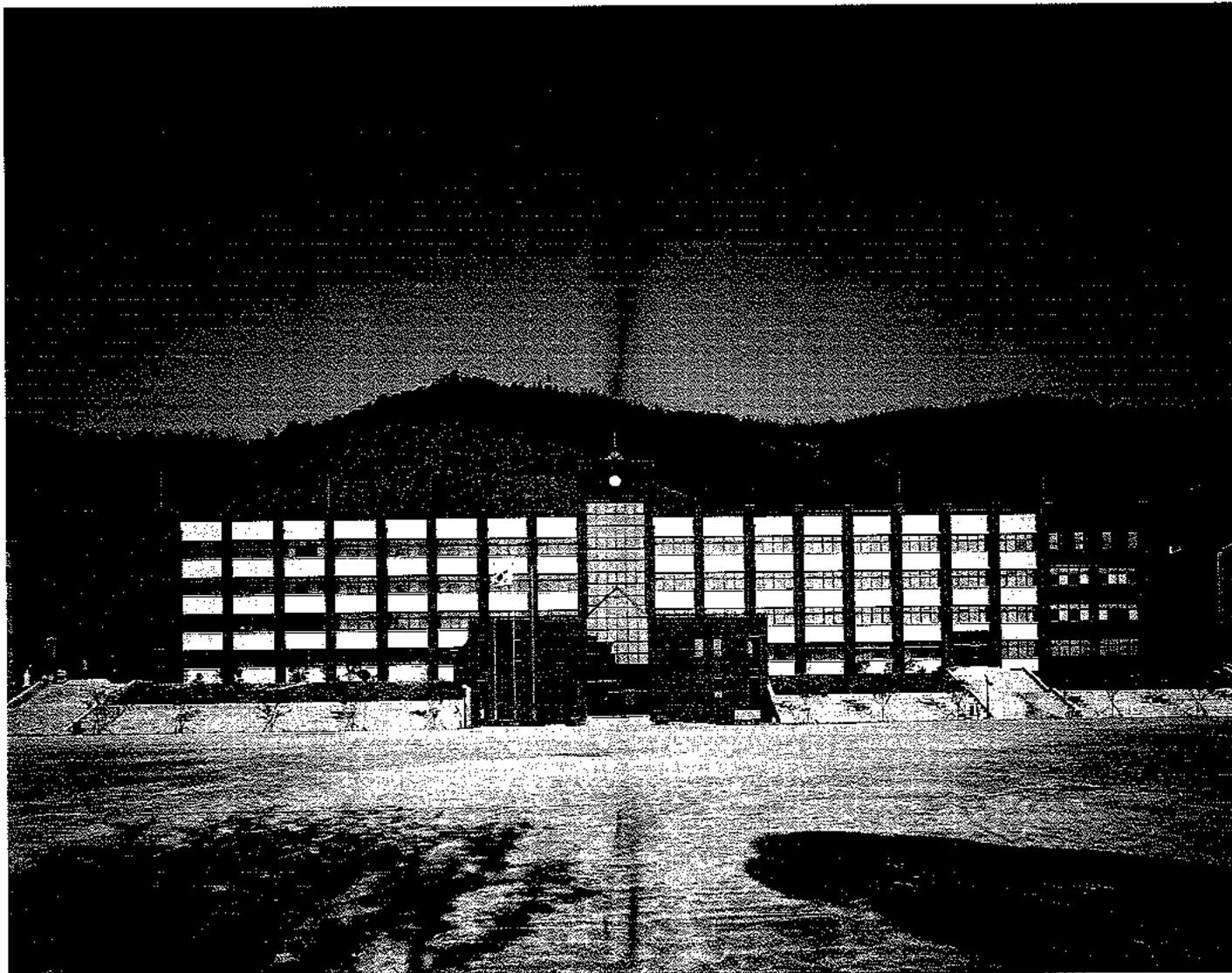
- 14 입구 회랑에서 바라본 게스트하우스와 중정
- 15 회의실 입면
- 16 비서실 상부 천장
- 17 회의실 내부
- 18 2층 평면도
- 19 지하 1층 및 지상 1층 평면도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Kün-hwa Girls' Middle & High School

孫明文/건축사사무소 건·환

Designed by Son, Myung-Mun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대지면적 / 39,601m²

건축면적 / 5,608m²

연면적 / 19,742m²

건폐율 / 14.16%

용적률 / 43.02%

규모 / 교사동-지하 1층, 지상 5층(일부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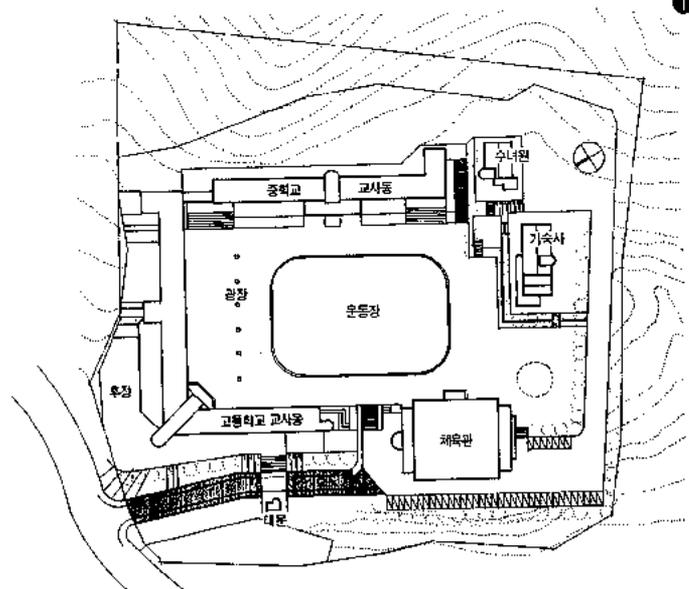
체육관-지하 1층, 지상 2층

기숙사-지하 1층, 지상 4층

수녀원-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 / 붉은벽돌+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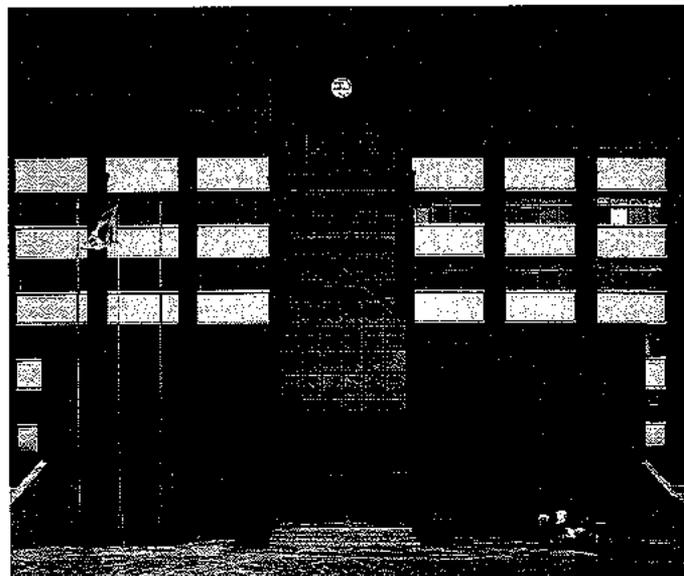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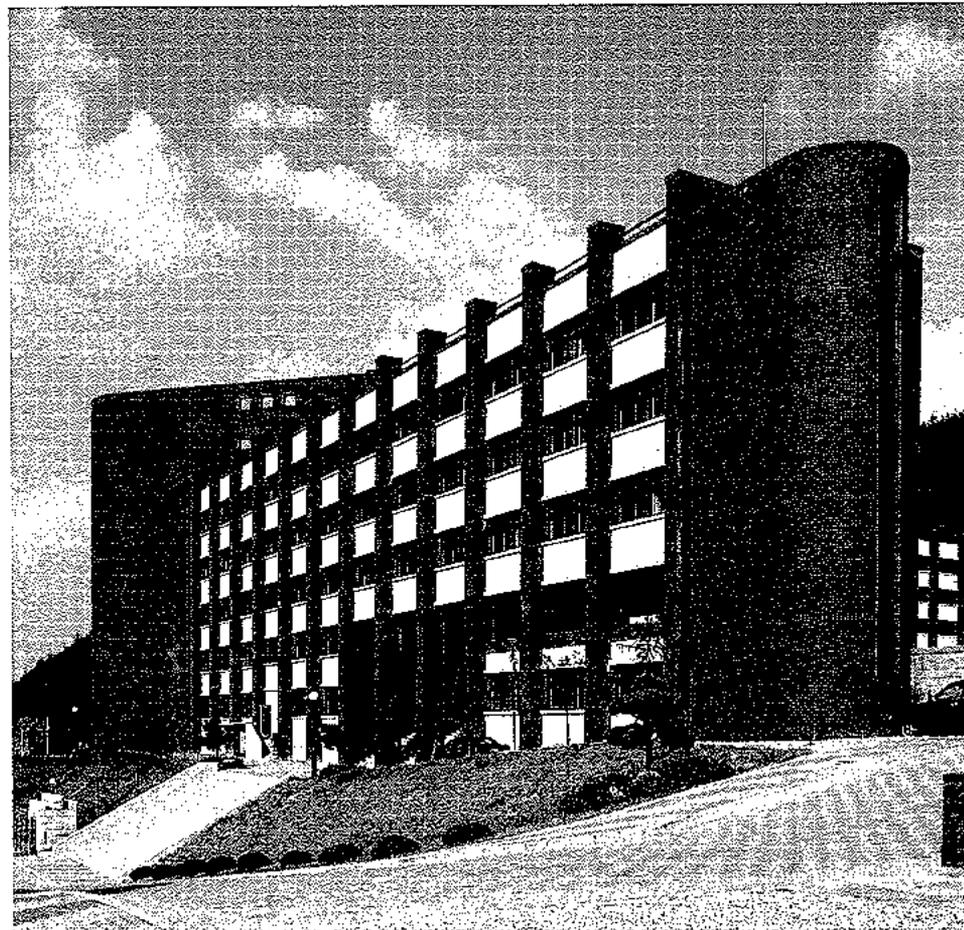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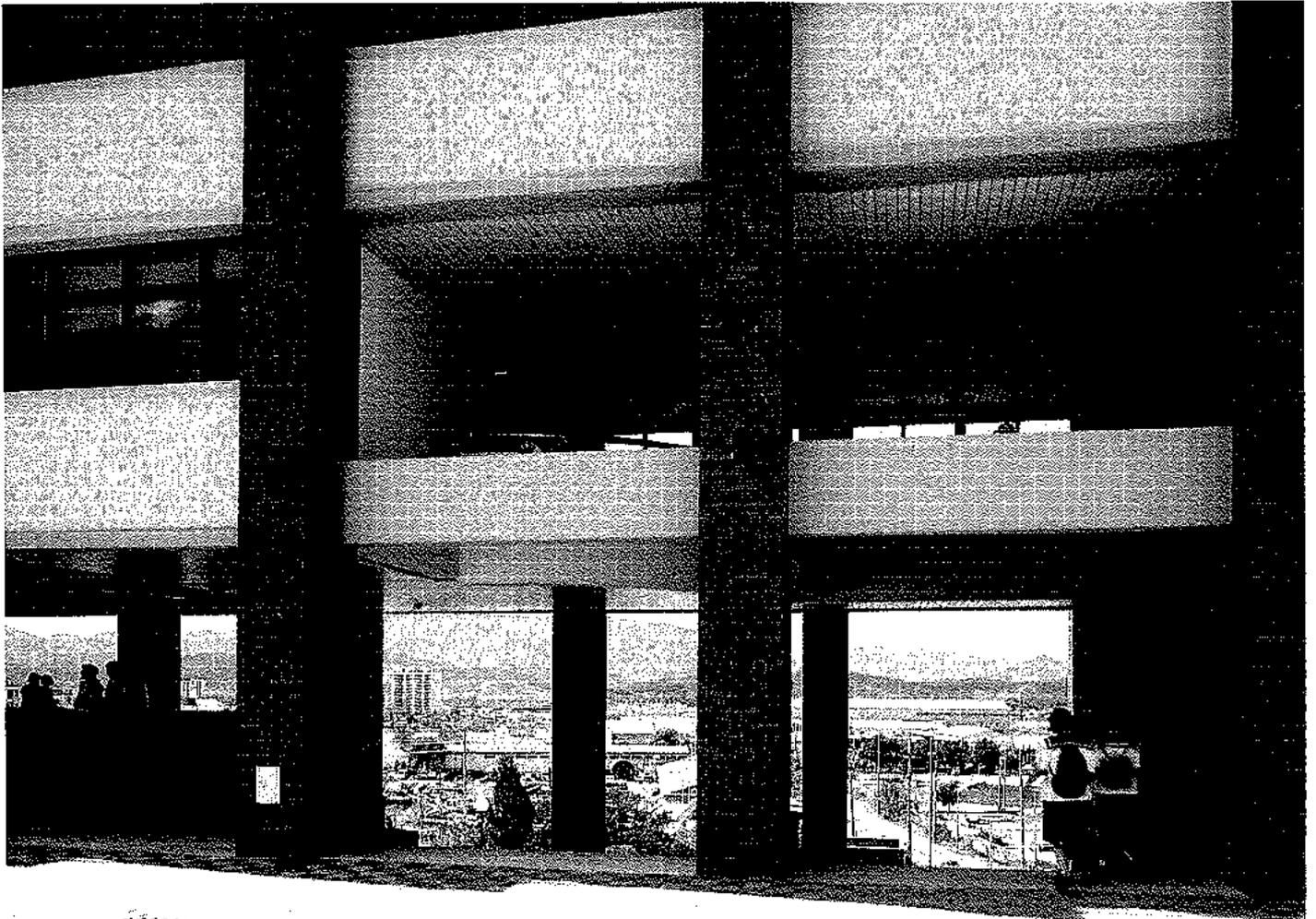


3



4

- ① 중학교 교사동 전경
- ② 소금강산이 실내로 들어오는 실내체육관 내부
- ③ 선근원 미술실
- ④ 중학교 교사동 현관부분 상세



• 설계소요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도 좋을 소금강산 기슭에 대지는 위치하고 있었다.

자연경관의 훼손과 절토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진 지형을 이용한 테라스의 개념(각 교실마다 좋은 조망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면 얼마나 멋진가)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생각은 공사비 관계로 무산되고 말았으며 본 案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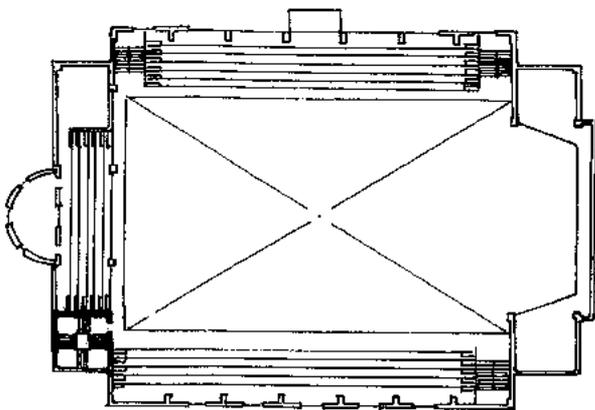
동측에는 소금강산이 나래를 펴고 있으며 서측에는 산업도로와 공장지대, 북측에는 고층 아파트群, 남측에는 경주시가지가 내려다 보인다.

소금강산과의 어울림이 조화로운 가운데 뒷편 고층아파트 규모에도 氣(?)가 죽지않는 형태를 생각해야겠고 서측의 산업도로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불량한 조망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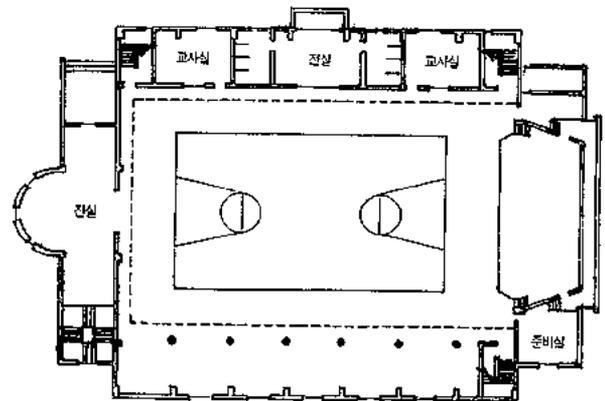
- ⑤ 산업도로에서 본 전경
- ⑥ 아파트 단지 쪽에서 본 전경
- ⑦ 실내체육관 전경
- ⑧ 1층 평면도
- ⑨ 2층 평면도
- ⑩ 피로티 부분 상세
- ⑪ 고등학교 교사동 전경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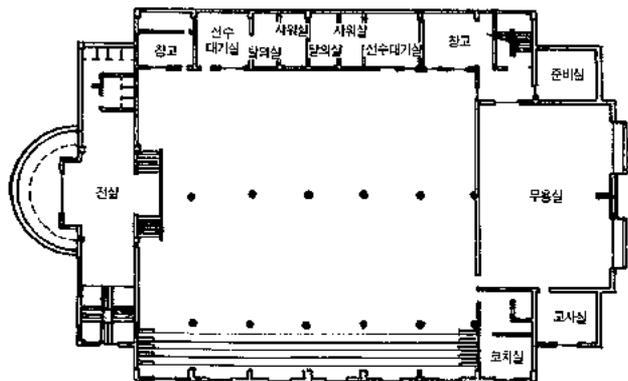
15



16



15



16



17

남측 아스라히 바라보이는 경주 시가지와 남산을 끌어 들이기 위한 배치계획, 대지 안에있는 신라시대의 고분을 보존하여 건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겠다는 생각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나의 머리를 맴돌았다.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진입감을 상승시키기 위

한 피로티, 선큰된 미술실, 벗군데의 옥상정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잇는 오브 브릿지, 기숙사의 넓은 테라스, 고분 주위의 휴식공간등 이곳에서의 기억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추억으로 남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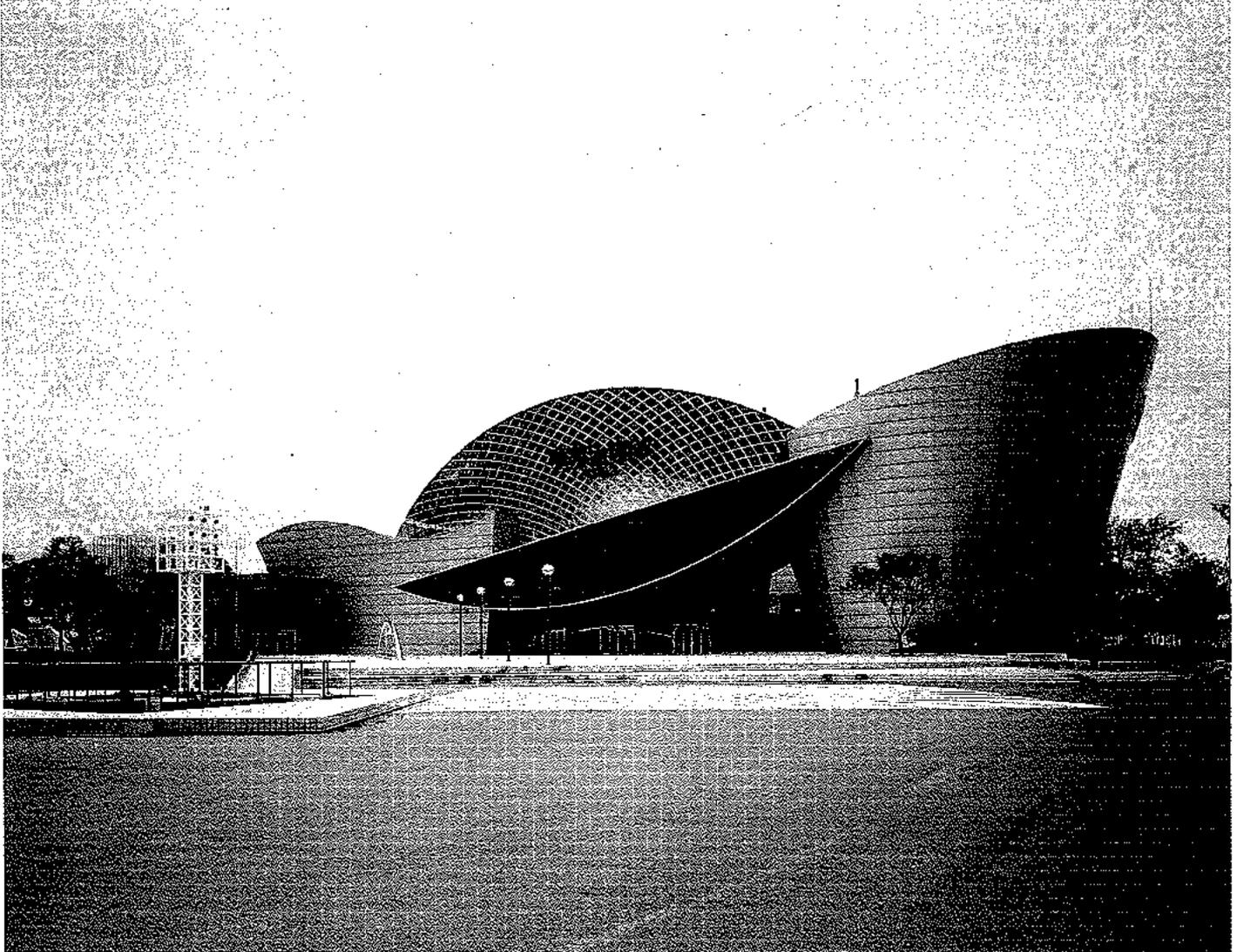
- ⑬ 중학교 교사동 내부 홀
- ⑭ 체육관 2층 평면도
- ⑮ 체육관 1층 평면도
- ⑯ 수련원과 기숙사 및 고분
- ⑰ 체육관 지하층 평면도
- ⑱ 고등학교 교사동 내부 홀

EXPO 테크노피아관

EXPO Technopia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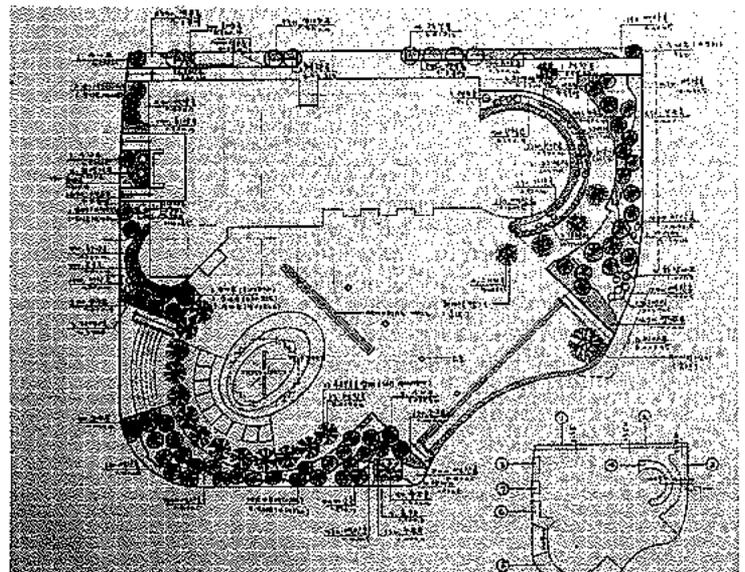
趙載元/(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Jae-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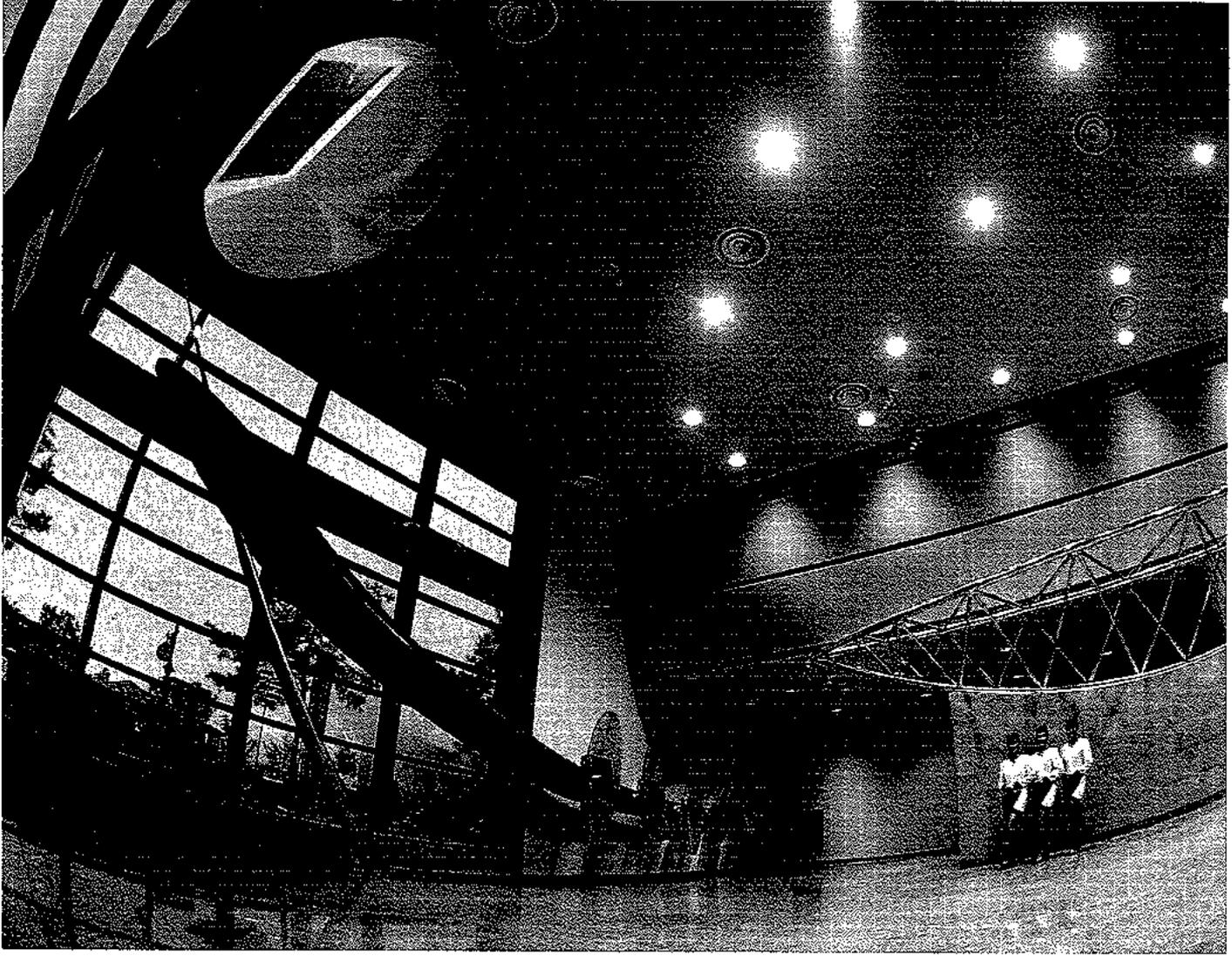
1

대지위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23블럭
 용도 / 전시시설
 대지면적 / 9570.0㎡
 건축면적 / 2918.4㎡
 연면적 / 5671.7㎡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골조
 외부재료 / 알루미늄 복합페널, 스테인레스 스틸,
 컬러복층유리
 시공자 / 럭키개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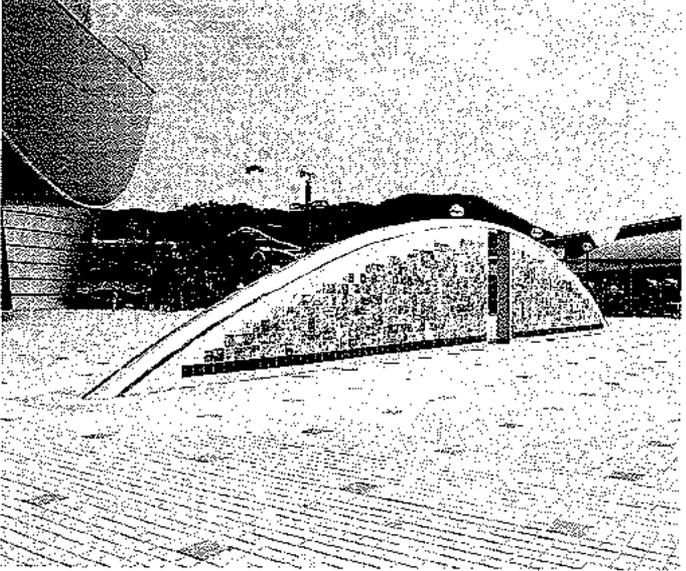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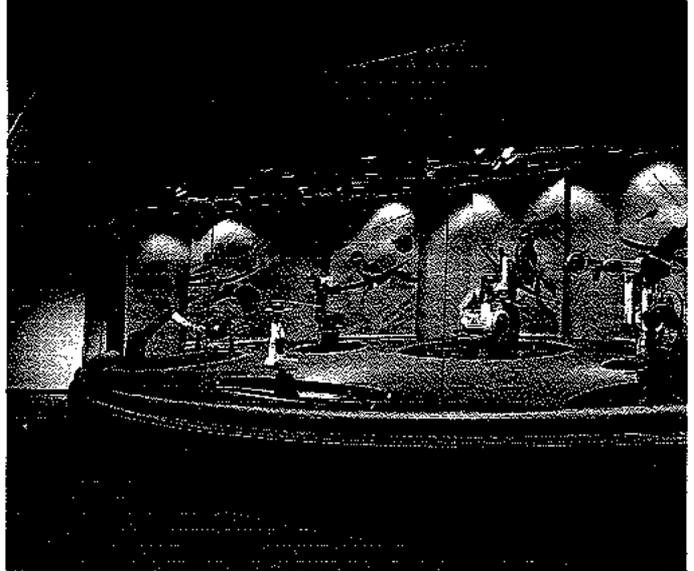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식평면도
- ③ LG 홀
- ④ 꿈의 벽 (옥외공장)
- ⑤ 내부 관람시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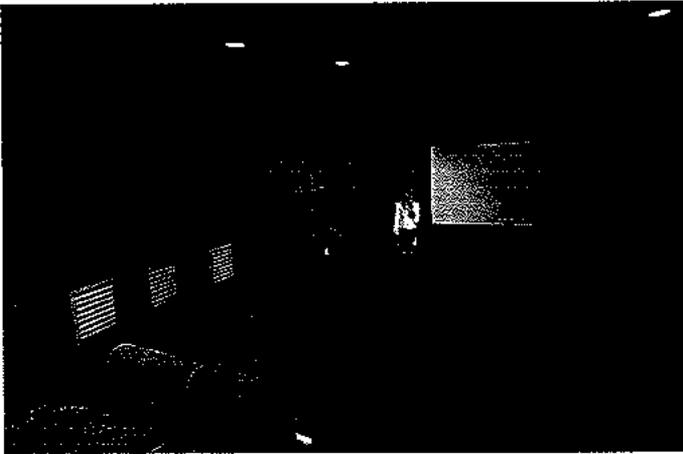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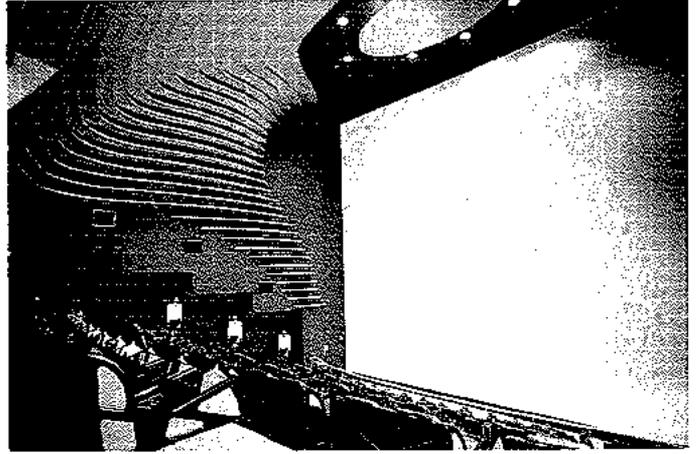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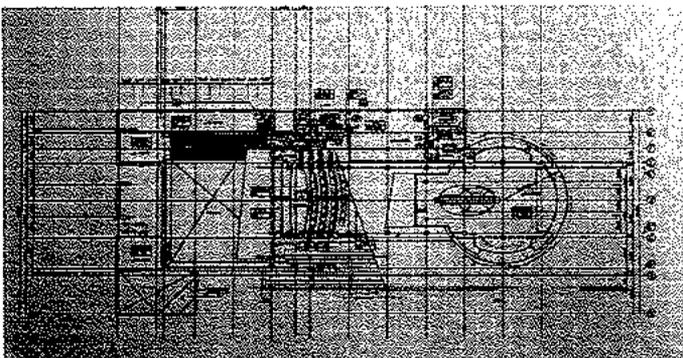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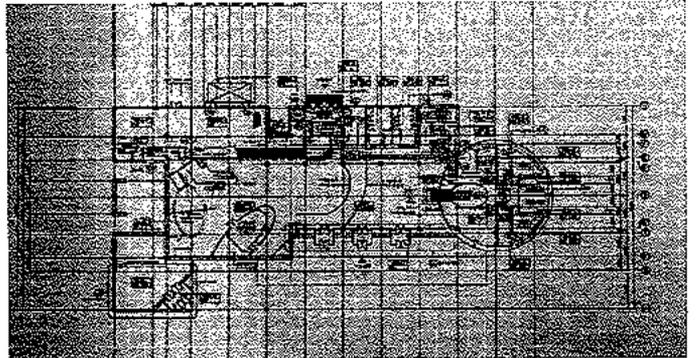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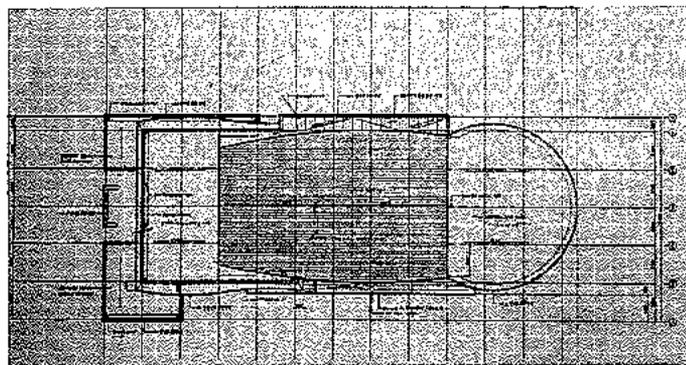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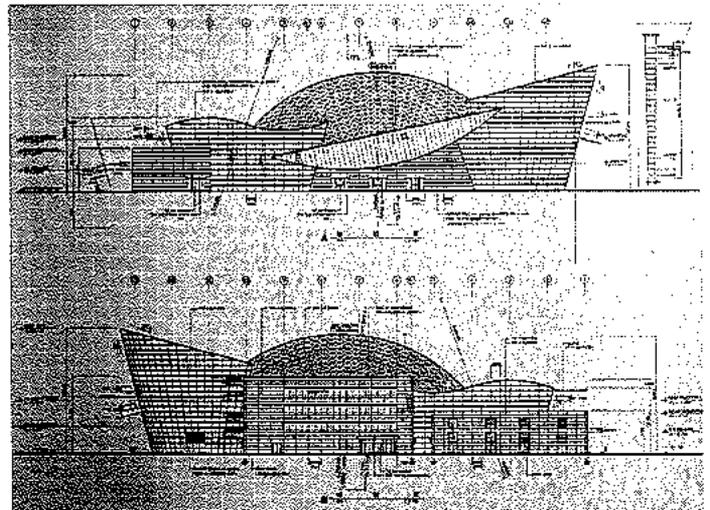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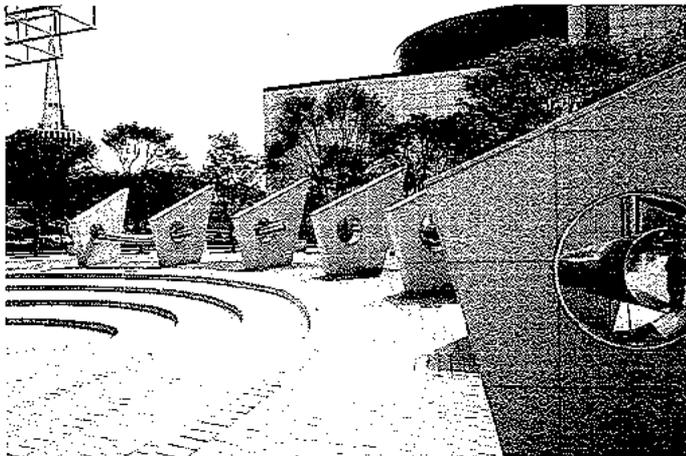
8



9



10



- ⑥ 연결 통로
- ⑦ HDTV 영상관
- ⑧ 시뮬레이션 극장
- ⑨ 2,3층 평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아경
- ⑫ 사운드 홀(옥외장정)
- ⑬ 지붕층 평면도
- ⑭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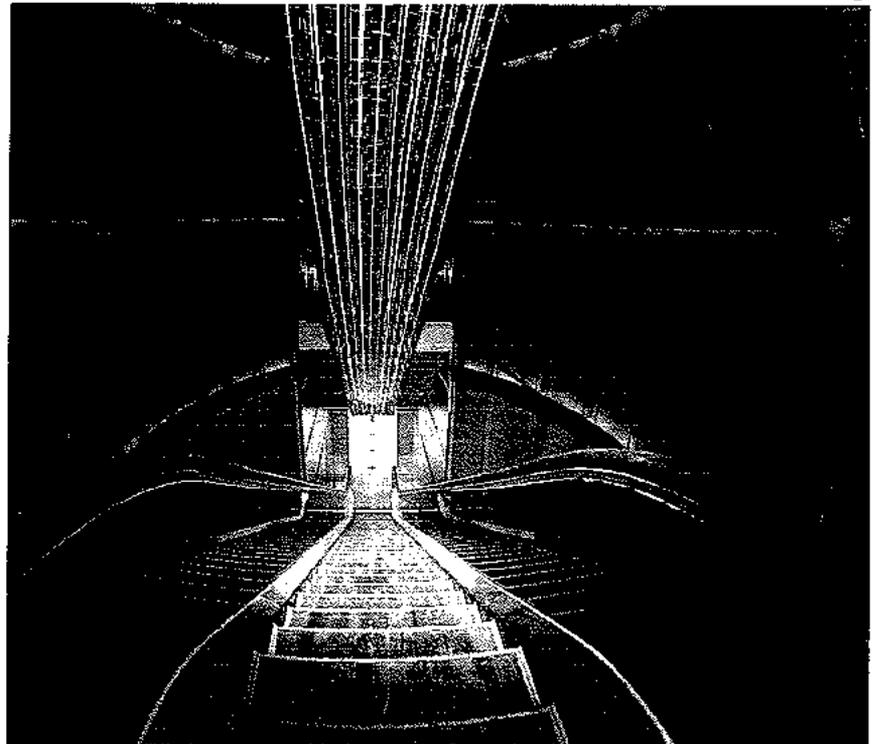
테크노피아관은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EXPO '93에 참여하는 럭키금성그룹의 전자·컴퓨터관으로서 EXPO지구 과학공원구역내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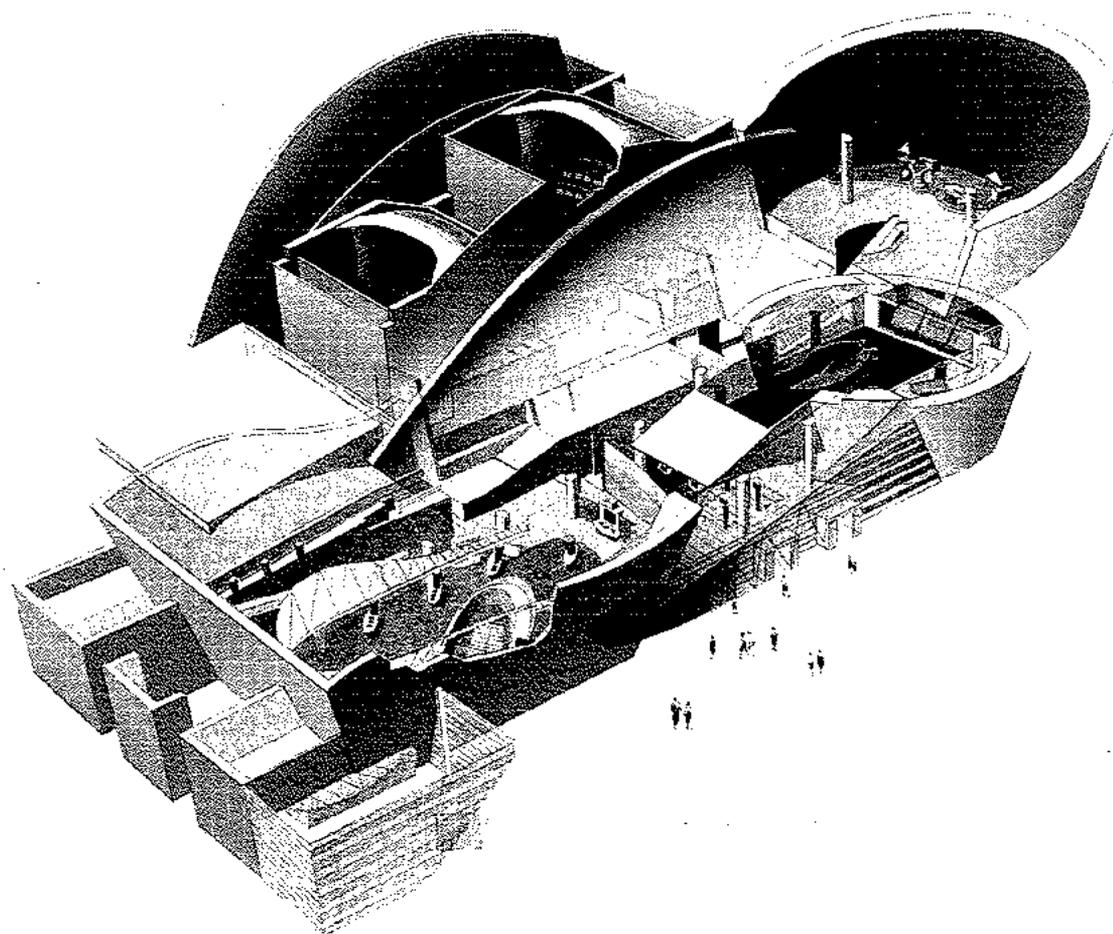
Technology(첨단기술)+Utopia(이상세계)의 합성어인 테크노피아는 전자·컴퓨터 등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럭키금성의 기술이상세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테크노피아관은 대지·태양·물을 미래로 향한 가교로 통합시킨 이상적 사회 곧 테크노피아를 표현해 내고자 하였다.

테크노피아관 오른쪽의 원통형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고, 왼쪽의 사각형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룩한 첨단기술의 세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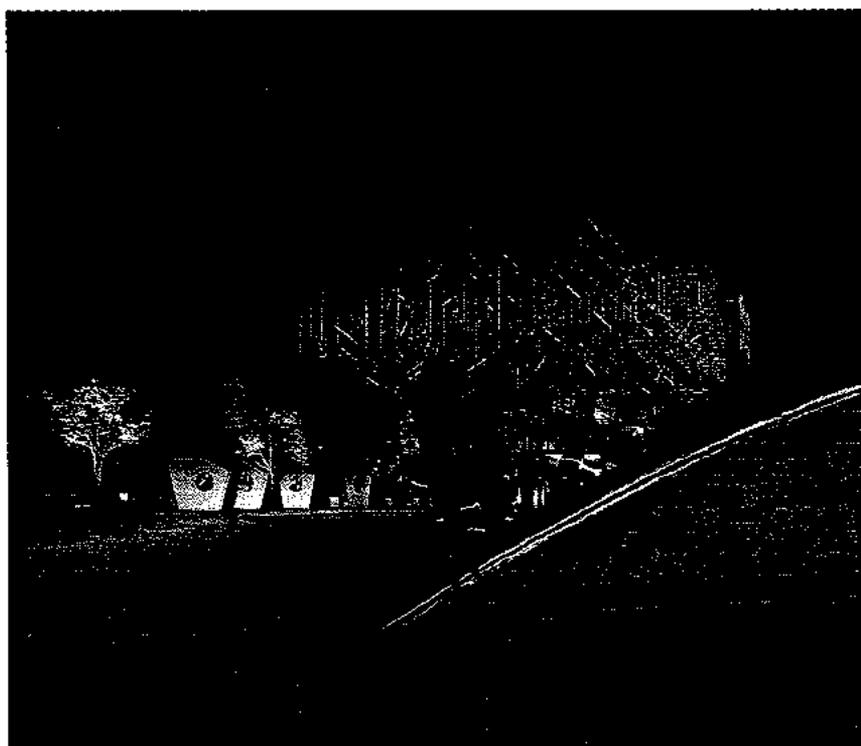
건물 가운데 빨간 반달 모양은 인간의 능력과 첨단기술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래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시대성(Post-Modern)·유연성(Flexibility)·쾌적성(Amenity)·회화성(Picturesque)을 담보해 내고자 한 테크노피아관은 EXPO 기간내의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럭키금성그룹의 Museum으로서 인간을 위한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장으로 영구 활용될 것이다.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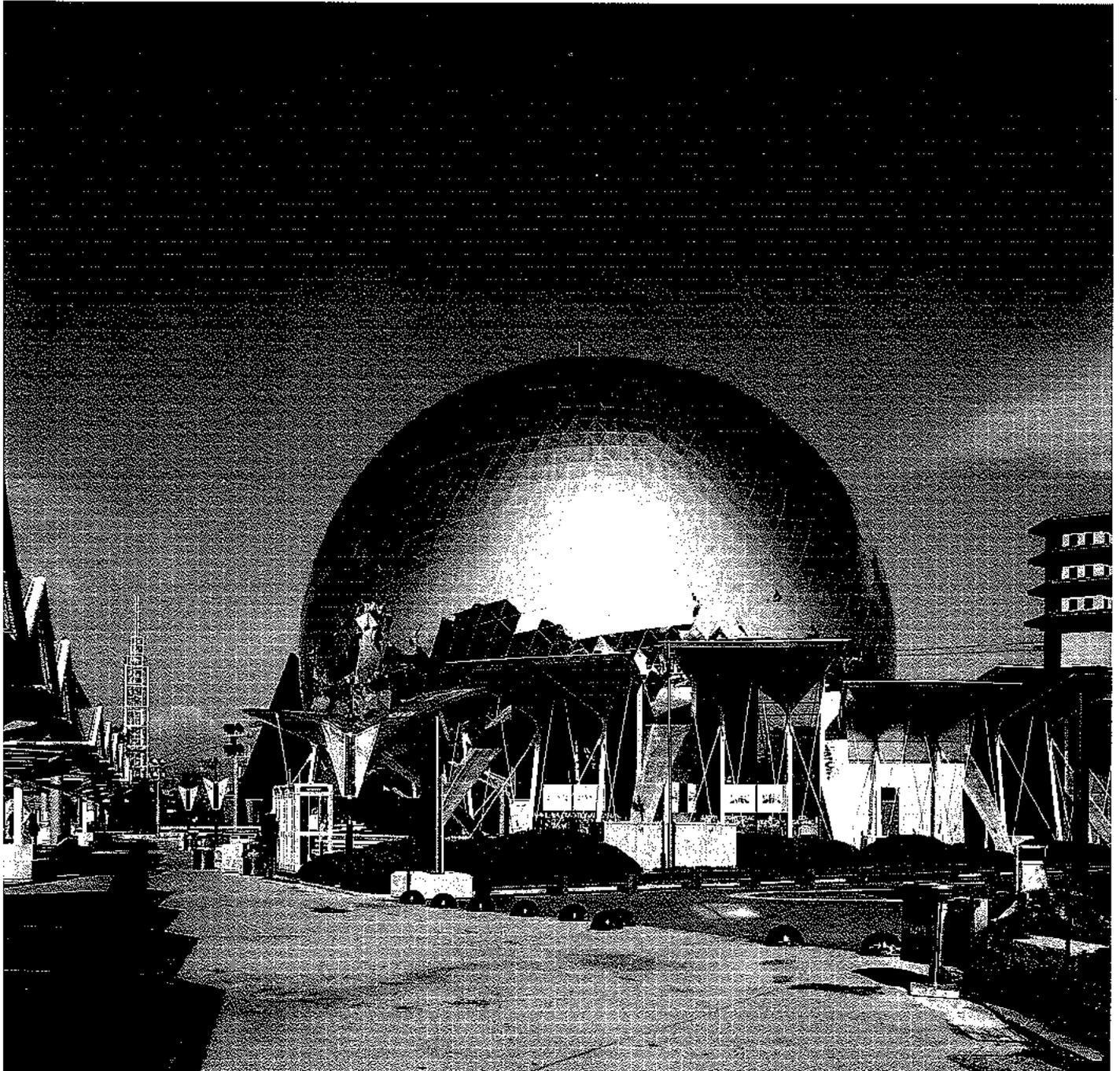
- ⑤ 1층 로비
- ⑩ 상층을 연결하는 내부 에스컬레이터
- ⑪ 역소노메트릭
- ⑫ 옥외광장(야경)

EXPO 선경창의관

EXPO Sunkyung Imagination Hall

俞元在/종합건축사사무소 다건축

Designed by Yoo, Won-Jae



대지위치 / 대전시 도룡동 EXPO 박람회장내
24블럭

대지면적 / 3,905.47㎡

주용도 / 전시시설

건축면적 / 1,718.50㎡

연면적 / 2,805.96㎡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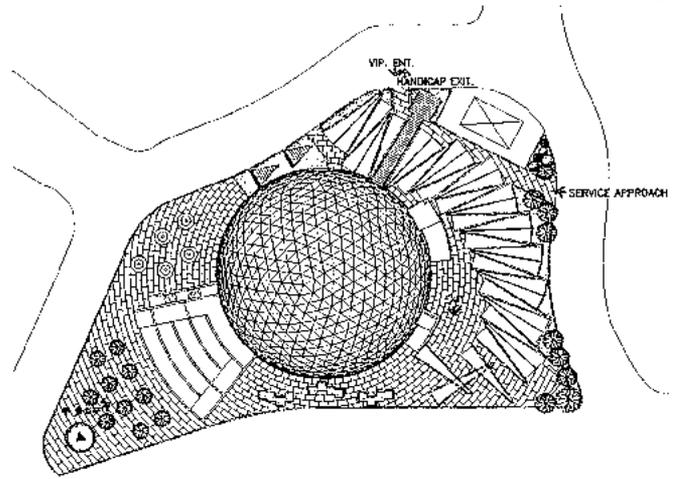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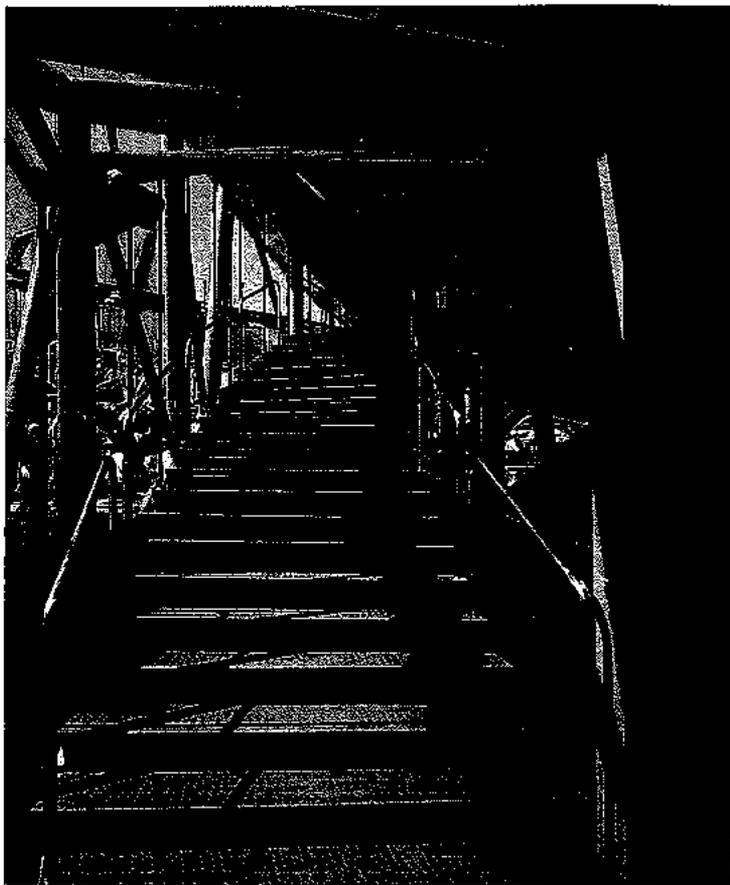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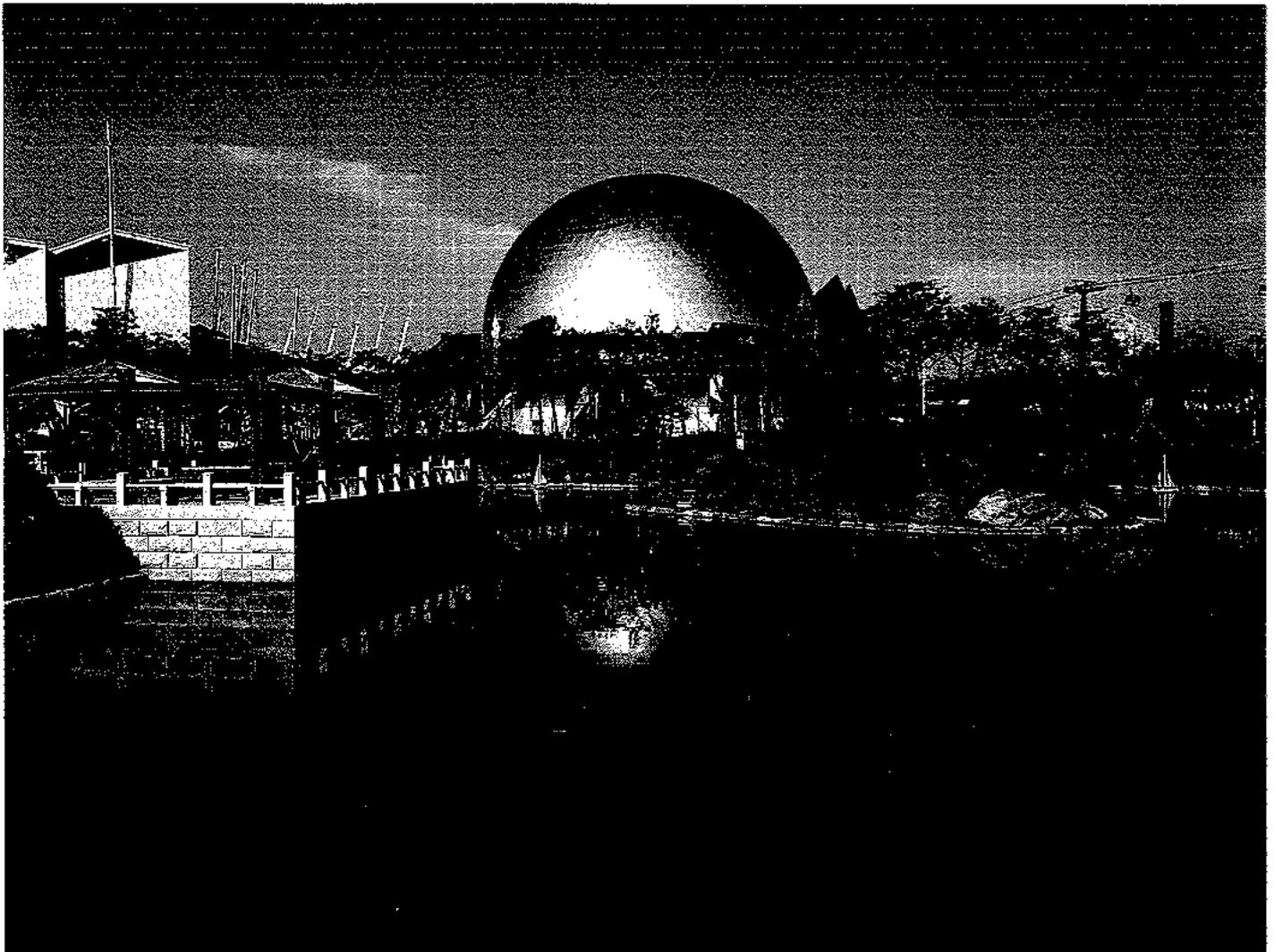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 돔-스테인레스 스틸 미러

부대시설 - 외벽 : THK18만사복층유리

지붕 : 갈바 철판 지붕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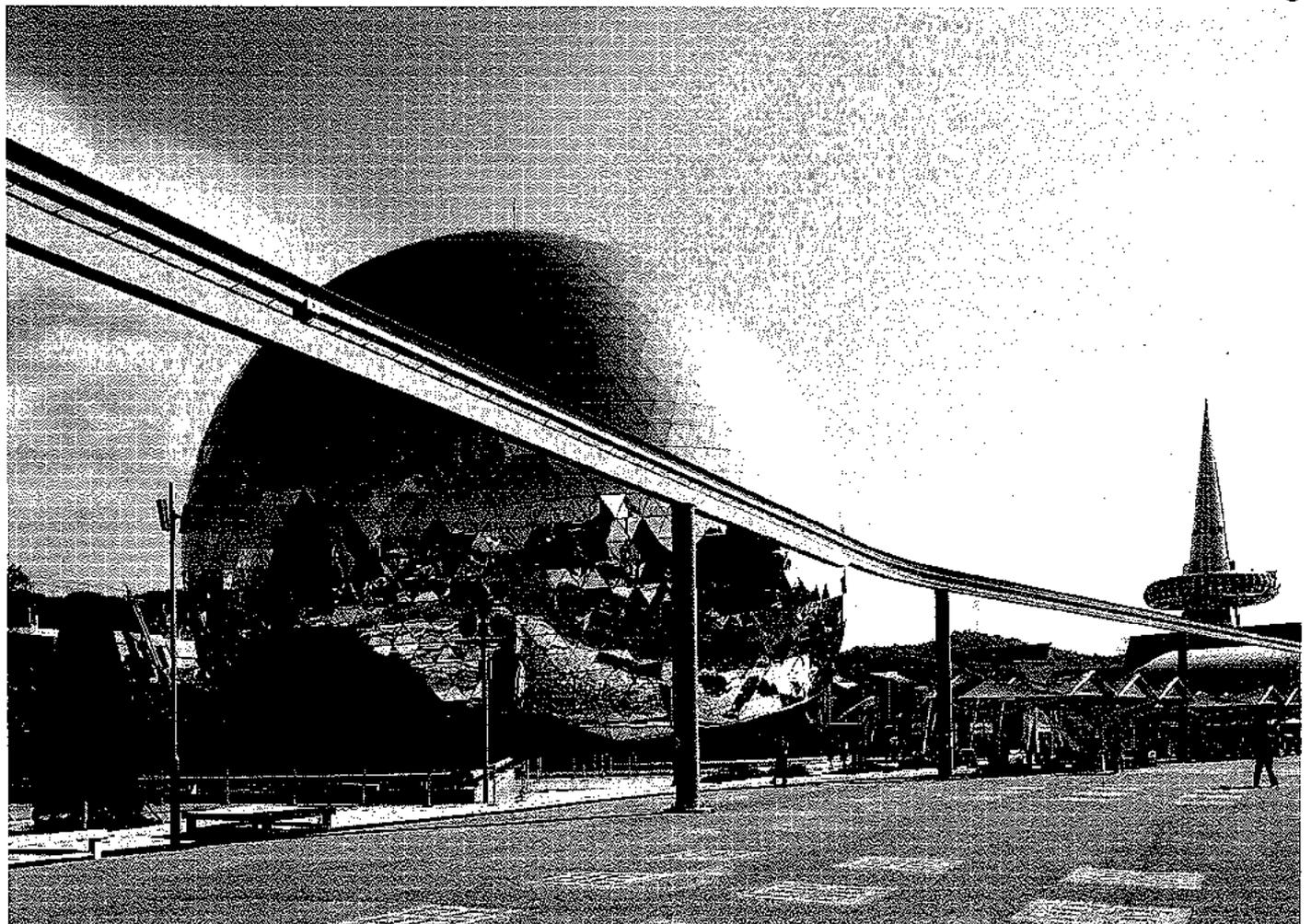
시공 / (주)선경건설



- ① 배면 전경
- ② 북측면 전경
- ③ 배면측 출입구 상세
- ④ 배치도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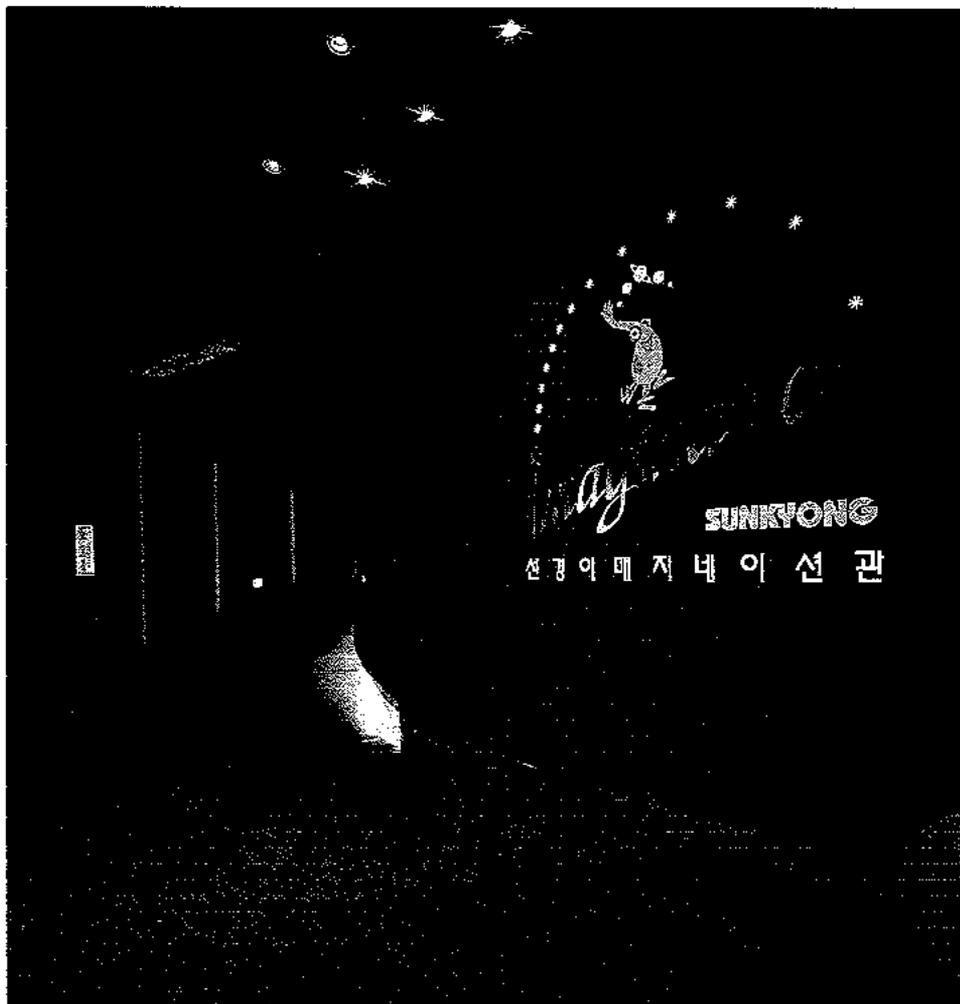
■ 건축계획

선경 Imagination관은 스크린이 지금 27m Dome 형태인 Omnimax 극장으로서 외관은 지금 39m 높을 기본형태로 한다. Two-Way Truss로 구성된 객석 바닥판과 그 위에 설치된 Geodesic Dome은 두개의 전면 지지점과 두개의 후면 지지점(기둥 높이 7m)에 의해 30° 들어 올려져 떠오르는 Dome의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Dome을 지지하는 4개의 지지점 안에 지하층과 지붕이 Dome형태인 Pre-Show장이 설치된다. 그리고 Geodesic Dome은 1,400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고 외장판을 부치기 위해 1개 삼각형은 4개로 분할되어 전체적으로 5,600개의 삼각형으로 Dome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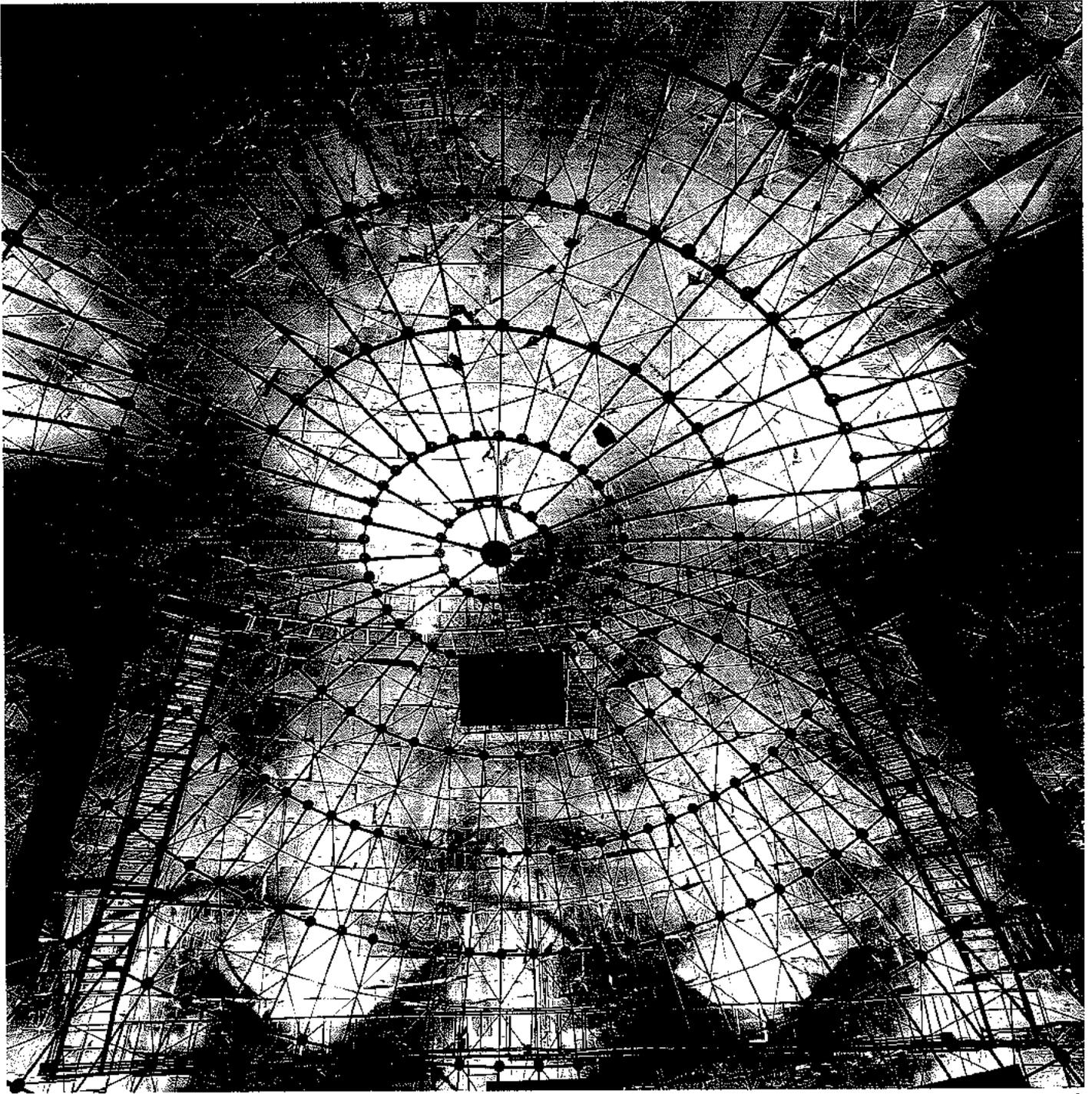
Dome의 외장판은 스테인레스 미러로 마감하여 하늘, 구름 그리고 주변 경관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을 투영한다. 또한, 부대시설의 배치와 외양은 Dome을 강조하면서 에워싼다.

마감은 구조재를 노출하여 구조미를 갖도록 하고 마감재는 Metal계료를 선정하여 관 전체가 Metallic Tone을 갖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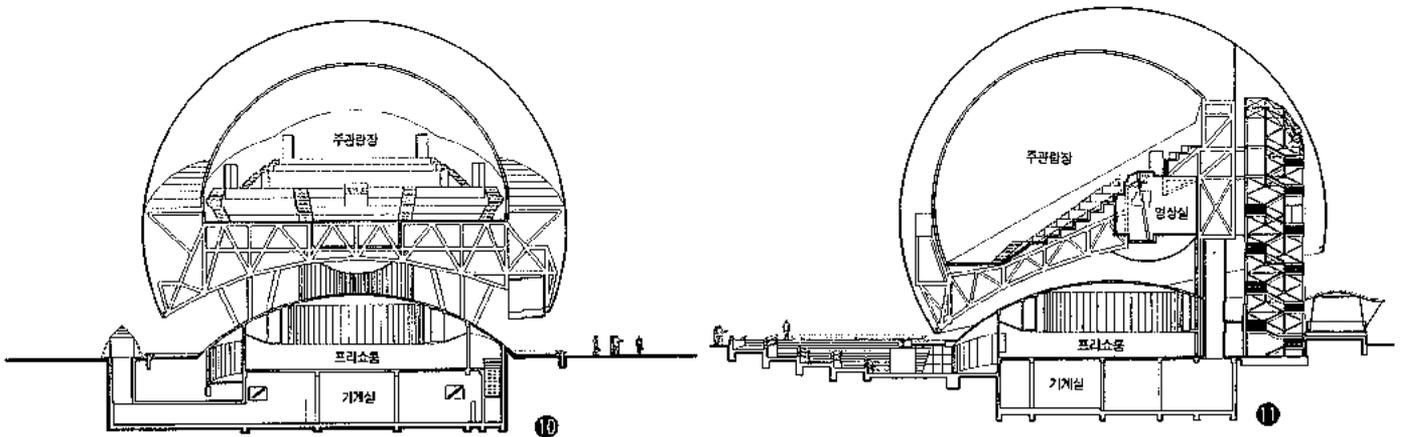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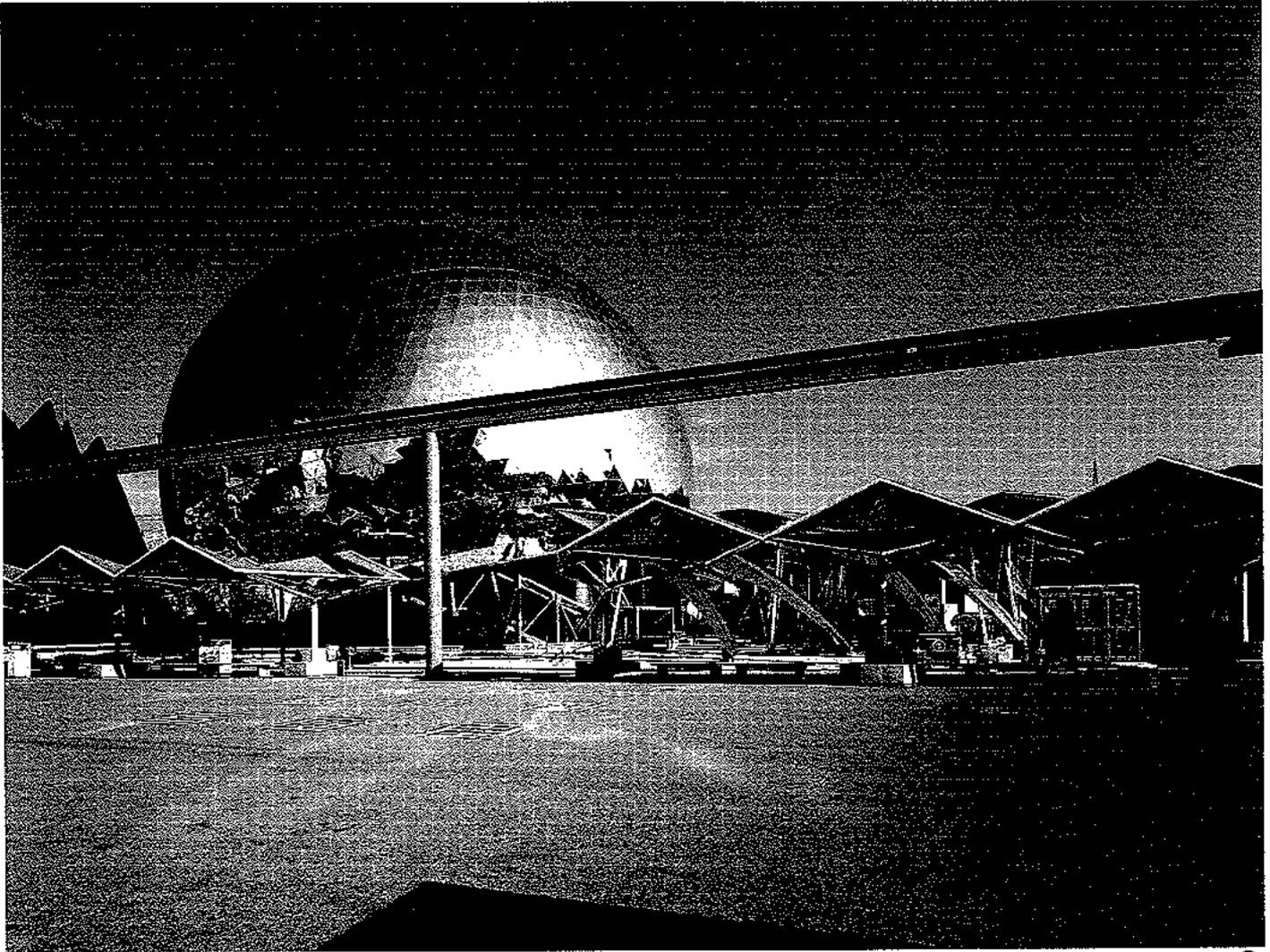
8

- ⑤ 새벽에 본 전경
- ⑥ 주출입구측 전경
- ⑦ 배면 출입구의 기념품 판매점
- ⑧ Pre-Show Approach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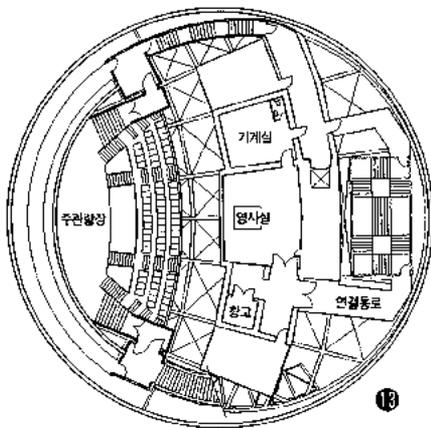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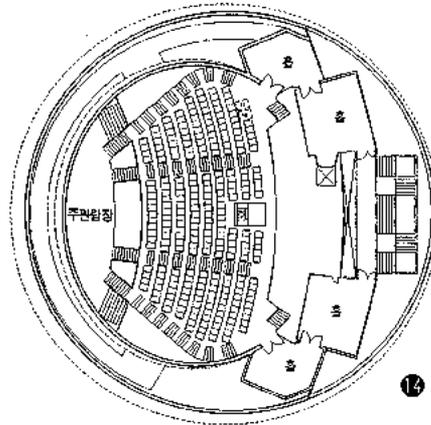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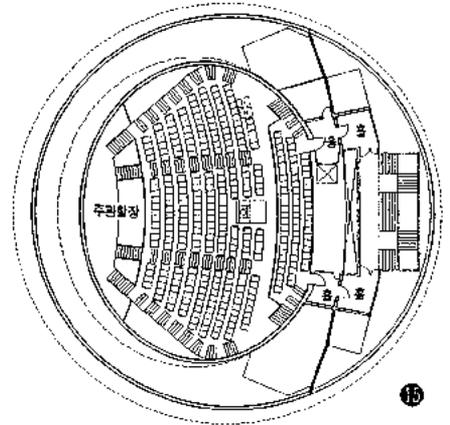
12



10



11



12

■ 전시계획

개요 : 선경 Imagination관은 우주항공, 정보통신, 에너지 자동차, 컴퓨터 등 각 부문에서 추구하는 모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가능케하는 모태로서 인간의 Imagination을 표현한다.

동선계획 : 입장-Pre-Show-Main-Show-퇴장-Pre-Show

1. Imagination Gallery : 2층 원형공간의 하부층에 관람 대기 공간으로서 전시기능을 부여함.

270° 벽면을 15개의 투사식 Hologram으로 구성 인간의 꿈과 환상을 표현함.

2. Circle Vision : 2층 원형공간으로서 상부층에 설치.

Slide Projector 51대에 의한 Seamless 360° 화면에 추상적인 Computer Graphic과 음향 효과를 함하여 자유로운 Imagination의 발상과 전개를 표현함.

Main-Show

지름이 세계최대인 27m의 Dome Screen과 객석수 328석으로 구성된 Omnimax 극장임.

상상으로 그려보던 우주를 첨단기술로 이용하여 가시화 된 인간의 Imagination을 체계화 함.

⑩ Main-Show Dome Screen

- ⑩ 횡단면도
- ⑪ 주단면도
- ⑫ 남측면 전경
- ⑬ 2층 평면도
- ⑭ 3층 평면도
- ⑮ 4층 평면도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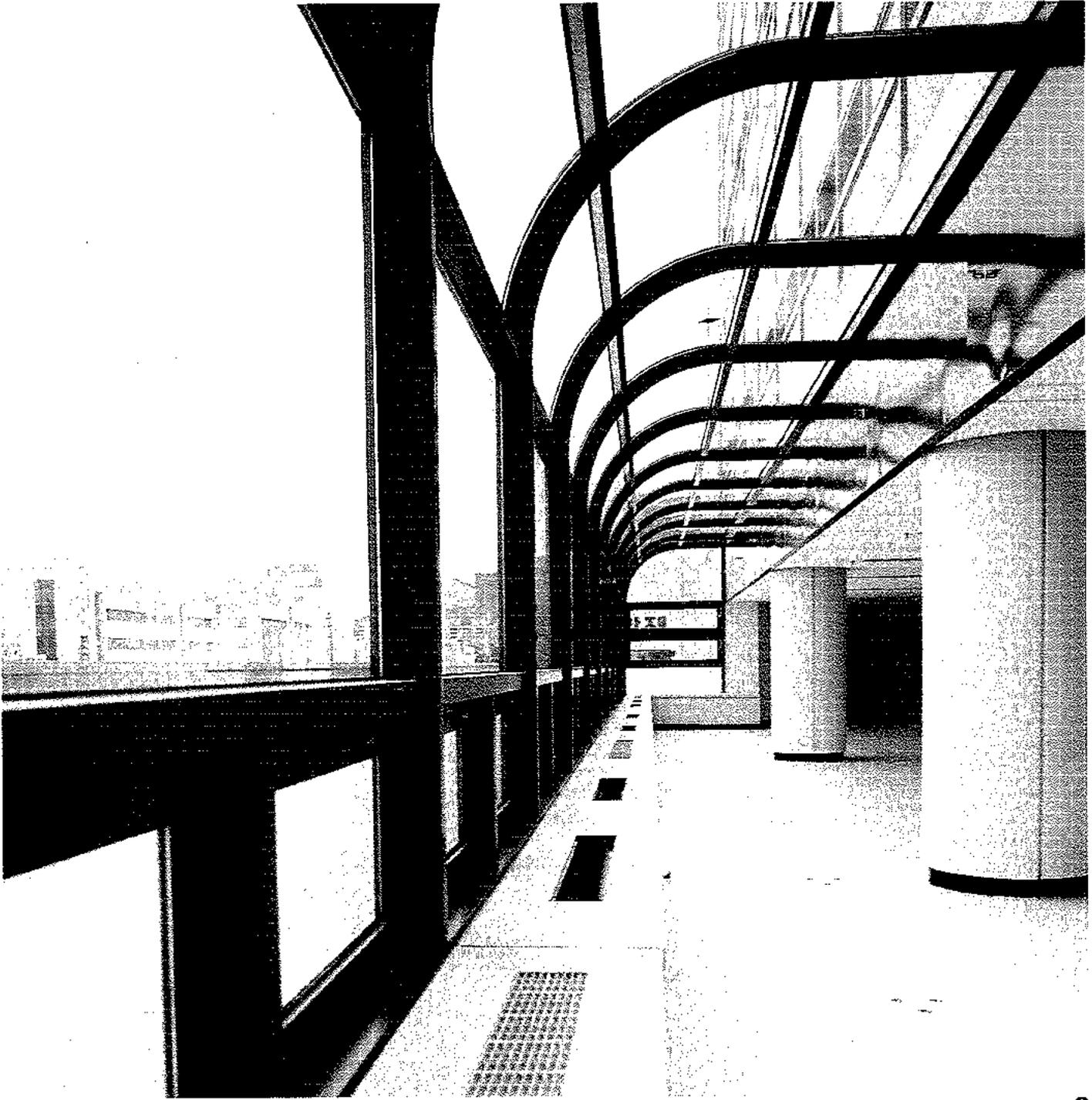
WORKS

사당동 쌍립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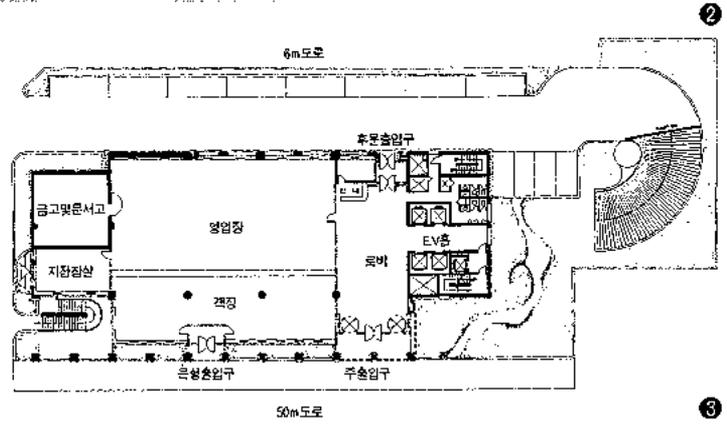
SsangLip Building

尹泰雄/(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
Designed by Yoon, Tae-W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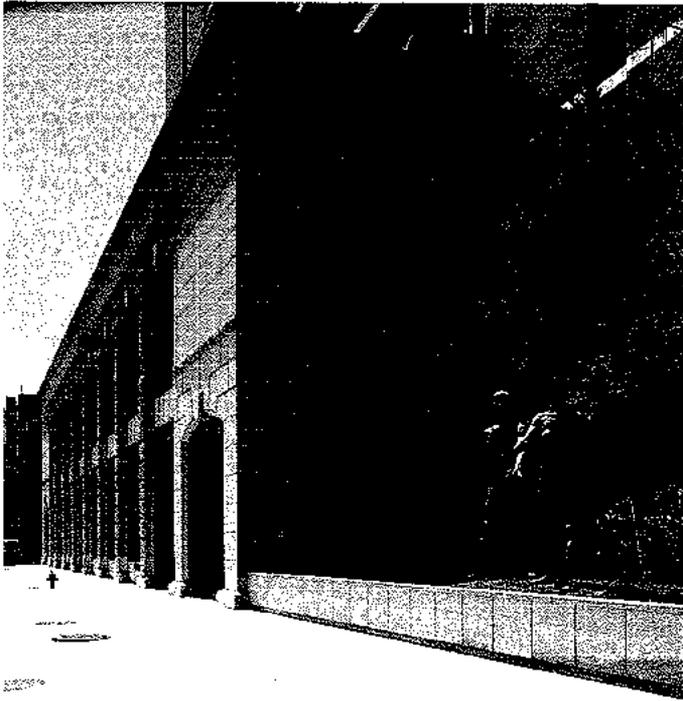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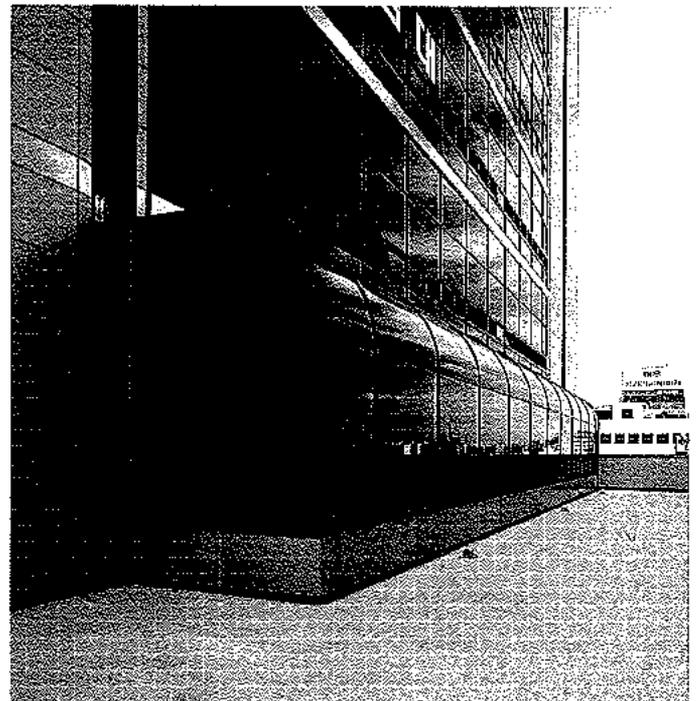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88번지 22
 호
 대지면적 / 2,560.0㎡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노선 상업지역, 2종
 미관지구
 건축면적 / 1,089.11㎡
 연면적 / 21,471.19㎡
 건폐율 / 42.53%
 용적률 / 298.76%
 주차대수 / 옥내=131대 옥외=10대
 규모 / 지하 7층 지상 10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알루미늄 복합패널, 청색제
 쉼터 복층유리



- ① 전경
- ② 3층 내부상세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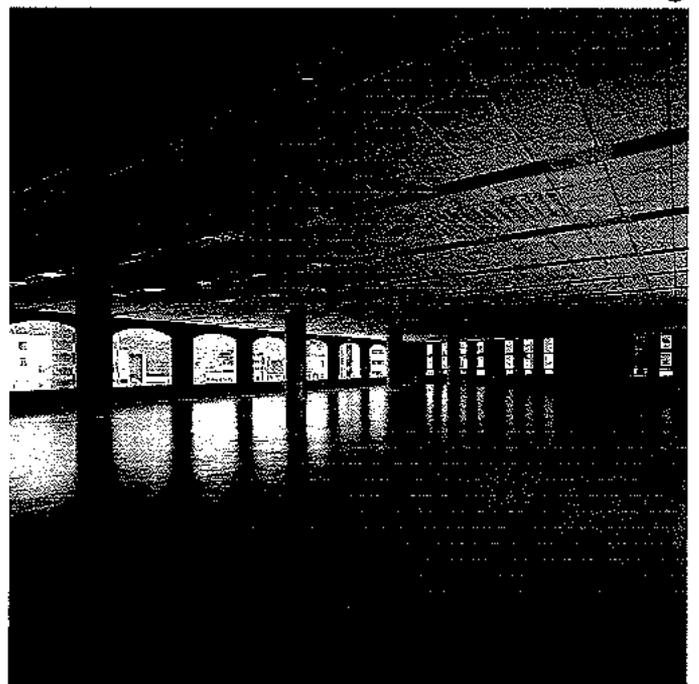
4



5



6



7

■ 대지와 배치

대지의 위치는 행정 중앙관청과 과천 청사가 연계되는 폭 50m의 동작대로 변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계획전 대지의 현황은 주변에 일단의 밀집된 주거군과 좌우로 낙후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개발에 대한 특성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했다.

대지의 3변이 도로와 접하여 접근이 자유로운 조건에서 8m 도로를 지하층 출입으로 활용하고 지하 주차장으로의 진입은 대지 후변으로 우회하도록 두어 동선을 분리하면서 전변도로의 혼잡을 줄이려 하였다.

■ 내부와 기능

건물의 내용으로 건축주로부터 제시된 것은 용적을 확보와 임대전용의 사무실 용도,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을 대비하여 증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면 계획은 남북으로 설정된 대지의 축으로 주공간을 채광확보에 중점을 두고 구상하였으며, 임대공간을 원활히 이용하고 설비를 집약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심 코어로 계획하였다.

■ 형태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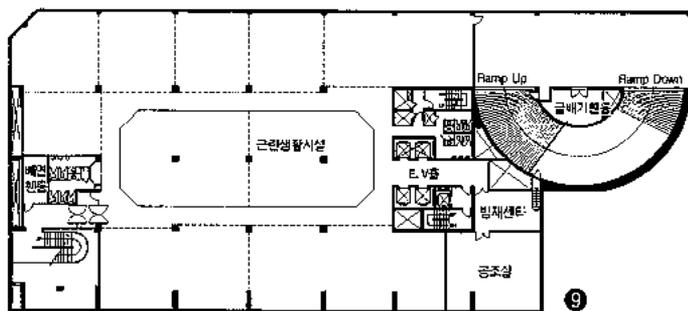
대 도로변에 위치한 도시의 벽으로 가능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막힌 느낌

을 줄이고 변화를 주어 생동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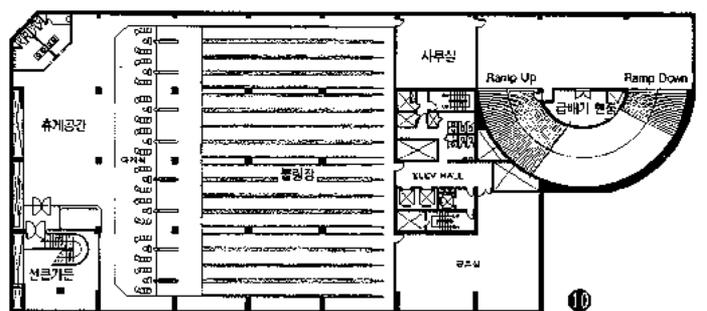
저층부와 고층부는 매스의 볼륨과 함께 재료의 선택에서도 현격하게 분리하여 변화를 강조하였으며 배부는 동일면으로 고층부와 같이 알마늄 복합패널을 사용하였다. 저층부는 아취구조의 메시브한 특성을 형태화하기 위하여 화강석마감을 사용하여 대칭의 整形美를 갖는 기단의 모습을 갖도록 하였다. 수평으로 연속되는 저층부와 고층부의 수직적 역동 이미지가 충돌하는 부분은 異形의 공간을 두어 異質의 힘을 순화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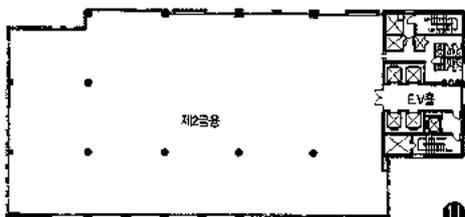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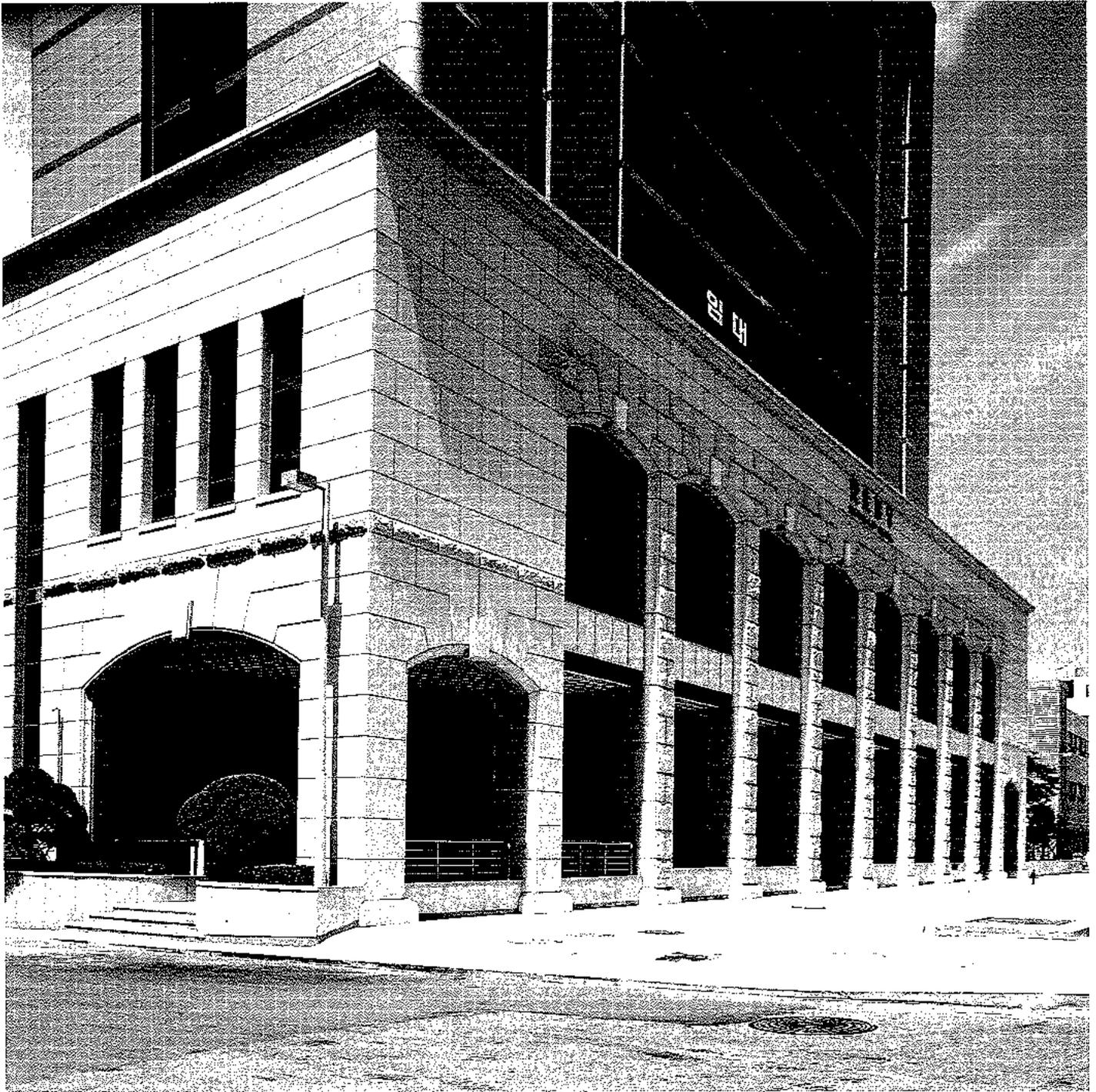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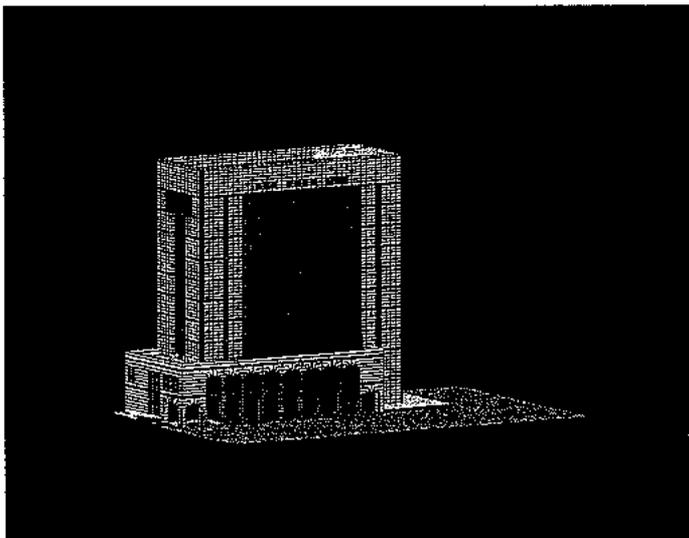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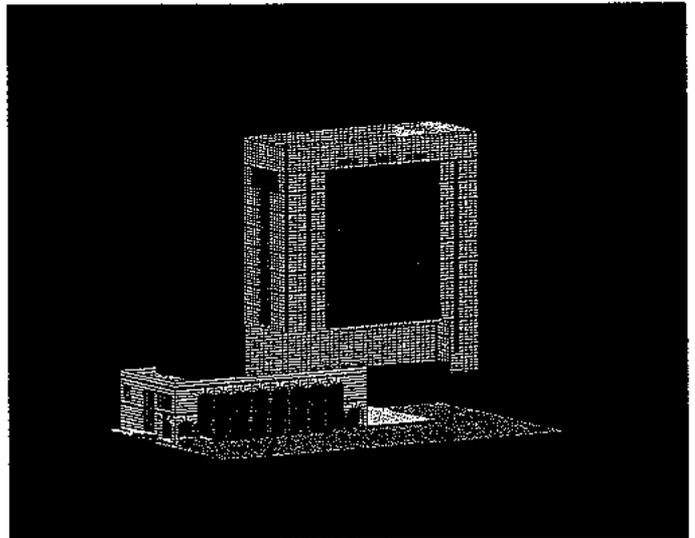
- ④ 전면 외벽상세 및 외부조형조각물
- ⑤ 3층 테라스 부분 외부상세
- ⑥ 1층 로비
- ⑦ 임대사무실 전경
- ⑧ 1층 은행 영업장 및 객장
- ⑨ 지하 1층 평면도
- ⑩ 지하 2층 평면도
- ⑪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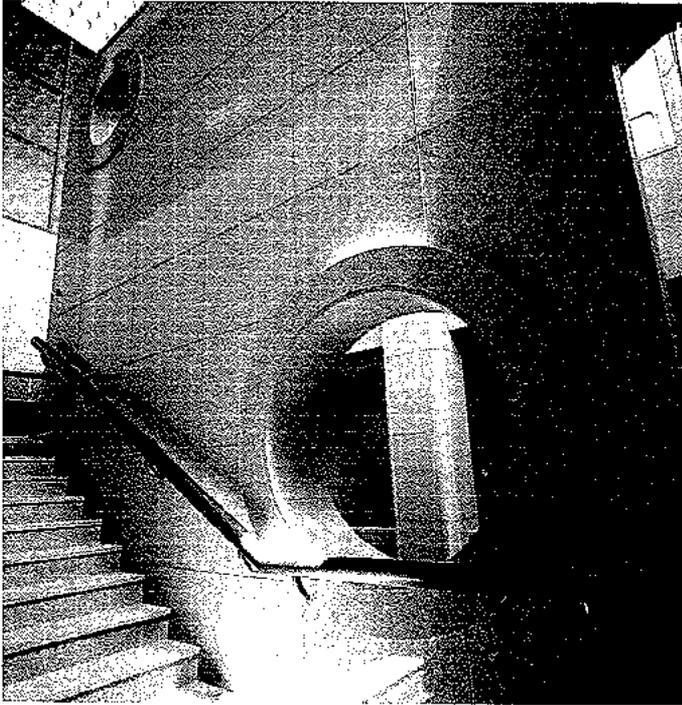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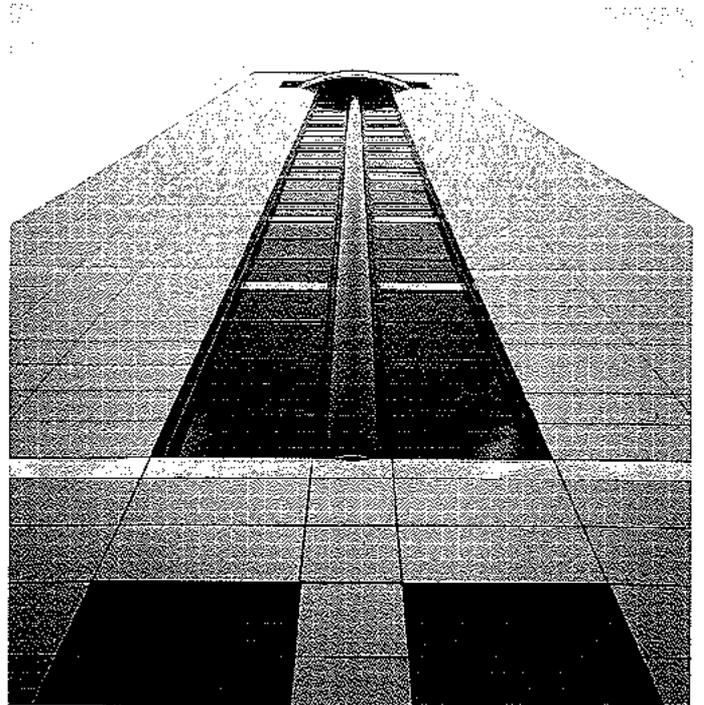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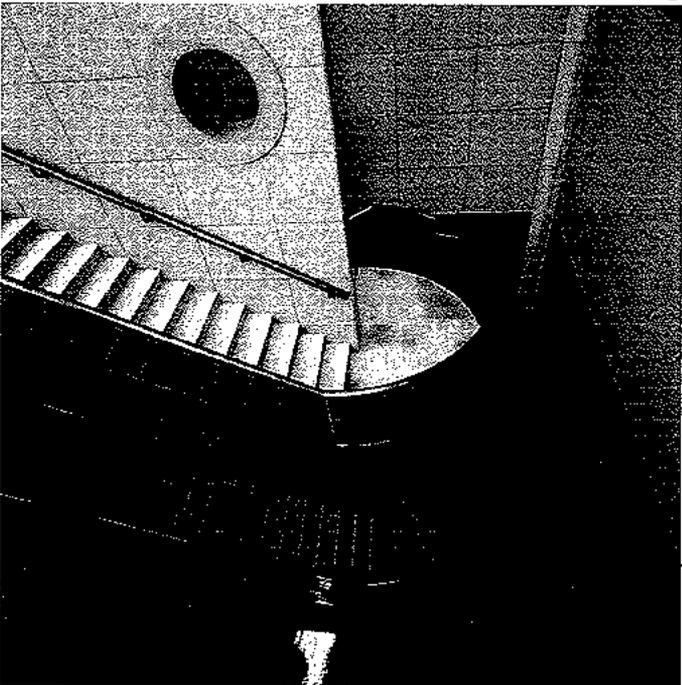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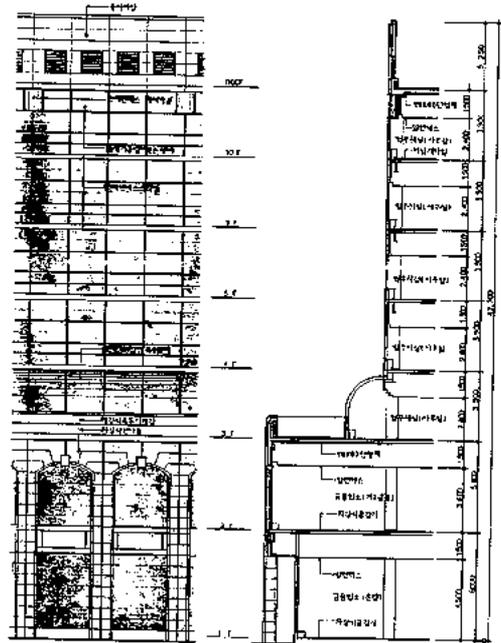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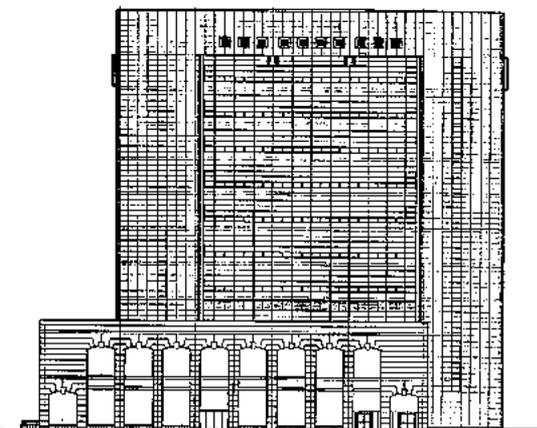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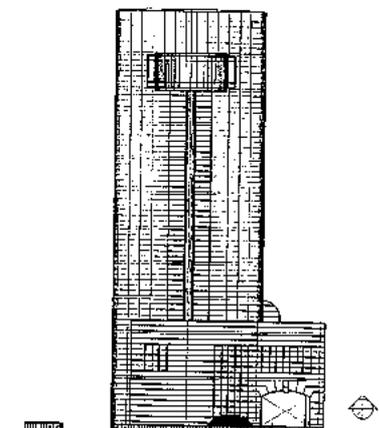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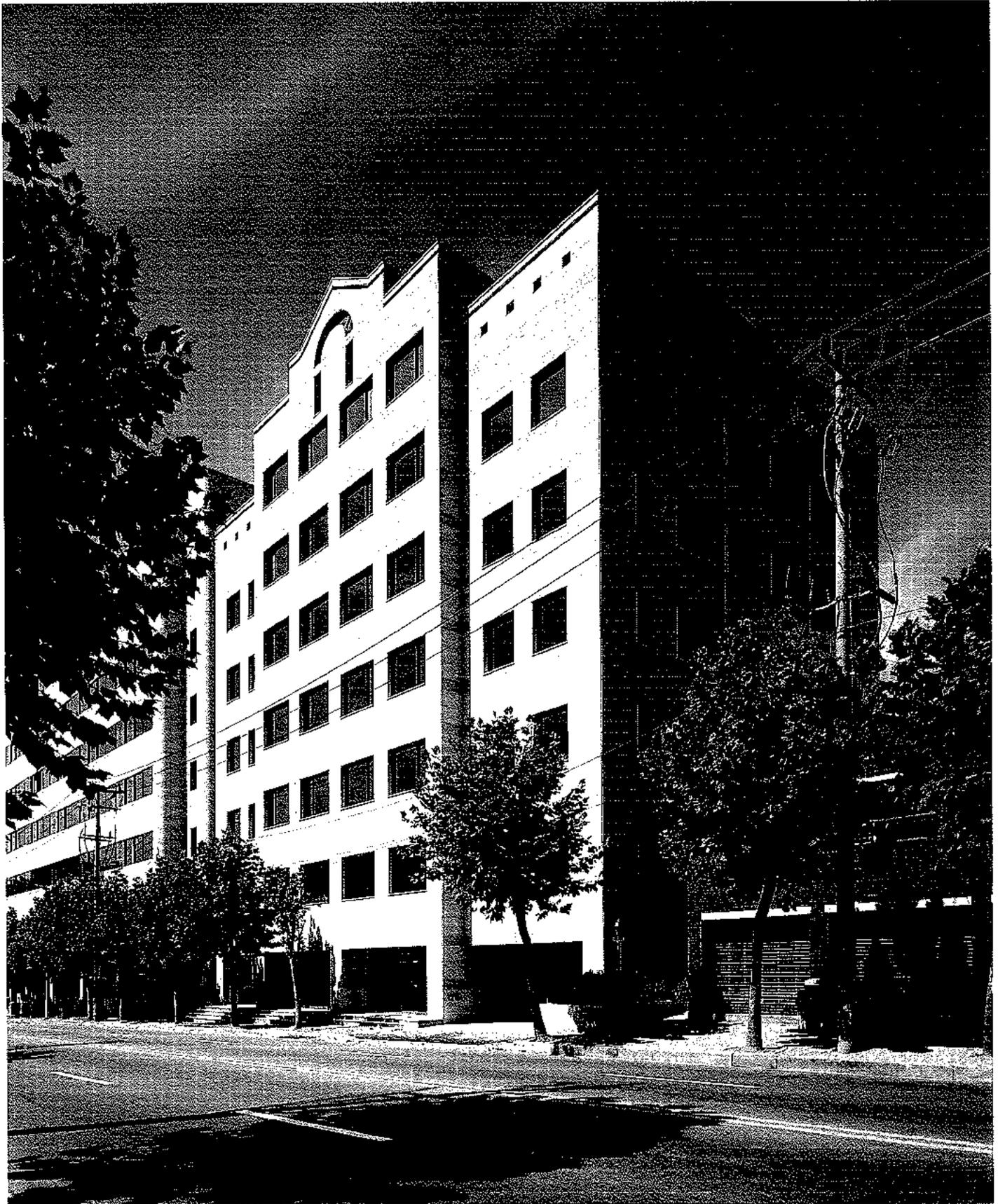
21

- 12 주출입구측 외부상세
- 13 컴퓨터 시뮬레이션 I
- 14 컴퓨터 시뮬레이션 II
- 15 내부계단실 외벽상세
- 16 율러다 본 측면 외벽상세
- 17 내부계단실
- 18 외벽 입면도
- 19 외벽 단면도
- 20 동측 입면도
- 21 남측 입면도

역삼동 명우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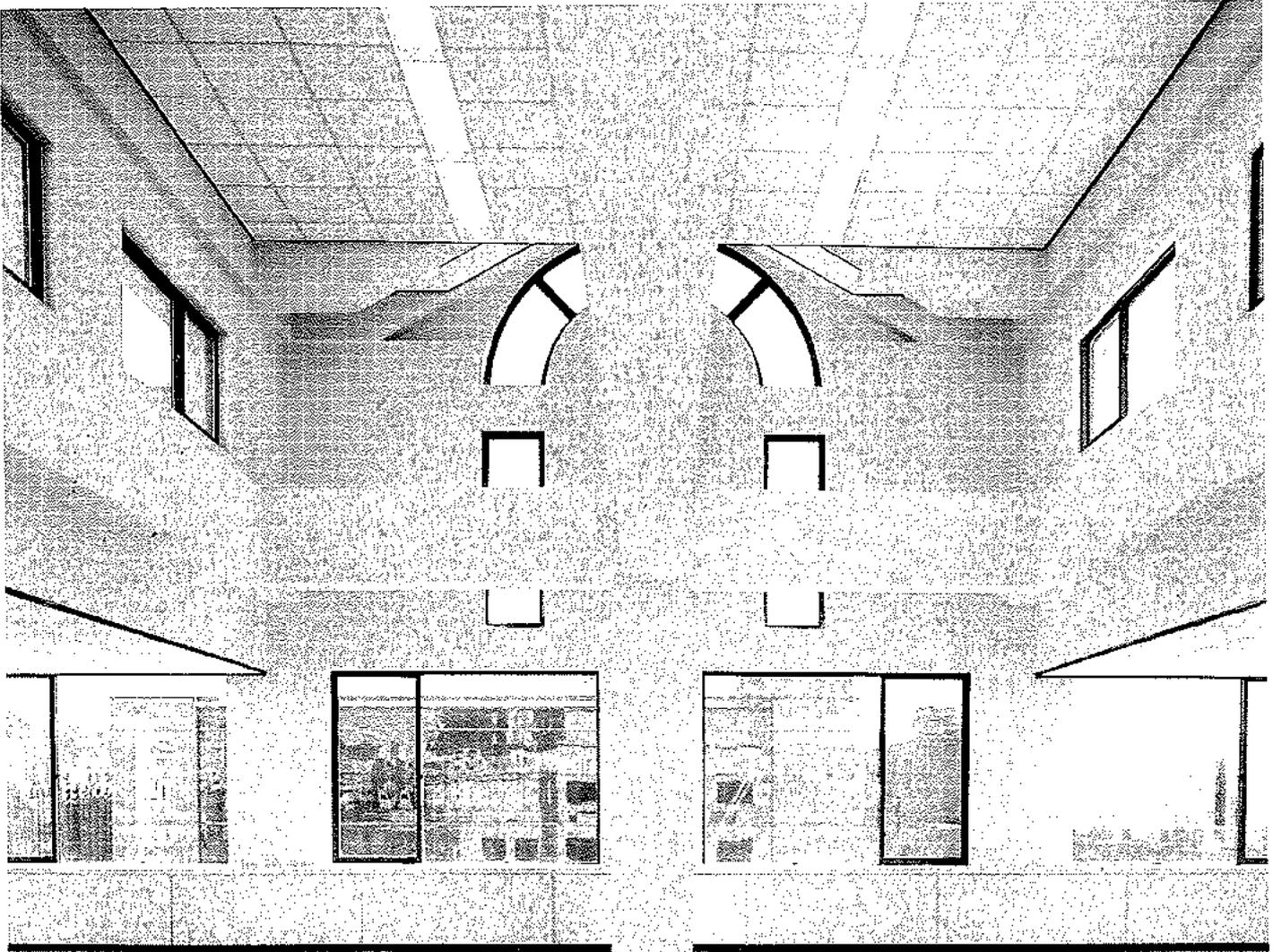
Myungwoo Building

金正植/양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ung-Sh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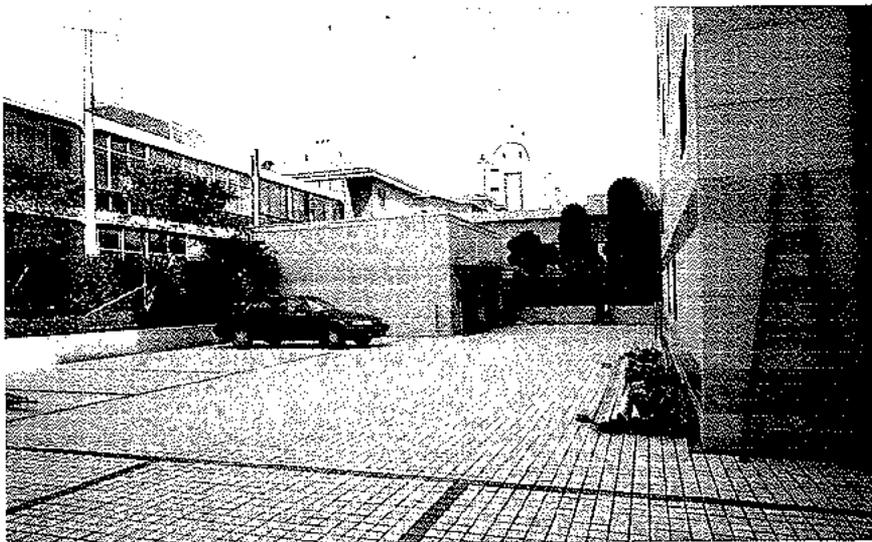


대지위치 / 강남구 역삼동 7473=3,4호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1,176.2㎡
 건축면적 / 586.93㎡
 연면적 / 5,332.06㎡
 건폐율 / 49.99%

용적률 / 293.21%
 규모 / 지하2층, 지상8층(옥탑층 포함)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화강석 물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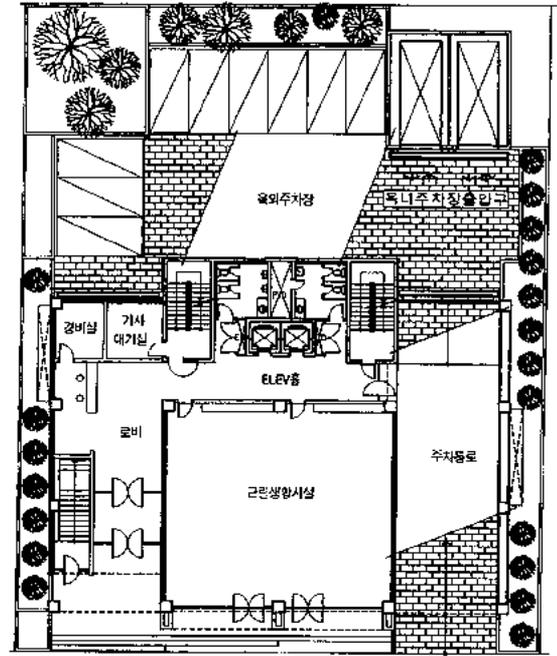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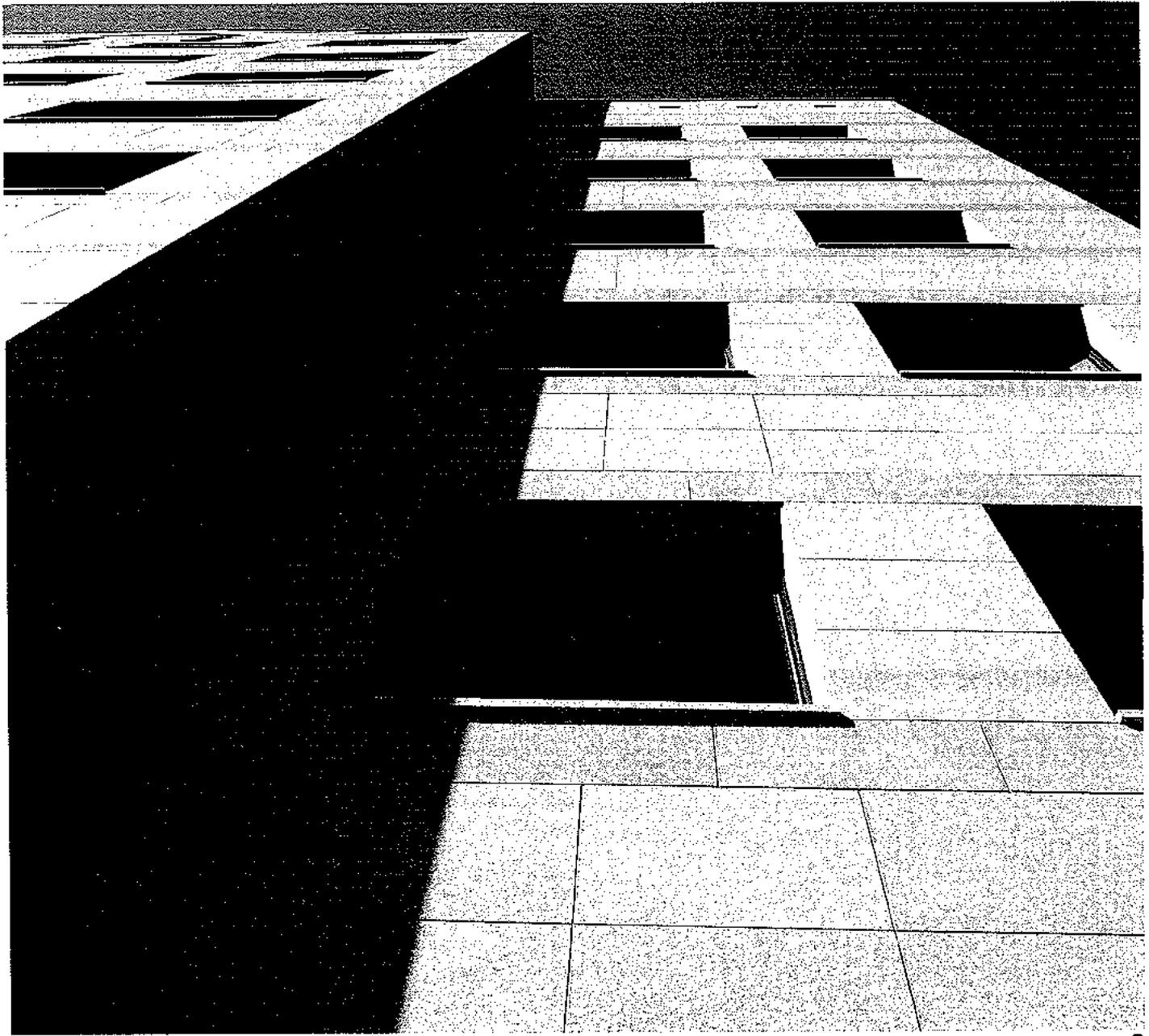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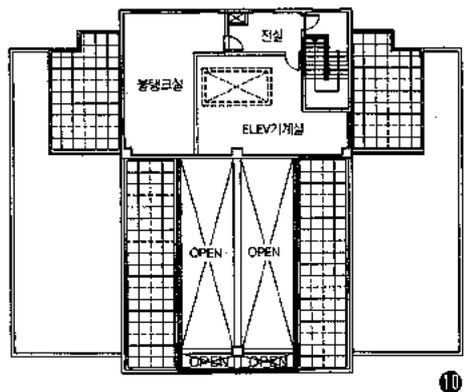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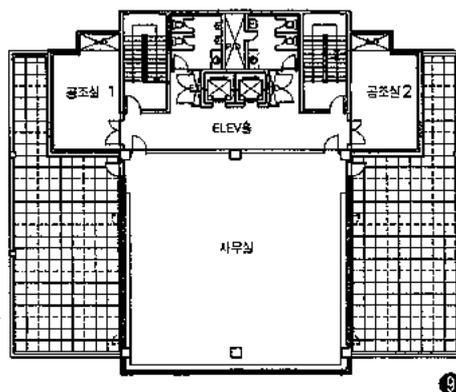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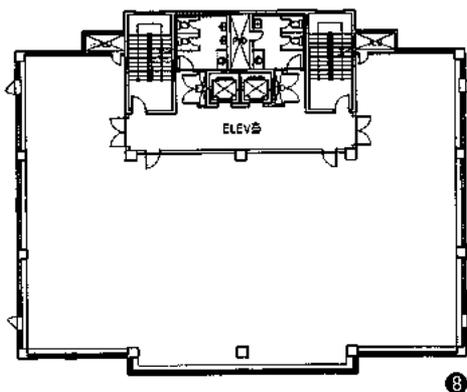
- ① 측면에서 본 전경
- ② 상부가 오픈된 7층 내부
- ③ 건물후면 옥외 주차장에서 본 옥내 지하 주차장 출입구



- ④ 옥외 주차 통로에서 본 옥내 지하 주차장 출입구
- ⑤ 1층 영입장 사무실 복도
- ⑥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⑦ 올라다 본 전면 외벽상세
- ⑧ 기준층 평면도
- ⑨ 7층 평면도
- ⑩ 옥탑층 평면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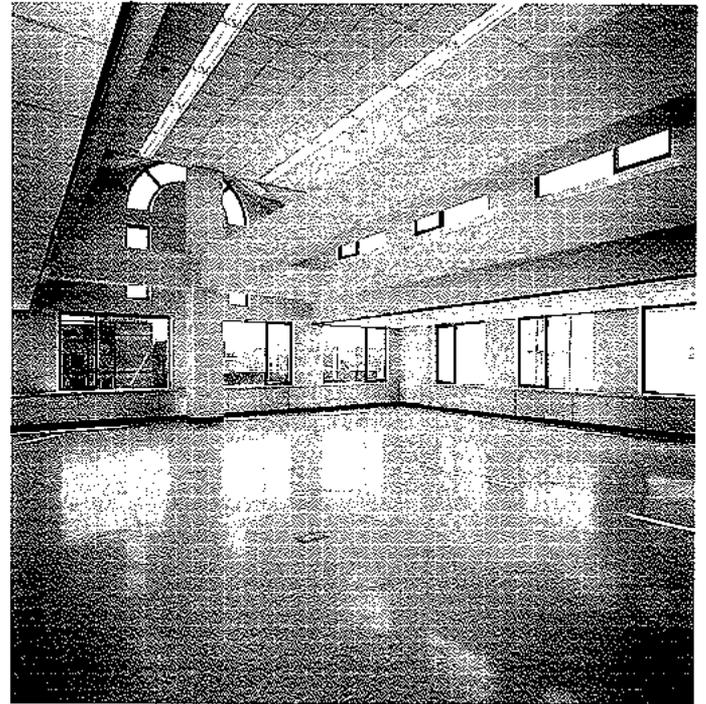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길=폭 20m가로에 들어 서면 신축되어진 건물들이 좌우에 줄지어서 나타난다.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서로다른 형태와 재질로서 도곡동길의 가로미관을 형성시키고 있다.
 화강석 물갈기와 버너 마감을 혼용하여 비슷한 Scale감의 건물들 속에서 커튼월 건물이 갖기

쉬운 가벼움 보다는 중량감을 부여하고, 절제된 부분 Detail 사용과 상부 Pediment채용으로 입면의 변화를 주었다.
 • 지나치게 Massive한 형태의 위압감을 줄이기 위해서 정면 Volume을 분절하여 도곡동길의 가로 리듬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
 • 평면상의 주안점은 주차 동선과 지상·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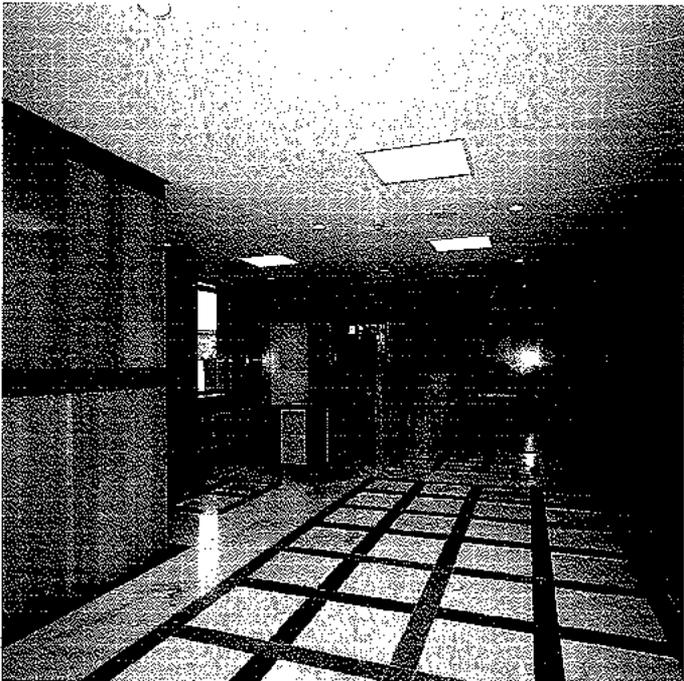
사용자의 동선을 진입부터 분리하여 기능상 명쾌함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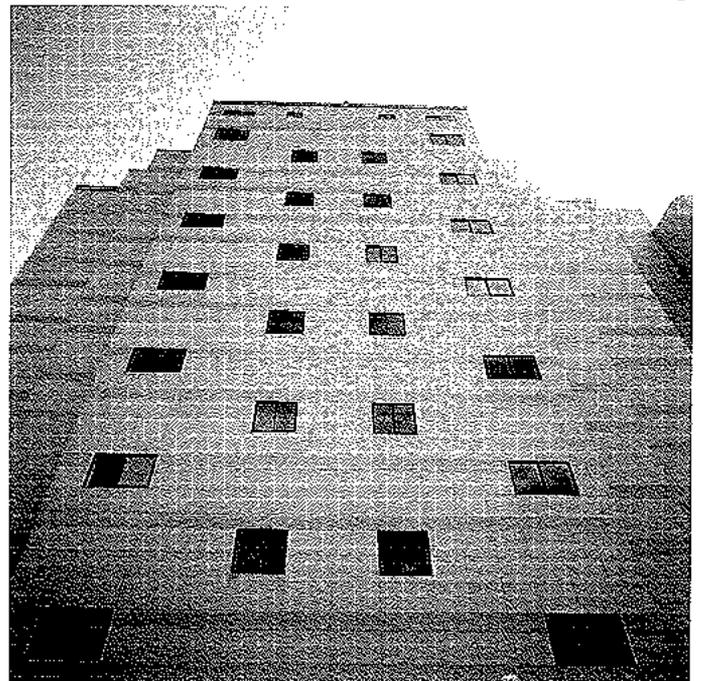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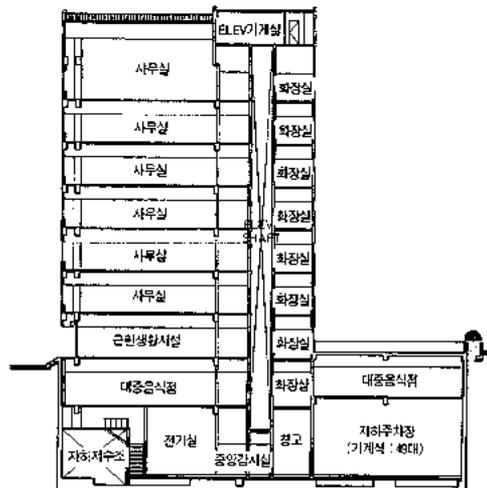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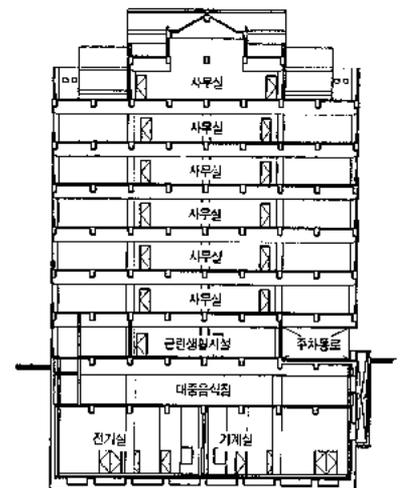


14

- 11 엘리베이터측을 바라본 내부 상세
- 12 상부가 오픈된 7층 내부 사무실 전경
- 13 1층 영입장 로비
- 14 올라다 본 배면 외벽상세
- 15 종단면도
- 16 횡단면도
- 17 전면전경
- 18 전면 주출입구측 상세
- 19 임대사무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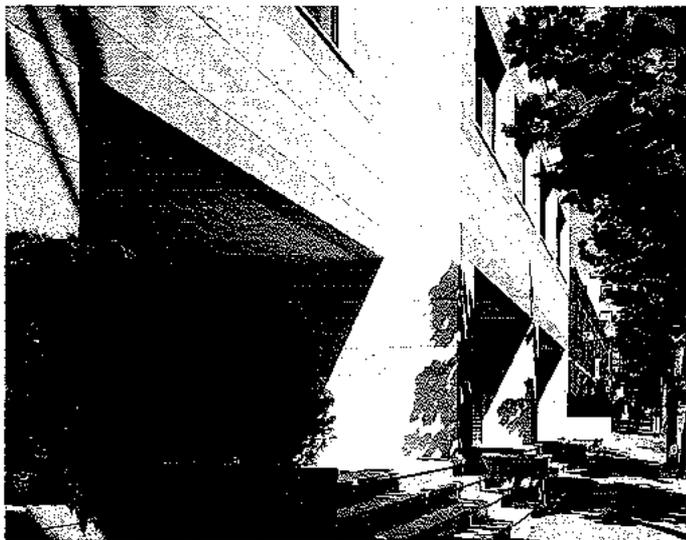
15



16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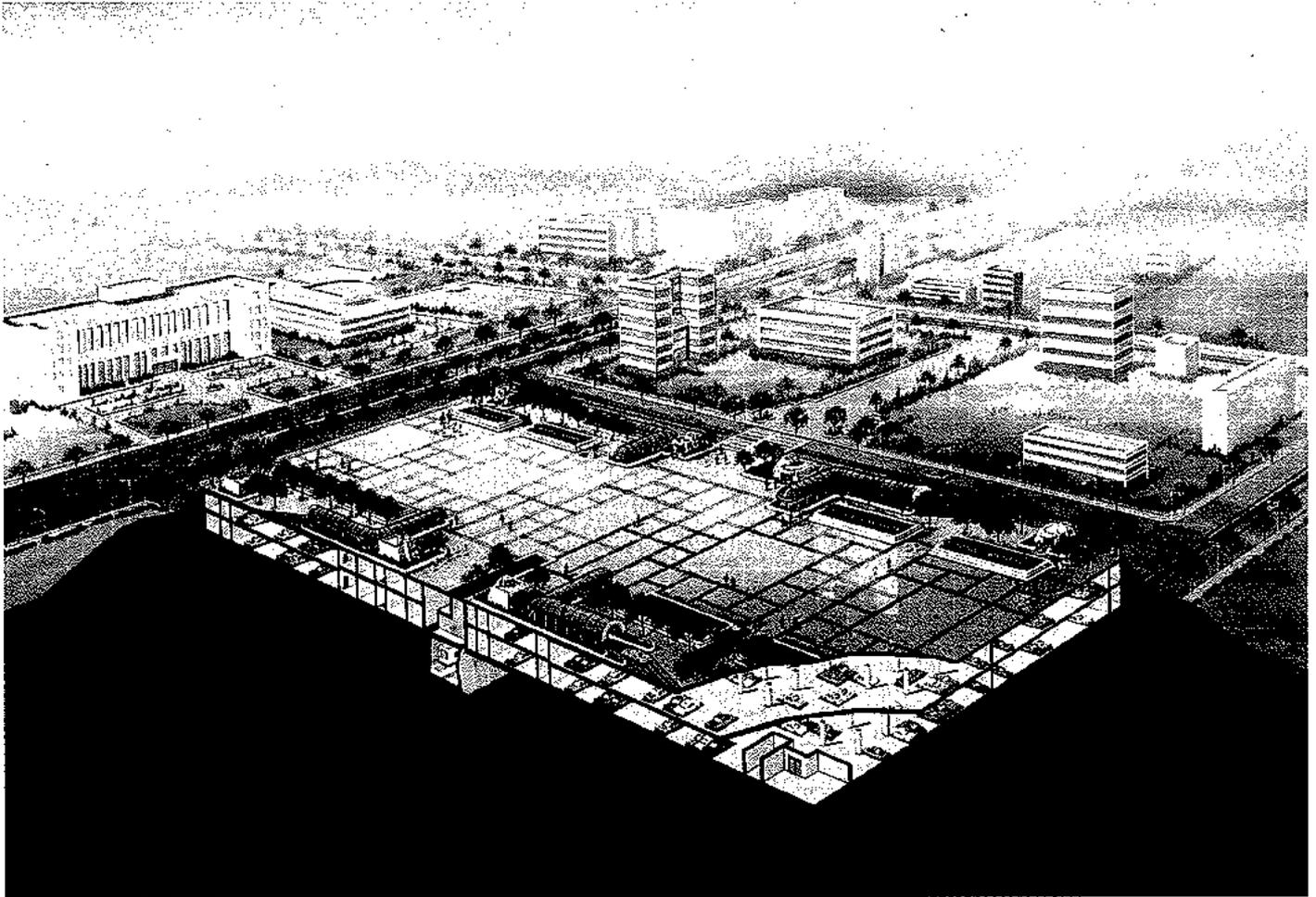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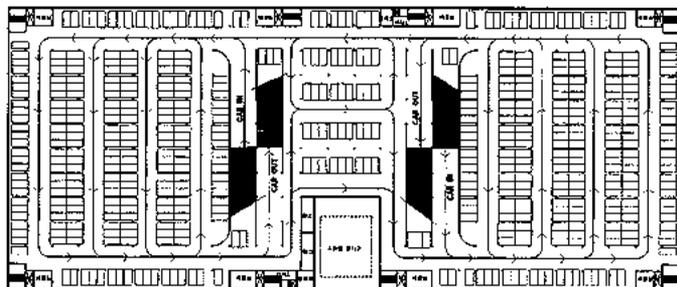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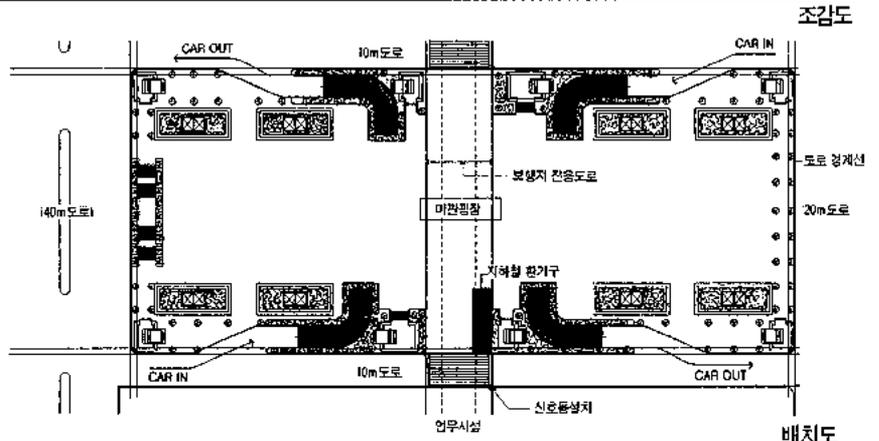
안양평촌지구 지하주차장

Anyang Pyeongchon Area Underground Parking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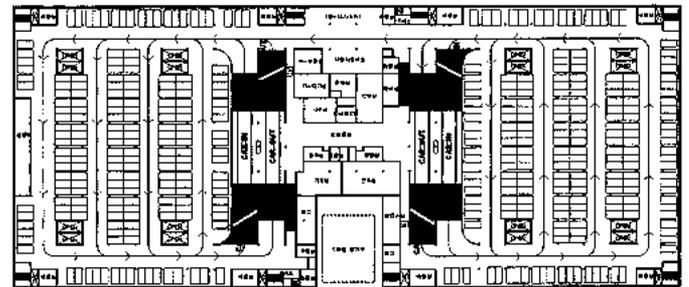
李世權 + 朴雲天 / 종합건축사무소 즉림·한마당
 Desinged by Lee Se-Kweon & Park, Wu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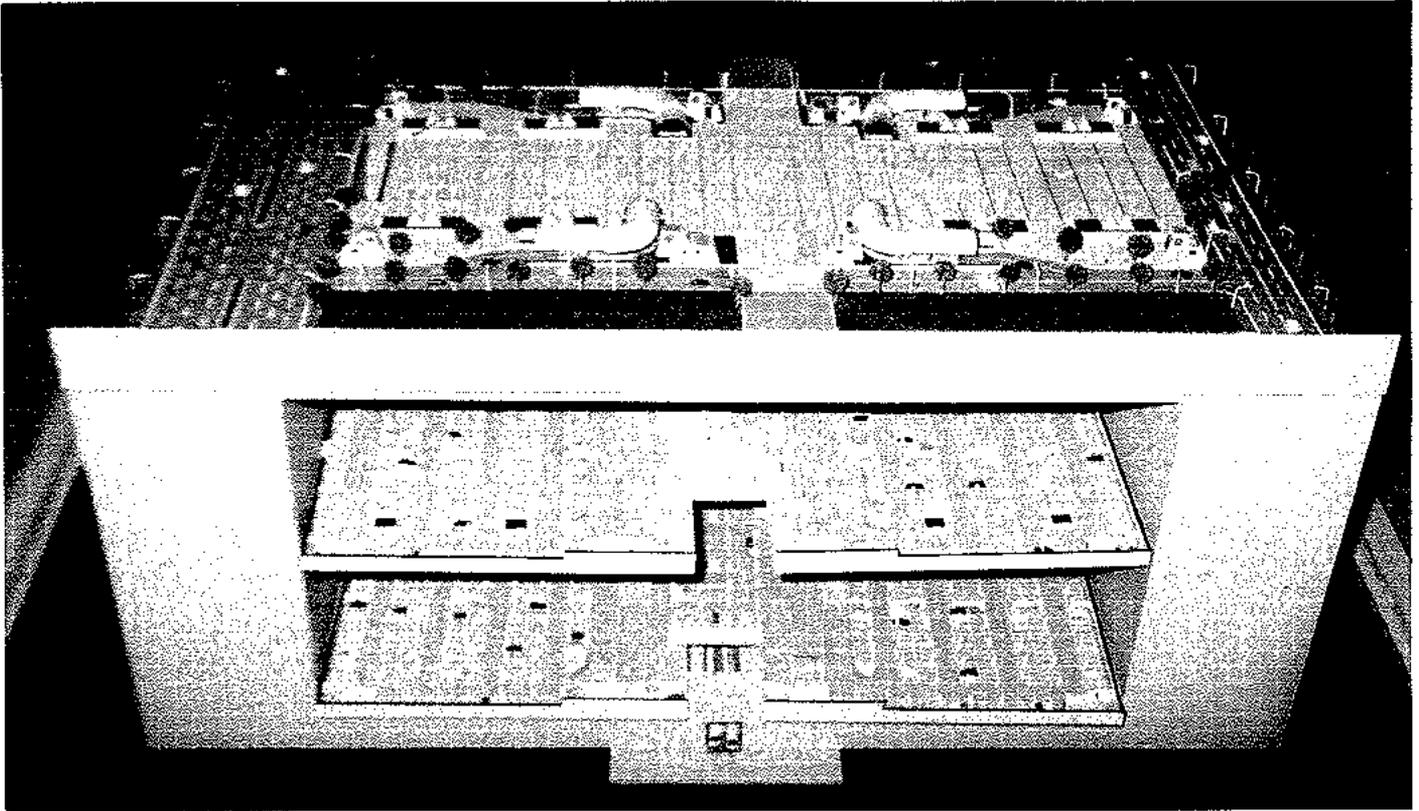
대지위치 / 안양 평촌지구 중심상업지역
 대지면적 / 18,572.5㎡
 건축면적 / 1,445.5㎡
 연면적 / 35,254.2㎡
 주차대수 / 891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2층,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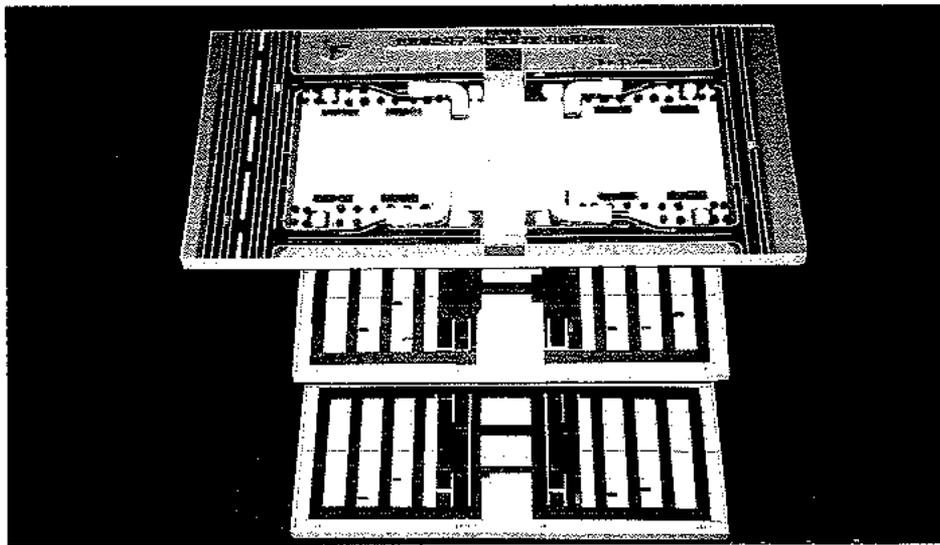
지하 2층 내부동선 처리도



지하 1층 내부동선 처리도



모형도 I



모형도 II

- 지하 1층 중앙부에 관리 및 정비실 집중배치
- 급배기실을 계단실에 접하여 균등분산 배치
- 주차부분의 기둥배치는 8.0×7.5m 보들을 채택
- 상하층 연결 램프를 중앙부분에 균등배치
- 단면 및 구조계획
- 조경 및 기타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복토깊이를 1.5m로 계획
- 경계성 및 설비공간을 고려한 층고계획
 - 지하1층 : 3,700(보높이 : 900)
 - 지하2층 : 3,400(보높이 : 700)
 - 설비공간 : 300~400 확보
 - 구조형식 및 재료
- Ground Floor : Beam, Girder System
 - 지하1층 : Rahmen System
 - 기초 : Mat Foundation
 - 콘크리트 : $F_c=240\text{Kg}/\text{cm}^2$
 - 철근 : $F_y=4000\text{kg}/\text{cm}^2$
- 동선계획
- 진입 및 진출동선은 주변도로의 지중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일방통행)를 통해 진입, 진출토록 계획
- 주차장내 수평동선은 일방향 진행을 채용,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차시킬 수 있도록 고려
- 2개 Zone으로 주차공간을 구획하여 Zone별 운영이 가능토록하고, Zone별 상호통행을 지하2층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출차후의 행선지를 고려하여 지하2층에서 행선지별 Ramp 선택이 가능토록 동선처리
-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8개소의 계단실을 균등배치

• 주변교통 및 부지현황

- 도심내부 교통권역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추지역
- 시청, 업무시설, 문화연구시설 등 도심의 대규모 업무시설에 의한 다량의 교통유발 예상지역
- 부지 남측면 42m 도로, 북측 20m 도로, 동측면 10m 일방 통행로가 면한 대지
- 부지 중앙을 동서방향으로 폭 10m로 지하 10m 지점을 파천선 전철이 통과하고, 부지 서측 중앙부에 대형 지하철용 환기구, 남측면에 지하보도가 설치된 상황

• 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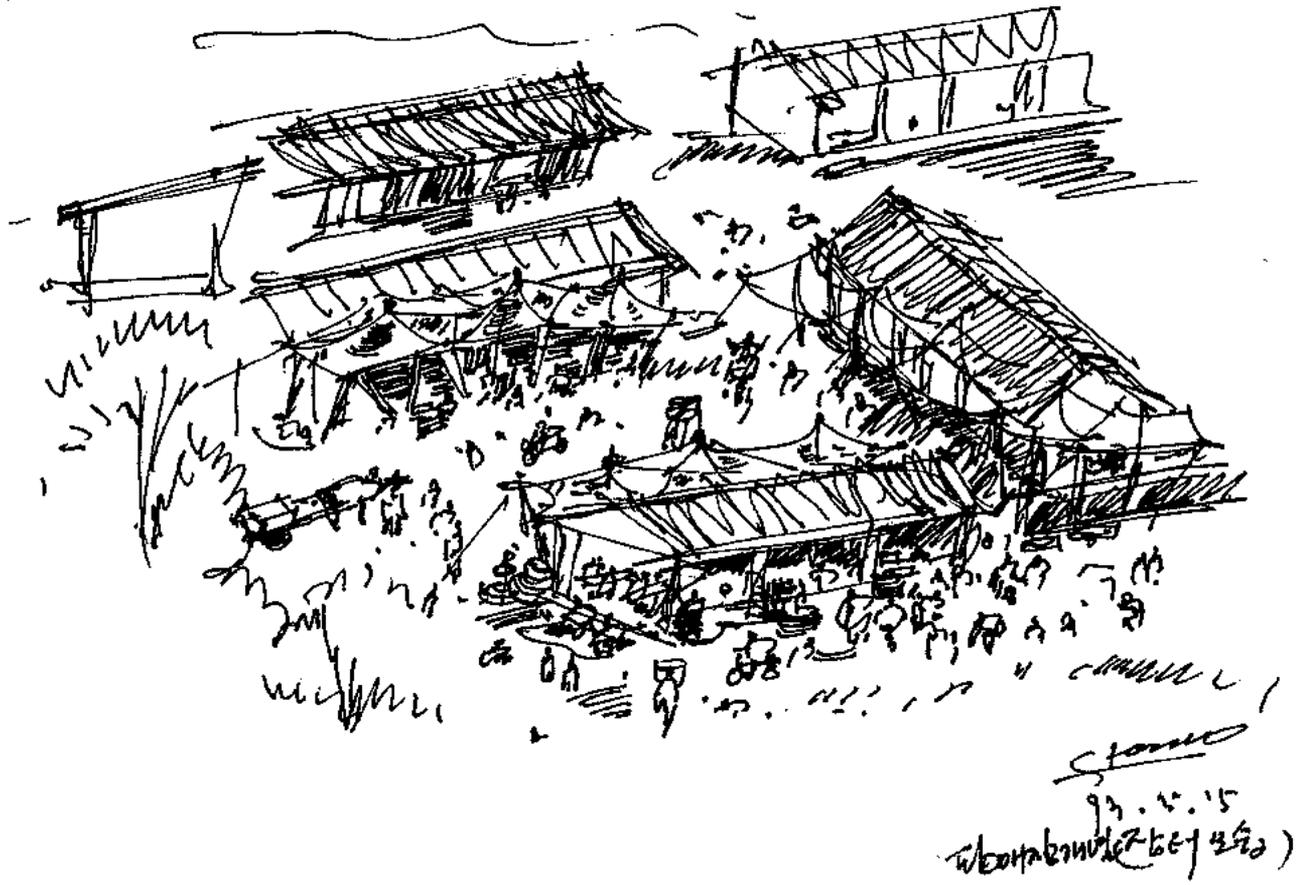
- 대형집회 및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방공간을 확보한 광장계획

- 지하시설로써의 폐쇄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 개방공간 확보(천창설치)
- 교통분석을 통한 주변도로의 지체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출입구 위치 및 개소 결정
- 내외부 차량동선을 단순화하여 이용의 편리성 추구
- 합리적인 주차관리 및 주차배치를 위한 평면계획
- 미관광장으로써의 성격을 고려한 출입구의 입면계획 및 조경계획
- 지하철 관통부분의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계획
- 평면계획
- 광장 화단부분에 지하2층까지의 채광을 위한 천창배치(8개소)
- 차량진출입구 4개소 및 계단실 8개소 대칭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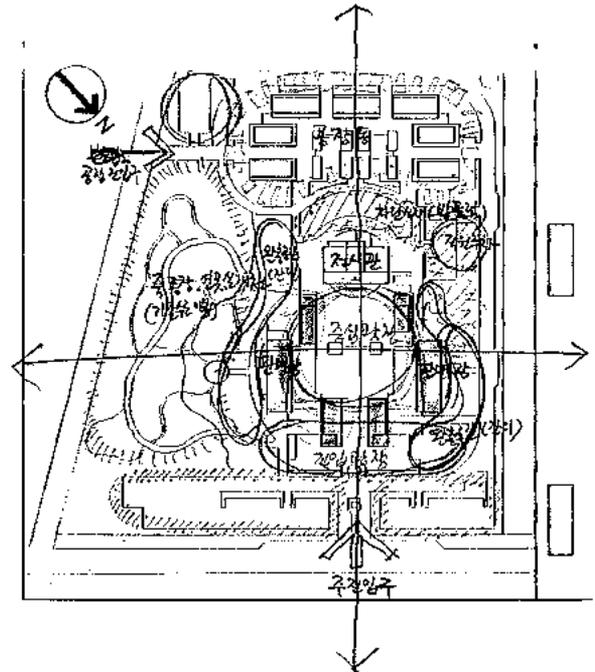
담양 죽세공예 진흥단지 계획(안)

Tamyang Bamboo Industrial Art Promotion Center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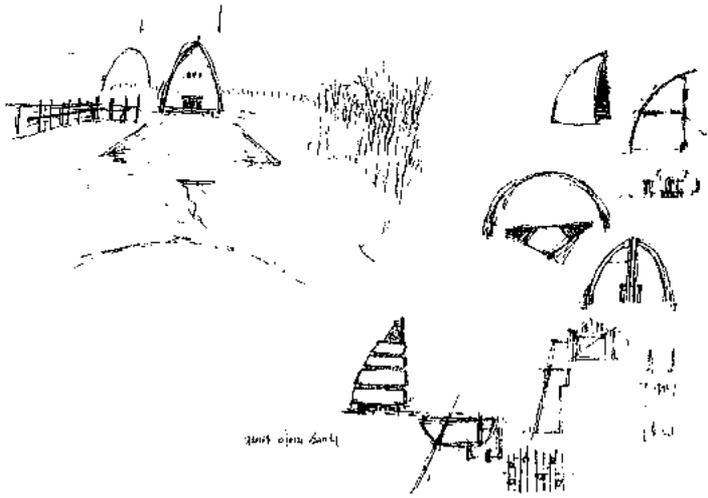
南相金/반중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Nam, Sang-Geum



우리의 사골장터는 이젠 사라져가고 있지만, 정겹고 인간적인 삶의
참다운 모습이 담겨있다.
장날이 되면 새벽부터 상인들은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느라 기둥을 세우고
줄을 이리저리 당겨 일시적인 폐쇄공간을 만든다.
쌓여진 물건을 풀어 펼치고 5일만에 만난 사람들과 인사하고 얘기하며
장꾼들을 맞이하려고 분주하다. 이날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장소도 아니다. 이동네 저동네 얘기를 주고
받는 인간적인 교육의 장이며 어쩌면 모처럼의 도시적인 흥미를 맛보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도 어느덧 과거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이젠 민속이란
이름을 덧붙여 추억거리로 삼으려 한다.
그 흥미 진진한 장터의 모습은 현대적인 장소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판자지붕, 대나무기둥, 천막, 줄... 등은 현대적인 건축의
형태요소(막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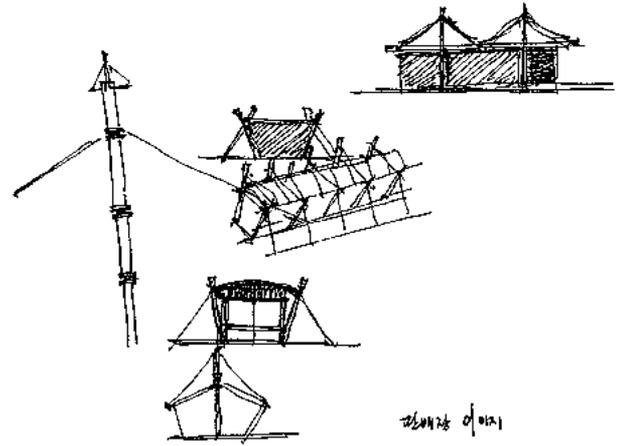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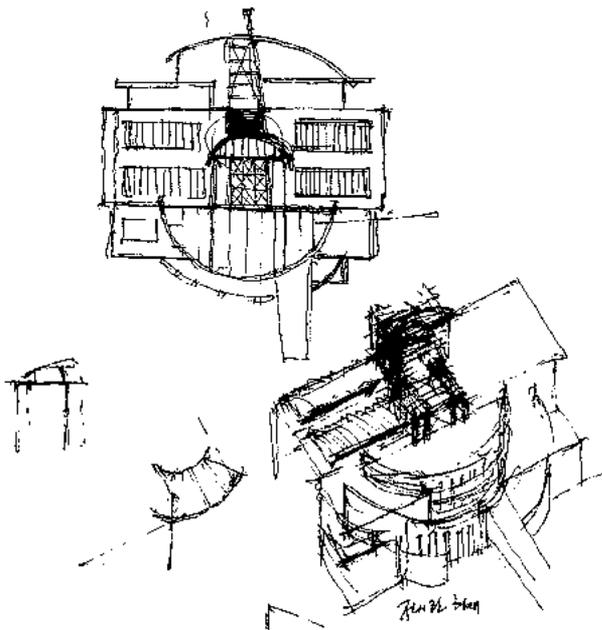
전시관 이미지

전시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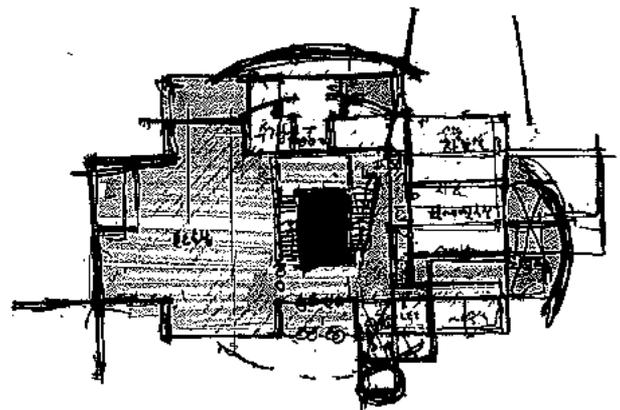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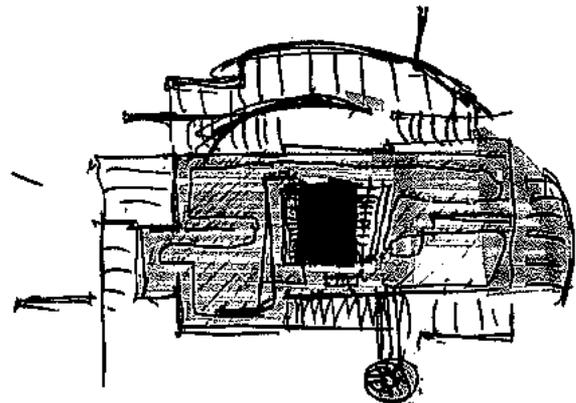
판매장 이미지

판매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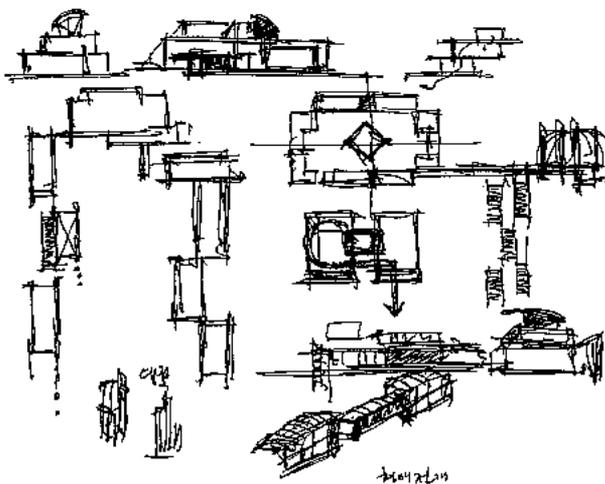
전시관 형태개념

전시관 형태개념



전시관 평면개념

전시관 평면개념



형태전개

형태전개

목동 아파트 설계 회고

Retrospect on the Mokdong Apartment Design

河在鴈/종합건축사사무소 아주

by Ha, Jae-An

이글은 작품에 부치는 글이 아니라 회고록과도 같은 것이다. 작품이 태어난지 오래일뿐 아니라 목동아파트가 나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한 사무소의 일원으로서 그 기억의 편린들을 회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한 목동지구 아파트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것은 10여년 전의 일이다.

당시 나는 서울건축 소속이었고, 서울건축은 목동지구 개발 종합기본계획의 현상설계에 이어 목동지구 아파트 1차(1단지)와 2차(2~6단지)의 6단지 그리고 3차(7단지~14단지)의 14단지 설계를 수행하였고, 나는 그 마지막인 14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것이다.

14단지는 제 19, 20, 21공사 공구로 되어 있었으며 1차설계는 1985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2차 설계는 20공구에 한해 평형 및 배치를 변경한 재설계로서 1986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다.

지금은 어느덧 어우러진 수목과 동네꼬마들 노는 소리로 “사람사는 동네”다운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만 어쩌다 그 곳을 지나칠 때면 한창 목동아파트 설계에 몰두했던 참으로 고생스럽고도 한편으론 보람있기도 했던 지난날의 그때가 애절하리만큼 연민으로 되살아나는 것이기에 이제 그 애환많은 목동아파트단지의 탄생사에 부쳐 이글을 남겨 두고저 하는 것이며, 특히 14단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이 히든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다.

목동아파트 단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민간건설업자들이 시공할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사업이었다.

요즈음은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분당, 일산과 같은 인구 수만의 시급 규모의 주택단지가 속속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목동지구는 놀랄 것도 없는 규모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단한 사업이었고 말도 많았다.

철거민 소동이나, 토지수용에 대한 땅장사 의혹, 침수지역,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미분양 사태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무엇보다도 130만평의 부지에 2만5천세대, 계획인구 12만의 아파트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규모의 대담성이었다.

외국에서는 그러한 대단위 하우징 사업을 그토록 빠른 시일내에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민의를 존중하는 행정태도, 까다롭기 그리없는 시공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그 수요자체가 의문시 된다.

그러나 주택사업에 관련한 한국의 실정에 대해 외국의 학자들은 혀를 내두르고, 평생 그런 하우징 Project를 설계해 본적이 없는 외국의 건축가들은 균침을 흘린다고도 들린다.

한국인의ダイ나미한 품성과 아직은 절대 권력적인 행정력에 의해 그런 주택사업은 목동이후에도 상계동, 올림픽타운, 200만호 주택건설로 이어지며 수도권 신도시와 전국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어쩌하였건 목동아파트는, 마포아파트에서 비롯되는 우리나라 아파트 건립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

얘기를 다시 목동아파트 설계로 돌리면, 당시 서울시는 목동지구 개발사업소를 설립하여 설계. 시공 분양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을 관장토록 하였는데, 아파트 설계는 물론 서울시가 발주한 것이다. 설계는 분양 차수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2차 분양단지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고 1차 및 3차 분양단지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였다.

내가 참여했던 3차 분양단지는 7~14단지의 8개단지로서 거기에는 선진, 흥, 정림, 공간, 천일, 동남아, 종합, 서울건축 등 8개의 사무실에서 1개단지씩을 맡아 설계했다.

계획의 주안점은 개성과 특색있는 개별단지를 조성하되 전체적인 목동지구의 조화를 이루어 내도록하는 것이었으며, 각 단지의 설계자가 각각인 상태에서 그것은 쉽지않은 과제에 속했다.

각자가 설계지침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배치를 한 후 각 단지의 Study Model을 들고 한자리에 모여 이들 단지와 단지를 조합해서 전체 지구의 형태조화, Sky line, 교통 및 녹지체계 등을 검토하는 식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된 안을 기본설계로 확정하고 한차례 심의를 거친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러한 설계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남기고 싶은 얘기의 하나는 설계의 부수적인 여건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그러하듯 원가와 사업수지에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는 만큼 아파트의 평면형이나 배치는 용적률과 분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문제나 건축의 품질향상에는 자연히 최선을 다할 수 없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거환경 문제나 품질향상에 대한 목동 사업소사의 의지는 의외로 강했고, 그것이 좋은 설계를 낳게하는 가장 큰 동인이 될 수 있었다.

민영아파트가 분양성에 치우쳐 그 빌미로서 좋은 설계를 추구한다면, 공영 아파트는 공공성에 입각해 좋은 설계를 추구하고 그 결과로서 분양성을 높인다는 상반된 입장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설계의 작품성이나 독창성의 측면에서 예산이라든가 공기, 법규의 이행 여부 등 공직의 입장에서 당연히 되는 규격화된 검증의 틀을 벗어나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대도를 관장하는 서울시의 비전과 소신있는 담당자의 존재를 재인식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것이 설사 서울시가 자체사업에 대한 지나친 의욕이나 사업실패의 우려에 의한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설계가 설계다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행운이었고 목동아파트의 설계자는 좋은 무대를 얻은 배우가 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은 8개 사무소에서 분산하여 수행하는 설계의 체계화, 통일화 작업이었으며, 그를 위한 대화와 절충의 방도 문제였으나, 이 또한 원만한 해결방책에 힘입어 활발히 설계를 추진할 수 있었다.

8개 사무소는 편의상 선임 사무소를 정해 연락업무와 장소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소속과의 창구 역할도 하였다.

선임사무소는 사무소의 서열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조건없이 임무를 맡았으므로 여타의 사무소는 선임사무소의 통제를 기꺼이 수용하였다.

그러한 결과 각 사무소는 15차에 걸친 회합과 토의를 가졌으며, 그로인해 업무연락과 설계 통일화 작업의 추진은 물론 사무소의 정보 교환과 각 사가 지닌 설계에 관한 노하우를 티득하게 하여 아파트의 설계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경쟁관계에 놓이게되는 사무소와 사무소 간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이것이 기술의 확산과 교류의 장애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당시 나는 30대 중반의 과장이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다른 사무소의 실무 책임자들도 대부분 30대의 과장, 실장급이었다.

그뒤 그들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지금도 서울 건축사회에서 그 인연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동 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가 그러하듯 건축으로서의 작품성을 인정 받거나 건축계의 별다른 비평을 받지 못했다.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을뿐 아니라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지난 설계상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창안에 대한 융통성이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목동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의 건축설계 분야에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형식을 이시대의 사회 발전상에 맞추어 한차원 높이 끌어올린 주목할만한 몇가지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목동아파트 설계를 추억하는 이유 이전의 문제-건축물이 지나는 어쩌면 세인의 관심밖일지도 모를, 거기에 받쳐진 선구적 진취적 설계의 의미이자 자긍심인 것이다.

목동아파트 설계에서의 주목할만한 설계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uldesac 방식에 의한 보차분리, Pedestrian mall 형성
이미 확립된 설계 이론이었으나 종래 설계 여건상 시도되지 못함
2. 20층 이상의 초고층 APT. 도입
상계지구의 주택공사 현상공모에 이어 목동에서 최초로 현실화
3. 계획 과정에서의 경관 검토
대단위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Sky line 등의 문제가 본격 대두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경관심의의 한 모태가 되었음.
4. 획일배치를 지양한 저·중·고층 아파트의 혼합배치, 층 복합

Block의 구성, Cluster형성,

남향 선호와 용적률 확보에 따르는 배치 경관문제는 계속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음.

5. 주동내 다른 평형 복합
단지내 평형 배분에 따른 위화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6. 동거형 아파트 도입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노부모 양육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당시 세금, 의료보험제도 등이 개편되고 건축계에서 아파트 거주형태가 문제화 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주택공사에서 3세대형 아파트 설계를 공모한 바 있음.
7. 지하주차장 도입
아파트의 본 취지중의 하나인 녹지 확보가 주차장에 의해 소실되기.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장 법규가 강화되면서 지하주차장은 보편화 됨.
8. 1층 세대의 전정배치
1층세대에 독립정원을 조성하여 아파트 단지의 사각지대로부터 해방. 이미 대구지역에서 실현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에서는 최초로 도입.
9. 아파트 1층에 전후 횡단통로 설치
아파트의 길이에 의해 전후면이 차단되는 동선을 극복. 아파트 초기 시도된 바 있으나 공용면적 확대, 경비실의 감시체계 문제로 오히려 퇴조하였음.
10. 아파트 현관에 장애인용 Ramp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
장애인용 Ramp 등은 이후 법제화되고 일반화됨.
11. 단지내 차도 교통안전 체계
Drive condition을 고려한 도로선형 구성, 단지내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 완만한 안전턱 설치.
12. 녹지체계
녹지의 계통화 실현, 종래의 점조식 방식에서 군집수림 방식 채택, 녹지내 유보로 설치, 녹지의 보도의 단차 배제.
13. 어린이 놀이시설
종래의 일률적인 놀이시설에서 탈피하여 종별, 재질, Design을 개선 확충함.
14. 아파트 색채 계획 및 표지판 디자인
아파트 외장을 별도의 색채계획에 의한. 이후 아파트 건물 외벽에 Super graphic이 도입되는 계기가 됨.
전단지의 안내표지판의 규격, 로고 등을 체계화함.
15. 신공법 도입
종래 터널공에 의한 벽식구조에서 유리공에 의한 벽식구조를 도입하여 횡벽이나 보의 설치 등이 용이하게 됨.
16. 지역난방 방식
국내 최초로 열병합 발전에 의한 지역 난방방식 채택. 이후 신도시 등에서 일반화 됨.

이상에서 보는 것은 이즈음의 시각으로는 그리 획기적인 발상이고 과감한 설계기법이라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그 결과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만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과 그 건축설계의 진전 과정에서 목동아파트가 미친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목동아파트 이후 건립된 대단지 아파트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목동아파트 보다는 더 새로워지고 진전된 면이 많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잘못된 정책, 지가의 상승, 건설업자의 사업성 위주의 설계로 인해 오히려 퇴조한 측면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목동아파트는 종래와 다른 몇가지 자랑할만한 장점을 지녔음에도 그것이 그대로 세인의 관심을 끌고 또 성공적인 분양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소위 아파트라는 상품은 그 품질과는 별개로 부동산경기와 실수요를 떠난 부차적 구매 이유가 수요를 결정짓는 더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서울시와 목동사업소의 관계자를 곤혹스럽게 했던 당시의 대거 분양미달 사태는 한마디로 분양붐이 일고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의 장사 미숙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계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정도로 치부하고 말일은 아니었다.

일간지에서는 나름대로의 미분양의 원인을 분석하여 게재하였고,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설계상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를 미분양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1. 주거환경상의 문제

- 1) 학군이 나쁘다.
- 2) 친수지역이었다. (84년 8월 홍수시)
- 3) 안양천을 끼고있어 불편하다.
- 4)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불편할 것이다.
- 5)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해 시끄러울 것이다.
- 6) 철거민과 함께 살것이다(수준이 낮을 것이다)

2. 사회적 여건

- 1) 소위 투기붐이 조성되지 않았다. (사업적 여건과 관련)
- 2) 넓은 평수를 찾는 실수요자는 많지 않다.
- 3) 공공개발 아파트라서 값싼 시영아파트의 인식때문에 수요자 등이 꺼린다.
- 4) 시공자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높아진다.
- 5) 신시가지의 청사진을 공감하고 있지 않다.

3. 사업시행 방법상의 문제

- 1) 분양 세대수가 많다. (일시 대량 공급)
- 2) 국민주택 규모가 적다. (분양가가 비싼 APT. 가 많다.)
- 3) 2차 분양은 설계. 시공 일괄발주라 장삿속이 많은 설계일 것이다.
- 4) 채권입찰제 시행.
- 5) 홍보 미흡.
- 6) 전매행위, 실수요자여부의 조사 및 중개업자 개입 봉쇄

4. 설계상의 문제

- 1) 단지 조화를 위한 배치보다는 남향여부가 우선이다. (남향이 아닌 아파트가 많은 단지일수록 남향 당첨가능성이 적다)
- 2) 세대수가 적은 평형은 싫어한다. (단지내 동부계층 의식, 설계상의 우선 고려대상 배제 우려)
- 3) 단지별 설계 특성으로 인해 전용면적비, 발코니면적, 싱크대 Size 등이 Unbarance하다.
- 4)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형도 계단실형을 선호한다.

5) 동거형은 외면하는 실정.

6) 55평형을 5층 APT. 에 배치한 것은 고소득층에서 불매 불편하다.

7) 단지 위화감 해소를 위해 다른평형을 복합하였으나 또다른 위화감이 발생

이상에서 보는 이유들이 반드시 실제적인 미분양의 원인과 직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1차, 2차 분양에 이어 청약예금과 상관없는 3순위를 접수하여 3차까지 재분양 하였어도 50%정도에 그치는 저조한 분양 실적(86년 5월 12일자 1,2차분 미분양 아파트의 재분양 결과에 대한 서울신문 기사)이었고, 이어 목동 3차 아파트와 올림픽 개최전의 해미리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미분양은 계속되었으나, 이후 엄청난 지가상승, 분양가와 시가차액(프리미엄)의 격차, 그리고 서울 시내에는 더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할 땅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미분양이란 용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아파트의 분양은 투자가격과 회수의 문제이자 공급량과 수요량의 균형에서 빚어지는 결과에 따름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목동아파트 설계를 회고하는 히든 스토리는 사실 아파트의 설계내용이나 분양에 따른 뒷 얘기를 상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보다 개인적인 가슴 따뜻한 그날들의 추억이라 할 것이다.

의욕에 넘치고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찼던 30대. 목동아파트 설계에 파묻혀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던 당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K교수님, L님, 그리고 당시에 함께 일했던 멤버들, 또한 다른 7개 사무소의 소장님, 팀장들 그 멤버들에게 감사 드리고 싶고 소신 있었던 공무원-당시 사업소의 H과장, K계장에게도 늦게나마 갈채를 보내고 싶다.

이제 “작지만 큰 일보”라 할수 있는 목동아파트의 설계업적에 대하여 마지막 에피즈드를 피력할까 한다.

당시 국내 설계사사무소는 이제 막 CAD System의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다.

각 사무소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있었고 서울건축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다가 실시설계에 처음 활용되었다.

목동아파트를 계기로 처음으로 CAD로 작성된 실시설계 도면을 출도한 것이다.

물론 다른 사무소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종래의 설계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새로운 System은 적용이 안되어 많은 번거로움과 애로가 따랐다.

18명이 팀워크를 이루는 초유의 기록과 함께 수작업과 CAD작업을 병행하여 1년여에 걸쳐 835매의 도면을 완성했고, 토목 조정 기계 전기분야를 합쳐 14단지의 도면은 2,255매에 이르렀다. 참으로 짧았지만 긴 역정이었다.

후일 APT건립이 완성되고 각 단지마다에는 설계자의 명패가 세워졌다.

흔히 정초(머릿늘)라 이름하는 그것이였다.

서울시측의 설계자에 대한 배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며, 주거문화의 창달보다는 주택사업의 각축장으로, 설계자보다는 시공회사의 이름만 남겨지는 여타의 아파트단지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흔치않은 값진 보람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건축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해설

Explanation on the American Registered Architect Examination

張林鍾/대진대학교 건축과 교수
 朴舒弘/(주)단·희산 종합건축사사무소
 by Jang, Lim-Jong & Park, Seo-Hong

I. 개요

건축사자격시험(A.R.E.)은 시험응시자의 건축가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공공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평가하는 영역은 기초계획, 대지계획, 건축설계, 건축설비 및 건축도서와 제반업무 등이다. 시험은 응시자의 사회문화적, 물리적 환경, 디자인 과정, 건물의 구조, 재료 및 공법 그 외에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모든 시험과정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안전성(Life Safety)이 우선한다.

시험은 건축의 실제업무와 연관된다. 모든 문제들은 건축가가 실제 수행하는 서비스에 기본을 두고 출제된다. 그러므로 본 건축사자격시험(A.R.E.)은 환경의 분석 및 계획, 대지분석, 대지설정 및 계획, 건축기능분석, 건축설계 및 상세디테일, 기계 및 전기 설비, 자동차 및 보행자 동선, 장애자를 위한 설계, 안전설계, 건축의장, 건물의 종합, 건축재료 및 구법, 건축공정, 예산 및 기타 건축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II. 시험일정

첫째 날

DIVISION I : 건축도서와 제반 업무(3시간)
 DIVISION H : 건축재료 및 시공(3시간 45분)
 DIVISION G : 건축설비(2시간 30분)

둘째 날

DIVISION D/F : 건축구조-구조 일반 및 강스팬(3시간 30분)
 DIVISION E : 건축구조-형력에 따른 구조계획(1시간 45분)
 DIVISION B : 대지계획-필기(1시간 45분)

셋째 날

DIVISION A : 기본계획(3시간 30분)
 DIVISION B : 대지계획-실기(2시간 45분)

넷째 날

DIVISION C : 건축설계(12시간)

해당 주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응시자가 시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시험일정변경을 요하는 신체장애 응시자는 가능하면 빨리 주시험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일 6월3일까지(응시일로부터

약 45일전) 접수되지 않을 시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첫째 날(겨울시험)

DIVISION B : 대지계획-실기(2시간 45분)

둘째 날(겨울시험)

DIVISION C : 건축설계(12시간)

III. 시험평가 및 결과통보

시험체점이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시험결과가 각 주시험관리위원회로 통보된다 하더라도

중앙시험관리위원회(NCARB)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시험체점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채점과정에서 착오없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NCARB와 자문기관인 교육평가원(ETS)은 시험전반의 부분적인 모든 사항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철자의 에러나 문자 및 표현의 애매모호성을 전혀 없도록 검증하고, 또한 지난 시험에 비해 쉽거나 더 어렵지 않도록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철저한 시험검증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검증과정은 시험답안이 틀리지 않게 채점되고 통보될 수 있도록 채점의 진과정을 점검한다.

건축사자격시험(A.R.E.)은 다른 전문인자격시험과는 다르다. 시험 자체의 중요성과 성격상 정확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 건축사자격시험의 채점과 결과통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실기시험은 NCARB에서 채점자로 훈련을 거친 등록건축사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채점된다. 채점은 7월 말이면 끝나고 점수가 다른 과목의 점수와 함께 모아져서 정확한 결과 통보를 위하여 점검과정을 거친다. 채점 전에는 시험답안지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수험번호와 몇가지 분류정보만을 적게 되어 있다.

모든 A.R.E. 결과는 주시험관리위원회에서 응시자에게 통보한다. DIVISION C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1점에서 99점까지의 점수로 환산되어 나오고 75점이 최저합격 점수이다. 결과점수는 많은 문항수가 아니며, 맞게 답한 수의 백분율도 아니다. DIVISION C는 합격, 불합격으로만 나온다. 결과점수에 의문사항이 있는 응시자는 해당 주시험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야 한다. 중앙시험관리위원회는 시험결과에 대하여 응시자와 직접 관계할 수 없다.

DIVISION B : 대지계획은 실기와 필기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부분 모두 75점을 최저합격점수로 하여 환산된 점수가

나온다. DIVISION B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기와 필기의 두 부분 모두에서 합격을 하여야 한다. DIVISION B의 한 부분에서 합격한 경우 불합격된 부분을 다시 치뤄야 한다.

DIVISION B의 실기시험은 5개의 소문제(한 문제당 약 20분씩)와 1개의 논리적인 설계문제(약 65분 소요)로 이루어져 있다. DIVISION B: 대지계획 필기시험은 5개의 소문제를 1의 가중치를 주고 1개의 디자인 문제는 3의 가중치를 주어 그 점수를 합산한 다음 75점을 최저합격점으로 하는 환산점수로 한다.

NCARB는 응시자의 시험기록에서 어떠한 요구에도 그 이전 기록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응시자가 시험장소에서 시험장을 떠나기 전에 시험감독관에게 요구할 때 응시한 바로 그 과목만큼은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NCARB는 NCARB와 ETS에서 보관하는 개인기록을 응시자의 권리로서 잘 보호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NCARB는 어떠한 불법적인 공개도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시자의 개인기록은 보호를 위하여 단지 NCARB와 해당 주시험관리위원회에만 통보하고 응시자의 이름이 없이 연구용자료로 사용될 때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공개이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IV. NCARB 방침

응시자는 A.R.E.에서 요구하는 응시서류의 모든 항목에 답해야 한다. 만약 주시험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대로 정확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등록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고 혹은 NCARB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처음 응시하는 응시자는 시험과목 모두 혹은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 A.R.E. 시험 중에서 불합격된 과목이 있다면 불합격된 과목에 한해서 다시 치뤄야 한다.

* 몇몇 주의 시험관리위원회는 중앙관리위원회의 방침과 다를 수 있다. 처음 시험을 치루거나 다시 시험을 치루더라도 시험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해당 주시험관리위원회로 연락하여야 한다.

V. NCARB의 시험기밀유지

NCARB가 치루는 모든 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을 관장하는 주시험관리사무소에서만 다룰 수 있을 뿐, 다른 어떠한 누구에게도 열람이나, 복사, 혹은 연구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모든 NCARB 시험은 엄격하게 보호되고 기밀이 유지된다.

VI. SI(국제공인) 미터법 단위

미국의 건축사자격시험은 캐나다 시험관청에서도 자국의 자격시험으로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A.R.E.는 캐나다의 기준과 정의에 맞는 국제공인(Systeme International d'Unites) 미터법 단위와 기준에 맞춰야 한다. 캐나다 기준에 맞는 국제공인(SI) 미터법 단위 및 기준은 미국 단위나 기준 바로 뒤 괄호 안에 표기한다(아래 예 참조). SI단위로 바꿀 경우 대응값은 근사치이며 수치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계산하도록 반올림을 한다.

응시자는 미국식(feet-inch, pound 법)단위나 미터법 단위중 택일하여야 한다. 계산중에 미국식, 캐나다식 단위를 서로 바꾸어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

미국내에서 A.R.E.를 지원한 응시자는 괄호안에 있는 국제공인

단위나 캐나다 기준을 무시하도록 한다.

SI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의 예 :

문 제 :

대지계획도(site plan)상에서 표시된 100ft[30.5m]×150ft[45.7m]의 부분을 표고 94.5[28.5m]가 되도록 현재의 등고선을 고쳐라.

다음은 그외의 고려하여야 할 조건들이다.

1. 대지경계선 내에서 경사도가 1:1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새로 그리는 등고선은 대지 서쪽 끝의 91[27.3m] 등고선과 같게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3. 대지바깥으로 지표수의 배수처리는 허용된다. 대지경계선 너머의 등고선 변경은 불가능하다.

VII. 시험 준비물

꼭 필요한 준비물—모든 과목

연필(2호, 깎은 것)

지우개

기타 준비물—모든 분야

계산기(휴대용, 배터리작동, “무소음”)—계산기내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것이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계산기 외부에서 연결되는 프로그램 디스크(disk)나 카드(cards)사용은 할 수 없으며 텍스트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는 알파키패드(alpha key pads)는 시험중에 허용되지 않는다.

종이 클립

형광펜

짧은 직선자

평행자

DIVISION A, B—실기, G, H & I

참고자료 사용 불가

DIVISION D/F & E

참고자료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DIVISION D/F & E의 시험시작 때 응시자는 A.R.E. ‘시험안내책자’를 받는다. 이 안내책자에는 건축법규정집에서 발췌한 참고사항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참고서적에서 뽑은 관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시험보는 해당과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응시자에게 시험안내책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시험안내책자에는 사용편의를 위하여 색인이 되어있다. 응시자는 사용 후 매 과목이 끝날 때 마다 시험종료와 함께 반납해야 한다.

시험안내책자는 수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중 아무런 표시나 낙서도 해서는 안된다. A.R.E. 안내책자에는 아래의 참고서적에서 발췌한 자료가 실려있다.

AISC Manual of Steel Construction - 9th Edition

(철강구조 AISC 안내서)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미국철강건설협회)

1221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21

212/695-4291

Uniform Building Code - 1990 Edition (건축법규정집)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
5360 South Workman Mill Road
Whittier, CA 90601
213/699-0514

Standard Specifications Load Tables and Weight Tables for Steel Joists and Steel Girders - 1990

(표준 사양서 - 철강 장선과 대들보용 적재표와 하중표)
Steel Joist Institute(철강장선협회)
1205 48th Avenue North, Suite A
Myrtle Beach, SC 29577
803/499-0487

DIVISION B : 대지계획-실기

DIVISION B : 대지계획-실기시험에서는 상기한 준비물 이외에 아래의 준비물들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진한 실선을 그을 수 있는 연필(연필깎개 포함)이나 펜(회색마카사용가능)
스케일자(1"=40'-0" [1 : 500])
스케일자(1/16"=1'-0" [1 : 200])
45°, 30°/60°와 각도조절 삼각자
12" [300mm] 길이 이상의 직선자
트레이싱지나 연습지
알이 들어 있는 스테플러
콤파스
설계용 테이프
기타 필요한 설계제도 도구 및 기구
11"×17" [300mm×450mm] 나 그보다 큰 매끈매끈한 판지(설계제도판 도면의 확보를 위함), 제도용 판지는 주시험관리위원회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도판, 제도용전기스텐드와/혹은 전기지우개를 지참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험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요한다.)
칼라나 판박이글자 혹은 어떠한 종류의 도면복사용구의 사용을 절대 금한다.
DIVISION B : 대지계획-실기시험 중에 어떠한 참고자료도 사용을 금한다.

DIVISION C

DIVISION C에서는 상기한 준비물 이외에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진한 실선을 그을 수 있는 연필(연필깎개 포함)이나 펜(회색마카사용가능)
45°, 30°/60°와 각도조절 삼각자
트레이싱지 혹은 연습지
알이 들어 있는 스테플러
설계용 테이프
T자 혹은 I자
스케일자(1/8"=1'-0" [1 : 100])
설계제도판, 최소 20"×24" [500mm×650mm] 의 크기(시험출제 용지크기는 18"×24" [480mm×630mm] 인)
콤파스
화장실설비 템플레이트(1/8" [1 : 100])
기타 필요한 설계제도 도구 및 기구

(제도용전기스텐드와/혹은 전기지우개를 지참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험 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요한다.)

칼라나 판박이글자 혹은 어떠한 종류의 도면복사용구의 사용을 절대 금한다.

위에서 나열한 준비물 이외에 기타의 재료나 도구(카메라, 녹음기, 라디오, 이동식전화기나 FAX기와 같은 전기전송장치등을 포함)는 A.R.E. 시험의 어떠한 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 시험안내서는 DIVISION C : 건축설계시험 동안에만 참고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어떠한 참고자료도 시험중에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

Foreign-to-English(외국어) 낱말사전은 모든 시험중에 사용할 수 있다. 사전 안에 어떠한 메모자국도 있어서는 안된다. 보통의 영영사전이나 건축용어사전은 시험 중에 사용할 수 없다.

VII. DIVISION B-실기시험에 관한 주지사향

다음은 실기시험을 위하여 미리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시험시간
2시간 45분

일반사항

시험장소는 주시험관리위원회에서 선택결정한다. 응시자는 미리 시험장소와 시험시간을 숙지하도록 한다.

시간계획을 매우 면밀히 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험을 치루는 응시자는 기능분석, 문제해결, 발표 등에 시간계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2시간 45분동안의 시험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판단하라. 첫 다섯 문제는 한 문제당 20분씩, 6번 문제는 대략 65분에 걸쳐서 풀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를 풀 때 문제답안을 백지로 비워두지 말고 문제풀이의 시작이라도 해두는 것이 전체 점수에 조금이라도 가산될 수 있다.

지침사항

각각 세 문제씩 묶어진 두 권의 책자가 나누어질 것이다. 마지막 문제를 풀기 전까지 미리 프린트된 낱장들을 뜯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호트러트러서 문제를 풀었다면, 낱장들을 순서대로 다시 맞추고 스테플하여 원상의 책자로 복귀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채점을 위하여 모든 도면은 주어진 용지 위에 직접 그려 넣어야 한다. 다른 종이 위에 도면을 부칠 수 없다. 수험집수번호, 생년월일, 시험관리위원회 코드번호 등을 모든 페이지에 기입해 넣어야 한다.

VIII. DIVISION C시험에 관한 주지사향

다음은 실기시험을 위하여 미리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시험시간
12시간 연속

참고자료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안내는 건축설계시험일에 나누어 줄 시험안내서(Examination information Booklet)에 나와있다. 두 권의 시험안내서(Examination information Booklet와 Pre-Examination

information Booklet) 이외에는 시험중에 아무런 참고자료도 참고할 수 없다.

일반사항

시험장소는 주시험관리위원회에서 선택결정한다. 응시자는 미리 시험장소와 시험시간을 숙지하도록 한다.

시간계획을 매우 면밀히 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험을 치루는 응시자는 기능분석, 문제해결, 발표 등에 시간계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12시간 동안의 시험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판단하라. 12시간의 시험시간 동안 휴식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응시자는 점심이나 간식을 준비하여야 한다.

지침사항

1. 자료

- A. 이 책자는 시험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담고 있고, 단안채점시 채점자가 이용하는 채점기준이 적혀있다.
- B. 도면작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Ⅲ장**의 DIVISION C를 참조한다.
- C. 응시자가 받아보는 도면묶음에는 4장의 타이틀이 붙어있는 트레이싱지가 있다. 도면묶음은 도면작성시 편리를 위하여 낱장으로 페서 작업하도록 한다. 도면들을 다시 묶을 때는 같은 장, 5항(도면묶음재정리)을 참조하도록 한다. 채점을 위하여 드로잉은 나누어준 종이위에 직접 그려야 한다. 도면들을 다른 종이위에 붙여서는 안된다. 모든 도면에는 시험번호, 생년월일, 해당시험관리위원회 고유번호를 꼭 기입하여야 한다.
- D. 도면을 망쳤거나 고쳐그릴 수 없을 때는 시험감독관에게서 새로 종이를 받아 제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도 새로 적어 넣어야 한다. 새로 받은 종이를 원도 위에 겹쳐 놓고 다시 그리도록 한다.
- E. 답안이 채점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응시자는 도면묶음 맨 첫 페이지에 싸인하고 시험감독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응시자의 해당시험관리위원회가 시험장에 배부된 모든 답안이 채점되어야 하는 방침을 가진 경우 본지침은 무시한다.)

* 채점을 위해 제출되는 답안커버나 용지내에 어느 곳에도 자신의 이름(full name)을 쓰지 마시오.

2. 도면작성

- A. 규정된 프로그램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B. 미리 지정된 종이에 평면, 입면, 단면 등을 작성해야 한다.
- C. 만일 요구된 도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 불합격이 된다. 왜냐하면 시험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D. 간단, 명료한 선을 그리는 도면이면 된다. 프리핸드로 그리던 제도도구를 사용하여 그리던 축척(스케일)에 맞게 그려야 한다. 도면을 작성하는 데는 연필이나 흑생잉크의 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선은 깨끗하고, 선명하고 일관되게 굵도록 한다. 칼라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판박이날자나 어떠한 종류든 도면복사용구의 사용도 절대 금한다.
- E. 방이름 혹은 용도를 표기하여 방이나 지역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 F. 문제답안에 대한 평가는 주어진 종이위에 그려진 최종적인 도면으로만 한다. 도면묶음이 다시 정리되어 철되기 전에 다른

모든 도면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3. 제출도면

A. 평면

배부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물의 총 평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보행통로, 벽, 기둥, 창문, 문열림표시, 계단, 승강기, 그리고 기타 중요한 설계요소들을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또한 단면도의 단면위치를 표시한다. 모든 공간과 구조물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이름붙이고,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방화벽을 표시한다.

B. 입면도

배부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건물디자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쪽에서 시험안내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디자인된 건물의 입면을 그린다. 중요한 건물재료를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 외벽을 명확하게 나타내게 하도록 개구부, 문, 그외 모든 필요한 요소를 넣고, 기초벽과 지면 밑 기초를 나타낸다.

C. 건물단면

배부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건물디자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쪽에서 시험안내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디자인된 건물의 단면을 그린다. 단면에서는 건물의 재료와 조립, 그리고 건물구조에 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단면은 요구하는 축척(스케일)에 맞춰 그리고 구조와 설비시스템 요소를 나타내고, 중요한 수직단면 컷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방화벽을 표시한다. 건물의 설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면 추가로 간략한 note를 이용한다. 그리고 각 층 평면에 단면절단의 위치를 표시한다.

4. 법규사항

공공의 생명,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과 장애자를 위한 설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규규정은 건축법규정집(캐나다건축법규정집)과 미국표준연구소(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기준집 A117,1-1986에 기준을 둔다. 아래의 법규규정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으로 요약되어 설계에 반영하여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 건물에 관한 규정사항

건축물의 용도—건물은 무대가 없고 상업용이 아닌 복합용도의 집회건물이다. 집회공간과 상업용도 공간사이에는 용도분할이 필요하지 않다.

방화기준에 따른 건축유형—건물은 1시간 내화건물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요소(예를 들면 기둥, 보, 도리, 트러스와 스패드럴 등)는 모두 방화되어야 한다. 천정과 지붕구조는 1시간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승강기실, 계장실, 기계설비용 수직실 및 통로, 기계실을 제외한 모든 내부칸막이 벽은 무등급방화벽(non-rated non-combustible construction)이다. 외부 비용력벽(non-bearing wall)은 방화구조이면 된다.

대지 내 건물배치—건축제한선 내에서는 건물외벽 개구부 방화보호를 할 필요 없다.

최대 연면적, 건물높이 및 건물층수—계획시 최대 연면적, 주어진 방화 기준의 건물로 층고와 층수를 지켜서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구—각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별다른 제한이 없을

때는 매 공간마다 단지 1개의 비상구가 있으면 된다.

비상출구에 관한 기준

- 1) 매층마다 적어도 2개 이상의 분리된 비상구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건물의 대각선길이의 1/2이상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2) 2개의 비상구를 가지는 방 혹은 구역에서는 그 방이나 구역의 대각선길이의 1/2이상 비상구가 서로 떨어져 있게 하여야 한다.
- 3) 모든 출구의 문은 출구방향으로 문이 열리도록 한다. 복도로 열리는 문은 필요한 복도의 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건물 내 어떠한 지점에서든 비상계단이나 옥외비상구까지의 거리가 250feet[75m]를 넘어서는 안된다.
- 5) 복도에 관한 기준
 - a) 복도는, 막다른 복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두개의 분리된 비상구와 연결되도록 한다. 막다른 복도는 길이가 20feet[6.3m]를 넘을 수 없다.
 - b) 복도는 중간에 방이 끼일 수 없다. 단지 현관홀(lobby/reception)은 예외로 하되 인접한 방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는 방화문이어야 하고, 현관홀(lobby/reception) 내벽과 출입구도 복도에서와 같은 방화기준을 지켜야 한다.
 - c) 복도의 벽은 1시간 방화벽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내 1시간 방화천정까지만 되면 된다. 복도에 있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창문은 steel frame으로 하고 유리는 wire glass를 써야만 한다. 복도의 유리개구창문은 면적이 전체복도벽 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다. 이때의 면적은 복도에 면하는 방의 안쪽면적으로 산정한다.
 - d) 모든 비상출구용 복도는 그 폭이 적어도 6feet[1.9m] 이상 이어야 한다.

계단과 경사로

- 1) 비상계단은 곧바로 건물의 외부로 통하거나 외부와 통하는 복도와 이어져 있어야 한다.
 - 2) 지상층의 복도는 외부와 직접 통하는 계단실과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탈출시 계단실을 통하여 건물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 계단실내 계단참의 폭은 적어도 6feet[1.9m] 이상 이어야 한다.
 - 3) 출구를 하나 갖는 비상계단은 적어도 1시간 방화의 수직구조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panic hardware(비상시 따론 불필요한 작동없이 그냥 밀어서 열 수 있는 문개폐장치)가 달린 계단 방화문은 매층마다 한 개씩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 수직으로 관통하는 긴 공간체), 계단 shaft, 기계설비 shaft 및 관 그리고 기계실-위의 모든 샤프트와 관, 기계실은 적어도 1시간 방화구조로 되어야 한다.
- B. 장애자를 위한 설계 기준
 개요-1: 20이상의 경사도를 가지는 건물진입로는 경사로(ramp)로 간주한다.
 경사로(ramp)
- 1) 경사로의 경사도는 가능하면 완만하게 만든다. 새로 짓는 건물에서는 경사도가 1:12가 넘어서는 안되고 경사로의 시작과 끝에는 참(landing)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경사로의 길이가 30feet 이상일 때는 매 30feet[9.5m]마다 중간참을

두어야 한다.

- 2) 중간참과 맨위의 참은 경사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어도 60inches[1.6m]의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상의 출입문은 어느 위치에서든 최소 참의 폭 42inches[1.1m]를 침범해 들어올 수 없다.
- 4) 난간·수평바닥에서 6inches[160mm] 이상 높아졌을 때는 경사로 양면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화장실 진입

- 1) 화장실 내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지름 60inches[1.6m]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변기 앞에 공간이 폭 42inches[1.1m], 길이 48inches[1.3m]의 면적이 확보된 화장실이 남자용, 여자용화장실에 각각 하나씩 확보되어야 한다.
전실(vestibules)-현관출입구 전실은 문과 문 사이에 48inches[120mm]+문짝의 폭 만큼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5. 도면목록

- A. 도면을 다음의 순서대로 정리하라 : 평면도(항상 배치도가 우선하고 다음에 평면을 그리도록), 입면도, 단면도.
- B. 모든 도면에 6자리의 수험번호, 생년월일, 시험장번호를 기입하라. 도면표지에는 그외의 도면에도 응시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제출도면의 어떠한 곳이라도 응시자의 이름이 발견되는 경우는 채점을 하지 않을 것이다.
- C. 도면의 앞뒤장을 바꾸고 도면 전체를 가지런히 맞춘 다음 스테플한다. 도면의 왼쪽 가장자리에 약 3/4"의 여유를 두고 3번(위, 중간, 아래)에 스테플한다.

채점기준

응시자의 해답에 대한 채점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최소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1. 프로그램(Program Requirements)
 - A.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공간을 해결하였는가?
 - B. 각 공간의 면적이 맞는지?
 - C. 공간계획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는지?
2. 계획(Design Logic)
 - A. 동선
 - B. 공간간의 관계/방의 비/인접성
 - C. 기존의 주위상황과 맞게 설계되었는가?
3. 법규(Code Compliance)
 - A. 방화 및 방화구역
 - B. 비상출구
 - C. 장애자를 위한 설계
4. 기술적 측면(Technical Aspects)
 - A. 재료의 선택과 벽, 바닥, 지붕의 조합
 - B. 구조시스템과 각 구조 간의 조합
 - C. 설비시스템과 각 설비 간의 조합
5. 도면의 완성도, 표현의 명확성, 시험지침서에 얼마나 따랐는지의 여부 혹은 빠트린 도면이 없는지의 여부

*요구도면 중 어느 하나라도 빠트리는 경우, 불분명한 도면, 혹은 색을 사용하였거나, 판박이 글씨, 도면복사용구를 사용하여 그린 경우는 불합격이다.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 포럼 (IFYA) 참가기

Report on the International Forum of Young Architects

金寬錫/건축사사무소 아르텍

by Kim, Kwan-Suk

올해 5월초에 우리계획의 이정근 소장으로부터 일본 고베(神戸)에서 열리게 된다는 이 포럼에 응모해 보냈냐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재 내용을 팩스로 받아보았다.

1. 포럼의 이름 : IFYA KOBE 1993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 포럼
(INTERNATIONAL FORUM OF YOUNG ARCHITECTS)
2. 주최자 : 국제 건축 학교(International Academy of Architects)
일본 최고 책임자 : 기요노리 기쿠다케
3. 일시 : 1993년 8월 18일부터 8월25일 까지
4. 장소 : 워크숍-고베 타워사이드 호텔
숙소 -고베 타워사이드 호텔
심포지엄-고베 포트 아일랜드 국제 회의장
5. 내용 : 고베시의 해안에 초점을 맞춘 건축 디자인 워크숍
6. 참가자수 : 40세 미만의 젊은 건축가(외국인 30명, 일본인 30명)
7. 참가자격 : 1) 40세 미만의 젊은 건축가
2) 단기간에 협동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
3) 영어를 말하는 능력
8. 예상되는 교수진 : 스토일로프(불가리아)와 기쿠다케(일본)를 포함한 10여명의 저명한 건축가와 전문가들
9. 지원 기관 : 건설성
일본 건축가와 건설기술자 협회 연합

10. 스폰서 : 고베시

11. 공지사항 : 1) 참가자는 고베시를 왕래하는 교통비를 부담한다.
2) 고베에서의 숙식은 IFYA 일본 사무소가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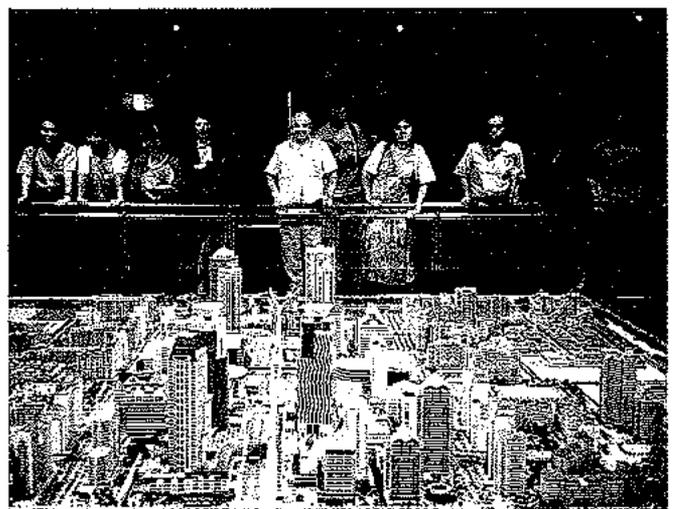
12. 연락처 : 1) 각국 IFYA 사무국
2) IFYA 일본 사무국(주소 생략)

그리고 부수된 설명을 읽어보니 이 포럼은 2년마다 주요 국제 도시에서 열린다는 것이었다. 원래는 2월에 이것이 일본에서 공고되었던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널리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튼 일본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해서 이에 응모하여 일본에 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같이 참가한 사람들은 심영섭씨와 이관직씨 두사람이었다.

일본에 갈때의 준비물은 삼각자, 연필 등의 학용품과 자신의 작품을 A3 두장에 표현해 오라는 것이었다. 도착해 보니 호텔 5층 회의장에 꽤 좋은 평행자가 붙은 제도판을 갖다 놓고 있었다. 참가비로는 18,000엔을 받았다. 5층 라운지에는 각자가 가져온 작품들이 워크숍 기간 내내 전시되었다. 처음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다같이 토론하는 포럼이라기 보다는 참가자들은 학생 신분으로서 배우는 워크숍이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일본이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의 신분차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으며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자기부상 실험선 아마토호 앞에서



고베 인공섬인 로프 아일랜드 개발모형을 보면서



첫날 고베시장이 주최한 리셉션 파티장에서

도착한 첫날 저녁에 고베 시장이 주최하는 융성한 리셉션 파티가 소라구엔에서 열렸다. 다음날에는 기쿠다케 교수, 불가리아의 스토틀로프 교수와 프랑스의 벨몽 교수, 그리고 뉴욕 해안개발 책임자인 크리거 교수 및 불가리아의 스타니셰프 교수와 IFYA 사무국장 게이미 하라다씨가 이 워크숍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그리고 4가지 주제를 나누어 2팀씩 8개팀을 구성하기 위해 1, 2, 3지망을 받아 팀을 구성하였다. 모든 프로젝트는 고베시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중에 인공 섬(Artificial Island)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전에 영국에서 공부하던 때 해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였다.

우리 팀에는 일본인 5명과 멕시코 건축가 1명, 대만 건축가 1명과 본인이라서 제대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실은 영어로 말할 때 부담감이 적어져서 좋은 듯도 했다. 우리팀은 항상 웃고 떠드는 팀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화목한 팀이라 부르기도 했다. 같이 간 심영섭씨와 이관직씨와는 각각 다른 팀이 되었다.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가끔씩 다른 팀을 선택해 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원하는 주제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다음날부터 매일 8시에 워크숍이 시작되어 밤 11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마지막 3, 4일간은 취침시간이 1시, 2시, 3시 이후로 점점 늦어졌다. 낮에는 여러가지 단체 관광이 있었다. 미쓰비시 중공업 견학, 고베의 인공섬인 로코 아일랜드 견학, 자동차로 왕복 6시간이상 걸렸던 혼다 자동차 공장 견학 등이 있었다. 저녁에는 기쿠다케, 시주오 하라다, 벨몽, 크리거, 시게루 이토, 크레이븐 등 여러 교수들의 강의를 하루에 2번씩 있었다. 그리고 고베시에서 나와 각팀과 컨설팅을 해 주었다. 저녁마다의 강연후에는 각팀이 경쟁적으로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하는데 유우머가 많은 친구들이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기도 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 중의 하나는 생태학적인 도시-에코폴리스(Ecopolis)였다. 전세계적으로 점점 생태학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는 듯했다. 이것을 해결 못하면 인간 문명이 끝나게 될 것임을 모든 교수들이 강조하였다.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제시해 보여 주기도 하였다. 기쿠다케 교수의 떠있는 선형 도시 계획안이나 하라다 교수의 슈퍼 스카이스크래퍼 에코폴리스안, 부르노제비의 비디오 강연인 에코폴리스안, 하와이의 해양생태학 전문가 크레이븐 교수의 생태학 실험결과 등이 감명 깊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은 건축가들에게 미래를 좀더 책임감 있게 맡기고 싶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제 8일째 아침 각팀들은 전시회와 평가회를 위해 포트 아일랜드 국제 전시장에다 작품들을 걸었다. 그 다음날에는 에코폴리스 포럼이 열려 각 교수들의 의견 발표들이 있었고 저녁에는 스토틀로프 교수의 시민들을 위한 공개 강연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종강 겸 고별 파티가 열렸다. 여기에서 몹시 연로하신 겐조 당게씨의 참조 연설이 있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부분의 팀들은 전체 파티 후에도 연장된 소규모 파티를 열었다. 나는 워크숍이 열렸던 타워사이드 호텔 5층 라운지에서 20여명과 밤늦도록 같이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포럼에 참석한 보람으로는 외국의 건축가들과 알게 되고 몇몇과는 친해졌다는 기쁨과 인류 미래의 생태학적인 위기에 대한 좀 더 깊어진 이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떠나기 전에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다. 그 내용 중에 차기의 IFYA의 주최자를 추천해 보라는 대목이 있었다. 여기에 주저없이 대한건축사협회를 추천하였다.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모여 다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하루 빨리 이 땅에서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2년마다 세계의 중요도시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면 한다.

세계는 넓고 볼 곳은 많다

World is wide, and It's a lot of Sights to See

(93 유럽건축기행)

朴在煥/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무이
by Park, Jae-Hwan

- | | |
|--|---|
| 1. 그룹기행 | 3) VILLA SAVOYE(빌라 Savoye) |
| 2. 준비와 여정 | 4) CHURCH OF THE MOST HOLY TRINITY(삼위일체 교회) |
| 3. 도시산책 | 5) RESIDENTIAL COMPLEX(주택복합단지) |
| 4. 뜻과 의지 | 6) HISTORIAS DE LA GRANDE GUENE(전쟁역사 박물관) |
| 5. 체험 | 7) PLENERKEREICH DES DESTUSCHEN(국회의사당 : 하원) |
| 1) SIR JOHN SOAN'S MUSEUM(John Soan 박물관) | 8) MUSEUM FUR MODERNEKUNST(현대박물관) |
| 2) MUSEE HOLTZ(Holtz 박물관) | |

1. 그룹기행

최근 몇년전부터 우리건축계에서는 소그룹 또는 중그룹 단위로 외국의 여러나라 도시들의 건물들은 대상으로한 전문적인 건축기행(ARCHI TOUR)이 실행되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4.3그룹 회원들이 유럽여러도시의 건물들을 기행한 바 있고

또한 별도의 계획과 일정으로 몇몇 대학교수들과 설계사무소 대표들의 유럽 건축기행도 있었다. 그간 "건축사협회" "기협회" 또는 "학회"에서 각종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함을 계기로 참석회원들이 별도의 일정으로 시행되었던 건축기행은 종종있었으나 뚜렷한 목적을 갖는 순수한 건축기행이 계획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

개인별로 혹은 두 세명이 다니는 건축기행의 방법은 꼭 보고싶은 작가의 작품을 선정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답사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그룹여행은 그나름대로 여행경비나 일정, 대상건물의 다양성과 교통편의 등에서 더 많은 실리를 얻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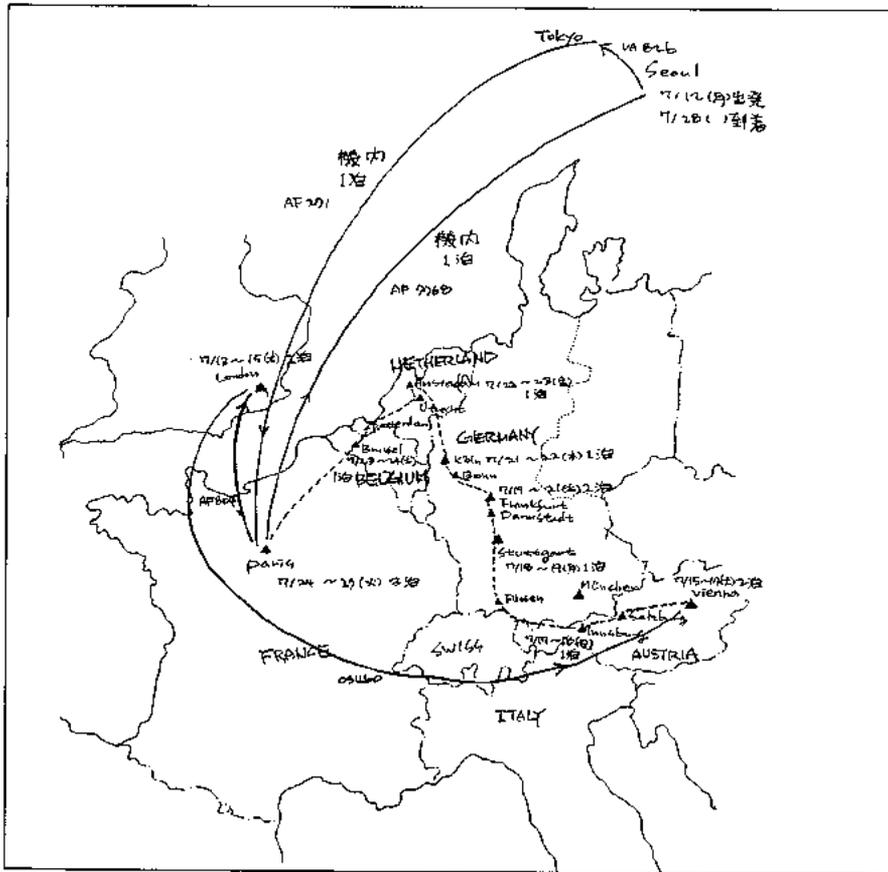
2. 준비와 여정

금년에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안영배교수와 홍익대학교의 김형우교수가 주관한 "93유럽건축기행" (EURO ARCHI TOUR 93)이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8일 동안 있었다.

몇몇 대학교수와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그리고 대학원생 등 22명으로 구성된 이번 여행팀은 지난해 4.3그룹 회원들이 여행한 도시와 건물들이 기행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몇몇 도시와 건물들이 바뀌고 추가되었다.

이번 여행의 목적도 작년도에 4.3그룹회원들이 자신들의 여행목적과 내용을 밝힌바 있지만 1890년대부터 1993년에 이르는 근 100여년(1세기)에 걸친 서구 건축사의 변천을 확인하면서 각 시대 사조의 대표적 건물들을 답사기행하는데 있었다.

아르누보, 세세손, 유겐트스틸 등 19세기의 건축운동이 현대의 다양한 건축양식이나 조류들(레이트모던, 포스트모던, 하이테크, 해체주의)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면서 작품들을 통해 살아 숨쉬고 있는 작가들의 시대정신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금년 5월 초부터 시작된 이번 유럽건축기행의 준비는 두 교수께서 기행 대상나라, 도시, 건물들과 여행일정 및 코스 등의 기본계획을 하였고 개행대상 건물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편집 등을 위해 실무팀이 구성되어 작품리스트, 건물의 위치가 표시된 방문도시의 지도와 도음글이 실린 2권의 Gried Book이 각각 50페이지와 450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발간되었다.

출발전 2차례에 걸친 세미나에 두 교수는 근대와 현대를 잇는 건축사조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각자 나름대로 기행대상 작품들과 작가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영국의 London을 기점으로 하여 오스트리아의 Vienna, Salzburg, Innsbruck, 독일의 Füssen, Stuttgart, Heidelberg, Darmstadt, Frankfurt, Bonn, Monchengladbach, Köln, 네덜란드의 Amsterdam, Utrecht, Rotterdam 벨기에의 Brussels 프랑스의 Perrone, Amiens, Paris에 이르는 6개국의 약 20개 도시에 걸친 Tour는 각 도시의 대상건물들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현대건축 작품중에서는 특히 Gallery나 Museum 등에서 공간구성 수법이나 대지분석, 형태구성, 재료, 질감, 색채, 디테일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설계는 잡지나 서적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보다 더욱 훌륭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Otto Wagner, J.M. Olbrich, V. H. Morta 등 19세기에 활약한 건축가와 근대에 걸친 작가들의 주옥같은 많은 작품들도 현대건축과 비교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강한 이미지를 전달받았고 더욱이 많은 작품들이 아직까지도 잘 보존되고 관리되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때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높은 안목과 식견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Tour 첫 날인 7월 12일 런던의 히드류 공항에 내린 이른 아침부터 덩어리 짐들은 Tour Bus의 화물칸에 던져넣고 곧 바로 시작된 Tour는 7월 27일 마지막 날인 오후에 파리의 드골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탑승시간 직전까지 실행된 타이탄한 일정이었다.

모든 일정은 단체행동으로 일관되도록 계획되어 정직되거나 수박겉핥기식의 기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으나 장시간에 걸친 도시간의 이동이나 건물들을 찾아가는 시간중 Tour Bus 안에서의 두 교수의 도움말씀과 방문도시마다 있었던 현지 Guide들의 해설은 처음 대하는

건물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파리에서는 오래동안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은석씨의 폭넓고 깊이 있는 Guide는 현재 불란서 건축의 동향과 작가들의 작품활동과 성향 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때로는 두 세건물은 폐관시간에 쫓기어 충분한 답사가 되지 못했고 휴무이거나 수리중이어서 건물내부를 보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아쉬움과 답사중 가끔씩 쏟아지는 소나기 때문에 곤란한 처지도 부딪치게 된 경우도 몇 차례 있었으나 100여개가 넘는 작품들을 거의 다 예정대로 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한 계획대로 짜여진 스케줄을 엄격히 실행한 것과 동반자들의 협조와 현지 Guide의 역할이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3. 도시산책

한편 Tour 대상건물의 기행과는 별도로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고 머물면서 느낀 점 또한 적지않다.

첫째는 방대한 많은 도시가 2~3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도시마다 각기 다른 전통의 계승과 보존방법이 있었고 고전과 현대건축의 조화는 물론 구도시와 신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시경관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정연하면서도 개성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또한 도심이든 외곽지역이든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크고 작은 광장과 녹지공간과 많은 공원은 도시에 활력과 휴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진정으로 인간에게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파리의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 인식과 보존방법은 범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협조로 이루어짐을 볼때 부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옛 것에 대한 소중함과 유산의 중요성은 무형적인 것에서 뿐 아니라 실제적인 것에서도 그 가치를 함께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서양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우리와는 역사가 다르고 건축의 양식이나 구조가 다르고 또한 삶의 방법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건축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도시마다 수 많은 역사적인 유물의 복원이나 보존하려는 자세는 동서가 따로없고 시간도 초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내년이면 정도 600년의 긴 역사를 갖게되는 古都가 된다.

그러나 강북은 강북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무조건 부수와 헐어내곤 새로 짓고 하여 몇년 지나면 시행착오에 빠진 결과를 낳게되는 즉흥적이고 획일적인 시행으로 무질서하게 구성된 도시모습을 보게되었다.

사람들로 늘 붐비는 도시로서 활기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름답고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서울이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추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건축환경으로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볼때 모든 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도시 어느 구석에서도 조상들이 쓰던 과거의 건축문화와 과거의 생활환경을 찾아보기 힘들고 더욱이 도시의 맥락에서 볼때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건물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으면서 미래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명력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건축인들의 역할과 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번째는 많은 도시에서 현대의 건축물 중 자국이 건축가 작품뿐 아니라 외국 건축가의 훌륭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음을 보게된 것이다. 그 동안 잡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현상 설계를 통해서건 아니건 London의 National Gallery(R. Venturi) Stuttgart의 Neustadtgalerie(J. Steling) Monchengladbach의 Alteibery Museum(H. Hollein) Paris의 The Bastille Opera(Carlos, Ott), Pyramid du Louvre(Ieoh Ming Pei) 등 우리보다 선진국 등에서도 외국 건축가들의 훌륭한 작품이 당당하게 세워져 있음은 최근 여러분야에서 개방화 물결이 일고 있는 현실을 볼때 우리 건축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 건축계의 수준도 함께 오르고 건축분야도 발전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4. 뜻과 의지

제작년 가을에도 일본의 동경과 그 주변도시 및 오오사카 지역의 현대건축물 등을 약 10일 간의 일정으로 기행한 바 있는 필자는 외국의 현대건축 기행이야말로 Mannerism에 빠지기 쉬운 설계작업과 건축에 대한 시각에 새로운 활력과 충진이

되는 원동력이 됨을 실감한 바 있다.

이에 작년도에 2팀의 건축기행이 많은 건축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을 계기로 한번 더 계획되었던 이번 여행도 건축인이자면 누구나 한번 다녀볼 만한 건축기행 코스라 생각된다.

차제에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룹여행의 주관이 외국의 경우와 같이 "건축전문잡지사" 혹은 "3건축단체"에서 뜻있는 사업으로 구상되어 매년 정기적인 Tour로 계획되어 일정이나 코스, 대상건물이 서로 다른내용으로서 실행된다면 폭 넓게 건축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세계건축계의 동향도 알아보면서 좋은 작품설계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리라 본다.



박물관 외관

1) Sir John Soan's Museum

건축가 : Sir John Soane,
연대 : 1792~1824, 위치 : London

건축가 John Soane(1753~1833)은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건축가로 19세기를 전후하여 왕성한 건축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 건물은 1972년 본인의 자택으로 처음 짓기 시작하여 약 40년간 4차례의 개보수와 증축으로 1824년에 완성되어 현재는 그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돌출된 2층 지붕의 양끝으로 여인의 조각상이 올라서 있어 기존 건물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연하고 평범하기까지한 이 건물은 외관과는 달리 건물의 내부는 극히 섬세하면서 다양한 여러 공간들을 연출하고 있다.

Facade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의 기존 건물보다 1,2층과 3층의 중앙부가 약 1.5m 정도 도로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 부분은 흰색의 Portland Stone으로 시공되어



앞으로 돌출된 건물 중앙부

1,2층에 각각 3개의 같은 모양의 아치형 개구부가 있어 Neo-classic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건물은 평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전면도로쪽은 좁고 뒷면으로 갈수록 넓어져 전면보다 배 이상의 너비를 갖는 T자형태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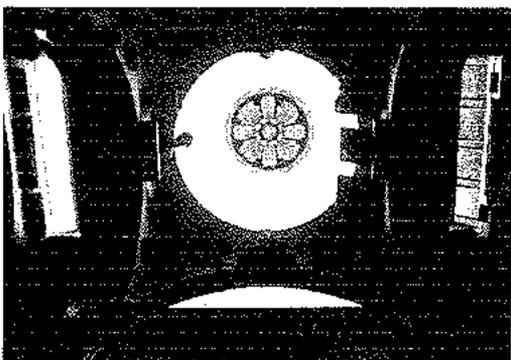
1층 현관을 들어서면 좁고 약간 어둡기까지한 복도를 지나서 계단과 만나게 되고 계단실 옆의 커다란 거실을 들어서면

지하층부터 최상층까지 Void 된 공간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아치로 구획되어 막히고 튀인 수 많은 공간들을 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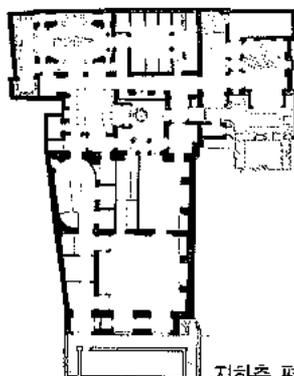
한편 Void 된 공간의 천장에는 Top Light가 있어 여기서 쏟아지는 빛은 건물내부를 생동감있게 하고 건물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고 있다.

방들은 때로는 독립된 원형기둥으로 때로는 벽체로 구획되어 다양한 형태로 아치속의 아치를 만들고 있고 미로와 같은 통로를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장식벽면들은 벽속의 벽을 구성하여 공간의 중첩성과 깊이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좁은 공간과 장식벽에 뻗뻗하게 전시된 유물과 골동품과 조각품들을 보면서 John Soane이 얼마나 건축가로서의 역량이 컸고 현재도 존경 받은 인물인가를 새삼스럽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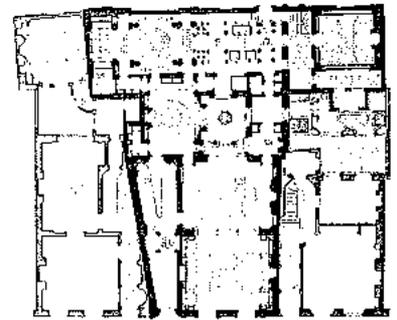
층마다 거의 같은 형제로 반복되는 크고 작은 전시장은 벽과 천장들이 그림으로 장식되었고 전시물로 가득채워져 있지만 내부공간을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화려하게 꾸미면서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수법이 거의 200여년 전에 건축된



내부 천창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건물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개인의 주택으로서 현대에도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작품을 찾았다고 하였다.

2) Musee Horta

건축가 : Victor Horta, 연대 : 1893,
위치 : Brussellus

19세기 말에 세워진 이 주택이 유럽대륙의 건축을 일거에 눈을 뜨게 하였다고 극찬을 받은 것은 그 당시 개인주택의 취급방법과 새로운 예술상의 원리가 주거의 문제에 적용된 것과 새로운 인간적 요구가 주택설계에 영향을 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건축가인 Horta 자신의 자택인 이 주택은 종래의 집들과 같이 복이 좁으며 건물 폭은 약 6.7m 정도에 불과하다. 종래의 집들은 현관을 들어서면 1층전체가 보이게 된 것을

1층은 서로 다른 Level로 구성하여 평면에 새로운 융통성을 준것과 그 당시 유행하던 아르누보 양식이 Horta의 주택에서 비로소 건축언어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틈없이 붙여진 3~4층의 건물 등이 들어선 거리에서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되는 이 건물은 오래묵은 표면의 때를 씻어낸 회색의 벽체에 1층의 현관 출입문과 옆창문에 그리고 2층 발코니의 난간과 돌출된 3층 지붕위의 곡선형으로 구성된 금속난간의 섬세하고 정교한 모습이 여느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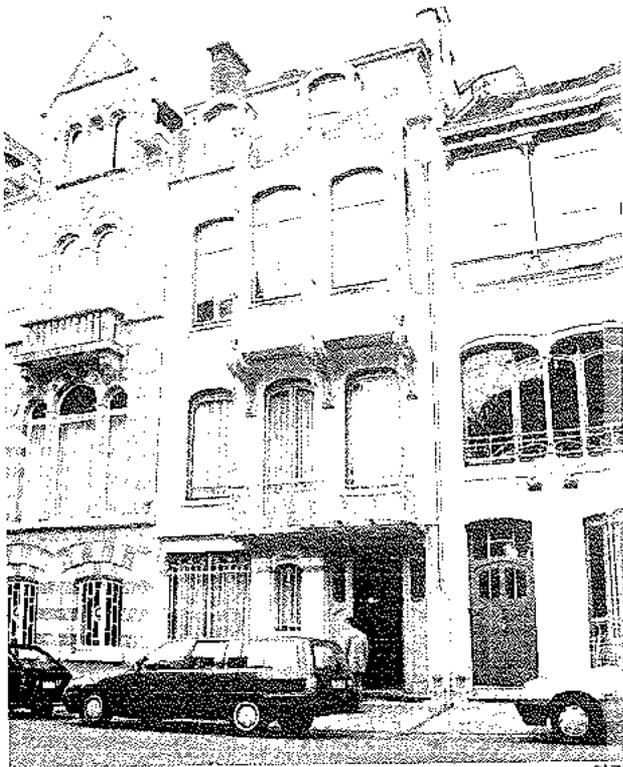
아르누보 양식으로 온통 꾸며진 이 주택의 내부는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화려함과 정교함을 잃지 않고 있다.

1층 현관입구에 들어서면 정면에서 좌측으로 나즈막히 놓인 Horta의 흉상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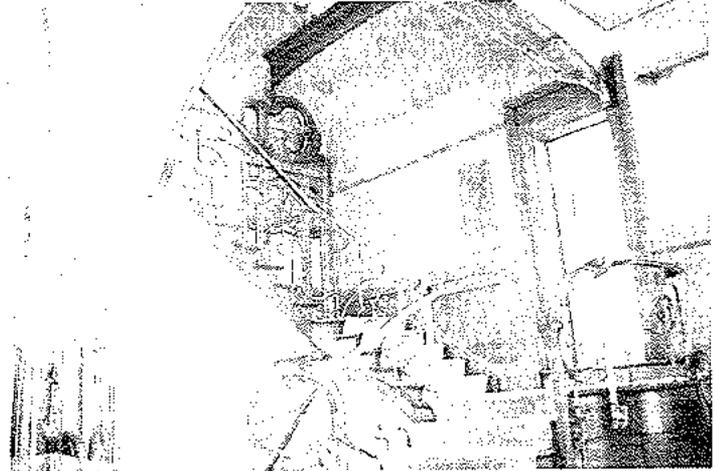
마주보이는 금속계단 난간은 그 구성과 사용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섬세함과 화려함을 시작으로 하여 건물 구석구석 모두가 아르누보 양식의 장식과 가구로 꾸며져 있다.

반층정도 계단을 올라서면 최상층까지 가운데 부분이 Void된 계단실을 인식하게 되고 천장에 반원형의 톨라이트에 서 쏟아지는 빛으로 황금색의 벽면이 내부공간을 더욱 화려하게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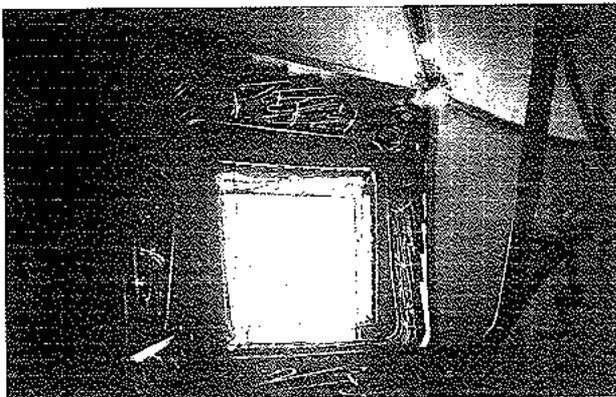
수 많은 가구 : 침대, 책상, 의자, 식탁, 서가, 불박이장물과 방들의 천장 몰딩과 벽지나 천장의 색상이나 무늬 그리고 각종 출입문의 손잡이를 비롯한 각종 Hardware에 이르기까지 아르누보 양식의 인테리어 치장은 환상적이지 않다. 모든 장식이 공예품이요 조각품으로 예술작품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건축과 공예의 조화있는 결합은 서로 다른 예술분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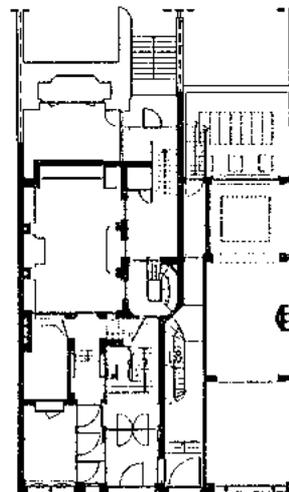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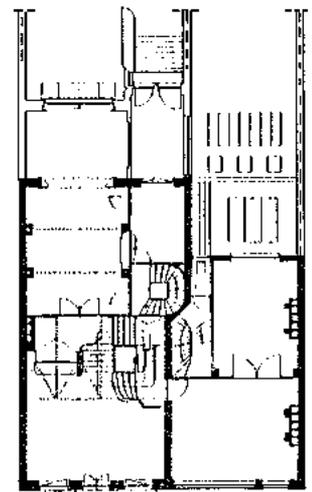
내부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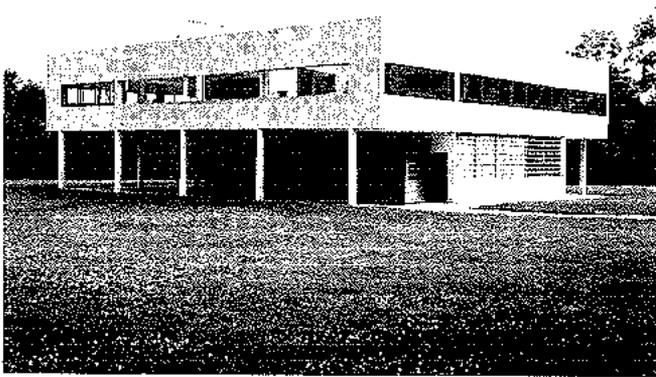
계단실 상부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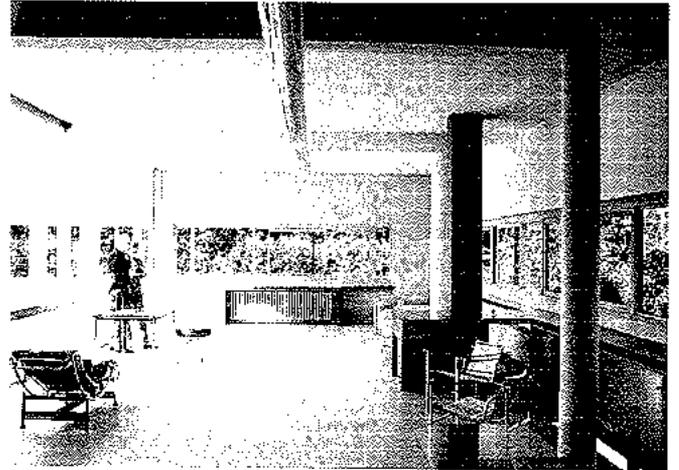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전경



2층 거실

품격을 높여주고 보완시키므로서 일차원 예술로도 승화됨을 느낄 수 있었다.

3) Villa Savoye

건축가 : Le Corbusier, 연대 : 1929~31, 위치 : Paris교외

근대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주택인 Le Corbusier의 최고의 걸작품인 Villa Savoye를 보게 된 것은 이번 여행의 보람을 더욱 크게 하였다.

파리의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교외에 세워진 이 주택은 그가 주장한 "근대건축의 5원칙" ①피로티 ②자유로운 평면 ③수평창 ④기둥으로부터 분리구획된 외벽 ⑤옥상 정원이 완벽하게 반영되었다.

건축주의 주말주택으로 당시로서는 한적한 교외였지만 지금은 주위가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으나 정원이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과 격리되어서서 산 가꾸워진 넓은 잔디위에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건물을 본 순간 가벼운 흥동과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가냘프고 날렵한 원통형의 기둥으로 떠받쳐서 있는 건물은 1층은 피로티 사이로 유리벽체로 부분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2층은 4벽면이 기 수평창과 수평개구부로 뚫려져 있어 아래위의 벽면으로 마치 샌드위치된 모습이다. 그 3층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옥상 가벽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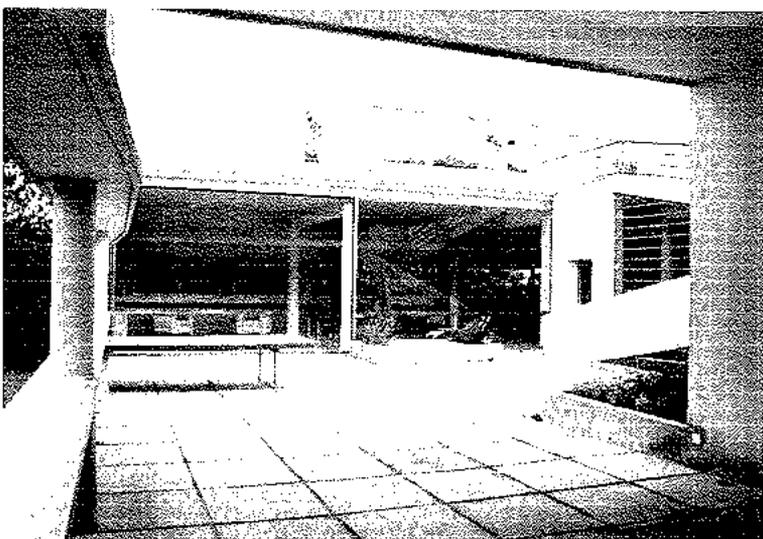
피로티를 통해서 건물 뒷편에 위치한 현관에 이르면 완만한 경사로와 트위스트된 계단이 방문객들을 2층으로 오르게 한다.

경사로를 따라서 오르면 2층의 정원을 보면서 계단을 중심으로한 홈에 이르고 거실과 각방으로 연결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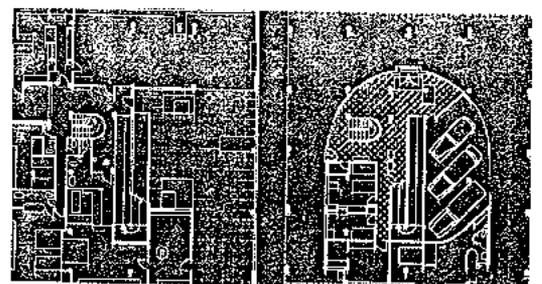
거실에 들어서면 한쪽으로 커다란 통유리로 구획된 창문을 통하여 2층의 정원이 한 눈에 들어오면서 나머지 2면도 수평으로 길게 뚫린 창문을 해 나무와 숲이 있는 우거진 주변을 보게 된다.

2층 거실에서는 어디가 내부이고 어디가 외부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공간인식의 모호성을 발견하게 되고 가벽과 개구부와 유리로 구획된 2층 정원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옥외의 경사로를 따라 3층 옥상에 오르면 곡선형으로 구획된 조그마한 옥상정원이 또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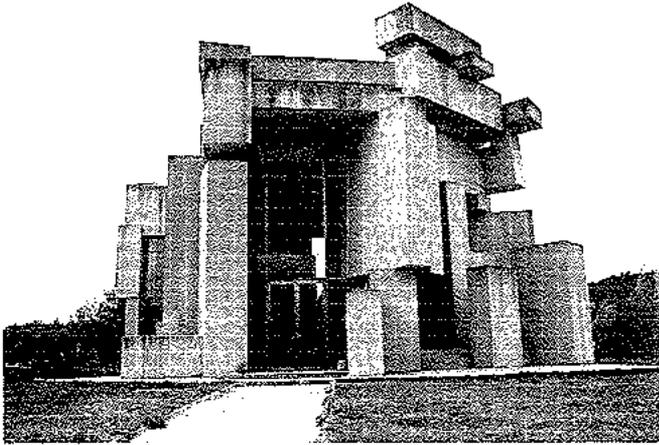
정연한 4각 면의 상자속에 복잡한 평면들이 유기적으로 들어차 있는 이 주택은 좁고 길고 트여지고 막힌 공간들이 벽면 전체에서 또는 조그마한 천장에서 들어오는 햇빛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생동감을 주고 있어 풍부한 공간의 인식과 질의 다양성은 시간을 초월하여 대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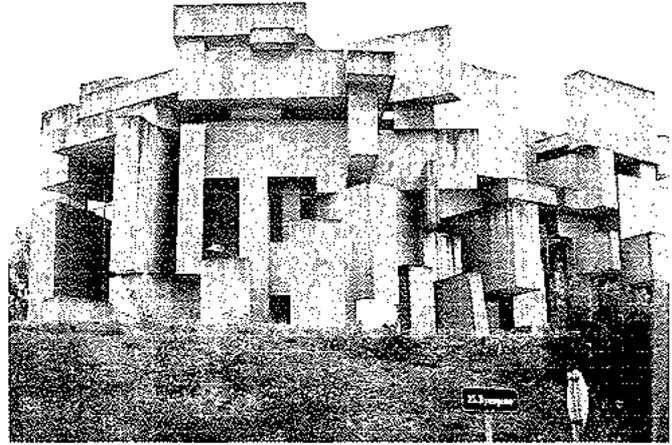
2층 정원 및 옥상정원



평면도



현관측 전경



다이내믹 하고 드라마틱한 외관

4) Church of the Most Holy Trinity

건축가 : Frity Wotruba & Frity Gerhard Mayr, 연대 : 1965~76, 위치 : Vienna교외

이 교회는 원래 기행대상 건물이 아니었으나 Vienna에서 안내를 받았던 현지 Guieder의 소개로 Otto Wagner의 Villa를 보러가는 여정에서 이 삼위일체 교회를 답사하게 되었다. 잡지를 통해서 눈에 익은 교회였지만 평소 교회건축에 많은 관심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뜻밖에 귀한 작품을 만나게 되었다.

이 교회는 Vienna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한적한 교외의 나즈막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65년 조각가인 Frity Wotruba에 의하여 독특한 형태와 구조로 구성된 이 교회는 설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그를 이어 건축가인 Frity Gerhard Mayr에 의해 1976년에 완공되었다.

각기 다른 규모의 Concret Block의 입방체가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불규칙하게 놓여져 서로 뒤엉켜 싸여있는 모습은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외관을 연출하고 있다.

Concret Block 사이사이로 가늘프게 비디고 있는 알루미늄새시가 투명한 유리를 조정시켜주고 있고 군더더기 하나 없는 건물은 하나의 커다란 조각품 같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분된 교회는 지하층은 소성당, 교구센타 회의실, 도서실, 성구실 등으로 계획되었고 지상층은 약 150여 명의 신자들이 내부공간의 중앙에 위치한 제단을 중심으로 4방향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미사에 참여하는 전례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간선도로에서는 건물의 측면부분을 주로보게 되는데 U-turn으로 걸어서 낮은 언덕을 오르면 정면으로 만나게 된다.

3층 높이의 투명한 유리로만 구획된 현관을 들어서면 외부에서 구성된 Concret Block들이 그대로 내부에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되고 불규칙한 평면구성과 벽면구상에 방문객들은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이 교회는 처음 구상단계에서 모형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때부터 신자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형태의 난해와 구조의 복잡성도 있었지만 제 2차 바티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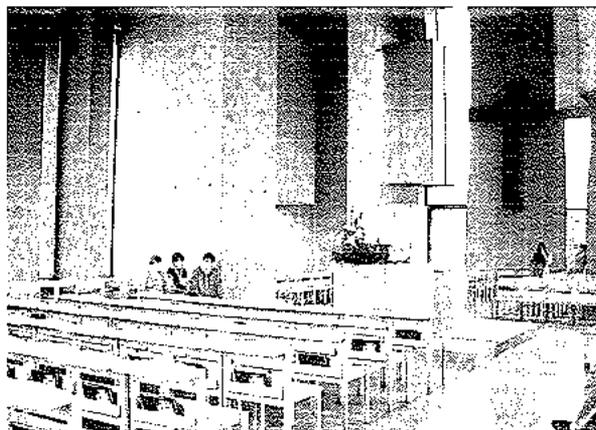
공의회 이후의 교회건축으로 비대칭의 형태를 채택한 것과 내부평면에서도 제단이 중앙에 위치하므로써 기존의 통상적인 개념을 깨트린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른 Concret Block들로 구성된 평면을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무질서하게 첩첩이 쌓여진 Concret Block은 혼란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질서와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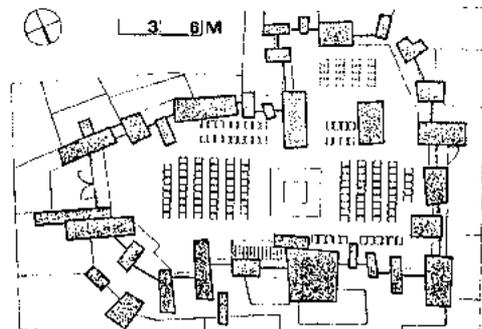
통일과 조화는 많은 대립과 갈등의 극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가르켜주고 있다.

마침 교회의 앞 정원에서 모임을 갖고 있던 10여 명의 신자들이 뜻밖의 방문객을 위해 자청해서 안내해 주고 성가곡도 한곡 불러주어 내부공간의 음향상태도 훌륭함을 알 수 있었다.

결코 화려하지도 신비스럽지도 않은 교회였지만 교회건축으로 신앙의 참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4방향에서 마주보면서 미사에 참여하여 지상층 전례공간



1층 평면도

5) Residential Complex

건축가 : Reroto Krier, 연대 : 1982~1989,
위치 : Vienna교외

Vienna교외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동주택은 80년대 초에 세워진 Vienna의 사회환경종합 변혁프랜의 하나로 전통적인 Vienna의 주거환경을 기초로해서 건축가의 창조적인 정신이 반영된 주택 콤플렉스다.

물고기 모양의 지형은 동쪽으로 川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시에 음료를 공급하는 대형의 導水管이 대지의 북쪽 끝부분에서 지상으로 관통되고 있어 대지를 2개의 서로 다른 모양으로 분할시키고 있다.

건물들의 배치계획은 導水管을 경계로 하여 대지북쪽에 V자형으로 배치된 모서리가 원통형의 유치원 건물이 2동의 탁아소 건물과 이어져 독립되어 있고 약 3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3각형과 원형과 직사각형의 각기 다른 형태의 중정을 끼고 4개의 블럭으로 배치되어 있다.

4층 높이의 아파트가 각기 다른 독특한 중정을 감싸면서 페로는 부드러운 붉은 색상 하나로 페로는 붉은색이 추가되면서 층별로 서로 다른 색채로 구분되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유치원 외관

광장의 개념이 강한 1층이 아케이드와 집포로 둘러싸인 층별로 서로 다른 색채로 구분되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광장의 개념이 강한 1층이 아케이드와 집포로 둘러싸인 원형의 중정은 분수와 조각으로 입체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으며 전체 배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정마다 잘 다듬어진 조경과 아파트

동마다 다양한 외관은 출입구, 발코니, 지붕장, 지붕모양, 반원과 부드러운 곡선의 개구부 등의 서로 다른 Pattern과 색상으로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도 통일된 조화를 갖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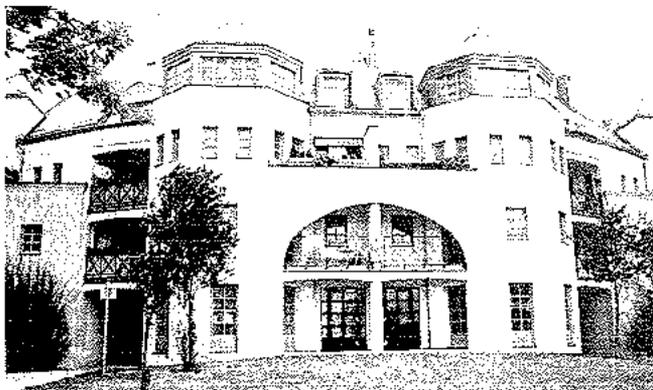
리버럴한 삶을 담은 주거형태로서 각 건물들의 표정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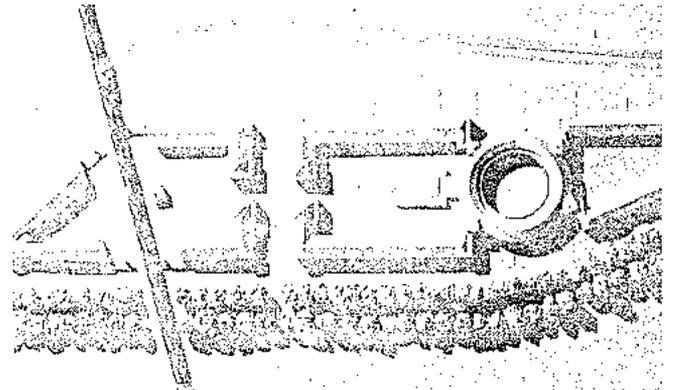
동마다 발코니, 출입구 등이 다양한 외관



조경이 잘 조화된 중정 외관



탁아소 외관



배치도

6) Histrocial Dela Grande Guene

건축가 : Henri E. Ciriani, 연대 : 1987,
 위치 : Peronne(France)

제 1차 세계대전의 상황과 대전 중 사용되었던 각종무기를 비롯하여 군수물과 참전자들의 활약상을 전시기록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 건물은 붉은 돌로된 파괴된 중세기의 일부성곽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증.개축된 전쟁역사 박물관이다.

Peronne 시의 중세기 성이 있던 호수가에 자리잡고 있는 이 박물관은 현재는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광장을 앞에 두고 견고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옛성과 중앙의 하부에 조그맣게 뚫린 아치개구부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입구광장에서 볼때 성곽으로 감싸여 좀처럼 그 안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는 박물관은 성문을 통과하여 조그마한 중정을 만나면서 우측으로는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옛 붉은돌의 성곽을 보게 되고 좌측으로는 새로 신축된 노출콘크리트의 건물과 마주하게 된다.

입구로부터 Main Hall까지의 좁고 긴통로에는 천장을 통하여 은은한 빛이 투과되고 있고 몇몇 극적인 공간도 체험하게 된다. 통로끝에 이르면 Main Hall 좌측에 수평의 큰 창문을 통하여 방문객이 위치한 장소가 주변으로부터 들려져 있다는 사실과 아래층의 카페테리아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다 보면서 호수와 건너편의 숲들을 관망하게 되고 우측의 전시실로 들어가게 된다.

4개의 커다란 전시공간에는 실마라 주제가 선명한 내용의 전시물들이 진열되어 전쟁전후의 평화와 휴식 그리고 전쟁중의 참혹함과 상처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은은한 빛이 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시실들은 크기와 형태도 다르고 때로는 벽면의 창을 통해 관람중에도 외부의 호수와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전시실을 잇는 통로와 계단과 경사로 등의 완충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관람을 마치면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아래층의 카페테리아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관람중에 기억되는 전쟁의 상흔을 잊기라도 하듯이 통유리로 구획된 외벽을 통해서 평화로운 호수와 숲들을 만나게 된다. 차 한 잔의 휴식을 끝낸 후에는 원형기둥으로 구성된 테라스를 나와서 박물관 후면을 따라가게 된다.



원통기둥의 곡선으로 구성된 박물관 외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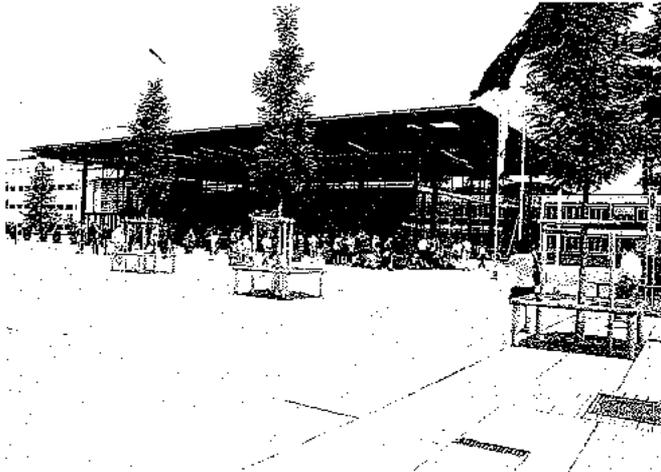
호수와 조화된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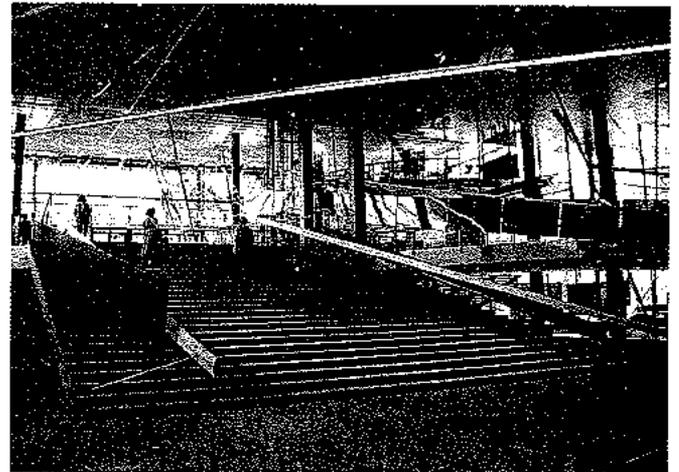
중정

주변경관도 즐기면서 산책로의 끝부분에 이르면 호수전너편으로 가느다란 원통기둥으로 둘러 울려진 둥근 곡선과 Box형으로 구성된 박물관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면서 호수위에 드리워진 또 하나의 건물모습을 보게된다.

또한 호수위에 비추어진 평화롭기까지한 주변환경은 건축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조용히 설명하고 있다.



외관



통유리와 철골구조로 노출된 내부

7) Plenerkereich Des Destuschen

건축가 : Gunter Behnisch,
위치 : Bundestages(B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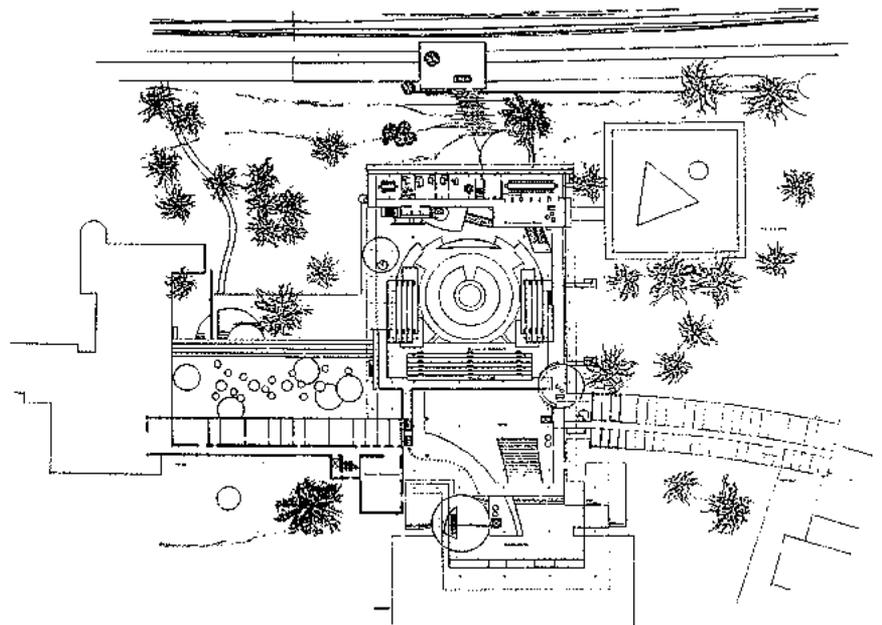
Gunter Behnisch가 설계한 Stuttgart의 Hysolar Institute와 Frankfurt의 Postal Museum을 보면서 현대건축의 새로운 흐름도 실감한바 있는 필자는 Bone의 국회의사당(하원)을 답사하면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전 서독의 하원들이 사용하게 될 의사당으로 증축된 이 건물은 1930년대에 세워진 Pedagic Academy 건물과 1950년에 세워진 Schuipped Wing을 양쪽에 끼고 건물 뒷편의 라인강을 내려다보면서 거의 직사각형의 가까운 평면으로 계획되었는데 Behnisch가 설계한 전자의 두 건물과 비교하여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의 성격상 한결 정돈된 형태지만 노출된 철골 Frame과 건물 4면의 벽체가 온통 유리면으로 구획되어 외부에서도 내부가 훤히 투시되도록 건축되었다.

건물의 출입은 철골기둥으로 마쳐진 2층까지 트인 캐노피 아래의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의원들과 방문객들이 같은 선상에서 별개의 출입구를 사용하게 된다.

1층 현관을 들어서면 의원들이나 방문객들은 아래층으로 넓적하게 Void된 로비를 만나게 되는데 의원들은 Void된 로비 한 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곧바로 내려가는 넓적한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의 회의장에 이르게 되고 방문객들은 별도의 작은 통로를 통해서 1층의 방청석에 이르게 된다.

내부공간 역시 통유리와 철골구조로 노출되어 있고 의원들의 주회의장 역시 전면의 의장석을 제외한 3면이 방청석을 포함하여 모두 유리 칸막이로 구획되어



평면도

있다.

실내의 홀 여기저기에서 라인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은 건물주변 곳곳에 잘 꾸며진 조경들로 더욱 운치를 고조시켜 주고 있고 내부공간의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철골로 노출되어 구성된 지붕 프레임과 기둥들, 노출된 Elevator Box, 콘크리트의 계단과 난간 등으로 건물내부 구석구석에 구조표현의 솔직성은 섬세한 마감 재료의 디테일과 원색에 가까운 색상의 구성으로 활기차고 변화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특히 자연채광을 극대화하여 내부공간 구석구석까지 밝게하고 있음은 의원들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까지도 밝은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사치스럽고 화려한 재료로 사용된 곳을 발견할 수 없고 어느

곳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감을 국민들의, 국민을 위한 의회임을 알 수 있었다.

권위적이고 위엄성을 강조하여 비인간적인 스케일로 여의도에 서 있는 국회의사당을 생각하면서 문득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의사당을 건축할 경우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국회를 설계할 것인가 반문해 본다.

특히 본 건물의 안내를 담당했던 의회직원의 말에 따르면 국민들이나 의원 모두가 현재의 건물모습이나 내부공간과 사용재료 등에 대하여 별 불평없이 받아들여 졌다고 하니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건축을 대하는 안목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건물의 용도나 성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구되고 있는 건축가의 설계수법에 대한 집념과 자세도 대단하다고

느꼈다.

8) Museum Für Modernkunst

건축가 : Hans Hollein, 연대 : 1989~91,
위치 : Frankfurt

이번 건축여행에서 답사대상건물로서 Museum과 Gallery들이 유달리 많았던 것은 이들 건물이 소장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유물들의 중요성보다는 이들 대부분이 최근에 지어진 현대 건축으로서 훌륭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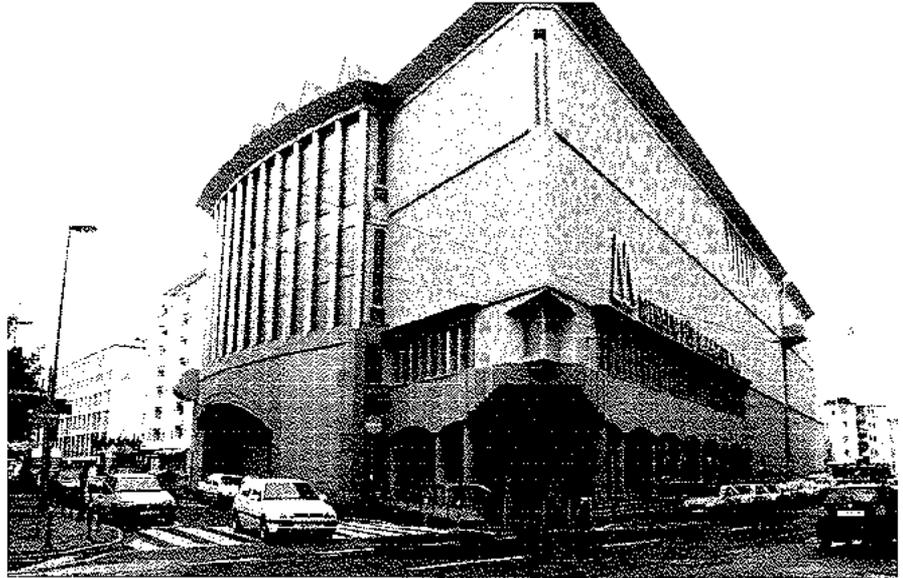
「London의 National Gallery Extension(R. Ventri)와 Clore Gallery, (J. Sterlve) Stuttgart에서는 Neue Staatsgalerie(J. Sterling)를 Frankfurt에서는 Stadel-Museum(G. Peici)을 비롯하여 Postal Museum(G. Benisch), Arckitetur Museum(O. M Ungers) Cinema Museum(H. Bofige), KunsthandWerk Museum(R. Meier), Kunsthalle Schrin(Bangertd, Jansen) Museum of Prehistory(J. P. Kleihaus) 등을 보았고 Monchengladbach에서는 Städtisches Muscum(H. Hollein)을 Paris에서는 Pyramid du Lonver(I. M Pei)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건물을 보면서 이들이 기존의 도시구조의 조화나 일체화로 건축과 도시의 콘택추얼리즘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음을 보았고 한편으로는 개성있는 작가들의 건축사상을 건물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Frankfurt의 많은 문화시설들이 Main강을 끼고 남북으로 산재하여 있는데 이 현대미술관은 Main강 북쪽에 위치한 Romer 광장과 Dom 내성당의 중심으로 위치한 몇개의 미술관중의 하나다.

Domstrasse 10번지에 3면이 도로로 에워싸여진 독립된 3각형의 대지위에 직 3각형의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 미술관은 전형적인 Post Modernism 양식의 건물이다.

전통적인 붉은색의 Sand Stone과 흰색의 프라스타 바르기로 마감된 건물외관은 입구가 있는 삼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하여 좌우측의 입면구성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한쪽면은 약간 돌출된 부드러운 곡선으로 저층부분이 한개의 커다란 아치위로 수직의 좁고 긴창이 촘촘히 뚫려있고 다른 한편은 직선으로서 저층부분에 여러개의 크기가 서로 다른 아치위로 높이가 낮고 폭이 좁은 수직창이 촘촘히 뚫려있고 그 위로 큰



엄숙하면서도 화려한 외관

벽면이 있어 단순한 것 같으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으면서 통일된 외관을 하고 있다.

경직된 것 같기도 하고 엄숙한 면을 보이면서도 화사하게 느끼는 입면구성은 적절한 재료의 구성과 색상으로 그리고 Relief, 개부부와 창문모양으로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이 하나의 커다란 조각품으로 거리의 모서리에 세워져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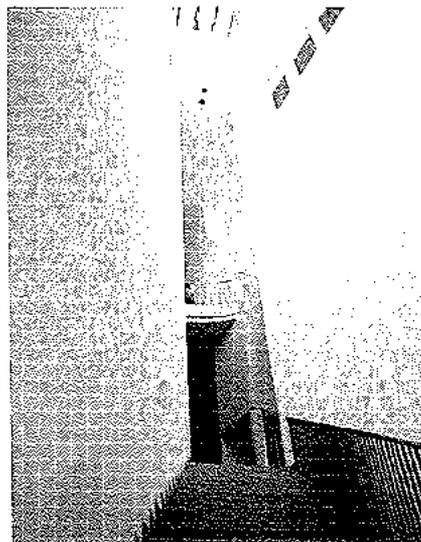
3각형의 도로 모퉁이에서 높이가 낮은 2층의 원형기둥이 바치고 있는 약간 쳐들린 피로티로 구성된 전입구는 건물전체에 비하여 외소하기조차 하지만 깊은 흡인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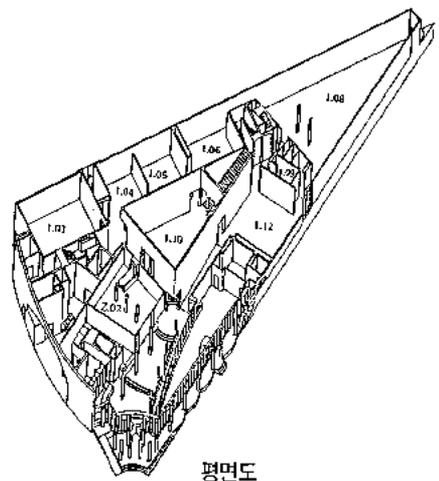
현관을 들어서면 독립된 원형기둥 양 옆으로 배열되고 안내소 물품보관소 카페 등에 위치한 좁고 깊은 3각형의 로비와 만나게 되고 로비 끝에 위치한 2개의 원형의 기둥으로 가리워진 좁은 반원형의 계단을 오르면서 첫번째 3각형의 전시공간에 들어서게 된다.

층마다 중앙 계단실을 중심으로 하여 막히고 트인 통로와 높고 낮은 개구부로 이어지는 서로 다른 형태의 실내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극적인 건축공간이 건물내부 여기저기에서 수 없이 전개되고 있음은 건물외부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오랫동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 생각된다.



내부 계단실



평면도

참고문헌

- | | |
|--------------------------|-----------------------------|
| 1. GLOBAL ARCHITECTURE 1 | 6. THE ARCHITECTURAL REVIEW |
| 2. GLOBAL ARCHITECTURE 2 | 7. A + U 77년 4월호 |
| 3. SLAE THE ARCHITECTURE | 8. 공간 92년 10월호 |
| 4. JOHN SOANE | 9. PLUS 93년 8월호 |
| 5. MORTA MUSEUM | |

한국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3)

Innovating Korea Housing Culter, For What and How ?

金鎮愛/도시건축PD, 서울포럼대표

by Kim, Jin-Ai

〈Ⅲ편〉 주택혁신은 어디에서 착안되어야 하나 ?

What triggers Housing Innovation ?

주택혁신이란 ?

주택혁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마치 사회혁신을 논하듯이 사치스런 주택 소비성향을 억제하는 것인가? 사회복지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거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늘이는 것인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전자동 인텔리전트 주택(Intelligent House)이나 하늘을 찌르는 초초고층 주택, 태양열 주택을 설계하는 것인가? 과연 주택혁신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기존집과 전혀 다른, 보통집과 전혀 새로운 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택 혁신인가? 말 뜻 곧이 곧대로 마치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양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혁신인가? 혁신이란 단어는 자칫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택이란 사람들이 끈끈하게 가지고 있는 생활의 요구를 담는다는 점에서 극히 보편적이고 따라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

분명 혁신을 위한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식적인 새로움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혁신이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용에서부터 출발한 혁신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내용을 철저히 다부려면 혁신적 발상이 필요하다. 필자가 '혁신'이란 말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주택부문에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1편) 다른 한편 주택수요의 변화가 태동하여 새로운 주택 기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2편) 주택혁신은 어디에서 착안되어야 하는가가 이번 세번째 글의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혁신의 위상과 새로운 주택혁신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혁신의 과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향을 주목하기로 한다.

I. 우리 사회 주택혁신의 위상

우리사회의 주택혁신 노력은 보잘 것 없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 동안 성취한 양적공급확대와 지금도 연간 5~6만호를 짓고 있는 실적을 앞세워도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공급 실적의 선두를 달리는 주택공사나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주택공급연혁을 보면 똑 같은 아파트들이, 크기와 규모와 입지만 다를 뿐,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일반주택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택 100선"(한국주택사업협회가 정리한 책)이라 하는 우리 현대주택을 보면 대부분 극히 보수적이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주택들이 90%는 차지한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우리의 현대주택사를 굵게 묶어 볼 만한 계기들이 찾아지지 않는다.

혁신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한가지는 특정사례에서 부터 출발하는, 특수성은 있되 그 특수성의 보편적 가치가 커서 곧 일반적 어필을 가지며 범용화되는, 소위 '모델'의 제시 내지는 '주택형'의 제시에서 연유되는 혁신이다. 다른 한가지는 그야말로 특수하여 그 전체가 보편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주변기술이나 설계 아이디어를 포착하는데 기여하는 혁신이다. 우리 현대주택사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혁신이 회귀하여 사업실적은 있어도 질적 발전의 계적은 선명치 못하다.

주택에 대한 실험정신은 양적공급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잠재워 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50~60년대에 공공의 정책논리가 아직 경직되지 않고 건축계 역시 기술적으로 미숙하고 사업영역이 좁기는 해도 실험정신으로 무장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던 시대에 그래도 많은 주택실험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의 아파트,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실험은 훨씬 적극적이다. 평면형에 있어서나 공공공간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험들은 공공에 의한 공영주택단지나 시범주택에 있어서도 단아하고 절제된 동네와 주택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건축가협회에서 주관한 주거문화전, 대한주택공사의 사지를 보면 오히려 60년대까지 여러 유형들이 실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물량공제가 가속되고, 민간측면에서는 경제력 향상에 따라 주택소비수준향상이 가속됨에 따라 혁신노력은 줄어들고 안전성 위주, 보수성 위주의 주택생산이 팽배하게 될 것은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또한 불행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실험정신의 진공상태가 거의 사반세기를 지배해 온 셈이다.

그 동안 전혀 새로운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웃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사회의 혁신노력은 뒤처지고 있다. 주택공급확대가 주요정책목표이기는 마찬가지였던 일본은 5~6년대 공업화, 표준화에 대한 끈질긴 실험을 기반으로 70년대에는 공장생산주택(Manufacture House), 설비시스템의 내구성을 실험하는 100년 내구주택(Century Housing)과 함께 거의 완벽한 부품화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80년대에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형의 개발을 통해 엄정한 주택시장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질적향상이 눈부시게 일어났으며, 90년대에 와서는 도시주택형의 개발과 함께 21세기적 입체복합개발, 초초고층 복합도시들의 제안이 쏟아져 나오며 새로운 혁신의 물고기를 트고 있다. 민간의 하우징패어를 통한 스타일 혁신도 전가동되고 있으며 공공의(주로 건축센터가 공공기관과 민간의 후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태로서) 신주택혁신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적되고 있다. 리빙 건축가의 주택설계 참여는 개별실무의 높은 질에 있어서도 괄목할만 하지만 정기적인 설계경기를 통해 축제의 무드와 함께 펼쳐진다.

한편 지금도 주택양적확대가 초미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민간주도적인 일본과는 달리 강력한 공공주도하에 주택혁신이 추진된다. 특히 시장주택개념의 도입에 따라 주택실험은 새로운 제도에 들어서고 있어 분양방식, 개발방식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주택 부문에서는 전체 공급호수의 일정 비율을(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3~8% 수준) '실험주택'으로 지정하여 공법, 설비 뿐 아니라, 밀도 수준에 따른 단지구성방식, 주동구성방식을 실험한다. 특히 도시형 저층층 고밀주택에 대한 실험은 인상적이며, 중국 특유의 중정형 사합전주택을 현대적으로 재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아파트들은 우리네의 아파트보다 훨씬 다양하다. 우리가 기껏 복도형과 계단실형만을 쓰고 있는 것과 달리 그들은 중복도형, 코어형, 스킵 플로어형, 테라스형 등을 폭 넓게 구사한다. 주택 하나의 면적이 작고 설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신 공간구성의 융통성은 놀랍도록 다양하게 구사된다.

우리는 어떠한 위상에 있나? 양적공급이 눈부신 것에 비하여 축적된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다. 대량공급체제에 긴요한 표준화도 담보상태에 있고

공동주택공급규제에 묶여 공동주택실무의 혁신을 위한 운신의 폭은 제한되어 있다. 반면 일반주택은 보수사치성 취향의 설계에 주도되고 있어 주요 흐름의 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간간히 시도되는 것은 그야말로 간헐적이고 단발적이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의 경직된 규제와 민간의 방임된 소비상황의 양극 사이에서 실험에 대한 의지나 생활비전을 담는 집을 시도해 보자는 욕구는 고갈되어 왔다. 특히 주택문제가 사회쟁점화 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 특히 저소득층주택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제기될 뿐 이를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어야 할 지에 대한 전문가술축적은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 주택혁신이 필요한 상황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진공상태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시대에서부터 주택문화시대로 궤적을 바꾸어야 하는 필요성은 절실하다. 다만 주거문화를 높이기 위한 당위성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상황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할 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구사회적 변화, 경제소바구조 변화, 도시개발 양태 변화, 주택산업계 변화,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가치관 변화(2편 참조)는 사회근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갈 변화들이다. 또한 기술의 변화는 이미 정보통신 산업계에서 뻗어지고 있듯이 빠른 확산속도에 따라 도시구조와 산업구조 생활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며 생활의 기본단위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1참조)

이러한 사회변동은 새로운 사회생활의 전개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잇점이 있는 한편, 그 동안 행해온 주택실무들은 강한 관성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은 그 만큼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택지개발과 주택개발에 관련된 각종 특별법과 규제 내용들, 분양관련 규제와 세제, 일키고 설린 주택관련 산업체제 등은 쉽게 뛰어넘기 힘든 제약들이다. 아직도 7~80년대의 양적공급관행에 물들어 있는 정책관련, 실무관련 전문인들의 발상이 바뀌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주택만으로 주택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대단히 복합적인 도시상황 역시 현실적인 제약이 된다.

그 만큼 현재의 상황은 복잡다단하다. 단순공급만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지난 사반세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약을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한편 혁신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기존의 틀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두가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며 혁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표1. 주택부문을 변화시킬 사회변화동향

사 램	인구구성변화	가구원수, 기구수증대. 학령인구감소, 노령인구증가. 새로운 가족형태 증가 (결혼가정, 싱글, 파트너형 동등)
경 제	산업구조변화	서비스인구, 자유직, 취업형태 다양화 여성취업증가
	소득수준변화	가용소득, 소비구조변화
	재정방식	크레딧 사회, 장기융자, 민간금융시장 다변화
사 회	도시화	2000년대 90% 육박
	정보화	주택입지 다양화, 주택기능 다중화
	지방화	지방특색, 인구 U-TURN
	첨단화	기술고도화, 고품질화, 에메니티 시대
	환경중시	자원절약, 자연친화
당/주택	국제적	외국분북일반화, 외국인취업자 증가?
	지역문화화	진동계발전, 모여사는 삶
당/주택	땅/도시	여전히 모자라는 땅, 도심고밀화, 다양해지는 입지여건/개발방식
	주택공급방식	공급업체/개발방식/규모/스타일/서비스/자율방식 다양화

보는데 지방자치체에 의한 주택혁신과 주택개발업계에 의한 주택혁신이 그것이다. 과거 중앙정책수립에 따라 할당배정되던 주택공급이 이제 지방자치단위의 자치적 도시계획과 함께 지역 특성에 부합된 지역주택정책으로서 점진적으로 대체되게 되는 현상이 향후 수년간 전개될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주체가 어느 만큼 주도적으로 지역에 밀착된 주택정책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혁신의 전환계기가 될 수 있다.

주택개발업계는 발전과 생존을 위해 주택혁신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점차 복잡하고 개발에 다른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 자꾸 까다로워지고 복합적인 요구를 하는 수요자들, 점차 좁아지는 땅, 점차 상승하는 건축비,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업계판도 등 자체혁신을 추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주택개발업계는 축적된 경험과 투자의 여력에 따라서 고속의 혁신을 성취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

Ⅲ. 주택혁신의 과제

그렇다면 주택혁신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해야 하는가? 새로운 세력인 공공지방자치주체와 민간주택개발업계의 핵심역할이 기대되는 한편 주택부문을 이루고 있는 중앙정책부서에서부터 소비자와 관련업계에 이르기까지 각기의 역할을 빠뜨릴 수 없다.

주거문화를 풀어가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1편에서 제시되었던 6가지 과제는 유효한 출발이 될 수 있다.

- 분화된 주택시장을 겨냥하는 분화된 주택기획
- 도시정책과 연계된 주택정책
- 다양한 주택유형개발의 제도적 장치
- 실험주택/혁신주택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 수요시장 전환에 대비한 신 소비자 교육
- 주택생활 비전 만들기 캠페인

이러한 과제들이 시사하는 것은 이제 주택부문이 그

동안 주도했던 매크로(Macro)한 시각에 더하여 보다 마이크로(Micro)한 시각으로 보완되며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초중급 기법에서 보다 고급첨단기법으로 발전하면서 복합적이고 지역밀착적으로 수요자의 세분된 요구에 마케팅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적인 수치보다 질적인 수준이 강조되면서 보다 하이터취·하이센스(Hi-Touch·Hi-Sense)적인 대응방법을 찾아내는 데에서부터 주택혁신은 시작된다.

주택부문을 구성하는 각 주체들은(표2 주택부문의 구성 열개) 전체 맥락속에서 여러 복합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지역여건에 대응하고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면서 보다 마이크로한 시각으로 주요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당면케 된다. 각 주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혁신과제를 안게 되는가?

1. 정책담당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그 동안 주택정책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는 많은 계획부문이 지방자치체로 이양됨에 따라 실무적 부담은 덜어질 것이다. 그러나 총괄적인 법과 제도를 다루는 만큼 중앙정부의 기획역할은 더욱 막중해 질 수밖에 없다. 제도의 큰 틀내에서 자치체와 주택개발주체들이 운용의 폭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정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케 된다. 지역의 즉지적 상황에 부합되는 주택공급 정책수립,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무리없는 주택개발 방식의 설정, 지역의 다양한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개발의 규모와 형태를 적절히 배분하는 일 등 여태까지는 없던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있다. 공급규정, 환경제외규제,

재정관련, 세제관련 등의 틀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존제도들의 개선방향의 주안점은 보다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성, 주택개발사업이 앞서며 도시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과 평가의 엄정성 유지, 민간개발의 자율적 시장조정기능의 육성, 그리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조정하는 일 등이다.

이러한 개선외에 주택혁신을 위해 공공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실험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정과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과 우수설계 우대 풍토를 만드는 것은 공공이 아니면 못할 일이다.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큰 맥을 제공하는 정책수립과 운용이라는 업무는 사실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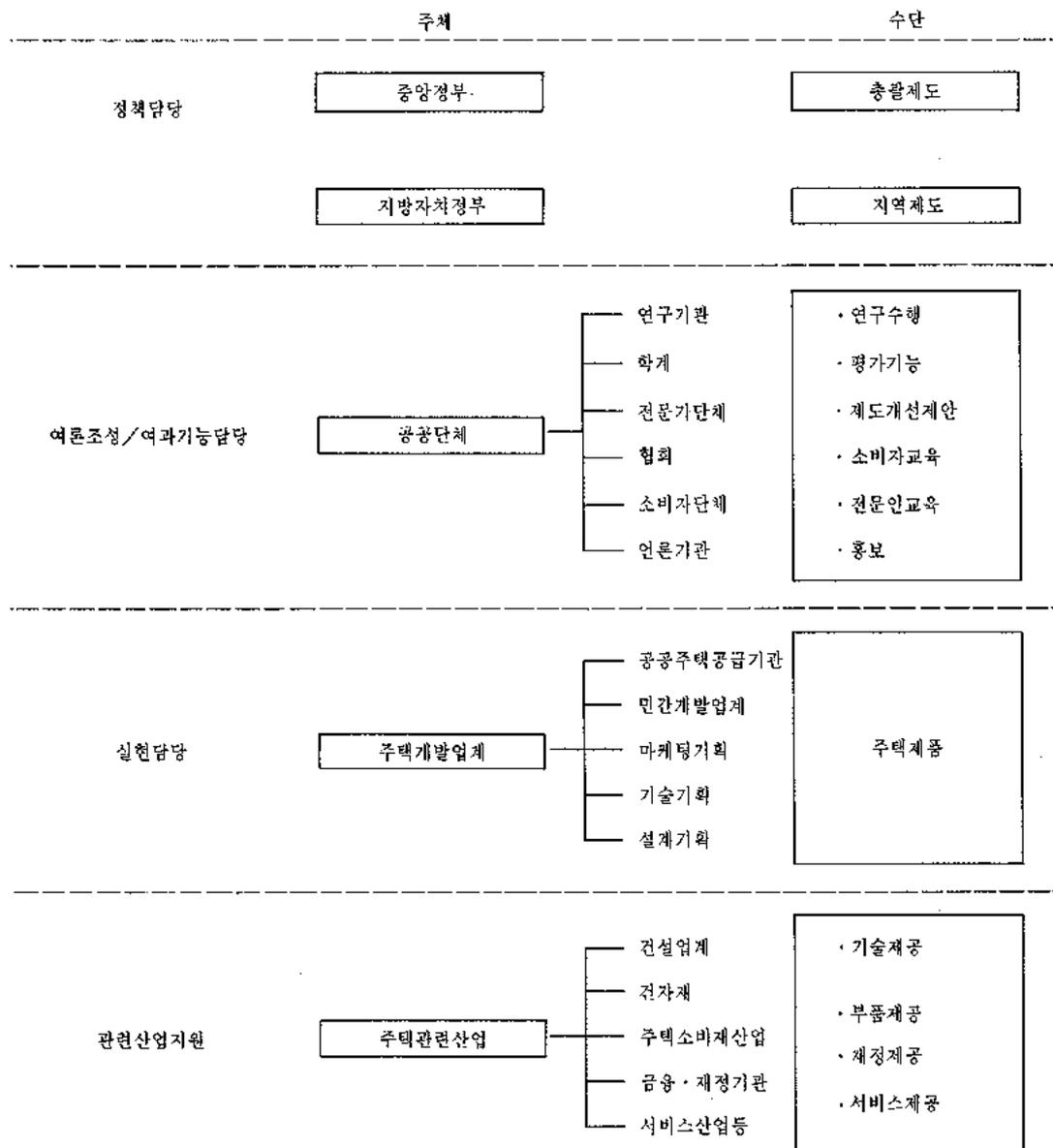
투자와 전문성을 요하여 과연 우리 공공부문이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공공은 그래서 공공단체와 주택개발업체의 전문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제도를 급히 고치고 사후 뺄질을 하는 식이 아니라 전문계와 민간을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혁신의 바탕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2. 여론조성/여과기능 담당 : 공공단체

정책수립과 집행 사이에서 여과와 촉매역할을 하는 공공단체의 기능 육성은 주거문화 발전을 위해 절실하다.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단체, 협회,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성이 강한 이들

표2. 주택부문의 구성일개



집단은 사실 그 동안 관련기능, 공공기관의 보조기능, 이익단체 역할을 했거나 전문기술의 축적과 파급기능이 저조하여 비전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동안의 투기 열기에 따라 언론기관 역시 충분한 여과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주택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그 기능을 보다 넓고 깊게 키워야 하며 특히 기술개발의 촉진, 기술보급, 환경모니터링, 소비자 교육, 비전의 전파에 대한 연구, 개발, 확산, 홍보기능을 강조해야 한다. 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공공에 대한 지원, 민간에 대한 견제와 활동촉진의 여지는 커진다.

보다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들 공공기능은 정부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업계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 비전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제공하는 공공단체의 기능은 성숙 사회의 뿌리가 된다.

3. 실현담당 : 주택개발업계

실무에서 뛰는 업계의 실무는 궁극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다. 다만 좋은 제품의 개념이 분양수익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 소비자 서비스, 새로운 비전의 실현 등에서 찾아지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업계는 소비자와 가장 가깝고 현실문제 (토지, 도시계획 규제, 세제, 금융 등)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택혁신을 제안, 실험하는데 가장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다. 관건은 이들이 어느 만큼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 제안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업계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어필과 함께 정책담당에 대한 제안과 설득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공공의 혁신지원제도는 그래서 민간의 혁신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혁신을 유도해 내는 효과를 가진다.

주택개발업계는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을 위해 각종 자원을 동원하는데 투자를 넓혀야 한다. 일상적인 하우스징 패어(경향 하우스징 패어는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촉발제로서는 한계가 있다)의 종류가 많아져야 하고, 주택유형별로 보다 적극적인 설계경기, 건축가 참여 설계(최근의 분당주택전람회와 같은 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를 추진하고, 프로그래밍 개발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주택업계, 전자제 업계에 의한 정기적 설계경기, 하우스징 패어가 그러도 많아서 설계개발 뿐 아니라 소비자 홍보, 정책설득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보다 목적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은 주택시장의 확대,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위한 업계의 고차원적 투자가

된다.

4. 관련산업자원 : 주택관련산업

주택은 건설 뿐 아니라 수 많은 부품과 기구와 서비스가 모여 이루어지는 복합체이다. 주택개발이 관련산업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접촉하는 관련산업의 자율적 움직임에 따라 주택소요와 형태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들 관련 사업과의 연계체제는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부문이다.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주택산업과 관련산업과의 상호보완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IV. 주택혁신의 착안들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집이라는 관점에서 주택혁신의 줄기를 찾아보자. 혁신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발상이라 생각하면 다소 접근은 쉬워진다. 특히 주택이란 지극히 일상적인 아이디어, 생활의 아이디어 보다 나은 삶,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발상의 시작은 역시 주택을 구성하는 땅, 기술, 자본, 삶의 4가지 주요 요소에서 부터이다. (표3 주택혁신의 발상출발)

1. 땅으로 부터의 발상

땅은 점점 더 좁아들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넓은 땅을 확보하려는 예전의 전략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좁은 땅을 넓게 쓰느냐, 안쓰던 땅을 쓸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도시내, 도시근교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한계에 이른 것은 분명한 일이다. (물론 아예 도시내의 일반택지를 모두 고층아파트 단지화하는 무모한 발상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환경의식수준이 제동을 걸 것이라는 전제하에)

방향은 두 갈래 뿐이다. 도시내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무작정 고층화를 하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비어있는 땅이 생기지 않도록, 이왕이면 인공토지도 만들어 가는 입체적 발상이 필요하다. 필지별 영세개발보다 중규모 공동개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과 설계 아이디어는 필요불가결하다. 보다 적극적인 입체적 복합개발 역시 추구되어야 할 방향이다 한 마디로 도시에 적합한 도시형 아파트를 작은 규모에서부터 초대형까지 유형별로 개발하여 정착시키는 일은 주택을 위해 환경을 위해 도시계획을 위해 긴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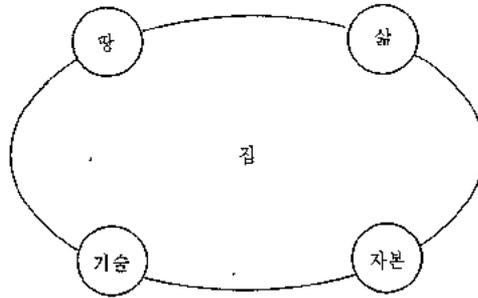
다른 한 가지 방향은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전개되는 신도시 전원개발이다. 주택수요의 확대를 기성도시내에서 또는 지금처럼 대도시권에 가까운

표3. 주택혁신의 발상 출발

- 좁은 땅을 넓게
- 안쓰던 땅을 쓰도록
- 입체적으로
- 복합적으로

- 더 편하게
- 더 안락하게
- 더 화기롭게
- 더 안전하게
- 더 안정되게
- 더 멋있게

- 더 값싸게
- 더 오래가게
- 더 편리하게
- 더 아름답게
- 더 자연스럽게
- 더 어필하게



- 더욱 효과적으로 나누기
- 장기적 제정
- 안정적인 제정

지역에 아파트 신도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개발이 국토적인 광역교통체계와 맞물려 계획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새로운 사업개발, 지방도시개발과 연계되어 계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기술로 부터의 발상

기술은 무한히 개발 가능하다. 공간구축을 위한 공법,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내구도 높은 설비, 부품화와 공장생산을 통한 효과적 공정제어, 내구도 뿐 아니라 의장적, 환경제어적 성질을 가진 건축재료의 개발로부터 편리성, 안락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주택 생활기기를 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최대한 가깝게 조성할 수 있는 에메니티 기술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 기술개발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그 효용도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술개발의 주체 역시 효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종소비 제품은 산업계에서 설계와 활용기술은 주택개발업계에서 공법과 설비, 재료에 대한 소요와 구체적 요구는 설계기술 부문에서부터 나와서 관련 건설업계, 자재업계에서 개발되는 등 핵심사항은 어떠한 활용을 위해 어떠한 기술개발을 주문하느냐에 달려있다.

3. 자본으로 부터의 발상

자본은 성장할 수는 있지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주택부문에서의 자본은 결국 제정으로 통하는데 제정방식의 변화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는 주택산업계와 주택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택부문의 재정방식은 수요자에 대한 직접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자확대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히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주택개발업계는 재정과 연계된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다.

지역단위의 주택계획이 지방자치단위로 정착됨에 따라 민간주택개발과 공공임대주택개발과의 연계프로그램,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발자금의 융자에 대한 지역단위의 기금설정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가격선택의 폭을 넓히는 주택옵션제도 착안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분양가 차등화, 마감수준의 차이 등 운용에 있어서는 복잡하지만 수요자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할 서비스 품목이다.

4. 삶으로 부터의 발상

삶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것이 매력이면서도 그 바탕을 이루는 맥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이 묘미이기도 하다. 인간의 기본적 요구란 시대와 사회와 기술이 바뀌어도 그 치장을 바꿀 뿐 면밀하게 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주택혁신의 착안은 어떻게 그 맥을 짚어서 풀어주느냐,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질 수 있게 하느냐 일 것이다.

삶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삶으로부터 출발한 발상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삶의 맥을 짚는다는 점에서 적어도 8가지의 주택착안은 가능하게 보인다. (이 8가지는 필자가 “새주택설계연구회”에서 21세기의 주택개발 주안점으로서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소개한다.) 그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 **가사부담에서 해방된 집(CARE-FREE HOME)**
 필수불가결한 가사를 부담이 되지않고, 최소한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수 많은 아이디어, 가사의 종류, 가사개념의 변화, 가족원의 참여, 시간절약 방법, 시간즐기는 방법 등등 가사가 즐거울 수 있는 집이란?

• **생활서비스가 따라오는 집(MULTI-SERVICE HOUSING)**
 집관리(세탁/청소/요리, 손님치레 등), 건강관리(health-care), 어린이 돌보기(child-care), 방과후 학생(after-school hrs) 교육프로그램(edu-service), 의료서비스(medi-care), 취미생활 등등 필요불가결하고 있을수록 좋은 서비스와 매치된 집이란?

• **가격선택이 가능한 집(COST-OPTION HOUSING)**
 고물가시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부담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이란?
 마감재 옵션, 집구조 옵션, 설비수준 옵션, 지불방식 옵션, 소유/임대 옵션, DIY 확대 등, 부담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집이란?

• **동호·동락·동고하는 집(COMMUNAL HOUSING)**
 모여살면서 교류하고픈 바람을 만족시키면서도 서로 간섭받기 싫은 현대 가족의 이중적 욕구를 슬기롭게 만족시키는 포인트는? 조합주택, 동호인 주택과 같이 처음부터 같이 짓거나, 우연히 모여도 서로 자유스럽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집의 공동시설, 공동관리, 공동이벤트, 공공공간의 지혜란?

• **세대교류 주식회사 집(GENERATION INC. HOUSING)**
 같이 살아도 따로 살아도 어렵지만한 노부모 보살피는 일, 자식세대와 사는 일을 슬기롭게 원하는 형태로 살 수 있는 집이란? 동거/인거/삼세대형/노인 주택이 전부일까? 서로 보살피는 지혜와 충돌소인을 피해가는 지혜로운 집이란?

• **유유동거(類類同居)하는 집(SHARED HOME)**
 날로 늘어가는 독신, 부부, 초자유형 가족, 임시거처 가구들이 가사의 부담을 되도록 피하고 관리부담도 줄이면서 시설을 공유하면서 사는 집의 등장, 호텔식 집? 자유스러우면서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란?

• **일하는 집/배우는 집(WORK-IN-HOME)**
 컴퓨터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재택근무확산, 계속 배워야 하는 시대에서 집에서 일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갈수록 늘는데 이런 집의 모습은? 하이테크 생활이 가족생활과 어떻게 맺어질까? 공간구성이 달라질까?

• **하이스타일로 사는 집(HI-STYLE HOUSE)**

이왕이면 멋있게, 개성있게 살고 싶은 모든 이의 욕구를 풀어주는 스타일 하우스시대. 초호화급이 아니더라도 높은 품격, 첨단설비, 환경주택, 전통센스, 코스모폴리탄센스 등 집의 품위, 아름다움, 멋을 만끽하는 21세기 집을 누리는 자유

結 : 주택문화시대의 새로운 시작

주택 역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변신하기란 쉽지 않다. 혁신이란 자체가 어렵고 그 동안 쌓아온 것이 많은 만큼, 더더욱 혁신이란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호기는 바로 지금이다. 문제도 많아진 만큼 문제의식의 층도 두터워지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생활, 문화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가 태동하고 있는 지금, 주택을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환경문제, 도시계획 문제, 생활문제라는 시각으로 보완되는 움직임이 태동하는 지금, 주택산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각기 생존과 발전의 씨앗을 찾는 지금, 마침 21세기 미래를 눈 앞에 꿈꾸어 볼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주택공급시대를 보다 한 차원 높여 주택문화시대의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다.

(끝)

도심재개발사업의 지역선정과 구역지정

Choiced District and Designated Area of Downtown Redevelopment

崔燦煥/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목 차

- | | |
|-------------------------|-----------------------|
| 1. 도심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7. 도심재개발 사업의 정책과제 |
| 2. 도심재개발 사업의 사후 평가 | 8. 도심재개발의 사실기준 |
| 3. 도심재개발 사업의 기법 | 9.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
| 4. 도심재개발 사업의 지역선정과 구역지정 | 10.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
| 5. 도심재개발의 외국사례 | 11.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
| 6.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 | 12. 도심재개발 사업의 제도개선 |

도시재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지정은 사업시행을 위한 관문일뿐 아니라 첫번째 요건이 된다.

또한 구역지정은 대상지역의 범역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지구의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개발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시개발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수한 개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구역지정, 사업실적 등으로 보아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거의 도심지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에서 몇가지 특성이 있다면 도심재개발사업이 상업·업무 용도의 시가지블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부도심의 기능과 공간구조 등 정책적 재개발이 요구되므로 재개발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나 뿐만 아니라 지구중심 등 기존 건축물이 입지해 있는 곳의 개발을 위해서는 재개발이 일반적인 개발수법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도시재개발의 구역 지정의 범규정, 구역지정현황과 문제점, 구역의 규모와 경계, 사업시행지구지정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도시재개발의 구역 및 지구 지정은 그 특성상 도심재개발사업과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 구역지정의 법적요건

도시재개발의 구역지정에 대한 요건은 1965년 도시계획법 개정시부터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었고 그후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구역지정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서 다음의 각항중에 어느것에만 해당되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1) 그 구역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함)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에 있는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3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때
-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구조로 되어있지 아니할 때
- 3) 그 구역안의 건축물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구역안에 있는 총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을때
- 4) 그 구역안의 공공시설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율을 다할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때
- 5) 그 구역안의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 6) 그 구역안에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될 때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노후불량의 기준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 2) 토지의 형상이 건축에 부적합한 경우의 토지
- 3) 건축구조상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4)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리고 건설부훈령(제833호 92. 8. 6)인 도시재개발

업무지침에 구역지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역지정대상은 노후 또는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부분으로 한정하되 건축물의 연령, 구조, 설비에 의한 불량률의 정도와 이들 건물의 과밀정도,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이용상태 및 대지의 규모·안전 등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상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재개발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나대지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형여건·건축물의 배치·토지이용계획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 및 녹지의 해제를 구역지정에 앞서 또는 구역지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 구역의 범위는 지형, 행정구역, 사업규모, 주민의 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하나의 구역이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라) 결정하고자하는 구역의 재개발계획이 다른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도시계획의 변경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마)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기존의 공공시설의 기능발휘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구역을 정하거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바)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경계 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구역에서 제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한 계획도로인 경우에는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 재개발구역의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결정시 동시에 이를 결정한다.

아) 구역의 형태는 재개발사업 시행시 가급적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자) 구역의 경계선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정한다. 이 경우 구역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구역외의 대지는 건축법상 진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역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그 경계선을 토지의 지적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재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은 토지 총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총수의 2/3이상이며 주택개량 재개발은 건물소유자 총수의 90%이상 동의를 구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의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지방(시)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건설부) 심의를 거치고 14일간(1회)의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를 받는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조합설립 위원회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은때에는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60일 이내 인가처리(시예규 제28조제29조)하며 신청내용의 시행계획별 관련부서와 협의후 지체없이 30일간 공람조치(시예규 제33조)하고 공람기간중 제출된 의견서의 채택여부를 심사처리(시예규 제3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는 건설부에서 한다. 그런데 구역지정에 대한 이와같은 규제는 도시재개발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도시재개발법의 사업대상과 성격이 서로다른 도심지재개발 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모두를 하나의 목표와 절차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 가지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그결과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현행 도시재개발법의 개정논의가 거론되고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도심재개발과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의 여건이나 성격부터 대단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

2. 구역지정현황

서울시 재개발사업은 1966년 건설부 고시 제2819호로 종로에서 퇴계로 구간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세운상가를 건립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재개발사업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3년 현재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도심재개발구역은 총 32개 구역 1,729,703㎡에 이른다.

그리고 1978년의 도시계획법개정으로 특정가구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가구정비지구 4개 지구를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다.

또한 서울시 불량주택재개발 구역은 1993년 8월 31일 현재 대상구역수는 238개이며, 사업완료구역은 110개소, 시행중 69개소, 미시행 구역은 59개소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 불량주택 재개발구역〉

	구역수	시행면적(㎡)	정비건물(동)	건립가구
대 상	238	11,651,338	95,403	133,109
완 료	110	3,384,878	27,420	44,472
시행중	69	4,933,368	36,044	88,637
미시행	59	3,333,092	31,939	

자료: 서울시 주택개량과

3. 구역지정의 문제점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2에는 재개발구역을 몇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구단위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심재개발구역은 재개발계획 구역으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물론 대가구개발(Super Block development)이나 소규모의 독립된 구역 등은 한계 구역을 한 사업시행단위로 할수도 있지만 기존권리자의 이해관계, 자금조달 등 여러요인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특히 도심재개발의 경우 지가가 높고 기존의 권리가액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단위에 지구로 나누어 시행하게 되며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단지계획과 함께 구역단위의 개발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단위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구역의 설정과 지구의 분할 등은 그 구역의 성장과 구역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 규모, 지구의 분할, 경제설정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기존권리자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재개발구역지정은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시행이 시급한 지역, 시행하기 쉬운 지역, 사업의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구역지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역지정의 요건은 물리적 환경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 재개발의 필요성은 지역의 물리적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구역지정요건을 객관화할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다. 구역지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객관화 함으로써 구역지정의 합리성을 확립해야 함에도 시행령에 파소토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노후, 불량외 기준만 규정되어 있을뿐 구역지정의 요건에 대한 뚜렷한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셋째, 비현실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도심에서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시행한 적이 있으나 대부분 이를 해제하였고 최저고도제한 규정은 미관지구의 건축조례에 의해 가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구역 지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재개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최저고도지구지정은 그 실효성이 없으며 제2호의 방화지구, 제3호의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등은 구역지정의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토지의 고도이용을 전제로 하는 방화지구와 건축물의 방화구조 여부는 재개발 대상 구역 지정 요건에서 큰 비중을 둘 수 없으며 목조건축물이 거의 없어진 현실에서 목조건축물을 겨냥한 내화구조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

근래에 이르러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저층 목조건축물이 대부분이었던 시기에 맞추어진 구역지정요건을 아직도 손질하지 않고 두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

넷째, 구역지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없다.

지금까지는 6개 구역지정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정책적 경험이나 통찰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구역지정은 도시발전방향을 고려한 도시계획적인 거시적 관점에서와 지역이 지닌 현황의 여건과 개발잠재력 등 미시적인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역지정과 지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도심재개발구역의 공간적 확산이 필요하다. 도심재개발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은 공간적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즉 서울시의 경우 도심지역과 마포로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마포로 구역은 정책적인 견지에서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영등포, 신촌, 청량리 등 부핵이나 부도심지역에 있는 기존 시가지의 일부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상존함에도 구역지정이 안되고 있음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4. 구역의 규모

재개발구역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며 큰것은 마포로구역의 약 200,000m²정도에서 적게는 신문로구역의 약 5,000m² 정도 까지이고 구역당 평균규모는 약 52,000m²(약 15,700평)으로 산출된다.

구역지정은 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가구 또는 가구내의 세로가 기준이 되어 사업편의성 위주로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역지정은 인접가구와의 관련성,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시행후의 여건변화 등 크고 작은 여러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구역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주어진 구역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시설계획적인 측면에서 구역의 규모가 크면 계획의 일관성과 공간의 통합, 시설물간의 유기적 관련성은 높아져 개발효과 등은 클 수 있겠지만 기존권리자의 이해조정, 사업시행의 시차, 막대한 소요자금의 조달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소규모로 지정할 경우 단일건축물을 재개발구역에 단순히 건축하는 재건축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공공용지의 확보와 유기적인 연결체계구축이 미흡하고 개발의 효과도 낮아지는 등의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구역의 규모는 재개발방법, 도입기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구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권리변환방식인 제1종 시가지 재개발사업과 용지매수방식인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제2종은 최소한 면적이 10,000m²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의 성격을 가급적 배제하기 위해서는 구역의 최소규모가 규정되어야 하겠지만 유행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외국의 경우에는 10ha 미만의 소규모, 10~100ha 미만의 중규모, 100ha 이상의 대규모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포로구역이 약 20ha로서 가장 크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유형구분은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구역의 평균규모(약 52,000m²)와 다음과 같은 빈도수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30,000m² 미만구역 : 12개 구역
- 30,000~50,000m²구역 : 9개 구역
- 50,000~100,000m²구역 : 13개 구역
- 100,000m² 이상 구역 : 2개 구역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개 구역이 2~3개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가능한 규모이상으로 하고 도시설계작성,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연관사업의 구역크기를 함께 고려하되 최소한 10,000m²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규모의 유형화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3ha 미만), 중규모(3~10ha 미만), 대규모(10ha 이상)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되어 구역이 사업시행지구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도심재개발사업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구역의 크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큰 구역인 응암2구역은 192,345m²인 반면에 특정 2구역은 2,426m²로서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사업시행에 따른 불량주택재개발구역의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서울시 불량주택 재개발구역 규모〉

93.8.31 현재

구분	구역수	구역면적(m ²)	1개구역 평균면적(m ²)
사업완료구역	110	3,381,878	30,772
사업시행구역	69	4,933,368	71,498
미시행구역	59	3,333,092	56,493
총계	238	11,651,338	48,955

자료 : 서울시 주택개발과

주택재개발구역의 평균 규모는 4.9ha 정도이고 사업완료구역은 3ha, 사업시행구역 7.1ha 미시행구역 5.6ha로서 차이가 크다.

사업완료구역은 78~93년도까지 준공된 것으로 인가고시는 74~90년까지이고 구역지정일은 73~87년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 70년대에 구역지정이 된 것으로서 초기에는 구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사업시행구역은 자력개발 15개구역(1,606,228m²)과 합동개발 54개 구역(3,328,140m²)로서 자력개발은 1개구역 평균면적이 107,015m²이고 합동개발은 1개구역평균면적이 61,632m²로서 자력개발의 구역 평균면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합동개발은 83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주민조합과 주택건설업자가 합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주민은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을 전문업자에게 맡기고 개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반면 건설업자는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상호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근년에 크게 성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와같은 특성으로 보아 합동재개발의 구역크기가 자력개발에 비해 클 수 있음에도 그 반대 현상이 있음은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이 상호의 필요에 의해 결합된 것이라면 개발 이익의 분배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결성되고 잘 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주민의 자력개발에 시공자의 역할만 하게 되어 개발방법과 구역의 크기는 큰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구역의 경계

구역의 경계는 기존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이후의 정리된 지적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기존 지적선을 기준하는 전자의 경우는 권리관계는 뚜렷해지나 구역의 물리적 범위가 부정확하거나 불규칙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한 필지가 구역경계로 나누어지게 되고 공공시설 용지에 걸린 권리자의 사업참여지구의 결정문제 등 사업시행상의 어려운 점이 있는 등의 장, 단점이 있다.

구역의 경계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재개발계획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심재개발의 경우 대개 간선도로나 지역내부의 도로가 구역 경계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확한 구역경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주민의 사업참여 여부에 따라 구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주거 단지개발을 하는 경우이므로 구역 자체가 사업시행지구가 되기때문에 간선도로 등 뚜렷한 구역경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변에 접한 기존권리자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주택을 받기 보다는 기존주택을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사업참여를 꺼리게 되므로 대부분의 불량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간선도로에 연결한 필지를 구역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때문에 구역경계가 불명확하고 고층대형건축물과 소규모건축물이 서로 인접하여 어색한 경관을 내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시행에서도 불리한 규제를 받게 될뿐 아니라 재개발의 파급효과도 줄어든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구역의 성격, 주변지역과의 관계,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동질성있는 지구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구역의 규모, 재개발후의 파급효과, 시행방법과 유형구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구역의 경계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함으로서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게 하며 최소한 도로로 경계지우는 것이 좋다. 불량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인근 필지의 상황을 검토하여 피해를 줄이고 재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사업시행지구

재개발구역이 여러개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데 서울시 도심재개발에서는 1개 재개발구역의 지구수는 평균 11개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지구당 평균면적이 약 4,700㎡로 산출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지구별로 면적의 차이가 크다.

구역의 경계설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지구를 어떻게 기획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단일건축물의 대지로서 나누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존 권리자의 공동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지구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은 드물다. 또한 기존의 필지경계로 지구를 설정하기보다는 재개발후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필지에서도 사업시행지구가 2개 이상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의 권리자는 공공용지를 부담해야하는 사업시행 지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지구별 공공용지 부담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여하는 지구가 결정될 수 있는데 사업시행지구별 공공용지 부담방법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업참여가 가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행지구 분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시행후에 지적경계를 기준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 개발시기 등이 다르고 개발후에는 건설자금을 위한 분양처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내 권리자가 권리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업지구별로 권리상과 분양상을 구분하기보다는 구역내에 기존권리자는 어떤 곳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물리적으로는 사업시행지구를 구분한다하더라도 재산권에 있어서는 구역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소위 순환재개발 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둘째, 사업시행지구가 단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의 성격으로만 분할할 것을 지양해야 한다. 소규모의 것은 몇개의 획지를 묶어 1개지구로 분할하여 건축물 상호간의 유기적 동선연결과 공간구성을 기하고 주차장, 조경 등 공공용도의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1개사업지구에서 토지의 공유지분과

건축물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어 융통성이 커진다.

기존권리자의 권리관계와 결합상태에 따라 다양한 권리조정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지구분할시 공공용지에 위치하게 되는 권리자는 보상으로 사업참여를 배제하기보다는 각 사업시행지구와의 협의에 의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환지에서 비환지 개념이 입체환지를 해야하는 재개발사업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시행지구가 사업시행시 다시 합병 또는 재분할 되는 경우는 이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존치건축물이 있는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존치건축물과 주변지역과를 묶어 사업시행지구로 한 경우는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존치 건축물의 공공용지 부담 방법을 강구하고 재개발사업시행지구 지정시 충분히 검토하여 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도시재개발에서 구역지정에 나타난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역지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현재의 구역지정규정은 불합리하며 물리적, 사회, 경제 그리고 정책적인 요소 등에 따른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따른 우선순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은 도심에 국한하기 보다는 이를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역의 규모는 외적, 내적인 여건과 조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설정해야겠지만 개발효과를 위한 최소한의 단위를 설정하고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넷째, 구역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업시행지구는 1개 건물대지로서 기획하지 말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용지, 공간의 유기적 연결체계 확립 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공공용지는 가급적 비환지하도록 하고 존치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지구지정을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시행지구에서 합병, 분할은 한정된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전체의 유기적 질서를 깨뜨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사업시행지구를 물리적 범위로 기획하되 사업참여와 관리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비환지개념, 분양상의 사업시행지구와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의 경우 단지개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구역이나 지구설정을 정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

The Ancient Architect of Chinese

필자: 郝英濤 / 中國文化部文物保護科學技術研究所高級工程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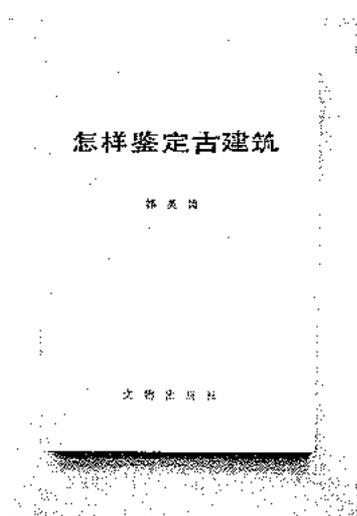
역자: 韓東洙 / 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

Translation by Han, Tong-Soo

역자서문

이 글의 원제는 《고건축을 어떻게 감정하는가》로서 북경의 문물출판사가 1987년 초판을 간행한 이후 1986년까지 재판을 거듭하여 3판까지 간행되었고 동일한 내용이 1984년 대만의 명문서국에서 간행된 《中國建築史論文選集》第1冊 등에도 수록이 되어 있다. 비록 출판된 지 10여년이 지난 해묵은 원고이며, 원문 자체의 분량도 64페이지에 불과한 소책자이기는 하지만 중국건축의 시대적인 특징을 요점으로 이해하고 건축물을 조사, 연구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에는 더 없이 좋은 내용이라 여겨진다.

필자 기영도(郝英濤)는 1947년 국립북양대학공학원(國立北洋大學工學院) 건축공정계(建築工程系)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 문화부 문물보호과학기술연구소 고급공정사(高級工程師)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저작으로는 《하북 신성(新城) 개선사 대전(開善寺大殿)》, 《소림사(少林寺) 초조암 대전(初祖庵大殿)에 관한 초보적인 분석》,



《중국고대벽화의 해체와 수리복원작업》, 《고대건축 연대감정의 몇가지 문제》 등의 논문이 있다.

역자가 이 책을 처음 대하게 된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에 근무하던 1987년 여름 본원의 장서각의 지하서기에서였다. 그 당시에는 내용의 간략함에 별다른 생각없이 무심코 지나쳤으나 대만으로 건너와 공부를 계속하며, 중국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축적된 이후, 우연한 기회에 홍콩의 삼연서국을 통하여 이 책을 다시 구입하여 보니 중국건축을 처음 대하는 초보자 뿐 만 아니라 고건축을 실지조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크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설서임을 알 수 있었다. 요즘은 우리 건축계에는 중국건축을 비롯한 동양건축에 대한 연구의 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여 초보자나 중국건축에 흥미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설서는 물론 간략하고 체계적인 서적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자유로운 독해의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역자는 중국고건축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문장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작정하고 그간 기회가 닿는 대로 몇몇 건축잡지에 이러한 문장들을 소개한 바 있다. 이 글도 역시 동일한 취지하에 소개하는 것으로 모쪼록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아울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 임의로 약간의 주석을 달았으며, 《중국고건축》, 《중국미술전집》, 《중국고건축의 미》 등 세 권의 도록 및 《중국대백과사전(건축, 성시계획편)》으로부터 발췌한 사진 도판을 첨가하였다. 중국고건축에 관하여 시각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에 이미 시중에 발간되어 있는 《중국고건축》이란 화보집을 참고한다면 중국건축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두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목 차)

(제1회)

- * 中國古代歷史年代表
- * 宋式, 淸式斗拱部分名稱圖

1. 두가지의 조사, 두가지의 비교, 연대의 확정

(1) 두가지의 조사

- ① 건축물의 현재 구조상항 조사
- ② 관련된 문자기록의 조사

(2) 두가지의 비교

- ① 현존하는 구조와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의 법식 비교
- ② 현존하는 구조와 문헌자료의 비교

(3) 연대의 확정

(제2회)

2. 각 시대의 건축 특징

(1) 당대(唐代) - 청대(淸代)의 목조건축특징

- ① 평면
- ② 양기구조(梁架結構)
- ③ 양기구조 중 몇몇 부재들의 변천
- ④ 두공(斗拱)의 양식
- ⑤ 두공에서 몇 가지 부재의 변천

(제3회)

(2) 장수(裝修), 자봉, 채화(彩畫)의 발전

- ① 문과 창
- ② 난간(欄干)
- ③ 와수건(瓦獸件)
- ④ 채화

(3) 각 시대의 전석건축(塼石建築)의 특징

- ① 전석장(塼石牆)
- ② 아치(Arch)
- ③ 전탑과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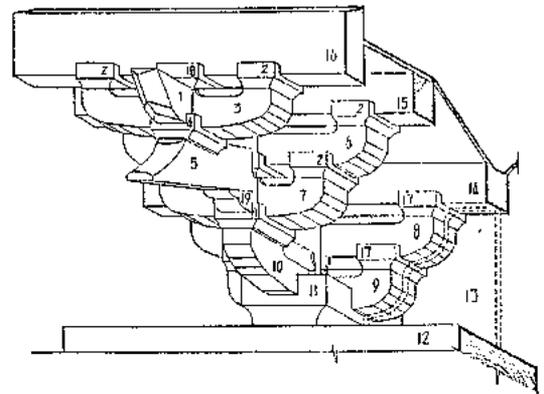
* 中國古代歷史年代表

舊石器時代	約60萬年至1萬年前	南北朝	東魏	534年-550年	
新石器時代	約1萬年至4000年前		西魏	535年-557年	
夏	約前21世紀-16世紀	北朝	北齊	550年-577年	
商	約前16世紀-11世紀		北周	557年-581年	
西周	前11世紀-前771年	隋	581年-618年		
東周	春秋	唐	唐	618年-907年	
	戰國		後梁	907年-923年	
秦	前221年-前207年	五代十國	後唐	923年-936年	
	漢		西漢	前206年-公元23年	後晉
東漢		25年-220年	後漢	947年-950年	
三國	魏	220年-265年	後周	951年-960年	
	蜀	221年-263年	十國	902年-979年	
	吳	222年-280年	北宋	960年-1127年	
西晉	265年-316年	南宋	1127年-1279年		
東晉十六國	東晉	317年-420年	遼	916年-1125年	
	十六國	304年-439年	西夏	1038年-1227年	
南北朝	南朝	宋	420年-479年	金	1115年-1234年
		齊	479年-502年	元	1271年-1368年
		梁	502年-557年	明	1368年-1644年
		陳	557年-589年	淸	1644年-1911年
北朝	北魏	386年-534年	民國	1912年-	

* 宋式, 淸式斗拱部分名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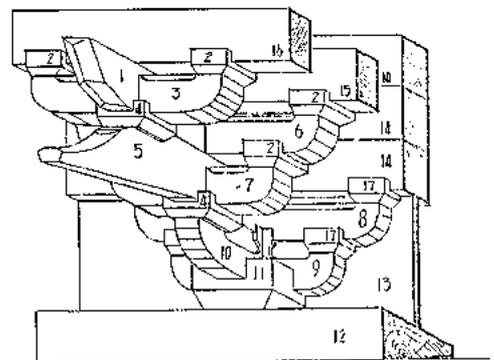
송식(宋式)

- 1. 사두(耍頭)
- 2. 산두(散斗)
- 3. 영공(令拱)
- 4. 교호두(交互斗)
- 5. 하양(下昂)
- 6. 만공(慢拱)
- 7. 과자공(瓜子拱)
- 8. 만공(慢拱)
- 9. 이도공(泥道拱)
- 10. 화공(華拱)
- 11. 노두(櫨斗)
- 12. 보백방(普柏方)
- 13. 공안벽(拱眼壁)
- 14. 주두방(柱頭方)
- 15. 나한방(羅漢方)
- 16. 요침방(椽檐方)
- 17. 산두(散斗)
- 18. 계심두(齊心斗)
- 19. 화두자(華頭子)



청식(淸式)

- 1. 책마두(雀頭)
- 2. 참재승(參才升)
- 3. 외예상공(外拽商拱)
- 4. 습팔두(拾捌斗)
- 5. 앙(昂)
- 6. 외예만공(外拽萬拱)
- 7. 외예과공(外瓜拱)
- 8. 정심만공(正心萬拱)
- 9. 정심과공(正心瓜拱)
- 10. 교(翹)
- 11. 좌두(坐斗)
- 12. 평판방(平板方)
- 13. 점공판(墊拱板)
- 14. 정심방(正心方)
- 15. 외예방(外拽方)
- 16. 조침방(挑檐方)
- 17. 조승자(槽升子)



서 언

우리가 야외에서 문물조사(文物調査)를 할 때, 종종 많은 고대건축을 접하게 된다. 이 때 그러한 고대건축들이 역사적인 문물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연대(年代)를 감정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적인 작업이다. 하나의 고대건축은 그 연대를 확정지어야지만 비로소 일정한 역사 시기에 올려 놓고서 연구를 할 수가 있으며, 그것이 건축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지 파악하여 역사적인 문물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를 감정하는 것이 고대건축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며, 단지 연대에만 의존하여 그 가치를 결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연대를 판단하는 것은 전일보적인 연구이고 그것의 가치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 글은 현존하는 각 시대의 건축실물에 의거하여 건축물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시대적인 특징을 종합하였고, 각종 건축부재의 순서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고대건축들은 모두가 창건 이후 후대(後代)의 수선(修繕)과 개건(改建)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분별해 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약간의 조사작업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연대확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소개함으로써 실제로 건축문물을 조사하는데 임하는 사람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고자 한다.

1. 두가지의 조사, 두가지의 비교, 연대의 확정

(1) 두가지의 조사

고대건축의 연대를 감정하려면 먼저 두가지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첫째는 건축물의 현존하는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관련이 있는 문자기록을 조사하는 것이다.

① 건축물의 현재 구조(構造) 상황조사

고대건축이 기타 문물과 다른 점은 체형(體形)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최소한 몇 십 혹은 몇 백개의 건축부재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은 몇 천개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다. (벽돌이나 기와, 서까래 등은 그 안에 계산해 넣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건축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서라도 실지조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겉에서 보고 안에 들어가서도 보아야 하며, 들보나 지붕 꼭대기에도 올라가 보아야 한다. 건축물에는 겉으로 노출이 안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벽 속에 있는 기둥, 순(榦)(주1), 묘(卯)(주2) 등의 건축부재들은 파손되어 밖으로 노출된 곳을 통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한번에 볼 수가 없는

것은 해체수리시에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사진이나 그림에만 의존한다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단순히 서적의 기록에만 의존한다면 더더욱 믿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실지조사를 할 때는 조사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부재의 특징들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목조구조의 건축물은 종종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이 되므로 잦은 수리를 필요로 한다. 장식부분에 해당하는 창, 문, 난간, 그리고 질적으로 약한 기와 등은 더욱 잦은 수선과 보수, 교환을 필요로 한다. 또, 어떤 건축물은 전체가 다 깨멸되어 버려 후대에 다시 지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저 유명한 황학루(黃鶴樓)(사진1)와 악양루(岳陽樓)(사진2)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후대의 수리를 거치지 않은 목구조의 건축은 거의 없다. 고대건축을 수리할 때 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파손된 건축부재를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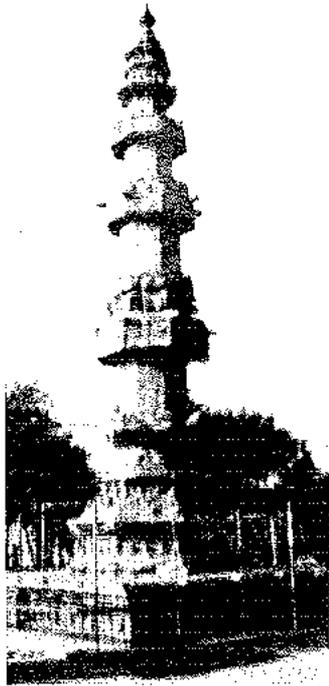
(사진1)황학루전경



(사진2)악양루전경

건축부재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 바꾼 부재는 원래의 것과는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수리를 했던 당시의 제작 수법을 지니고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수리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의 외모도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그러나 전석건축(塼石建築) 가운데 체형이 비교적 작은 경당(經幢)(사진3)과 소형탑(小型塔)처럼 원래의 부재를 그대로 보존해 온 것도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대건축의 보존상황은 매우 복잡한 것이다.

(주1) 순 : 나무를 이을 때 한쪽 끝을 다른 쪽 구멍에 맞추기 위하여 그 목재 보다 얼마간을 가늘게 만든 부분으로 우리말로 장부라고 한다.



(사진3)경당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연대를 감정하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의 건축물에 현존하는 주체적인 구조로서 주요한 근거를 삼고 일정한 문헌자료로서 방증을 삼아야 하며, 개별적인 건축부재나 부속예술품으로서 주요한 근거를 삼을 수는 절대로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목조구조는 현존하는 양가구조(梁架構造)를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건축구조는 옹당히 구조양식(조각, 벽돌의 쌓는 방법, 사용된 재료의 규격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요 근거를 삼는다. 나머지 다른 것들, 예를들면 장식(裝飾), 소상(塑像), 채화(彩畵), 가구(家具), 기와 등은 단지 보조근거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조사를 할 때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 유의를 해야한다.

(가) 양가구조는 건축물의 조성주체로서 연대감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문자와 그림) 기록의 중점은 평면의 기둥배열방식, 보와 도리의 단면비례(斷面比例), 내외침(內外檐), 두공(斗拱)의 응용상태에 있다. 만일 시대가 다르고 풍격(風格)이 서로 다른 건축재료가 있다면 주의하여 분리, 기록해야 하며 마지막에는 조사후의 초보적인 결론을 써야만 한다.

(나) 두공의 구조는 복구조 건축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의 하나로서 동일한 시대라 하더라도 초기, 중기, 말기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연대를 감정할 때는 이 점을 특히 중요시 해야 한다. 두공은 작은 부재로서 구성이 되는데 특히 외침두공(外檐斗拱)은 처마 밑에 위치하므로 가장 쉽게 파괴되고 교체된다. 따라서 조사시에는 너무 많다고 해서 일부만을 볼 수는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두 관찰을 해야 한다. 또한, 두공의 양식(樣式)과 대소비례(大小比例)의 분포상황 및 사용된 재료의

크기에서부터 공(拱), 양(昂), 사두(耍頭) 등에 이르는 세부적인 수법에까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두공에 딸린 구조와 예술장식에 대해서도 옹당히 기록을 해야 한다. 후대(後代)에 바뀐 재료가 보인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후대에 바뀐 것이라고 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때로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다) 전석구조의 건축물은 먼저 그 전체적인 외형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탑의 윤곽선과 교공(橋拱)의 양식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세부조각, 구조방법, 재료의 규격 등을 세밀히 관찰,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련된 문자기록을 찾아서 조사한다.

고대건축에 관련된 문자기록자료는 대개 세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석문자(金石文字), 제기(題記), 고대문헌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고대문헌기록은 사전에 먼저 조사를 끝낼 수가 있고 금석문자와 제기 등은 반드시 실지조사 중에 수리해야 한다.

(가) 금석자료 :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석비(石碑), 경당(經幢), 공기(供記) 등의 위에 새겨진 글자이다. 봉건사회에서 교량을 수리하고 길을 보수하거나 묘우(廟宇)를 증수하는 일의 주도자는 모두가 당시의 통치계급으로서 그들은 언제나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날리며 이익을 취하였다. 궁전을 자으면 기록을 했고 묘우와 교량을 건설하면 비를 세웠다. 이러한 비각의 위에는 수축과정(修築過程)과 수축일자(修築日字)가 적혀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서 수축한 시기 및 수축과정과 관련이 있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금석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비문을 모두 기록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요점만을 골라서 기록할 수가 있다. 기록시에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첫째, 어떤 건축군(建築群) 및 그 군체를 이루는 개별건축의 역사연혁, 정확한 명칭, 역대 흥폐(興廢)의 변화상황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둘째, 요점을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 예를들어 여러차례의 수리를 거친 상황하에서는 단지 몇년 몇월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썩은 것을 교환하였다는 관식(官式)의 문장만을 보아서는 안되며 중요한 것은 그 수리의 범위와 정도, 공사기간, 비용, 수리를 맡은 인원 등이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비의 앞면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의 뒷면을 보아야 하며, 때로는 실물과 대조를 해 보아야 한다. 비를 볼 때도 단지 규모가 큰 것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주관한 사람이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비를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내용이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문은 종종 과장된 것으로 그 진실성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속기 쉽다.

(나) 제기 : 고대건축 중의 제기는 세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건물을 지을 때 보, 기둥, 들보 위에 직접 쓴 문자로서 이런 종류의 제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임의로 조작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건축물의 구체적인 연대를 확정짓는 근거가 된다. 두번째 종류는 목패(木牌)에 써서 보나 들보 위에 못으로 박아 걸은 것으로 신빙성은 그다지 크지 못하다. 왜냐하면 목패는 수시로 끌어내서 새로 바꾼 건축재료 위에 다시 박을 수 있기 때문으로 심지어 어떤 건축물의 경우에는 십여개의 목패가 있는 것도 있다. 세번째로는 나그네가 쓴 제기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나그네의 제기는 그들이 거짓으로 옛 사람을 사칭하는 일이 드물므로 연대의 감정에서 비교적 믿을 만한 근거이다. 오늘날 우리는 작업자의 과학적인 조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문물건축 위에 글자를 써 붙이는 행위를 반대한다. 그러나 고대건축에는 과학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나그네의 제기는 연대의 감정에서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다) 고대의 문헌 : 자주 이용이 되는 것은 각종의 지서(志書)로서 전국적인 성격의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주3), 각 성의 성지(省志), 현지(縣志), 사지(寺志) 같은 것 등이다. 이 밖에도 기록문, 유람기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기록들은 진실로 믿을 만한 것이지만 상당수가 필묵(筆墨)의 장난으로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2) 두가지의 비교

“두가지의 조사”를 거쳐서 전체적인 자료가 얻어지면 곧 바로 “두가지의 비교”를 진행할 수가 있다. 첫째, 현존하는 구조와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 혹은 “법식(法式)”과 서로 비교를 한다. 둘째, 현존하는 문헌자료와 구조를 서로 비교한다.

① 현존하는 구조와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의 법식비교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이나 법식과 비교를 하는 작업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현존하는 구조의 조사시에 이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아주 없거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일의 순서에 의거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왜냐하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머리 속에 각 시기의 중요한 건축물의 형상과 특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고 한번 대하기만 하면 곧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건축물과 수많은 법식의 규정을 연상해냄으로써, 건축물의 조사시에 한편으로는 구조양식과 특징을 기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타 건축물과 동일한 부분을 비교하게 됨으로써 작업의 속도는 비교적 빨라지게 된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세히 기록을 한 이후에 다시 하나씩 하나씩 서로를 비교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많은 양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므로 조사가 끝나고 돌아온 이후 그림과 사진을 대조해 보면서 어느 부분이 동일하고 어느 부분이 서로 다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돌아온 이후에도 자료를 신중히 대조하여 그 정확성을 증명한다. 서로 간의 비교를 할 때에도 큰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한다. 우선 전체적인 풍격, 또는 주체적인 구조, 그리고 나서 다시 세부적인 특징을 비교한다. 만일 처음부터 세부적인 특징의 비교에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면 복잡하게 되기 쉽고, 요점을 잡아낼 수가 없으며, 착각이 생기기 쉽다. 서로 비교를 한 이후에는 한가지씩 분리하여 기록을 하고, 어느 부분이 어느 시기의 구조에 속하며, 그 중에서 어느 것들이 후대에 만들어져 교체가 되었는지, 교체가 된 시기는 언제인지 등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건축물이나 법식과 비교를 할 때는 어떤 한가지 단서로서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예를들어 당대(唐代)의 건축 중에는 주두(柱頭)의 난액(闌額)이 각주(角柱)에서 기둥의 안에 끼여져 있어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한 것이 있다. 당대 이후에는 이러한 수법이 확실히 드물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런 종류의 수법이 보이기만 하면 모두 당대의 건축이라고 확정을 짓는다. 그러나 실제로 청대의 건축물 중에도 난액이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은 것이 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사공(斜拱)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요대(遼代), 금대(金代), 원대(元代)의 특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청대에도 여전히 이를 답습하여 여러 곳에서 사공을 사용하였으므로 사공을 보기만 하면 곧 바로 요, 금, 원대의 건축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발상인 것이다.

② 현존하는 구조와 문헌자료의 비교

여기에는 작업방법 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인식(思想認識)의 문제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단정짓고, 가장 오래된 기록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조만을 찾아다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조와 문헌이 종종 서로 어긋나 진일보된 연구로 하여금 과학적인 근거를 잃게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건축물을 후대에 수리할 때 교환했던 부재를 볼 수 없으므로 후대에 수리가 있었다는 문헌의 기록을 뒤집고 이 건축물이 비교적 이른 연대에 지어졌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건축물의 건축연대와 그 가치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으나 고대건축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건축연대가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961년 국무원(國務院)에서 공포한 제1차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주4)의 명단을 보면 그 명단 안에 있는 77개의 고건축

(주2) 요 : 대문의 장부가 끼어서 돌게 하는 것으로 우리말로 문풍개라고 한다.

(주3) 대청일통지 : 청대의 관방에서 만든 지리총지로서康熙25년(康熙二十五年 : 1686년), 건륭29년(乾隆二十九年 : 1764년), 가경16년(嘉慶十六年 : 1811년)등 3번에 걸쳐 편찬되었다. 내용이 풍부하고 고증이 정밀하며 비교적 완벽한 전국성의 지리지로서 중국역사지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서적의 하나이다.

(주4)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 중국은 1961년, 1982년, 1988년 등 세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500여 곳에 있는 주요 문물을 지정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유형과 소재지에 의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

行政區域	類型	革命遺址及革命紀念物				石窟寺				古建築及歷史紀念建築物				石刻及其它				古遺址				古墓葬				小計
		一	二	三	計	一	二	三	計	一	二	三	計	一	二	三	計	一	二	三	計	一	二	三	計	
廣東省		5	1	5	11				1		4	5			1	1										17
廣西壯族自治區		1		1	2						2	2	4													6
福建省		1		3	4				2	2	6	10			2	2			1	1			1	1	2	19
雲南省				2	2	1			1	1	1	3	5	3	1	2	6	1	1	1	3					17
貴州省		1			1							4	4						1	1			1	1	2	8
浙江省				4	4		1		1	2	1	7	10					1	2	3	1			1	1	19
江蘇省	2 ⁰	1	1	3	6		1	1	3	2	8	13	2		4	6			1	1	1		1	2	2	29
江西省		3	1	1	5		1	1			4	4						1		1						11
安徽省		1			1						6	6						1	1	2						9
湖北省		1	1	3	5				1	2	2	5			1	1	1	1	1	2	4		1	4	5	20
湖南省		2		4	6						2	2	1	1	1	3			1	1						12
四川省		2		3	5	4	1	2	7	6	1	7	14	1		1	2			2	2	1		2	3	33
山東省				2	2			2	2	4	2	7	13			2	2	2	1	1	4	1		2	3	26
河北省		1	1	1	3	1			1	14	1	7	22	1			1	2		4	6	3		2	5	38
河南省				2	2	1	1		2	7	1	3	11				5		6	11		1	3	4	3	30
山西省		3	1		4	1			1	8	3	12	23				2		4	6				2	2	36
陝西省		1	1	2	4			2	2	5		3	8	2			2	5	2	3	10	7	1	3	11	37
甘肅省					4			2	6	1	1	2	1			1			3	3						12
寧夏回族自治區						1		1	1		3	4							1	1			1	1	2	7
遼寧省		1		1	2			1	1	2		7	9						3	3	1	1	2	4	4	19
吉林省											1	1					1	1		1	2		1	2	3	6
黑龍江省																1	1	1	1	2	4					5
內蒙古自治區										1	1	2					2		4	6		1	1	2	2	10
新疆維吾爾族自治區					2	1		3			1	1					2		2	4			2	2	2	10
青海省								1	1			2							2	2						4
西藏自治區		1			1				6	2	2	10					1		1	1				1	1	13
北京市		4	1	1	6				12	4	9	25					1		2	3	1			1	1	35
天津市			1	2	3																					3
上海市		3	1	1	5				1			1			1	1	1			1			1	1	1	9
小計		33	10	41	84	14	5	11	30	77	28	111	216	11	2	17	30	26	10	49	85	19	7	29	55	500

중에는 한대(漢代)에서부터 청대(清代)에 이르기까지 건축연대에 관계없이 각 시대의 건축물들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인 태도는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지 전시대(前時代)의 것을 들추어 내는 것도 아니고 후대의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현존하는 구조와 잘 대조하여 그 형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후의 연구와 보존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헌과 일치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해내야 하고, 창건당시와 중건시기의 주체구조는 얼마나 존재하며, 보존의 상태는 어느 정도 완전한가 등에 관하여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는 절대 안된다. 수많은 고대의 민가(民家)는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가 완전히 결핍되어 있어 더욱 많은 간접자료를 필요로 하며 작업 또한 더욱 복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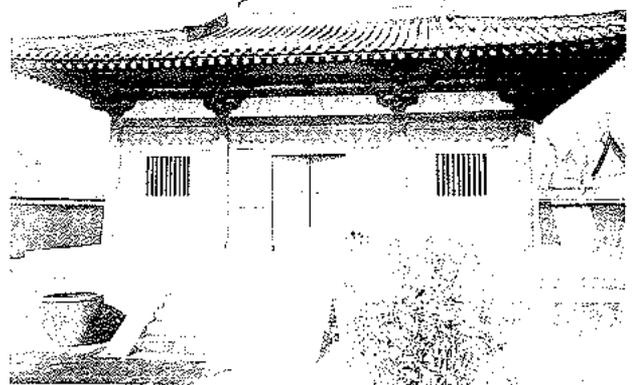
(3) 연대의 확정

위에서 서술한 “두가지의 조사”와 “두가지의 비교”를 거치면 어떤 건축물의 시대 혹은 구체적인 연대는 대부분 확정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연대를 확정지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고건축의 연대를 단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다섯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현존하는 전체의 구조, 평면, 양가(梁架), 두공, 장식, 지붕 동등을 포괄하는 각 부분의 시대가 완전히 일치하거나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문헌자료와도 완전히 부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대의 확정이 가장 쉽다. 명대와 청대의 건축 중에는 비록 이러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수량은 많지 않으며 명대 이전에는 더욱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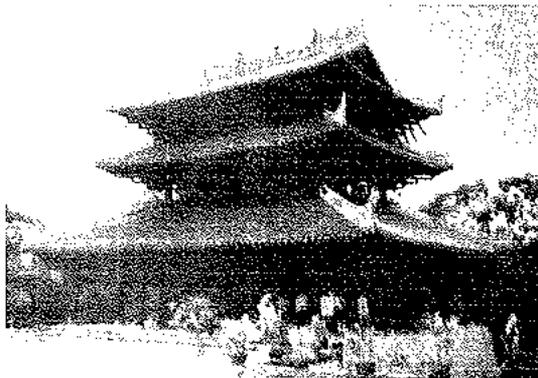
둘째, 주체구조 즉, 목조건축구조의 양가(梁架)와 두공, 전석건축의 주요한 축조방식 등은 모두 건축 당시(창건 또는 재건)의 유물이고 부속부분은 후대의 수리와 교환을 거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건축 당시의 건축물로 인정해야 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인 산서(山西) 오대산(五臺山)의 남선사 대전(南禪寺大殿)(사진4)은 당나라 건중



(사진4)남선사대전전경

3년(建中三年:782年)에 건축되었는데 그것의 양가, 두공 등의 주된 형태와 구조는 모두 건축 당시의 상태로 남아 있고 전침과 지붕, 기와 및 채화는 모두 후대의 수리를 거친 것으로 이미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였으나 그것은 여전히 당대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건축구조가 이미 창건 당시의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현존하는 구조상황에 의존하여 연대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광서(廣西) 객현(客縣)의 경략대(經略臺)에 있는 진무각(眞武閣)(사진5)은 문헌 상에는 당대에 창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는 모두가 명대의 양식으로 명대의 중수기록(重修記錄)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은 비록 당대에 창건되었고 청대에도 수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명대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5)경략대 진무각전경



(사진6)융흥사 전륜장전경

넷째, 단지 주체구조의 일부분만이 원래의 모습을 바꾸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축 당시의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복잡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 경우 연대를 확정짓는 관건은 보존되어 남아 있는 주체구조의 상태에 달려있다. 허북(河北) 정정(正定)의 융흥사

전륜장전(隆興寺轉輪藏殿)(사진6)은 북송 시대의 건축물로서 송대와 원대에 대규모의 수리를 거치면서 작은 규모의 건축물로 바뀌었고, 두공과 방자(枋子)도 원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보와 기둥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북송시대의 건축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산서 직산현(稷山縣)의 대불사(大佛寺)는 본래 금대의 건축물인데 청대에 수리를 하면서 금대의 두공 몇개만을 남겨 두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의 건축물은 청대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조사를 해 볼 만한 구체적인 문헌이 없어 단지 현존하는 주체구조의 시대적 특성에만 의존하여 연대를 확정지을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이같은 상황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단지 어느 한 시대에 속하는 건축물이라고 하거나 혹은 어느 시대의 특징을



(사진7)선화사 보현각전경

구비하였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고대건축의 구체적인 시대 혹은 연대를 확정지으려면 문자로 기록된 증거가 있어야만 정확하고, 그것이 어느 해에 지어진 것인가를 설명하려면 더욱 문자의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문헌의 기록이 없어 단지 구조양식에만 의존한다면 착각이 일어나기 쉽다. 전 시대의 건축은 후대의 사람들이 모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산서 대동(大同)의 선화사(善化寺)에 있는 보현각(普賢閣)(사진7)은 그 구조의 양식과 수법에 따르면 옹당히 요대의 건축체통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1952년 해체 수리 시에 “진원이년일행조(眞元二年一行造)”라는 제기가 발견됨으로서 금대의 건축임이 판명되었다.

이상은 단지 고대건축의 감정경험과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각각의 건축물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고, 또한 고정관념에 얽매일 수도 없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고건축의 감정은 과학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실제적인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93 가을 토론회

건축감리의 방향설정

—그 책임과 한계—

일 시 : 1993년 10월 20일 (수) 오후 2시

장 소 : 대한 건축사협회회관 강당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55)

좌 장 : 오창희(한양대 교수)

주체발표 : 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토 론 자 : 서울시—조성재, 윤혁경

건축사—강기세, 김기철
장동찬, 홍문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1993년 8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8월분 7백49만2천6백74㎡ 보다 20.8% (1백55만5천9백25㎡) 증가 한 9백4만8천5백99㎡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8월 누계 7천2백37만9천9백2㎡ 보다 8.1% (5백82만9천8백

31㎡) 증가한 7천8백20만9천7백33㎡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7월분 9백39만5천5백62㎡ 보다 3.7% (34만6천9백63㎡) 감소 한 9백4만8천5백99㎡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概況(地域別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92년도	1993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구	216,380	761,828	545,448	252.1%
	인천	248,900	438,811	189,911	76.3%
	광주	235,624	251,151	15,527	6.6%
	경기	1,274,598	2,345,119	1,070,521	84.0%
	강원	303,707	450,917	147,210	48.5%
	충북	345,063	414,197	69,134	20.0%
	전북	193,331	544,072	350,741	181.4%
	전남	224,143	266,847	42,704	19.1%
	경북	356,635	682,615	325,980	91.4%
	경남	510,436	657,236	146,800	28.8%
	제주	71,685	110,469	38,784	54.1%
감소지역	서울	2,142,847	1,250,282	(892,565)	-41.7%
	부산	766,962	357,604	(409,358)	-53.4%
	대전	236,729	196,050	(40,679)	-17.2%
	충남	365,634	321,401	(44,233)	-12.1%
합계	7,492,674	9,048,599	1,555,925	20.8%	

全國圖書申告概況(用途別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도별	7월분	8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730,411	650,448	(797,963)	-10.9%
다세대주택	193,469	222,146	28,677	14.8%
연립주택	70,991	679,684	608,693	857.4%
아파트	3,728,646	3,446,900	(281,746)	-7.6%
근린생활시설	1,338,466	1,289,324	(49,142)	-3.7%
종교시설	99,342	61,765	(37,577)	-37.8%
의료시설	22,347	24,617	2,270	10.2%
교육연구시설	599,822	322,927	(276,895)	-46.2%
업무시설	258,730	164,928	(93,802)	-36.3%
숙박시설	139,860	152,366	12,506	8.9%
공장	1,125,303	933,069	(192,234)	-17.1%
기타	1,088,175	1,100,425	12,250	1.1%
계	9,395,562	9,048,599	(346,963)	-3.7%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8月分)

구분	1992년			1993년			대비			연면적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2,591	2,821	2,142,847	1,023	1,138	1,250,282	(1,568)	(1,683)	(892,565)	-41.7%	
부산	1,226	2,161	766,962	854	956	357,604	(372)	(1,205)	(409,358)	-53.4%	
대구	886	916	216,380	1,189	2,099	761,828	303	1,183	545,448	252.1%	
인천	499	523	248,900	622	625	438,811	123	102	189,911	76.3%	
광주	322	371	235,624	291	343	251,151	(31)	(28)	(15,527)	6.6%	
대전	381	406	236,729	329	360	196,050	(52)	(46)	(40,679)	-17.2%	
경기	1,681	1,940	1,274,598	1,663	2,409	2,345,119	(18)	469	1,070,521	84.0%	
강원	526	612	303,707	648	793	450,917	122	181	147,210	48.5%	
충북	553	676	345,063	653	863	414,197	100	187	69,134	20.0%	
충남	398	447	365,634	493	516	321,401	95	69	(44,233)	-12.1%	
전북	302	348	193,331	336	416	544,072	34	68	350,741	181.4%	
전남	488	614	224,143	485	630	266,847	(3)	16	42,704	19.1%	
경북	517	662	356,635	718	1,004	682,615	201	342	325,980	91.4%	
경남	856	1,049	510,436	1,043	1,427	657,236	187	378	146,800	28.8%	
제주	197	216	71,685	176	240	110,469	(21)	21	38,784	54.1%	
합계	11,423	13,762	7,492,674	10,523	13,819	9,048,599	(900)	57	1,555,925	20.8%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8月 合計分)

구분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18,071	18,914	11,098,524	23,736	24,439	12,286,655	5,665	5,525	1,188,131	10.7%	
부산	10,822	13,860	7,002,045	7,576	9,570	5,865,279	(3,246)	(4,290)	(1,136,766)	-16.2%	
대구	6,641	7,163	2,766,084	9,925	11,781	5,196,888	3,284	4,618	2,430,804	87.9%	
인천	3,289	4,401	3,664,267	5,265	5,475	4,396,675	1,976	1,074	732,408	20.0%	
광주	2,628	3,027	1,910,649	2,403	2,745	2,085,683	(225)	(282)	175,034	9.2%	
대전	3,206	3,665	3,364,408	2,840	3,113	2,580,114	(336)	(552)	(784,294)	-23.3%	
경기	14,003	18,423	17,534,708	15,229	19,345	18,512,407	1,226	922	977,699	5.6%	
강원	4,964	5,811	2,905,799	4,750	5,524	2,467,976	(214)	(287)	(437,823)	-15.1%	
충북	5,610	6,781	2,492,141	5,295	6,701	3,480,290	(315)	(80)	988,149	39.7%	
충남	4,259	4,566	2,995,497	3,866	4,093	3,379,644	(393)	(473)	384,147	12.8%	
전북	3,546	4,076	2,448,604	2,824	3,459	3,115,457	(722)	(617)	666,853	27.2%	
전남	4,677	5,845	2,810,624	3,720	4,982	2,639,012	(957)	(863)	(171,612)	-6.1%	
경북	6,390	7,711	4,514,845	5,963	8,396	5,221,792	(427)	685	706,947	15.7%	
경남	9,079	11,321	6,127,403	8,712	10,839	6,292,115	(367)	(482)	164,712	2.7%	
제주	2,015	2,265	744,304	1,449	1,767	689,746	(566)	(498)	(54,558)	-7.3%	
합 계	99,200	117,829	72,379,902	103,553	122,229	78,209,733	4,353	4,400	5,829,831	8.1%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8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4,499	4,624	768,353	3,358	3,895	650,448	(1,141)	(729)	(117,905)	-15.3%	
다세대주택	618	1,308	290,885	504	614	222,146	(114)	(694)	(68,739)	-23.6%	
연립주택	55	58	58,803	72	434	679,684	17	376	620,881	1055.9%	
아파트	125	654	2,834,375	174	833	3,446,900	49	179	612,525	21.6%	
근린생활시설	3,717	3,899	1,354,319	3,460	3,750	1,289,324	(257)	(149)	(64,995)	-4.8%	
종교시설	104	125	54,777	97	118	61,765	(7)	(7)	6,988	12.8%	
의료시설	15	15	11,241	25	25	24,617	10	10	13,376	119.0%	
교육연구시설	192	219	398,998	164	205	322,927	(28)	(14)	(76,071)	-19.1%	
업무시설	156	183	231,793	132	142	164,928	(24)	(41)	(66,865)	-28.8%	
숙박시설	26	27	33,282	101	102	152,366	75	75	119,084	357.8%	
공장	602	985	765,689	807	1,316	933,069	205	331	167,380	21.9%	
기타	1,314	1,665	690,159	1,629	2,385	1,100,425	315	720	410,266	59.4%	
합 계	11,423	13,762	7,492,674	10,523	13,819	9,048,599	(900)	57	1,555,925	20.8%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8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41,641	43,628	6,644,916	40,611	42,051	8,027,950	(1,030)	(1,577)	1,383,034	20.8%	
다세대주택	3,609	5,029	1,714,175	8,395	9,115	4,207,170	4,786	4,086	2,492,995	145.4%	
연립주택	420	563	720,166	520	933	1,353,781	100	370	633,615	88.0%	
아파트	1,331	7,251	31,562,307	1,448	6,956	29,805,648	117	(295)	(1,756,659)	-5.6%	
근린생활시설	31,714	33,223	10,808,656	30,330	32,038	11,643,361	(1,384)	(1,185)	834,705	7.7%	
종교시설	969	1,151	557,705	938	1,116	760,588	(31)	(35)	202,883	36.4%	
의료시설	132	147	299,379	134	142	222,742	2	(5)	(76,637)	-25.6%	
교육연구시설	1,151	1,429	2,576,808	1,008	1,296	2,673,422	(143)	(133)	96,614	3.7%	
업무시설	1,341	1,488	3,558,090	1,073	1,160	2,818,154	(268)	(328)	(739,936)	-20.8%	
숙박시설	307	325	486,094	928	988	1,235,893	621	663	749,799	154.2%	
공장	5,483	8,947	6,855,195	5,882	9,459	7,326,471	399	512	471,276	6.9%	
기타	11,102	14,648	6,596,411	12,286	16,975	8,134,553	1,184	2,327	1,538,142	23.3%	
합 계	99,200	117,829	72,379,902	103,553	122,229	78,209,733	4,353	4,400	5,829,831	8.1%	()=마이너스

제2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발표

우리 협회가 대한주택공사와 공동 주관하고, 건설부와 서울 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제2회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원신종합건축(김희수)이 설계하고, 삼양건설이 시공한 헌법재판소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 대상은 심사위원 전원이 건축물을 직접 찾아가 종합평가를 하는 현장심사제를 채택,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우수건축물을 찾아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에게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8월 31일 작품을 마감, 총 50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1차 사진첨 심사를 거치고, 2회에 걸친 2차 현장심사 결과, 대상1점, 본상4점, 우

수상2점, 입선11점이 결정, 9월 17일 발표됐다.

이번 제2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10월 8일(금) 오후2시 분당주택공원 통합전시관 본관에서 거행됐으며, 같은 장소에서 10월 31까지 전시된다.

한편, 이번 대상의 심사위원장은 대한건축학회 송종석회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오운동(전임 대한건축사협회회장), 박돈서(아주대부총장), 김종홍(한국은행기술고분), 강건희(홍익대교수), 허범팔(국민대교수), 장명수(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석철(아키반대표)씨가 활동했다.

수상작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상	헌법재판소	김희수	삼양건설	헌법재판소
본상	학동 수출당	송효상	김연도	유종준
	서대선동 주택	김영진	신건수	정연태
우수상	이화여대 행정관	정립건축	현대건설	이화여대
	국립부여박물관	한효봉	삼부토건	부여박물관
입선	신도리코 기술사	민현식		
	EXPO 선경창의관		선경건설	
	홍은동 동아빌라	성구윤	동아건설	
	평창농 주택단지	장기성	현대건설	
	창원 관용농 주민회관	허정도	이부동	
	EXPO 테크노피아관	장소진	박기개발	
	EXPO 정부관	신언학	삼익건설	
	기독교 방송국	정립건축	롯데건설	
	삼양그림연구소	정립건축	삼부토건	
	마봉동고해육관	오기수	안철홍	
신원월드 C.C	시원식	신원건설		
입선 우방아파트	이영희	삼일주택공사		
삼일주택		우방주택		
공모상	송민구(송·수부 종합건축사사무소)			

93년도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발표

93년도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가 10월 20일 부산직할시 건축사회를 필두로 개최된다.

각 시·도 건축사회별 총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회	일시	장소	비고
서울	10.28(목) 13:30	본협회 대강당	미정
	10.20(수) 10:00		
	10.29(금) 09:00		
부산	10.29(금) 10:30	광주건축사회관	미정
	10.27(수) 10:00		
대구	10.27(수) 10:00	중구프린스관광호텔	미정
	10.27(수) 10:00		
인천	10.29(금) 10:30	청주보양관광호텔	미정
	10.29(금) 10:30		
광주	11.4(목)	미정	미정
	10.22(금) 11:00		
대전	10.28(목) 11:00	경수합튼호텔	미정
	10.28(목) 11:00		
강원	10.29(금)	경남건축사회관	미정
	10.29(금) 15:00		
충청	10.29(금)	여니관광호텔	미정
	10.29(금) 15:00		

일본건축사, 대전건축사회 방문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시지부(지부장 오사와미노루) 건축사 20명이 지난 9월9일 대전건축사회를 방문하였다.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

정으로 방문한 이 방문단은 '93 대전EXPO 및 대덕연구단지 등을 관람하는 한편, 대전건축사회와의 연례회의 등을 통해 상호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광주건축사회, 설악산 등반대회 개최

광주건축사회(회장 김덕수)에서는 지난 9월2일부터 4일까지 회원 18명이 참석, 설악산 등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광주시회 등산동호회를 통해 실시됐다.

제주도건축사회, 불우 이웃돕기 참여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김수현)에서는 '93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제주도치과의사회 등 3개단체와 함께 제주해양경찰서를 방문, 위분품을 전달(9월 24일)하

고, 제주시 불우이웃돕기 위문창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30만원)을 전달(9월27일)했으며, 결연아동양육비(14만4천원)를 한국어린이재단에 입금(9월28일)시켰다.

건축사 관리업무 등 구청에 대폭 위임

서울시는 지난 9월26일 그동안 본청이 직접 담당하던 건축사관리업무가 각 구청으로 대폭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임개정조례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관련 신규위임된 업무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및 정수 등 건축사관리업무 대부분이다.

정부 행정전산망 이용 안내

회원 여러분의 업무활동에도움을 주고자 총무처 행정전산망 컴퓨터전화번호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컴퓨터에 Modem

설치) 725-7541~9

• 입력번호: CAIS

• 이용정보: 법령정보 등 일부 민원사항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연구소(담당: 한성남)